

세월과 함께 한 수원의 옛 문서

세월과 함께 한 수원의 옛 문서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contents

제18권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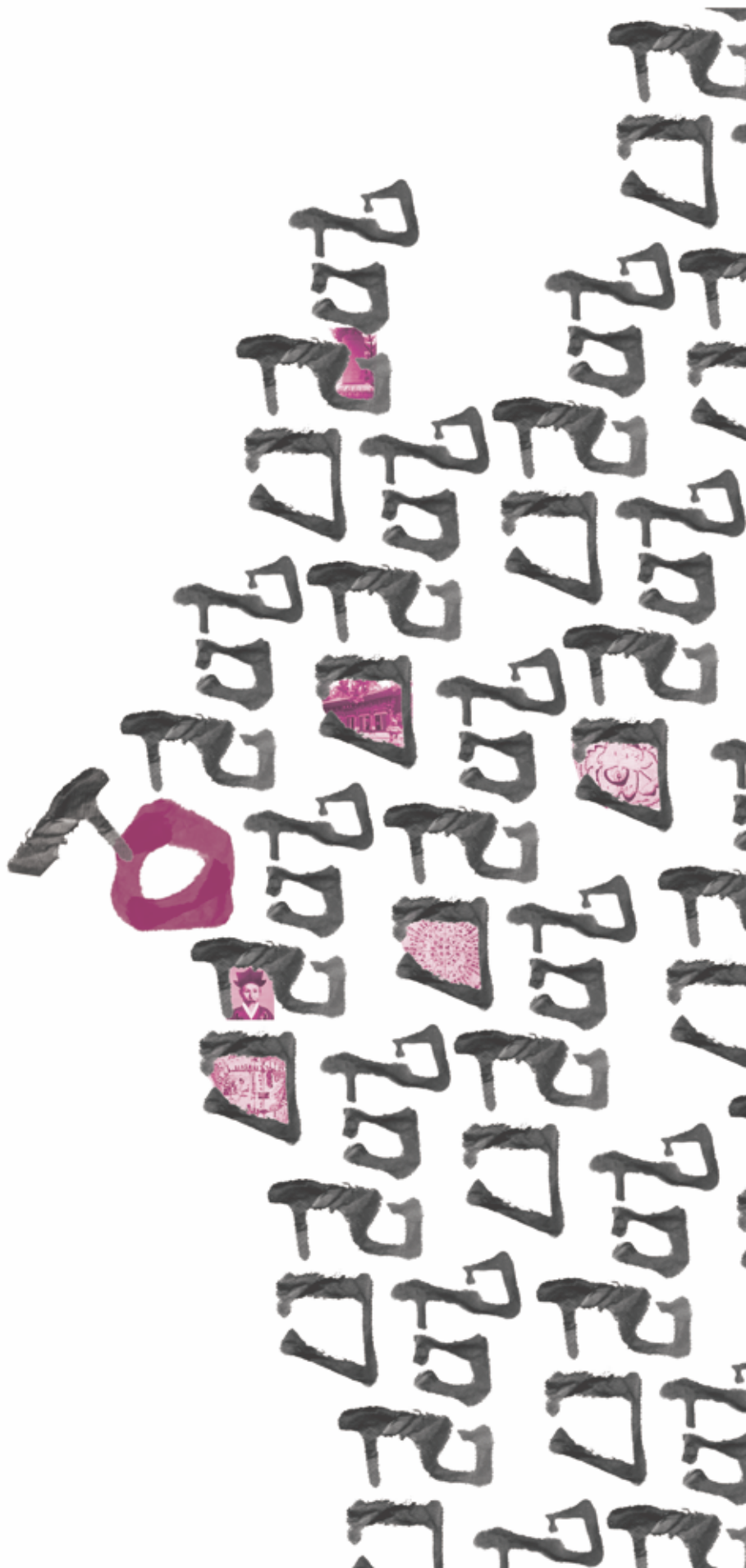
제1부	수성 최씨가 오백 년 종가宗家를 지킨 사람들	
	수성 최씨가 사람들	006
	가문의 영속永續을 위하여	012
	옛 문서로 본 수성 최씨가	018
제2부	화령전을 수호한 밀양 손씨가	
	밀양 손씨, 수원에 터를 잡다	066
	정조의 어진을 모신 화령전의 수문장	072
	옛 문서로 본 밀양 손씨가	074
제3부	수원을 본관으로 삼은 차씨가, '팔부자'의 명성을 얻다	
	수원 화성과 함께 성장한 차씨가, '수원'을 본本으로 삼다	102
	수원 '팔부자'의 명성을 얻은 차씨가, 지역의 근대적 변화를 이끈다	107
	옛 문서로 본 수원 차씨가	110
제4부	해주 오씨 추탄공파의 수원 정착과 오성선의 농촌진흥사업	
	해주 오씨 추탄공파의 분파와 이거	164
	“농촌 개발의 선구자, 빈농 구제의 아버지 오성선”	174
	문서로 본 해주 오씨가 : 농촌진흥과 근대적 농업을 위하여	182
부록	가문별 소장자료 목록	
	수성 최씨가 소장자료 목록	252
	밀양 손씨가 소장자료 목록	256
	연안 차씨가 소장자료 목록	258
	해주 오씨가 소장자료 목록	263



세 월 과 함 께 한 수 원 의 옛 문 서

제1부

수성 최씨가 오백 년
종가宗家를 지킨 사람들



수성 최씨가 사람들

수성 최씨(隋城 崔氏)는 수원(水原, 隋城, 水州)을 본관으로 하며, 시조는 최영규(崔永奎)이다. 최영규는 신라 경순왕 김부의 후손으로, 1261년(고려 원종 2)에 문과에 올랐으며, 충렬왕 때 수주(水州) 일대의 퇴폐한 풍속을 바로잡은 공으로 수성백(隋城伯)에 봉(封)해지고 수주를 채읍(采邑)으로 받았으며 최씨 성을 하사받았다. 수성 최씨는 고려 말부터 이천 서씨, 여흥 민씨, 연일 정씨 등 명문가와 혼인을 하며 중앙 진출을 시도했으나, 그 뒤로는 수원 차씨, 수원 백씨 등과 통혼을 통해 점차 수원에 정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성 최씨의 수원 정착 시기는 고려 말 조선 초로 볼 수 있다.

매송면(梅松面)에는 문혜공(文惠公) 최영규와 정경부인 이천 서씨(利川 徐氏)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화성시 향토유적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시조 묘가 있는 숙곡리(肅谷里)에 2세 최흡(崔洽), 3세 최원개(崔元凱), 4세 최책(崔策)까지 세거하며 묘역을 조성하였다.



문혜공 최영규와 정경부인 이천 서씨 묘역, 최영규 신도비

5세 최경崔溍이 세조 대에 평택시 도일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후손들이 정착하였다. 최경은 수성군隋城君 최유림崔有臨과 최유용崔有容·최유항崔有恒·최유근崔有根 네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 중 막내아들 최유근의 묘역이 양감면 송산리에 조성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평택시에 묘역이 조성되었다. 큰아들 최유림은 계유정난癸酉靖難에 참여하여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올랐고, 이후 이시애李施愛(?~1467)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적개공신敵愾功臣에 녹훈되었다. 최유림의 처는 진주 소씨晉州 蘇氏인데, 진주 소씨 집안은 독곡동, 오좌동五佐洞 마을과 송탄동 막곡의 수성 최씨, 도일동의 원주 원씨, 칠괴동의 청주 한씨와 혼맥을 형성하였다. 진주 소씨는 수성 최씨 집안이 평택에 이거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후손들은 이야기한다.

현재 종택이 위치한 오좌동으로 이거한 것은 최윤신崔潤身의 아들 최자반崔子泮 때이다. 『수성 최씨대동보』는 최자반의 효성이 지극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부친 최윤신이 죽자 6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의 효성에 감동한 산신령이 힘이 되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시묘살이를 마친 뒤에 오좌동을 개척하고 마을 뒷산에 정자를 지어 학자들과 교유하고 후학을 가르치며 평생을 보냈다고 한다. 이처럼 최자반의 효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좌동의 문중설화로 전해 온다.

최희효崔希孝는 최자반의 아들로, 1540년(중종 35)에 광주판관光州判官에 올랐다. 그는 젊고 무재武才가 있어 내지內地 수령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체직遞職되었다가 명종 대에 중망重望을 얻었으며, 1557년(명종 12)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를 역임하였다. 최희효는 1573년(선조 6)



최유림 사당과 묘역

해주목사海州牧使에 제수되는 등 꾸준히 관직에 진출하였다. 최창운崔昌運은 1651년(효종 2)에 신묘辛卯 별시別試 병과丙科 17위로 무과에 합격한다. 그는 무과에 합격하기 이전에 공신의 자손들로 구성된 충좌위忠佐尉 소속 군대의 하나인 충의위忠義衛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충의위는 조선시대 병종兵種의 하나로, 1418년(세종 즉위)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3공신의 자손들을 입속入屬시키기 위해 설치한 양반 숙위군이었다. 3공신 자손의 군역을 대체하고, 관료 진출상의 특권을 베풀어 주기 위해 마련한 병종이다. 충의위의 가장 큰 특혜는 과거와 입사로에 있었다. 성균관의 생원·진사 들은 원점原點 300점을 받아야 문과 초시인 관시館試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충의위에 입속한 생원·진사들은 100~150점만 받으면 가능하였다. 문과에 합격하는 것보다 충의위를 통하는 것이 출세가 빨랐으므로 생원·진사들은 여기로 몰렸고, 최창운도 관직 진출에 특혜를 받았다.

수성 최씨는 6세 최유림崔有臨, 13세 최정발崔正發과 최후발崔厚發, 14세 최창운崔昌運과 최형운崔亨運, 15세 최진한崔鎭漢, 20세 최원영崔元榮이 무과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무반집안이다. 수성 최씨 집안은 최경 이후 최유림, 최자반으로 이어지면서 가계를 탄탄히 하고 가문의 입지를



수성 최씨 대종가

확고히 하였다.

지금까지도 대종손인 25대 최원우崔源佑(1932년생)가 평택시 독곡동(옛 진위현 탄현면 오좌동) 종택을 지키면서 거주하고 있다. 5세 최경이 이곳으로 입향한 이후에 50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킨 것이다.

수성 최씨 가계와 세거지, 분파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수원최씨대동보 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 편찬위원장과 사무국장, 종손 최원우 및 후손 최원진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수성 최씨는 수성군파隋城君派, 가산공파嘉山公派, 찬성공파贊成公派, 남원공파南原公派, 부사공파府使公派, 유수공파留守公派, 통정공파通政公派, 한림공파翰林公派, 개령공파開寧公派 등 9개 분파를 이루고 있다. 각 분파별로 분포지를 살펴보면 수성군파는 평택시 독곡동, 향남면 백토리·길성리, 양감면 신왕리, 봉담면 와우리, 가산공파는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찬성공파는 화성시 일원, 남원공파는 화성시 양감면, 부사공파는 수원시 매탄동, 유수공파와 통정공파는 양주시·포천시 일대, 한림공파는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개령공파는 정남면 보통리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한림공파는 수원, 화성 일대에 분포하는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원안리·조암리, 장안면 독정리, 봉담읍 왕림리, 정남면 제기리·보통리, 수원시 우만동 등에 거주하고 있다.

수성 최씨 수성군파 오좌중증梧佐宗中 세계도





가문의 영속永續을 위하여

수성 최씨는 현재 대종손이 대종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에 수성군 최유림 사당(평택시 독곡동 263-1)과 선영이 있다. 수성 최씨가 소장자료로는 족보, 종계 운영 관련 자료, 교지, 토지매매문서와 소송문서 등이 있다. 대부분이 족보, 수단收單, 종계좌목인데, 문중을 위한 삶을 살았던 종가집의 모습을 보여 준다.

수성 최씨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1760년(영조 36)에 간행된 『수성최씨세보隋城崔氏世譜』(3책)로 경진보庚辰譜라고도 한다. 1849년(헌종 15) 전기유보前己酉譜, 1909년, 1927년, 1957년에 세보·족보·대동보라는 이름으로 차차로 간행되었다. 또한 1921년 발간된 『김씨신라세보』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라 경순왕의 후예라는 뿌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수성 최씨 집안 족보를 제작하기 위해 1924년과 1956년에 작성된 지역별 수단초收單抄가 있다. 족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고 확인 도장을 찍었으며, 정유보 편찬을 위한 영수증철을 꼼꼼하게 소장하고 있으며, 수성최씨대동보소의 정유보 편찬 관련 세입세출 내역서 장부를 보관하고 있다.



1849년(헌종 15)에 간행된 『수성최씨족보隋城崔氏族譜』(총 7책)



가전 족보



수정 최씨 정유보(1957) 수단
족보族譜를 만들기 위해서 문중의 일원들의 이름을 쓴 단
자單子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단收單이라 하는데, 그 단자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수정 최씨 정유보(1957) 제작을 위
해 각 지역별로 작성된 총 30책의 수단이다.



보책譜冊 봉안奉安 선납금 영수증철
1957년 수정최씨대동보소隋城崔氏大同譜所에서 수정 최
씨 정유보丁酉譜 편찬을 위한 영수증철이다. 도유사都有
司, 부유사副有司, 총재總財 등의 직책을 두어 족보 편찬
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종계좌목』(1886)

이와 함께 문중 운영을 위한 종계자료가 있는데, 1886년 『종계좌목宗稷座目』과 1941년 『참의
공과參議公派 신설종계좌목新設宗稷座目』이 있다. 1886년 『종계좌목』은 필사본 1책으로, 앞부분
에는 종계를 결성하게 된 이유를 적은 『종계좌목』 병서并序가 있다. 수정 최씨의 중조 용성군龍城
君 최자반崔子泮의 재실齋室 마련과 제사를 위해 조직된 종계에는 종손 최기익崔基益 등 12호가 참

여하고 있다. 표지에 ‘丙戌 至月 念五’라는 연기가 쓰여 있는데, 1886년(고종 23) 11월 25일이다. 종계 운영의 내용은 1919년까지 들어 있다.

종계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데에 드는 비용을 모으기 위해 결성한 계를 말하고, 좌목은 종계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적은 것이다. 종계는 제사뿐만 아니라 문중 인물의 묘비(墓碑)나 재실(齎室) 등을 세워 문중의 위세를 드러내는 사업도 추진하는 등 조선시대에는 많은 문중의 종계가 결성되어 운영되었다.

『종계좌목』(1886) 구성

구분	내용	
서문	(오좌동) 부산(釜山)은 8세 용성군(崔性君)의 옷과 신발(衣履)을 묻은 곳으로, 세습된 지 400여 년이 되어 숙부의 제안으로 미(米) 1두(斗)씩을 거두어 계를 만들었는데 10여 두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종원(宗員)들에게 종계를 시작하여 재실을 만들고 제사를 받들고자 함.	
좌목	一. 여러 자손들이 각기 미(米) 1두씩을 배정할 일 一. 자손 중에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단호하게 태벌(笞罰)을 가할 것 一. 자손에게는 식리(殖利)를 불허할 것 * 종미(宗米) 수합(收合) 8석 5두 4승, 미수(未收) 3석 9두 2승, 당년(當年) 제수(祭需) 7석 5두 4승는 12호가 윤회봉사(輪回奉祀)함.	
종원 명단과 종계 운영의 추이	1차 : 丙戌, 1886년 추정	종손 崔基益, 崔基豐, 崔基復, 崔洵和, 崔光和, 崔東和, 崔行和, 崔斗和, 崔時和, 崔命和, 崔承謨 등 12명(주기 6명 사망)
	6차 : 辛丑, 1901년 10월 25일	승(米) 10석 1두 3승 내 紙泡(價) 6승 除, 實 10석 7승. 종원 崔聖寬 등 22명(他姓 3명 포함)이 3두에서 12두까지 각출함.
	7차 : 壬寅, 1902년 10월 29일	승(米) 5석 2두 5합 分給. 酒(價) 15냥 除, 實 70냥. 崔聖老 45냥 用. 同日 米代錢 90냥 내 崔周甫 50냥 用. 종원 16명
	8차 : 癸卯, 1903년 10월 5일	승(米) 6석 11두 7승 4합 내 祭收(需) 米 40두 際[除], 竄追(米) 1두 5승 際[除], 實奉(米) 4석 10두. 종원 14명 錢 262냥 5전 내 酒價 60냥 際[除], 午食 錢 10냥 狗價 40냥 際[除], 實 151냥 5전. 崔周甫 50냥+宗孫宅 30냥
	9차 : 甲辰, 1904년 10월 20일	收捧(米) 4석 6두 5승 3합 내 趙德元 代錢條 10두 除, 收捧(米) 1석 4두 2승 5합 各紛[分]給, 實 51두 2승 8합 分給事. 종원 10명
	10차 : 甲辰, 1904년 10월 25일	收捧(錢) 666냥 7전 5분 내 酒紙價와 敬炷 扶助條 404냥 5전 除, 實 562냥 2전 5분 分給. 종원 5명
	11차 : 乙巳, 1905년 10월 그믐	收捧(米) 2석 10두 1승 2합 내 竄追(米) 1두. 종원 10인. 收合(錢) 843냥 3전 5분 내 宗中 200냥 除之, 酒價 50 除, 實(錢)文 593냥 3전 5분 分給事
	12차 : 丙午, 1906년 10월 14일	收合(錢) 890냥 내 酒價 50냥 除之, 宗中 200냥 除之, 實(錢)文 520냥 分給事. 종원 12명
	13차 : 丁未, 1907년 10월 26일	收捧(錢) 1,005냥 내 宗孫宅 50냥 除, 實(錢)文 905냥 分給事. 종원 8명
	14차 : 戊申, 1908년 11월 14일	收捧(米) 16두 都家 付 竄追(米) 1두. 종원 3명
	15차 : 己酉, 1909년	未收捧 2명, …… 實(錢)文 1,270냥 分給事

구분	내용	
종원 명단과 종계 운영의 추이	16차 : 庚戌, 1910년 11월 9일	公會時 收合錢 2,030냥 내 祭需條 950냥 兩處 分給 75냥, 狗飯米價 除給, 卽日 酒飯米價 米 1두 7승 5합 除, 餘 文 1,005냥 式[殖]利次 分給事. 종원 10명. 利 2 석 6두 2승 3합 7승
	17차 : 辛亥, 1911년 10월 30일	計文 1732냥 5전. 米 2석 9두 2승 3합 7승
	18차 : 壬子, 1912년 12월 4일	公會時 收合錢 2,598냥 7전 5푼, 收合米 □석 14두 □□, 實捧錢 1,590전 7전 5푼 分給, 1,000냥 祭需條 除. 종원 9명
	19차 : 癸丑, 1913년 10월 25일	公會時 收合錢 1,890냥 5전 內 酒價 60냥 除, 祭需條 700냥 除, 昨年祭需條 400냥 除, 實(錢文) 735전, 收米 5석 10두 1승 分給. 종원 8명
	20차 : 甲寅, 1914년 10월 25일	秋公會時 收合錢 926냥 …… 종원 7명
	21차 : 丙辰, 1916년 11월 5일	收合錢 200냥, 酒價 20냥 除, 實文 □□ 90전 出給事
	22차 : 丁巳, 1917년 10월 29일	收合文 800냥 內 酒紙價 75냥 除, 路費條 24냥 訖 實文 701냥 出給事. 종원 4명
	23차 : 戊午, 1918년 10월 15일	收合文 1,260냥 2전 5푼. 종원 3명
	24차 : 己未, 1919년 10월 일	종원 3명. 崔恒和 并利本 770냥 6전, 崔承玉 并利本 1,127냥 20전 5푼, 崔謙和 并利本 2,971냥 5전

또한 일제시기 『참의공파 신설종계좌목』 필사본 1책이 남아 있다. 이 종계 좌목의 앞부분에는 신사년(1941)의 제수발기祭需發記와 최승화崔昇和가 작성한 종계宗契 서문序文이 있다. 계원은 종손 최완희崔完禧를 포함하여 36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이후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종계원들에게 걷은 금전과 백미 등의 물품 금액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 수성 최씨가에는 주로 고신류와 준호구 그리고 토지매매명문 등이 남아 있다. 먼저 고신으로는 17세기 중기 최창운의 고신부터 1904년 최기익의 고신까지 30건이 남아 있고, 준



『참의공파 신설종계좌목』(1941)

庚子年十二月 日 張成錄

考甲子歲籍戶口帳內定境而第二里各法洞等五統等五戶通訓大夫前行遜女郎等崔昌運年六十一甲子生奉水
原父梁繼將軍行忠佐衛副司勇為故祖禮卿生貧士恂曹祖通訓大夫行司營院判官慶淑母李氏年八十一甲辰生籍
龍仁外祖通訓任郎社役署奉奉崇仁妻奉氏年六十一甲子生龍河陰父學生統祖中宣大夫行軍資監主簿改吉昌祖
梁繼將軍行忠佐衛副司勇為故祖禮卿生貧士恂曹祖通訓大夫行司營院判官慶淑母李氏年八十一甲辰生籍
春子三十九丙戌生奉高靈增通德郎題日繼年三十一乙未生奉平曠女崔氏年三十六己丑生女崔氏年三十一乙未生孫瑞
徽年十四辛亥生事以無作年二十八丁酉生父私叔破母崔氏年十八丁未生父母上全婢甘之年五十三乙
中生改姓叔同伊世良女金花婢春月年二十四辛丑生父私叔破母崔氏年十八丁未生父母上全婢甘之年五十三乙
松婢鋪乙有婢者丁年十五庚戌生父私叔破母崔氏年十八丁未生父母上全婢甘之年五十三乙
今年四十二前生父母上全婢禮先年三十八亥生父私叔千星母松婢鋪乙介遊改姓松婢鋪乙介遊改姓松婢鋪乙介遊
年遊改卜伊年六十七戊午生庚子年遊等年面石口准給看

縣令

准



호구는 1684년 최창운, 1693년 최진원, 1732년과 1745년 최은대, 1822년 최석의 준호구 등 5건이 남아 있다.

준호구에는 138년 동안의 가계 변화와 노비 현황이 나타나 있다. 수성 최씨 종가 노비는 솔거노비, 외방노비, 도망노비로 구분하고, 노비 이름, 나이, 출생연도를 표기한 후 부모의 신분과 이름을 기록하였다. 노비 중에는 3대에 걸쳐 최씨 집안에서 가내노비로 일하는 사례가 존재하기도 한다. 비婢 감지甘之와 아들 무작無作과 봉월奉月 부부 그리고 손孫 정민丁民과 임녀壬女가 그 예이다. 감지가 무작과 말립謫立을 낳았고, 무작은 같은 가내노비인 봉월과 혼인을 통해 정민丁民과 임녀壬女를 낳았다. 1707년에 정민이 도망치고 나서도 가족들은 여전히 최씨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비들은 반노叛奴, 반비班婢, 사노私奴, 사노寺奴 등 존재양태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노비의 획득 과정은 무작의 경우처럼 전례비 또는 가내노비로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정매丁買와 정덕丁德처럼 매득하는 경우, 일천즉천一賤則賤에 의해 노비와 양인의 결혼을 통해 생산된 노비가 있다.

한편 17~18세기는 도망노비가 증가하는 시점으로, 수성 최씨가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684년 준호구에도 도망노비가 확인되나, 1693년 이후 도망친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1732년경에는 그 수가 17명에 이르렀다. 집안에서 운영하는 노비는 1732년을 전후로 급감하여 1745년에는 한 명밖에 없었다. 1732년과 1745년 준호구에는 도망노비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수성 최씨 준호구는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기에 수성 최씨 노비 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준호구를 통해서 최씨 집안 노비의 숫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준호구에 나타난 노비 숫자

연도	솔노비		도망노비		계
	노	비	노	비	
1684년	2	7	1	1	11
1693년	4	6	1	2	13
1732년	0	0	11	6	17
1745년	1	0	9	6	16
1822년	3	0	0	0	3

옛문서로 본 수성 최씨가



준호구

1-1-1 | 振威縣令-崔昌運 | 康熙 23
(숙종 10, 1684)

강희康熙 23년 갑자년(1684)에 진위현 振威縣에서 통훈대부전행수안군수通訓大夫前行遼安郡守 최창운崔昌運(61, 갑자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최창운의 주소지는 탄현면炭峴面 제2리第二里 오좌동吾佐洞 제5동 제5호이다.

최창운의 아버지는 어모장군행충좌위 부사용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 최준발崔雋發, 조부는 예부禮部 생원生員 최사순崔士恂, 증조부는 통훈대부행사옹원판관通訓大夫行司養院判官인 최경숙崔慶儻이다. 어머니 용인 이씨龍仁 李氏는 갑진생(81세)이며, 외조부는 증장사랑사직서참봉贈將仕郎社稷署參奉 이승인李崇仁이다. 처 하음 봉씨河陰 奉氏는 갑자생으로 나이 61세이다. 아버지는 학생 봉빈奉愼이고, 조부는 중직대부행군자감주부中直大夫行軍資監主簿 봉여길奉汝吉, 증조는 어모장군행충무위부호군禦侮將軍行忠武衛副護軍 봉지奉祉, 외조부는 통선랑행동몽교관通善郎行童蒙敎官 최복립崔復立이며 본은 전주이다. 최창운의 자식들로는 아들 통덕랑通德郎 최진원崔鎭遠(19, 병오생),

사위는 본관이 고령高靈인 통덕랑 박재춘朴在春(39, 병술생)과 본관이 평양平壤인 통덕랑 조일혁趙日赫(30, 을미생)이 있다. 기축생과 을미생인 딸 2인이 기록되어 있다. 손자로 서정瑞徵(14, 신해생)이 있다.

노비는 11구口로 솔노비는 9구口, 도망노비는 2구口이다. 솔노인 무작無作(28, 정유생)의 부는 사노私奴 파회파회이며, 모는 반비班婢인 감지甘之이다. 노비 말립말立(18, 정미생)의 부모는 무작과 같다. 비는 총 7구口다. 비 감지甘之(53, 임신생)는 부가 반노동이同伊, 모는 양인 애화愛花이다. 비 봉월奉月(24, 신축생)은 부가 사노인 점이點伊, 모는 반비인 점춘占春이다. 비 경옥京玉(25, 경자생)의 부명은 알 수 없으나, 모는 사비 설향[鑄乙香]이다. 비 자근장者斤丁(15, 경술생)은 부가 사노 평립平立이고, 모는 사비 업녀業女이다. 비 녹이綠伊(42, 계미생)는 부가 사노寺奴 응립應立이고, 모는 반비 말매말매이다. 비 녹금錄今(40, 을유생)의 부모는 말매와 동일하다. 비 예선禮先(38, 정해생)은 부가 사노 천리千里이며, 모는 사비 설개[鑄乙介]이다. 도망노비는 2구口로, 비 난금蘭今(74, 신해생)은 1628년 무진년에 도망을 갔고, 노비 복이卜伊(67, 무오생)는 경자년인 1660년에 도망을 갔다.

진위현은 현재 평택 지역으로 수성 최씨의 종택과 선산이 조성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현령의 수결手決과 5개의 관인官印, 틀린 곳이 없다는 뜻으로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란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 상단이 결락되었으나 내용은 거의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준호구

1-1-2 | 振威縣令-崔鎮遠 | 1693년(숙종 19) 추정

1693년 작성된 준호구로 진위현에서 고故 군수郡守 최창운의 아들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이름을 개명하여 진원鎭遠이라 하였다. 최진원의 주소지는 탄현면 오좌동 제4통 내의 제5호이다.

부친은 황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黃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를 지낸 창운이며, 조부는 어모장군행충좌위 부사용禦侮將軍行忠左衛副司勇 최준발崔雋發, 증조부는 예부禮部 생원生員 최사순崔士恂이고, 외조부는 학생 봉빈奉珽이다. 어머니 하음 봉씨河陰 奉氏는 갑자생으로 나이 70세이다. 처 송씨宋氏는 진천鎭川을 본관으로 하며, 병오생이다. 처의 부는 학생 송홍규宋弘規, 조부는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송윤宋琿이며, 증조부는 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로 추증받았고, 외조는 박취문朴就文으로 본관이 고령高靈이다. 가족으로는 매부妹夫 조일혁趙日赫(39, 을미생)과 여동생(39, 을미생)이 있다.

노비는 총 13구口가 있는데, 솔노비率奴婢는 10구口이고 도망노비逃亡奴婢는 3구口이다. 솔노비는 다 음과 같다. 노 무작(37, 정유생)은 부가 사노私奴 파회破回이며, 모는 반비班婢인 감지甘之이다. 비 감지甘之(63, 임신생)는 부가 반노 동이同伊, 모는 양인 애화愛花이다. 비 봉월奉月(33, 신축생)은 부가 양인 점이點伊, 모는 반비班婢인 점춘占春이다. 비 세단世端(24, 경술생)은 부가 사노이다. 비 임녀壬女(12, 임술생)는 부가 반노 무작이고, 모는 반비인 봉월이다. 비 녹금錄今(49, 을유생)은 부가 사노寺奴인 응립應立이고, 모는 반비 말매厓梅이다. 노 녹이錄伊(51, 계미생)의 부모는 녹금과 동일하다. 노 아무개의 부는 양인 세영世英이고, 모는 반비 녹금錄今이다. 노 만두萬斗(20, 갑인생)는 부를 알 수 없고, 모는 반비 계향桂香이다. 노 영필英必(16, 무오생)은 부가 사노 실이實伊, 모는 반비 벌어지伐於之이다. 비 자근정者斤丁(24, 경술생)은 부가 사노 평립平立, 모는 사비 업녀業女이다. 도망노비는 총 3구口이며, 비 난금難今은 1618년 무진년에 도망을 쳤고, 노 복지卜只是 경자년인 1660년에, 노 말립耑立은 1686년 병인년에 도망쳤다.

振威縣

地屬

吾族同第云統教自叔

統西第五

郡守崔昌運代

書改館驛年二十八

公

州軍管兵馬同倉郎制使昌運祖獻海將軍行忠法衛副司勇高發曾祖禮部生員士恂外祖學生奉統本河陰母奉

丙午生籍鎮川父學生祖規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既曾祖增嘉善大夫戶曹參判黃同知義基府

軍朴就表表高靈華妹夫趙日燦年三十七乙未生本平壤妹崔氏年三十九乙未生率奴無年三十五

年六十二壬申生父壯奴周伊母良女愛花婢奉日年三十三辛丑生父良人熙伊母壯婢古春婢世端年二十四庚戌生父

壬午年十二壬戌生父壯奴無作母壯婢奉日婢錄今年四十九乙酉生父奇奴應立母壯婢亮梅奴素伊年五十一癸未生父母

良人母英母壯婢素令奴萬年二十甲寅生父名不知母壯婢桂香奴英年十六戊午生父私奴宗伊母壯婢茂松之婢者

母私婢素女進奴婢株婢難人成表進奴卜六庚子進奴表立丙寅進庚年戶口簿給者



준호구

1-1-3 | 振威縣監-崔殷大 | 雍正 10(영조 8, 1732)

옹정雍正 10년 임자년(1732)에 진위현에서 유학幼學 최은대(44, 기사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최은대의 주소지는 탄현면炭峴面 제2 오좌동리吾佐洞里 제10통 제2호이다.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는 통덕랑通德郎 최진원이고, 조부는 통훈대부행수 안군수通訓大夫行遂安郡守, 황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黃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최창운이다. 증조는 증통정대부병조참의贈通政大夫兵曹參議 최준발이다. 외조는 학생 송홍규宋弘規이며, 본관은 진천鎭川이다. 처는 죽산 안씨竹山 安氏(45, 무진생)이며, 부친은 학생 안처정安處貞, 조부는 학생 안기安錡, 증조부는 통덕랑 안덕운安德潤이다. 외조부는 학생 박면행朴勉行으로, 본관은 밀양이다.

도망한 자가 총 17구口인데, 노가 11구口, 비가 6구口나 된다. 솔비率婢 팔례八禮(56, 정사생)는 부가 사노 여일汝日, 모는 반비인 순개順介인데, 1719년 기해년에 도망을 쳤다. 비 종개種介(12, 신축생)는 부가 사노 세만世萬, 모는 반비 순례順禮이다. 비 수독愁毒과 고故 비 순덕順德(49, 갑자생)은 부가 사노 출남出男, 모는 반비 수례守禮로 갑신년인 1704년에 도망쳤다. 노 일선日先(23, 경진생)은 부가 사노 계남戒男이고, 모는 반비 팔례八禮로 1719년 기해년에 도망을 쳤다. 본현本縣 비婢 잉금仍今(53, 경신생)은 부가 반노 의현義玄, 모는 반비 예선禮先이며, 노 업선業先(32, 신사생)은 부가 양인 오용연吳龍年, 모는 반비 잉금仍今이다. 노 정민丁民(46, 정묘생)은 부가 반노 무작戊作, 모는 반비 봉월奉月인데, 1707년 정해년에 도망쳤다. 노 예남禮男(30, 계미생)은 부가 사노 일천一千, 모는 반비 줄개遯介로 1719년 기해년에 도망을 쳤다. 노 말립耑立은 정축년인 1697년에 도망을 쳤다. 사천泗川 노 못돌[墨叱石](갑인생)은 부가 양인 최세영崔世英이고, 모는 반비 녹금錄今이다. 노 봉천奉天(임술생)은 부모가 못돌과 같다. 노 못돌[割叱] (무술생)은 1708년 무자년에 도망쳤는데, 부모는 못돌·봉천과 같다. 해남海南 노 덕량德良은 나이와 부는 알 수 없으나 모는 반비 안대[內口代]이다. 노 덕민德民은 나이는 알 수 없고, 부모는 덕량과 같다. 비 난금亂今은 1685년 무진년에 도망갔다. 노 복이卜伊는 경자년인 1660년에 도망갔다.

雍正十年月 日 振威縣

考壬子成籍戶口帳內炭峴面茅二吾佐洞里茅十統茅二戶幼學崔殿大年四十四已巳生本隋城
父通德郎鎮遠祖通訓大夫行遂安郡守黃州鎮管兵馬同僉都制使昌運曾祖贈通政大夫兵曹叅
議高發外祖學生宋弘規本鎮川妻安氏年四十五戊辰生籍竹山父學生處貞祖學生錡曾祖通德
郎德潤外祖學生朴勉行本密陽率婢八禮年五十六丁巳生父弘叔汝日母班婢順介己亥逝婢種介
年十二辛丑生父弘叔世萬母班婢順禮婢慈壽故婢順德年四十九甲子生父弘叔出男母班婢守禮甲
申逝叔日先年二十三庚辰生父弘叔戒男母班婢八禮己亥逝本縣婢苟令年五十三庚申生父班叔義玄
母班婢禮先叔業先年三十二辛巳生父良人吳龍年母班婢苟令叔丁民年四十六丁卯生父班叔茂作
母班婢秦月丁亥逝叔禮男年三十癸未生父弘叔一千母班婢澆介己亥逝叔茂立年生丁丑逝泗
川叔墨石年甲寅生父良人崔世英母班婢景令叔奉天年壬戌生父母上同叔烈危年戊午生
戊子逝父母上同海南叔德良年不知父不知母班婢中代叔德民年不知父母上同婢乱令
戊辰逝叔卜伊庚子逝己酉戶口相准者

行縣監

下



준호구

1-1-4 | 振威縣令-崔殷大 | 乾隆 10(영조 21, 1745)

건륭^{乾隆} 10년(1745)에 진위현에서 유학 최은대(56, 기사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주소지는 탄현면^{炭峴面} 오좌동리^{吾佐洞里}이다.

부는 통덕랑^{通德郎} 최진원이고, 조부는 통훈대부행수안군수^{通訓大夫行遂安郡守}, 황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黃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최창운이다. 증조는 증통정대부병조참의^{贈通政大夫兵曹參議} 최준발이다. 외조는 학생 송홍규^{宋弘規}이며, 본관은 진천이다. 최은대의 장자는 최실^{崔實}(26, 기해생)이고, 차자는 최용^{崔容}(23, 임인생)인데 양자로 갔다. 최실의 처는 이씨(28, 정유생)이고, 본관은 전주이다. 최용의 처 이씨(23, 임인생)는 본관이 용인이다.

집안 노비는 모두 16구^口인데, 외방노 1구^口와 15구^口의 도망노비가 있다. 솔비^{率婢} 팔례^{八禮}(정사생)는 부가 사노 여일^{汝日}이고, 모는 반비인 순개^{順介}인데 1719년 기해년에 도망을 쳤다. 비 종개^{種介}(24, 신축생)는 부가 사노 세만^{世萬}, 모는 반비 순례^{順禮}이다. 비 순덕^{順德}(61, 갑자생)은 부가 사노 출남^{出男}, 모는 반비 수례^{水禮}로 갑신년인 1704년에 도망쳤다. 노 일선^{日先}(경진생)은 부가 사노 계남^{戒男}이고, 모는 반비 팔례^{八禮}로 1719년 기해년에 도망을 쳤다. 노 지팽^{持彭}(22, 계묘생)은 부가 양인 오용연^{吳龍連}, 모는 반비 잉금^{仍今}으로 1738년 무오년에 도망갔다. 외방노^{外方奴}인 예남^{禮南}(43, 임오생)은 부가 사노 일천^{一千}, 모는 반비 줄개^{堧介}로 금화에 있다. 예남이 유일한 노비이다. 노 말립^{鹿立}은 1697년 정축년에 도망갔다. 사천^{泗川} 노 못돌^{墨叱}[갑인생]은 부가 양인 최세영, 모는 반비 녹금^{綠今}이다. 노 봉천^{奉天}(임술생)과 붓돌^{割叱}[무오생]은 1708년 무자년에 도망을 갔다. 이들은 부모가 같은 형제이다. 해남^{海南} 노 덕량^{德良}은 나이와 부친을 알 수 없으나, 모는 반비 안대^{內代}이다. 노 덕민^{德民}은 나이를 알 수 없고, 부모는 덕량과 같다. 비 난금^{亂今}은 1685년 무진년에 도망갔다. 노 복이^{僕伊}는 1720년 경자년에 도망을 갔고, 매득한 비 정덕^{丁德}(경진생)과 정매^{丁買}(9, 병진생)는 모가 반비 정덕^{丁德}이고 부는 반노 예남^{禮南}이다. 이들은 1738년 무오년에 도망갔다.

乾隆十年月日振威縣

考甲子成籍戶口帳內炭兒而第 吾佐一第 統戶幼學崔殷大年五十六已巳生本隋城父通德郎 鎮遠祖通訓大夫行遂安
郡守黃州鎮管兵馬同舍郎制使 昌運曾祖贈通政大夫兵部叅議 烏發外祖學生宋弘規 本鎮川寧子宗年二十六已亥生次
子容年二十三壬寅生出繼婦李氏年二十八丁酉生籍全州家婦李氏年二十三壬寅生籍龍仁寧輝八禮年丁巳生父私淑汝日母
班擇順介已亥逝擇種介年二十四辛丑生父私淑世萬班班擇順德年六十一甲子生父私淑出男母班擇水禮甲
申逝叔日亮年庚辰生父私淑成男母班擇八禮已亥逝叔持彭年二十二癸卯生父良人吳龍連母班擇符今戊午逝外方淑祿礼
男年四十三壬午生父私淑一十母班擇德介在於金化淑志立丁丑逝四川淑墨危甲寅生父良人崔世英母班擇綠今淑奉天
年壬戌生淑龍庵年戊午生戊子逝父母上同海南淑德良年不知父不知母班擇甲代淑德民年不知父母上全擇乱今戊辰逝
淑僕仔庚子逝買得擇丁德年庚辰生擇丁買年九丙辰生母班擇丁德父班淑礼男戊午逝辛百戶口相准者

行縣令

振威縣

준호구

1-1-5 | 振威縣令-崔哲 | 道光 2(순조 22, 1822)

도광^{道光} 2년(1822)에 진위현^{振威縣}에서 유학^{幼學} 최석^{崔哲} (58, 을유생)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주소지는 탄현면 오좌동리이다.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는 학생 최도건^{崔道健}이고, 조부는 학생 최실^{崔實}, 증조는 학생 최필대^{崔必大}이다. 외조부는 학생 이경^{李暉}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처는 결성 장씨^{結成 張氏} (51, 임진생)이며, 부는 학생 장봉환^{張鳳煥}, 조부는 학생 장한징^{張漢徵}, 증조는 장태제^{張泰濟}이다. 외조는 학생 김창주^{金昌周}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최석의 장자는 최원영^{崔元榮} (21, 임술생)이며, 최원영의 처는 안동 권씨^{安東 權氏} (27, 병진생)이다. 둘째 아들은 최의영^{崔義榮} (16, 정묘생)이며, 최의영의 처는 한양 조씨^{漢陽 趙氏} (23, 경신생)이다.

집안 노비는 3구^口이다. 솔비^{率婢} 회금^{晦今} (29, 갑인생)과 그녀의 이소생^{二所生} 노^奴 고읍생^{古邑生} (16, 정묘생), 일소생^{一所生} 수갑^{壽甲} (7, 병자생)이다.



道光二年月日振威縣

考壬午成籍戶口帳內定覲面第 五佐洞里第 統第 戶初學崔椿年五十八乙酉生本隋城父學生道健祖學生實曾祖學生 必大外祖學生李調本全州妻張氏冷五十一壬辰生籍結城父學生鳳煥祖學生漢徵曾祖學生泰濟外祖學生金昌周本光山寧子元榮年二十一壬戌生寧婦權氏冷二十七丙辰生籍安東次子義榮年十六丁卯生次婦趙氏冷二十三庚申生籍濮陽寧亦賧今年二十九甲寅生二所生次古邑生年十六丁卯生一所生有甲年七丙子生壬午戶口相準者

行縣令



고신 告身

1-2-1 | 國王-崔亨運 | 順治 17(현종 1, 1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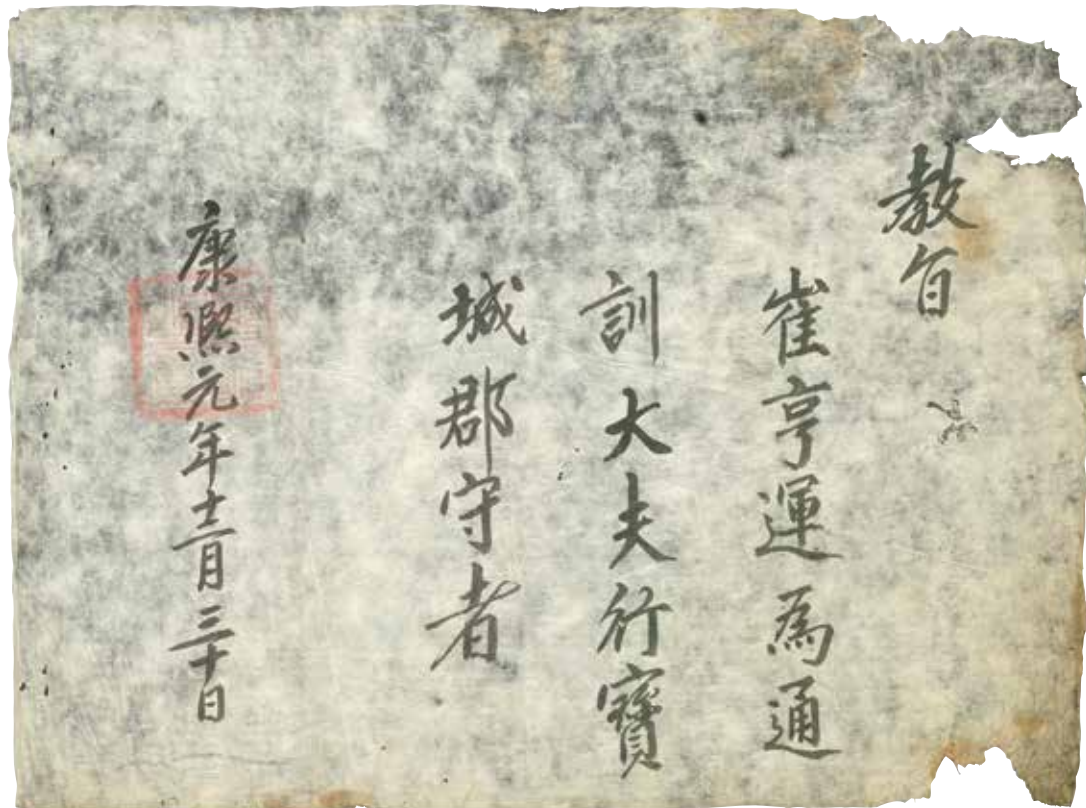
1660년(순치 17) 4월 초5일 최형운(崔亨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경상우도병마우후(行慶尙右道兵馬虞侯)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어모장군은 조선시대 정3품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로, 절충장군(折衝將軍)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병마우후는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보좌하는 종3품 외관직(外官職) 무관벼슬로 병우후(兵虞侯)로 약칭되거나 아장(亞將)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었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제도가 정립되면서 그 막료로서 도진무(都鎭撫)가 임명되었는데, 이것이 1466년(세조 12) 1월 관제(官制) 개정 때에 병마우후로 개칭되었다. 병마우후는 절도사를 도와 군기(軍機)에 참여하고 군령을 전달하며 절도사를 대신해 군사훈련이나 무기·군장 점검을 위해 도내를 순행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고신 告身

1-2-2 | 國王-崔亨運 | 康熙 元年(현종 3, 1662)

1662년(강희 원년) 12월 30일 최형운(崔亨運)을 통훈대부(通訓大夫) 보성군수(寶城郡守)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동반(東班)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며, 정3품의 하계(下階)로서 당하관(堂下官)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이다. 보성군은 전라남도에 있는 지역이고, 군수는 종4품 외관직(外官職)으로 군(郡)의 행정을 맡아 보았다.



고신 告身

1-2-3 | 國王-崔昌運 | 順治 17(현종 1, 1660)

1660년(순치 17) 9월 16일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용양위는 중앙군사 조직인 오위의 하나로 좌위(左衛)에 해당된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오군영(五軍營)이 설치됨으로써 무보직자와 다른 군영 및 여러 관청의 잡직 등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관직으로 바뀌었다. 부사과는 오위의 중6품의 관직을 말한다. 어영청초관(御營廳哨官)의 임기가 다하여 전례대로 이 관직을 받은 것이다.



고신 告身

1-2-4 | 國王-崔昌運 | 康熙 3(현종 5, 1664)

1664년(강희 3) 10월 초3일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무신겸선전관은 조선시대 선전관청에 속한 무관으로 선전관을 겸한 자를 말하며, 정3품 당상관부터 종9품까지 있었다. 주로 왕의 시위(侍衛)·전령(傳令)·부신(符信) 등의 출납과 사졸의 진퇴를 호령하는 형명 등의 임무를 맡아 본 무직승지의 구실을 하였다.



고신 告身

1-2-5 | 國王-崔昌運 | 康熙 7(현종 5, 1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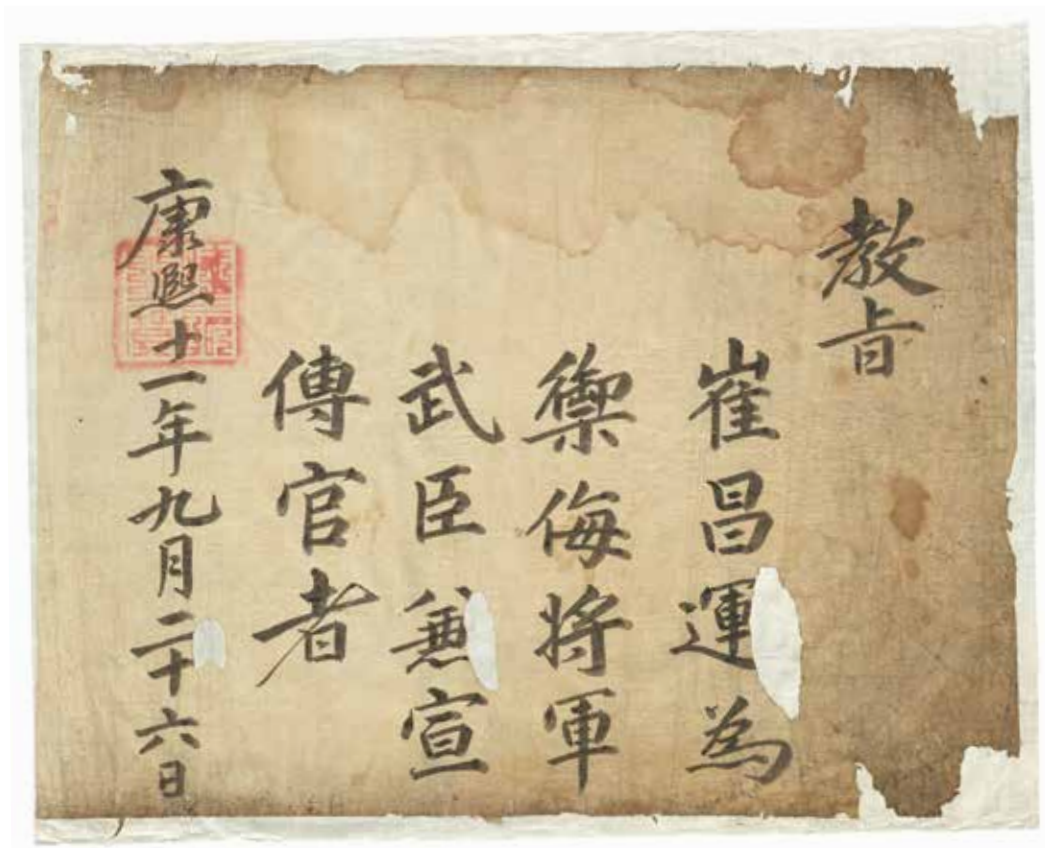
1668년(강희 7) 6월 24일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노강진수군첨절제사行老江鎭水軍僉節制使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노강진老江鎭은 평안도 안주군安州郡에 설치된 지방 군사조직이다. 수군첨절제사는 각 도 수군에 두었던 종3품 외관직 무관으로, 첨수사僉水使·첨사僉使라고도 하며 각 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휘하의 큰 진鎭을 통할하였다.



고신 告身

1-2-6 | 國王-崔昌運 | 康熙 11(현종 13, 1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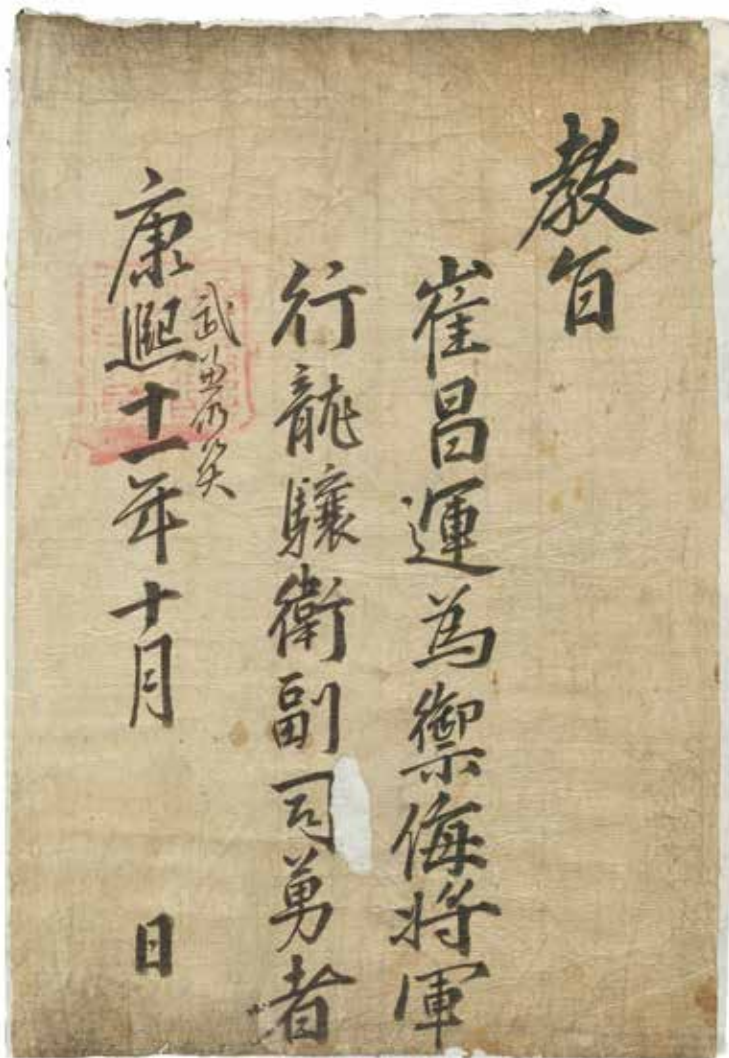
1672년(강희 11) 9월 26일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최창운은 1664년에 무신겸선전관으로 임명된 데 이어 8년 만에 이 관직에 다시 임명되었다.



고신 告身

1-2-7 | 國王-崔昌運 | 康熙 11(현종 13, 1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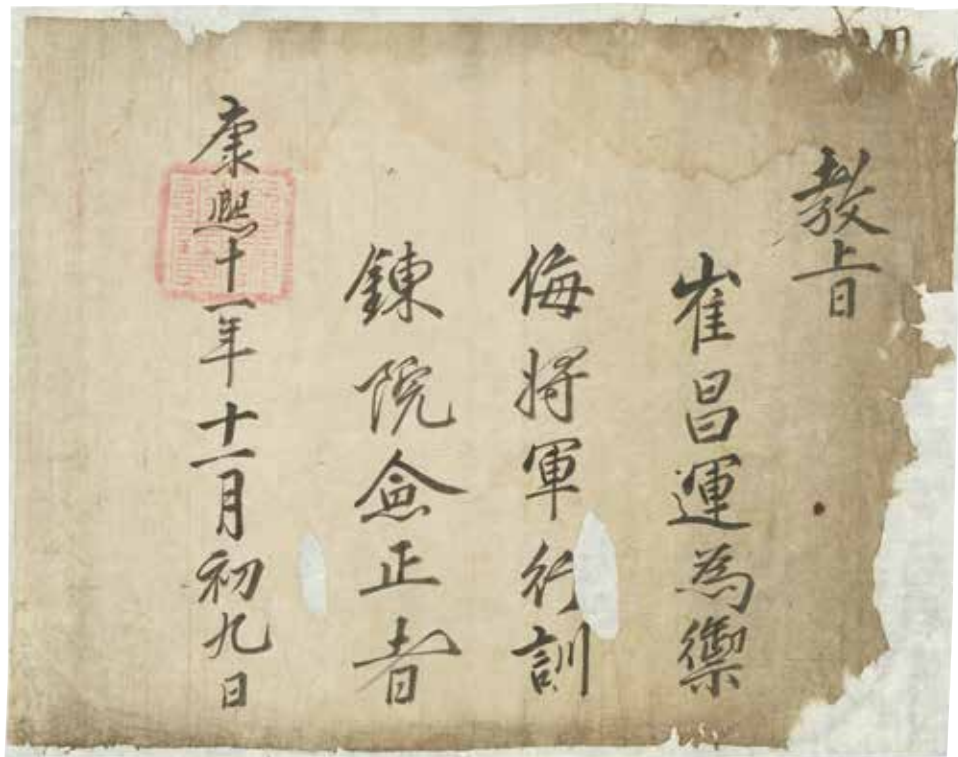
1672년(강희 11) 10월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부사용行龍驤衛副司勇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용양위는 중앙군사 조직인 오위의 좌위左衛에 해당되는데, 부사용副司勇은 오위의 종9품 관직이다.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자급은 그대로 두었다.



고신 告身

1-2-8 | 國王-崔昌運 | 康熙 11(현종 13, 1672)

1672년(강희 11) 11월 초9일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훈련원첨정行訓鍊院僉正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훈련원은 조선시대에 병사의 무재武才시험, 무예의 연습, 병서兵書의 강습을 맡아 보던 관청이며, 첨정은 정3품 당하아문堂下衙門 중 시寺·원院·감監 등의 관아에 속한 종4품 관직이다.



고신 告身

1-2-9 | 國王-崔昌運 | 康熙 11(현종 13, 1672)

1672년(강희 11) 12월 최창운 崔昌運을 황주진관 黃州鎭管 병마동첨절제사 兵馬同僉節制使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황주진관은 황해도 황주에 설치된 군사조직이며, 병마동첨절제사는 각 진의 장 將인 종4품 관직이다.



고신 告身

1-2-10 | 國王·崔昌運 | 康熙 11(현종 13, 1672)

1672년(강희 11) 12월 22일 최창운 崔昌運을 통훈대부 通訓大夫 행수안군수 行遂安郡守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동반 東班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며, 정3품의 하계 下階로 당하관 堂下官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이다. 수안군은 황주목에 있던 군으로 현 황해도 북쪽 지역이며, 군수는 종4품 외관직 外官職으로 군부의 행정을 맡아 보았다. 최창운은 1651년(효종 2) 별시 병과 丙科 17위로 급제한 후 용양위부사과·선전관·훈원원첨정·병마동첨절제사 등에 임명되었는데, 이때에 처음으로 외관의 수령직에 임명되었다.



전령傳令

1-2-11 | 兼巡察使-崔昌運 추정 | 癸丑(1673 추정)

계축년 정월 29일에 겸순찰사^{兼巡察使}가 최창운^{崔昌運}(추정)을 영장^{營將}으로 그대로 차정^{差定}하여 직임을 살피도록 국왕에게 장계^{狀啓}를 올렸으므로, 군사 업무 제반 사항을 마음을 다해 살피고 군율을 어기지 말라는 뜻으로 발급한 문서이다. 문서의 우측이 결락된 상태이다.



고신 告身

1-2-12 | 吏曹·崔鎮遠 | 康熙 19(숙종 6, 1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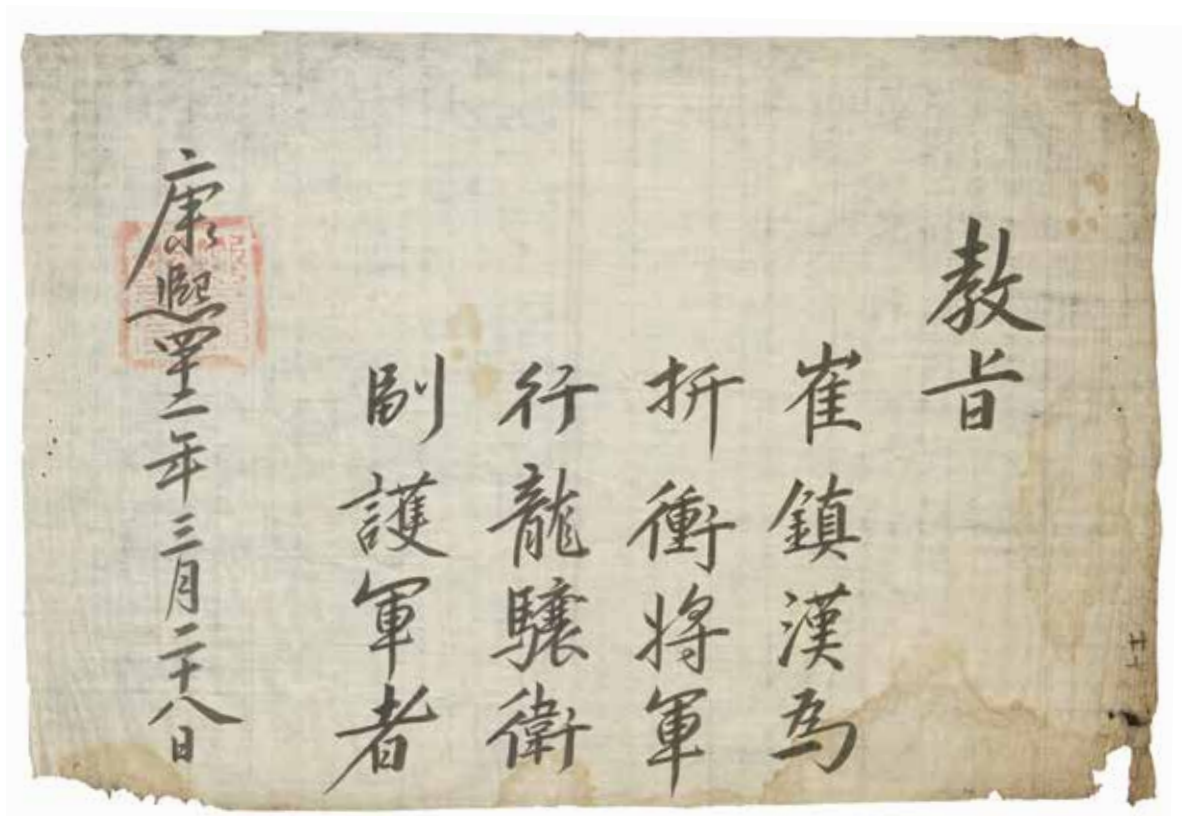
1680년(강희 19) 9월에 이조吏曹에서 봉직랑奉直郎 최진원崔鎭遠을 통덕랑通德郎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경국대전』 「예전」에 따르면 고신은 4품 이상의 관원이 받는 고신과 5품 이하의 관원이 받는 고신의 문서양식이 달랐다. 최진원이 5품 이하의 관원이었으므로, 이 문서는 국왕의 결재를 받아 이조에서 5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양식에 의거하여 발급되었다. 이 고신의 발급 사유는 최진원이 수안군수遂安郡守였던 아버지 최창운崔昌運의 경신년(1680) 3월과 7월 별가別加를 대신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최진원은 대가제代加制에 따라 아버지에게 별가된 품계를 받은 것으로, 대가제는 중국이나 고려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시대의 독특한 제도이다. 1449년(세종 31) 세종이 세자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여 백관에게 산계 1자資를 가해 줄 때 현직·전직 당상관에게는 그 대신 그들의 자손 1인에게 가자加資해 준 것이 시초였다. 이후 세조 대에 이르러 하나의 제도로서 굳어졌는데, 대가로서 오를 수 있는 산직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아 관직체제상의 혼란이 잇따르자, 1623년(인조 1) 정5품 상계 통덕랑通德郎까지로 제한되어 이후 정식화되었다.



고신 告身

1-2-13 | 國王·崔鎮漢 | 康熙 42(숙종 29, 1703)

1703년(강희 42) 3월 28일 최진한·崔鎮漢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절충장군은 정3품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이고, 중앙군사 조직인 오위·五衛의 종4품 무관직인 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된 것이다.



고신 告身

1-2-14 | 國王-崔鎮漢 | 康熙 46(숙종 33, 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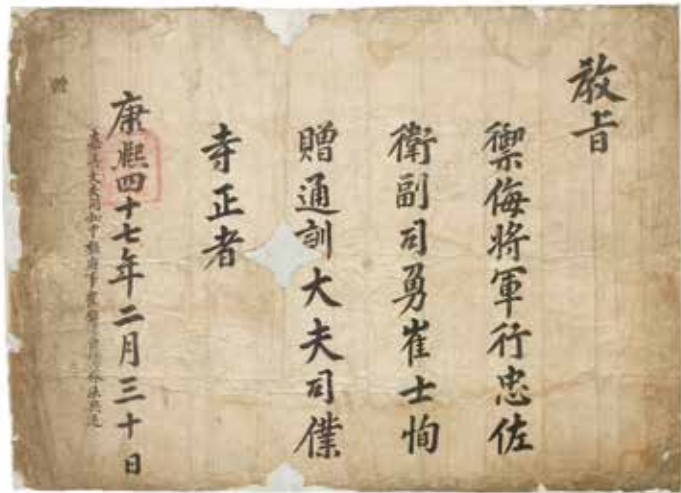
1707년(강희 46) 7월에 최진한(崔鎭漢)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1703년 정3품 품계인 절충장군(折衝將軍)이 된 지 4년 만에 중2품인 가선대부로 승품되었다.



추증교지 追贈教旨

1-2-15 | 國王-崔士恂 | 康熙 47(숙종 34, 1708)

1708년(강희 47) 2월 30일 어모장군 禦侮將軍 행충좌위부사용 行忠佐衛副司勇 최사순 崔士恂을 통훈대부 通訓大夫 사복시정 司僕寺正으로 추증 追贈하는 교지이다. 발급 사유는 연호 옆에 적혀 있듯이 증손인 최진한 崔鎭漢이 가선대부 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에 두었던 종2품 실직이었으므로, 2품 이상의 문무과에게 3대까지 추증한다는 『경국대전』의 추증조에 따라 증조부를 추증한 것이다.



추증교지 追贈教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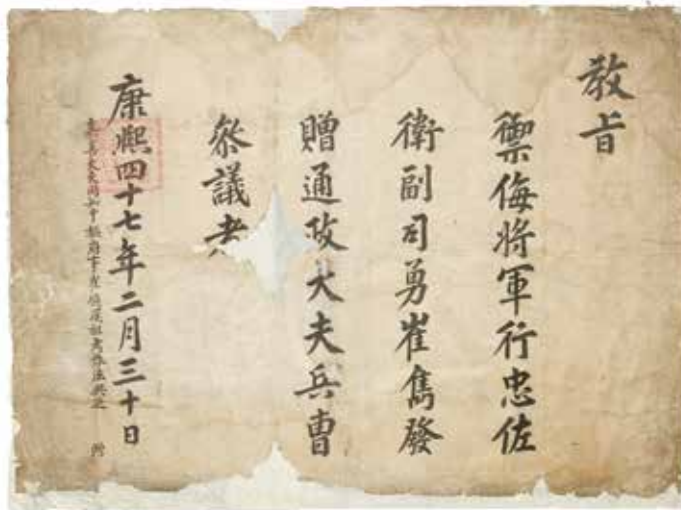
1-2-16 | 國王-端人 朴氏 | 康熙 47(숙종 34, 1708)

1708년(강희 47) 2월 30일 단인 박씨 端人 朴氏를 숙인 淑人으로 추증하는 고신이다. 추증사유는 증손인 최진한 崔鎭漢이 가선대부 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에 두었던 종2품 실직이었으므로, 2품 이상의 문무과에게 3대까지 추증한다는 『경국대전』의 추증조에 따라 증조모를 추증한 것이다. 숙인 淑人은 조선시대 외명부 外命婦의 하나로, 문무관 정3품·종3품 당하관의 처 妻에게 주는 품계이다.



추증교지 追贈教旨

1-2-17 | 國王-崔寔發 | 康熙 47(숙종 34, 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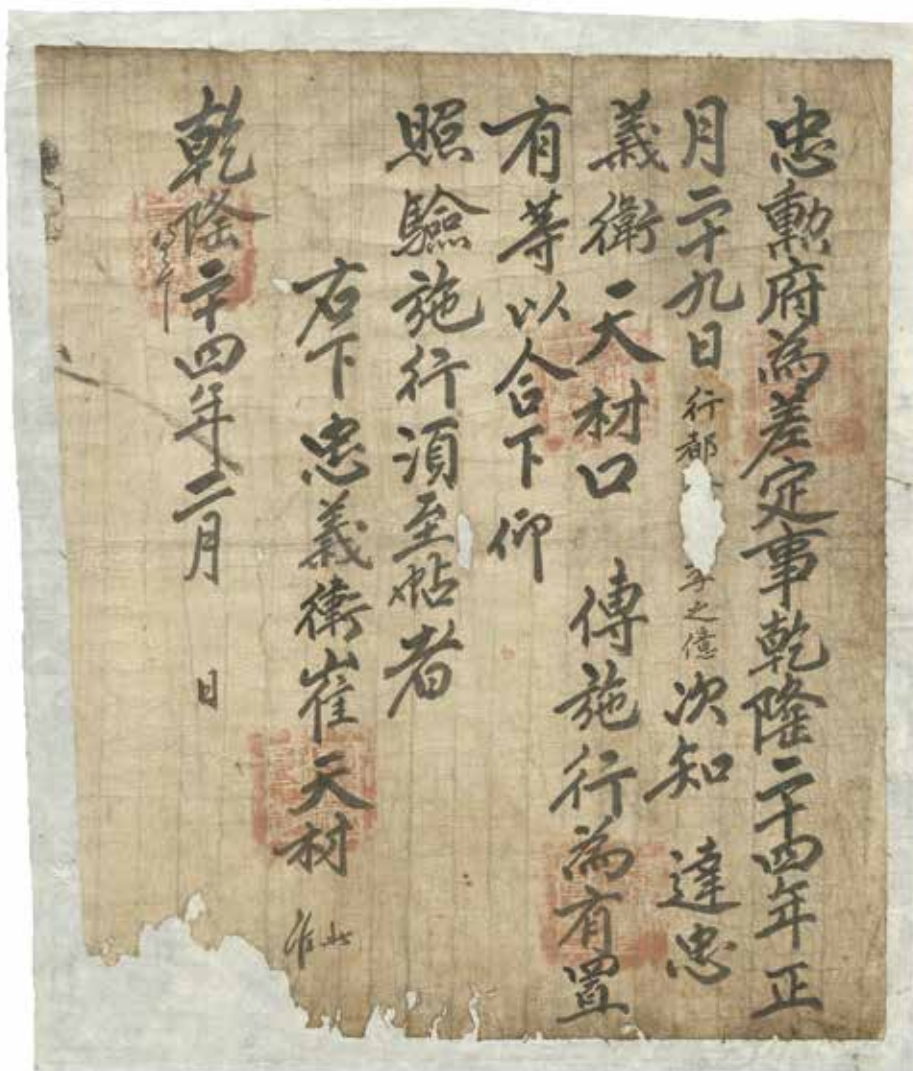
1708년(강희 47) 2월 30일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충좌위부사용行忠佐衛副司勇 최준발崔寔發을 통정대부通正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추증하는 고신이다. 고신의 발급 사유는 연호 옆에 적혀 있듯이 손자인 최진한崔鎭漢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에 두었던 종2품 실직이었으므로, 2품 이상의 문무과에게 3대까지 추증한다는 『경국대전』의 추증조에 따라 조부를 추증한 것이다.

추증교지 追贈教旨

1-2-18 | 國王-淑人 李氏 | 康熙 47(숙종 34, 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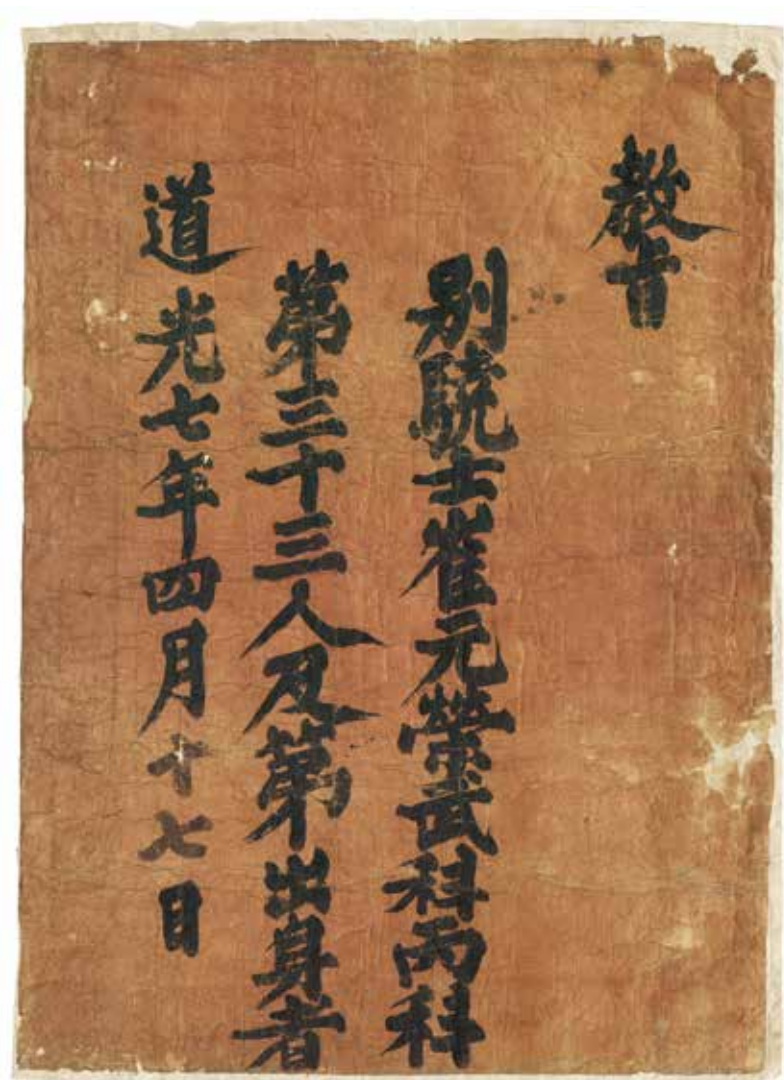
1708년(강희 47) 2월 30일 숙인 이씨淑人 李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하는 고신이다. 추증사유는 손자인 최진한崔鎭漢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에 두었던 종2품 실직이었으므로, 2품 이상의 문무과에게 3대까지 추증한다는 『경국대전』의 추증조에 따라 조모를 추증한 것이다. 숙부인淑夫人은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하나로, 정3품 당상관인 문무관의 처妻에게 주던 품계이다.



차접差帖

1-2-19 | 忠勳府-崔天材 | 乾隆 24(영조 35, 1759)

1759년(건륭 24) 2월 충훈부忠勳府에서 최천재崔天材를 충의위忠義衛로 임명하는 차접差帖이다. 당시는 사도세자의 대리청정 기간이었는데, 정월 29일에 도승지都承旨 이지역李之億이 담당하여 사도세자의 구전口傳대로 거행한 것이다. 대개 국왕의 구전을 통해 관원을 임명하는 구전차접口傳差帖은 조선시대 참하參下(7~9품)의 무록관無祿官을 임명할 때 사용하였다. 충훈부는 공신功臣의 훈공의 기록을 맡았던 관청이며, 충의위는 궁중을 호위하기 위한 특수병종으로 공신의 후예들을 편성하여 군역을 대신하게 하였다.



홍패 紅牌

1-2-20 | 國王·崔元榮 | 道光 7(순조 27, 1827)

1827년(도광 7) 4월 17일에 별효사別號士 최원영崔元榮이 무과 병과 제33인으로 급제하여 발급받은 홍패紅牌이다. 최원영은 무과에 급제하기 전에 별효사를 지내고 있었다. 별효사는 총리영總理營에 둔 군사로, 1802년(순조 2) 장용위壯勇衛를 없애고, 화성華城(수원)에 총리영을 설치하면서 200명을 두었다. 1803년에는 장단長湍·과주·남양南陽에도 50~60명을 두었다. 선발은 유수留守(총리사 겸임)가 매년 봄·가을에 활쏘기시험으로 뽑았으며, 물기沒技(五中五矢)한 자는 전시殿試를 볼 특권을 주었다. 최원영도 별효사를 지내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무과에 급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령傳令

1-2-21 | 總理營大將-崔元榮 | 道光 7(순조 27, 1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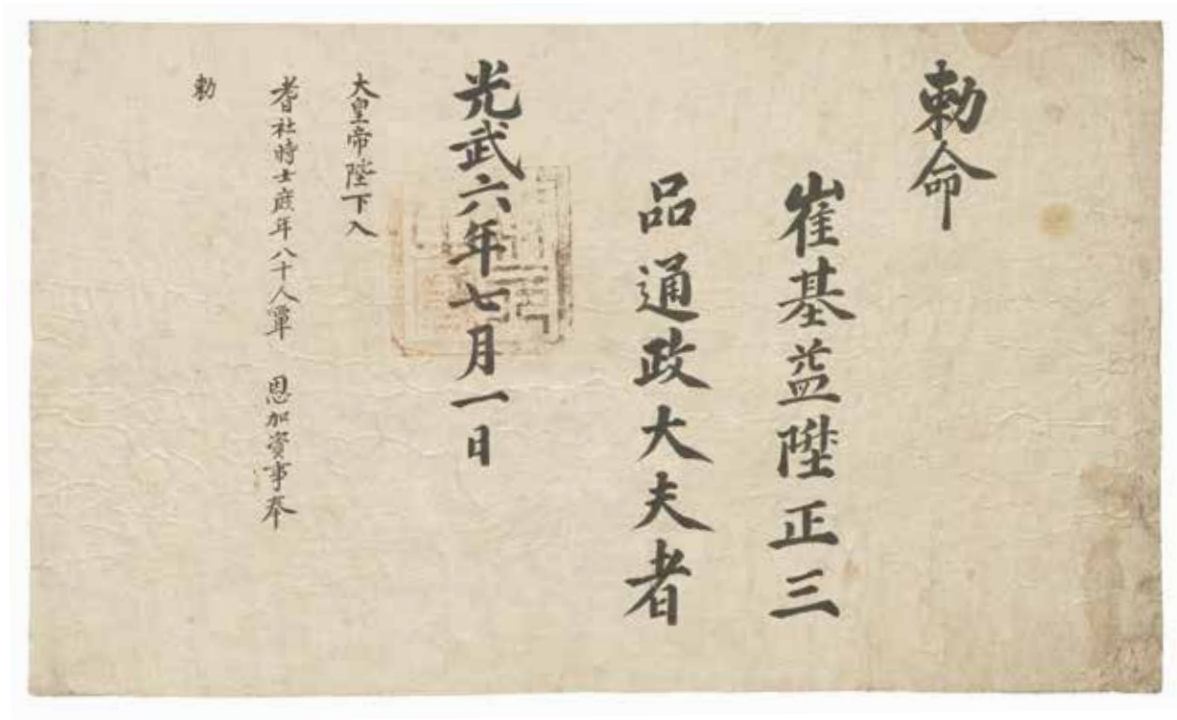
1827년(도광 7) 5월 출신^{出身} 최원영^{崔元榮}을 총리영별군관^{總理營別軍官}으로 차정^{差定}하는 전령^{傳令}이다. 별호사를 지내다 무과에 급제한 최원영은 급제한 지 한 달 뒤에 총리영별군관에 임명되었다. 별군관^{別軍官}은 총리영에 소속된 군직으로, 별호사^{別號士} 중에서 임명하였으며 화성에 있는 화산^{花山}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칙명 勅命

1-2-22 | 皇帝-崔基益 | 光武 6(고종 39, 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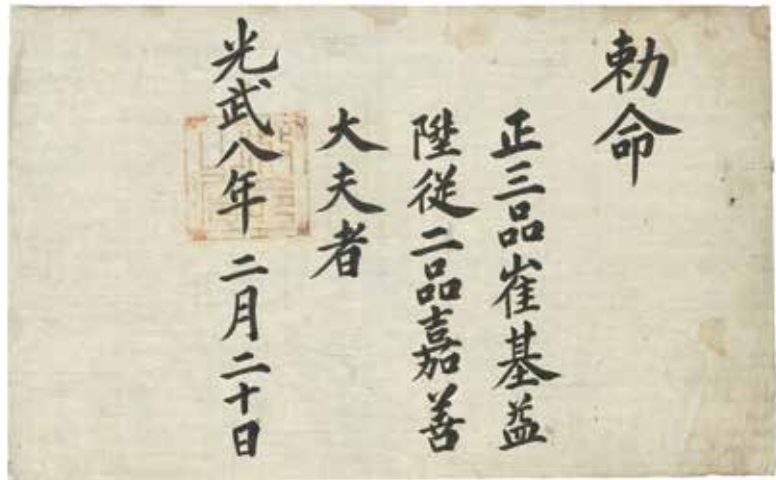
1902년(광무 6) 7월 1일에 최기익崔基益을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서陞敘하는 칙명이다. 칙명의 발급 사유는 연호의 왼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고종이 기사舊社에 들어간 것을 경축하는 뜻에서 최기익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으므로 가자加資한 것이다. 기사는 조선시대 나이 70이 넘는 정2품 이상의 문신들을 경로 및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기로소耆老所 혹은 기소耆所라고 한다.



칙명勅命

1-2-23 | 皇帝·崔基益 | 光武 8(고종 41, 1904)

1904년(광무 8) 2월 20일 정3품인 최기익崔基益을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서陞敘하는 칙명이다. 이때 최기익의 처 숙부인 윤씨는 정부인으로 봉하는 칙명을 받았다. 더불어 최기익이 가선대부로 승품됨으로써 선조 3대가 추증되었다. 증조 최도건崔道健은 6품 통훈대부로, 증조모 유인 이씨孺人 李氏는 숙부인으로, 조부 최재崔棹는 정3품 통정대부로, 조모 유인 이씨孺人 李氏는 숙부인으로, 아버지 최원영崔元榮은 종2품 가선대부로, 어머니 유인 권씨孺人 權氏는 정부인으로 추증되었다.



칙명勅命

1-2-24 | 皇帝·淑夫人 尹氏 | 光武 8(고종 41, 1904)

1904년(광무 8) 2월 20일 숙부인 윤씨淑夫人 尹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임명하는 칙명이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하나로, 정·종2품 문관·무관의 부인에게 주던 품계이다. 봉작 사유는 남편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증직한 것이다.



칙명 勅命

1-2-25 | 皇帝·崔道健 | 光武 8(고종 41, 1904)

1904년(광무 8) 2월 20일 학생 學生 최도건 崔道健을 6품 통훈대부 通訓大夫로 추증 追贈하는 칙명이다. 추증 사유는 증손인 최기익 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 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칙명 勅命

1-2-26 | 皇帝·孺人 李氏 | 光武 8(고종 41, 1904)

1904년(광무 8) 2월 20일 유인 이씨 孺人 李氏를 숙부인 淑夫人으로 추증 追贈하는 칙명이다. 추증 사유는 증손인 최기익 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 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칙명勅命

1-2-27 | 皇帝-崔梓 | 光武 8(고종 41, 1904)

1904년(광무 8) 2월 20일 학생學生 최재崔梓를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추증追贈하는 칙명이다. 추증 사유는 손자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칙명勅命

1-2-28 | 皇帝-孺人 李氏 | 光武 8(고종 41, 1904)

1904년(광무 8) 2월 20일 유인 이씨孺人 李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追贈하는 칙명이다. 추증 사유는 손자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칙명勅命

1-2-29 | 皇帝-崔元榮 | 光武 8(고종 41, 1904)

1904년(광무 8) 2월 20일 학생學生 최원영崔元榮을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추증追贈하는 칙명이다. 추증 사유는 아들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칙명勅命

1-2-30 | 皇帝-孺人 權氏 | 光武 8(고종 41, 1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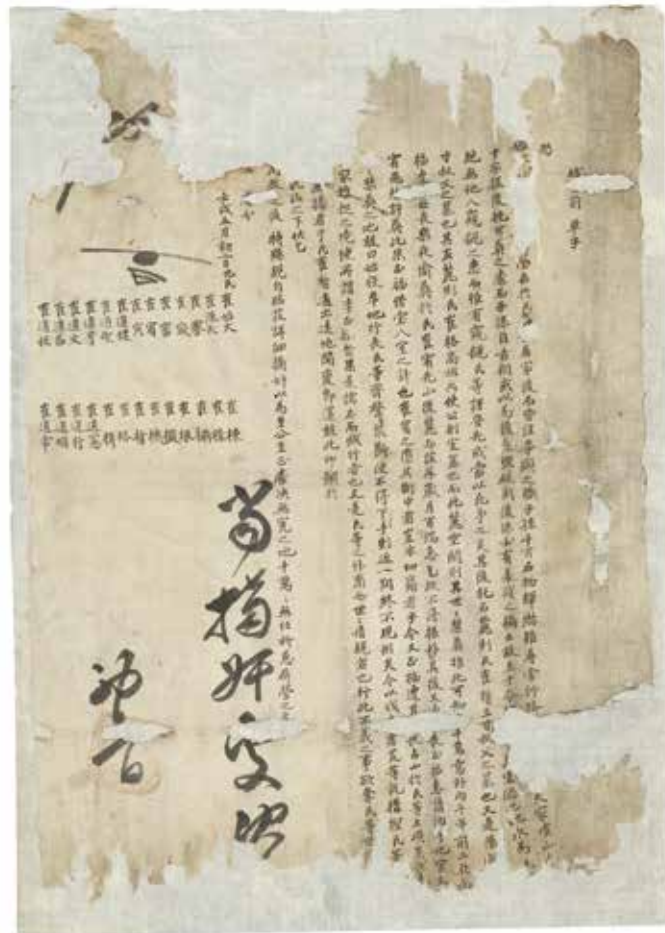
1904년(광무 8) 2월 20일 유인 권씨孺人 權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하는 칙명이다. 추증 사유는 아들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최시대崔始大 등장等狀

1-3-1 | 崔始大 외-振威縣令 | 임술년(1802년, 순조 22)

임술년에 최시대를 비롯한 수성 최씨 문중의 여러 사람이 함께 올린 등장等狀이다. 내용은 16년 전(1786년) 진위현振威縣 이북면北面의 이정복李正福이란 자가 모친상을 당하여 밤에 수성 최씨 최유崔宥의 선산 후록後麓에 투장偷葬하였다가 간청하기에 그대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또 □□상喪을 당하여 막 장사를 마쳤다고 하는 허황한 말을 하므로 현장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지극히 공정하게 처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등장은 조선시대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하여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이나 청원서이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지所志와 달리 등장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올린 것이다. 관부에서는 등장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데, 이를 데김[題金]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데김은 등장의 왼쪽 아래 여백에 써서 등장을 올린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城前单子

恐

鑑七

坐在此氏墓居家後而皆汪等顯之職子孫千百石物輝赫雅尋常行路

十字樣後托可葬之處而子孫自古相戒以為後世毀破則後孫必有衰殘之禍云故至于今

絕無他人窺覷之患而雖有窺覷氏等謹守先戒當以死爭之矣其後托右麓則氏崔崔三寸叔父之墓也又是陽面

寸叔父之墓也其左麓則氏崔格高祖兵使公別室墓也而此麓空闊則其世禁葬推此可知千萬意外丙午年前二北而

福連母喪棄夜偷葬於氏崔崔先山後麓而崔崔歲月百端急乞故不得掘移其後又而表公福息請佃子祀官王

宿龜兒許葬此果正福借室八室之計也崔崔之園其術中者豈非切痛者乎今又正福遭其長占山於氏等上項累代

禁葬之地故曰始役卒地行長氏等齊聲禁斷使不得下手則近一朔終不現形矣今以伐虛荒等說構捏氏等

家推拒之境彼所謂李正福者果是儒名而賊行者也又是氏等之外裔而世情親者也行此不義之事欲奪氏等世傳

無據者乎氏崔崔指通出遠地聞變即還敢此仰籲於

執治之下休乞

而教之後特賜親自臨蒞詳細摘好以為至公至正處決無冤之地千萬無任祈懇屏營之至

上

壬戌五月初二日氏

崔始大

崔零

崔密

崔密

崔密

崔密

崔密

崔密

崔梅棟

崔梅

崔梅

崔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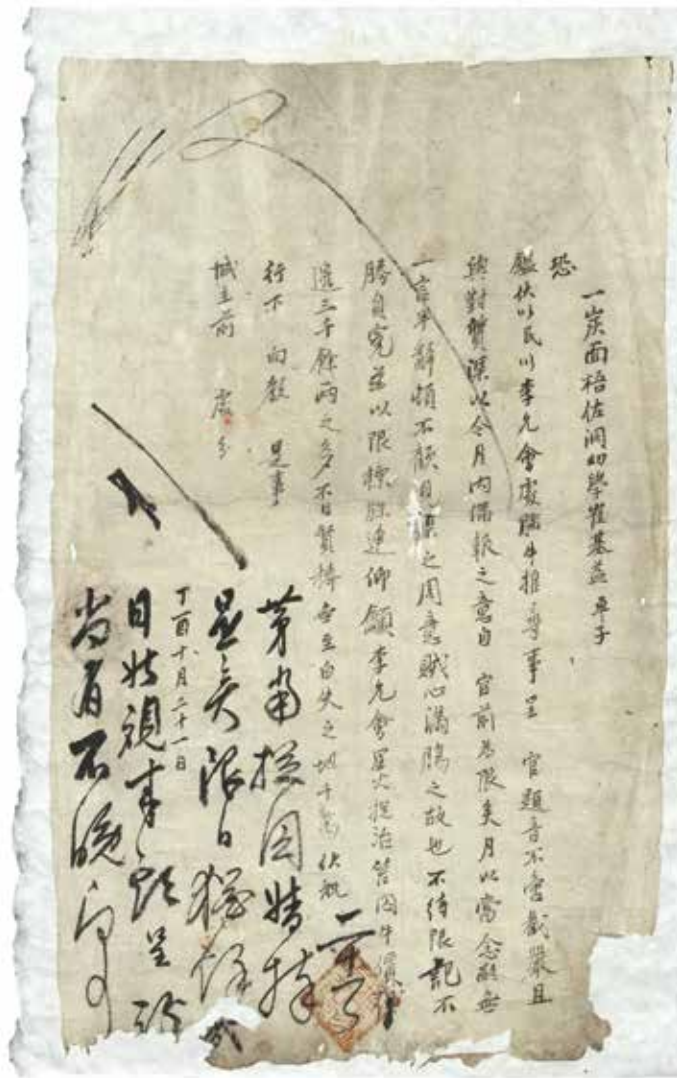
崔梅

崔梅

崔梅

崔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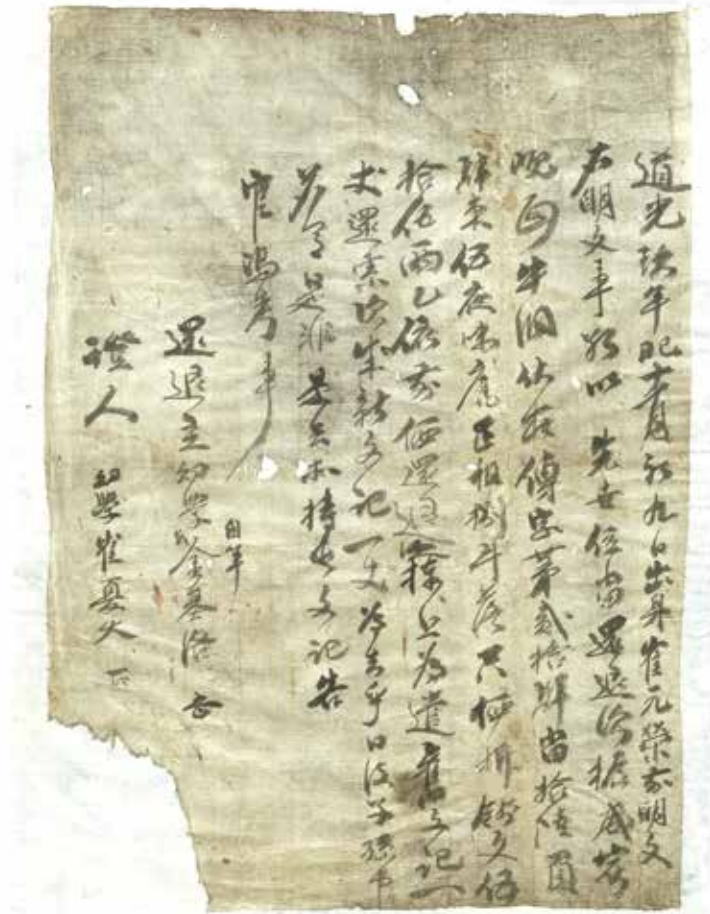
冲



최기익崔基益 단자單子

1-3-2 | 崔基益-振威郡守 | 丁酉(1897년) 10月 21日

진위군 일탄면 오좌동에 사는 유학 최기익崔基益이 성주城主, 즉 진위군수에 게 올린 단자單子이다. 성주는 조상의 분묘가 있는 곳의 수령을 말하며, 단자란 사대부가 친히 관사官司에 올리는 소장訴狀 또는 청원서이다. 이윤회李允會의 포우輔牛 추심推尋에 대한 일로, 그를 속히 잡아다가 태筭를친 후 옥에 가두고 소 값과 이자를 합쳐 3천여 냥을 지불하도록 할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왼쪽 하단의 글씨는 군수가 내린 처분으로, 이를 데김[題音]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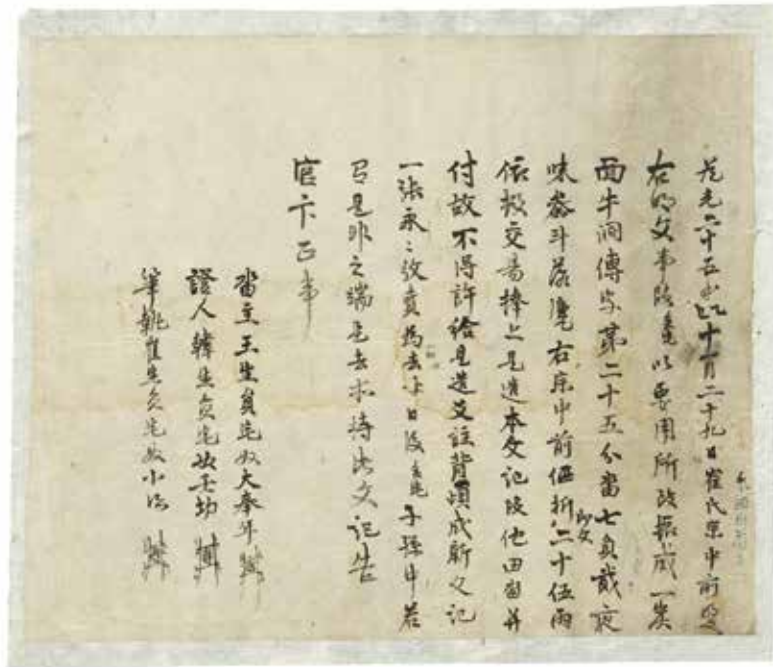
토지매매명문 土地賣買明文

1-3-3 | 金基洛-崔元榮 | 道光 9年 己丑 11月 9日
(1829년, 순조 29)

유학^{幼學} 김기락^{金基洛}이 최원영^{崔元榮}에게 매매했던 토지를 1829년(순조 29)에 환퇴^{還退}하면서 작성한 명문^{明文}이다. 환퇴는 토지나 가옥 등 샀던 것을 도로 물리는 것을 말한다. 최원영은 수성 최씨로, 당시 출신^{出身}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 과거에 급제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전에 김기락은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진위현^{振威縣} 탄현면^{炭峴面} 우동^{牛洞}에 있는 부^傅자 제24답^畓 16부^負 4속^束 5배^米 [夜味]와 정조^{正祖} 8두락지^{斗落} 8只의 위답^{位畓}을 최원영에게 55냥을 받고 판 적이 있었다. 그 토지를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값을 쳐주고 되돌려 받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김기락이 토지를 도로 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대개 집안에서 위토^{位土}를 중시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잠시 팔았다가 되찾아 온 것으로 생각된다. 문서 끝에 자필^{自筆}로 작성한 사실을 밝히고, 이름 아래 요즘의 서명과 유사한 착명^{着名}을 하였다.



토지매매명문 土地賣買明文

1-3-4 | 畜主 王生員宅 奴 大奉年-崔氏 宗中 | 道光 25年 己巳 11月 29日(1845년, 현종 11)

1845년(현종 11)에 최씨 중종崔氏 宗中에서 진위현振威縣 일탄면一炭面 우동牛洞의 부자傳字 제25번답[分番] 7부負 2배미[夜味] 3두락斗落의 토지를 왕생원택王生員宅으로부터 25냥에 매득買得한 명문明文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각종 재화를 거래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본문기本文記는 구문기舊文記라고 하는데,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해 이전에 작성된 계약문서나 권리증빙 문서를 가리킨다. 조선시대 토지를 팔 때 향후 제3자에게 다시 방매하는 이중매매나 몰래 파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문기는 매득자買得者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문기에 지금 팔고자 하는 토지 외에 다른 전답田畓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문서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넘겨주면 함께 기록된 다른 토지 등에 대해 향후 권리증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구문기에서 매매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효주배탈爻周背顛하고, 새롭게 해당 명문인 신문기新文記 한 장을 작성하여 이 계약을 증명하였다. 효주는 본문기에서 해당 거래 토지가 기재된 곳에 가위표나 긴 동그라미를 그려 기록을 말소하는 것을 뜻하고, 배탈은 문서의 배면背面, 즉 뒷면에 탈顛이 난 사항, 즉 거래사항이나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

문서 말미에는 답주畜主, 증인證人과 문서를 작성한 필집筆執 당사자를 기재하였는데 모두 노奴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거래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집안에서 부리는 노奴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거래에서는 왕생원택의 노 대봉大奉이 상전을 대신하여 토지를 매매하였고, 한생원택의 노 임근王功이 증인이 되었으며, 최생원택 노 소첨小添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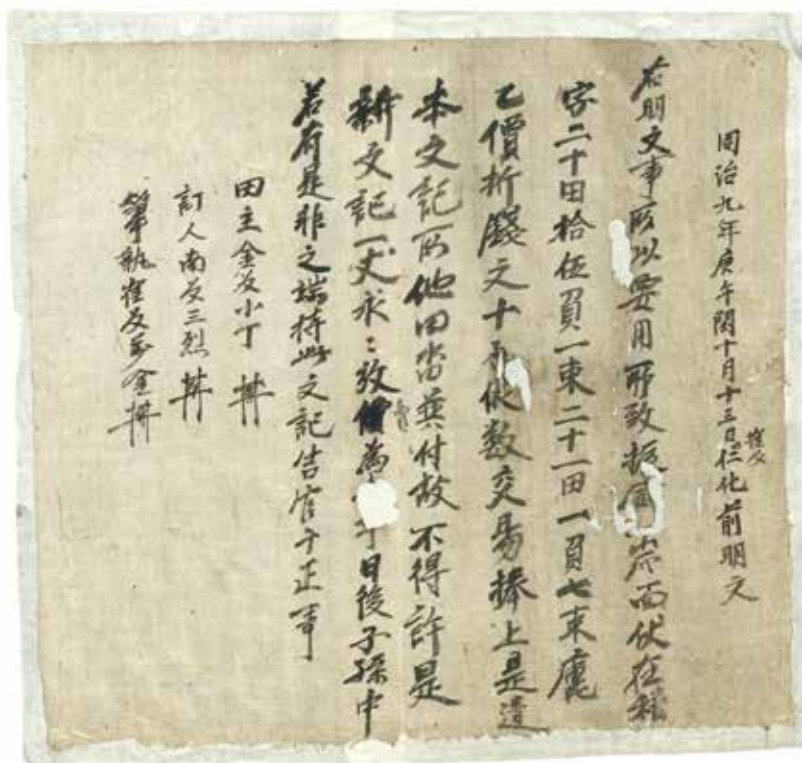
토지매매명문 土地賣買明文

1-3-5 | 舊主 崔喪人宅 四升-金敬心 | 同治 2年 癸亥
3月 13日(1863년, 철종 14)

1863년(철종 14)에 상중(喪中)에 있는 최씨택(崔氏宅)에서 토지를 10냥에 김경심(金敬心)에게 매매하는 문서다. 해당 거래 토지는 진위현(振威縣) 탄현면(炭峴面)에 있는 보(寶)자 49전(田) 내의 새로 경작한 논 2배미 4두락지(斗落只)와 한나절같이 [半日耕]의 봄보리(春牟)를 합하여 9부(負) 5속(束)을 수확할 수 있는 곳이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의 소재지, 양전(量田)할 때 부여하는 천자문 순번인 자호(字號)와 자호의 하위단위 번호인 지번(地番, 논[畝]이나 밭[田]과 같은 토지의 종류를 기재하였다. 또한 파종량이나 일경(日耕)으로 표현하는 지적(地積)도 표기한다.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전답면적의 대표 단위라 할 수 있는 두락지(斗落只)는 마지기라고도 하며, 한 말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을 뜻한다. 일경(日耕)은 소 한 마리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토지 면적을 뜻하며, 하루갈이는 일일경(一日耕), 닛새갈이는 오일경(五日耕) 등으로 표기한다.

한편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결부수는 수확할 때 곡식 줄기를 길단처럼 묶거나 지게에 짊어지는 부피로 전답의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1부(負)는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을 말하고, 1속(束)은 벧집 한 단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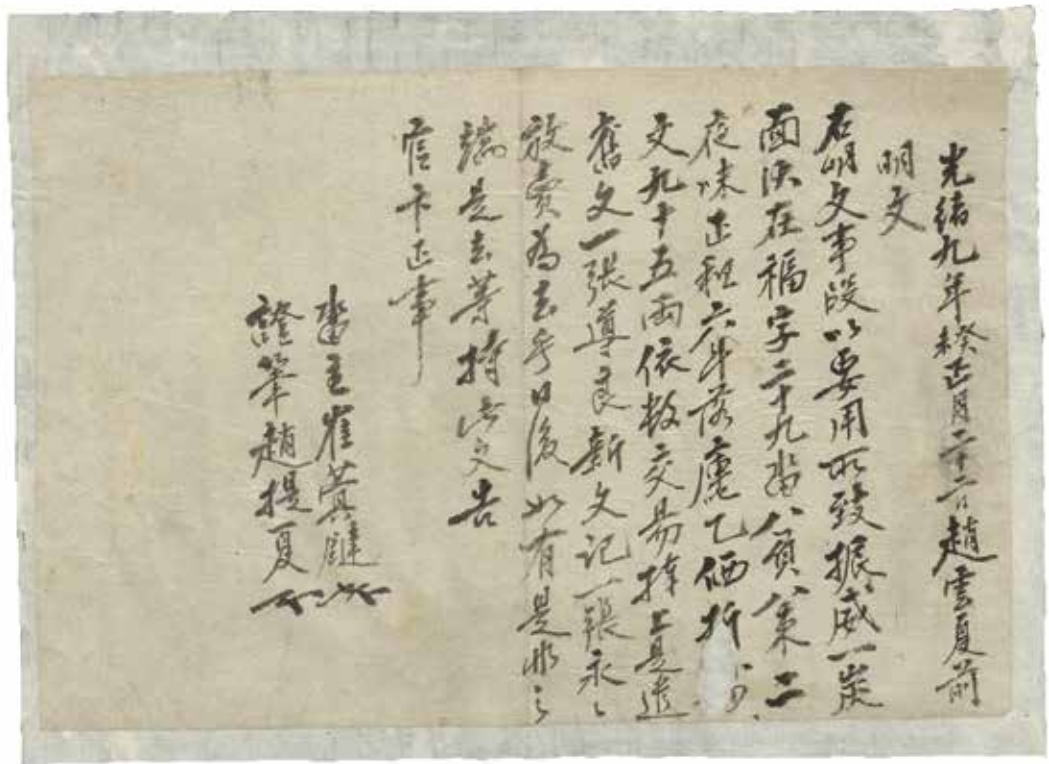
토지매매명문 土地賣買明文

1-3-6 | 田主 金小丁-崔仁化 | 同治 9年 庚午
閏10月 13日(1870년, 고종 7)

1870년(고종 7)에 김씨댁에서 최씨댁에 진위현 振威縣 일탄면 一炭面에 있는 적 積자 20전 田 15부 負 1속 束과 21전 田 1부 7속인 곳을 15년에 매매한 문서이다. 본문기 本文記에 다른 전답이 함께 붙어 있어 부득이 주지 못하고 이처럼 새롭게 문서 한 장을 작성하였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체면상의 이유로 토지 등의 매매를 본인이 직접 이행하지 않고 가노 家奴를 시켜 대신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증인과 필집을 물색하여 이들을 함께 대동하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계약에 참여한 사람은 각 상전을 모시는 노 奴이다. 발주인 김씨 상전의 노 소정 小丁이 상전을 대신하여 토지를 매매하였고, 남씨 상전의 노 삼열 三烈이 증인을 썼으며, 최씨 상전의 노 만금 萬金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이름 끝에 서명을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글을 모르는 남자의 경우 좌촌 左寸이라 하여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 마디를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으나, 19세기에 접어들면 손가락을 직접 대고 그리는 수촌 手寸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우물 정 井자를 붓으로 대충 그린 후 그 안에 좌촌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이 문서는 19세기 토지계약문서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토지매매명문 土地賣買明文

1-3-7 | 畵主 崔莫健·趙雲夏 | 光緒 9年 癸未 正月
22日(1883년, 고종 20)

1883년(고종 20) 정월에 최명건(崔莫健)이 진위현(振威縣) 일탄면(一炭面)에 있는 복
자 29답(畵 8부 負 8속 束 2배미[夜味] 정조(正租) 6두락(斗落)을 95냥에 조운하(趙雲夏)에
게 매매한 문서이다. '배미'라고 읽히는 야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령을 기준
으로 한 전답의 구획 단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토지를 매매하게 된 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급한 바에 쓰고자
[要用所致]'라고 막연하게 표기되어 있다. 조선 중기까지는 대체로 구체적인
매매 사유가 기재되었으나, 후대로 내려갈수록 이처럼 투식화된 표현으로
막연하게 기재한 사례가 많다.

전례대로 해당 거래 토지의 과거 거래 내역 등이 기재된 구문기(舊文記) 한 장
을 이 계약서와 함께 매득자에게 주었다. 문서의 끝에 중인과 필집을 담당
한 조제하(趙提夏)와 답주 최명건의 성명과 착명(著名)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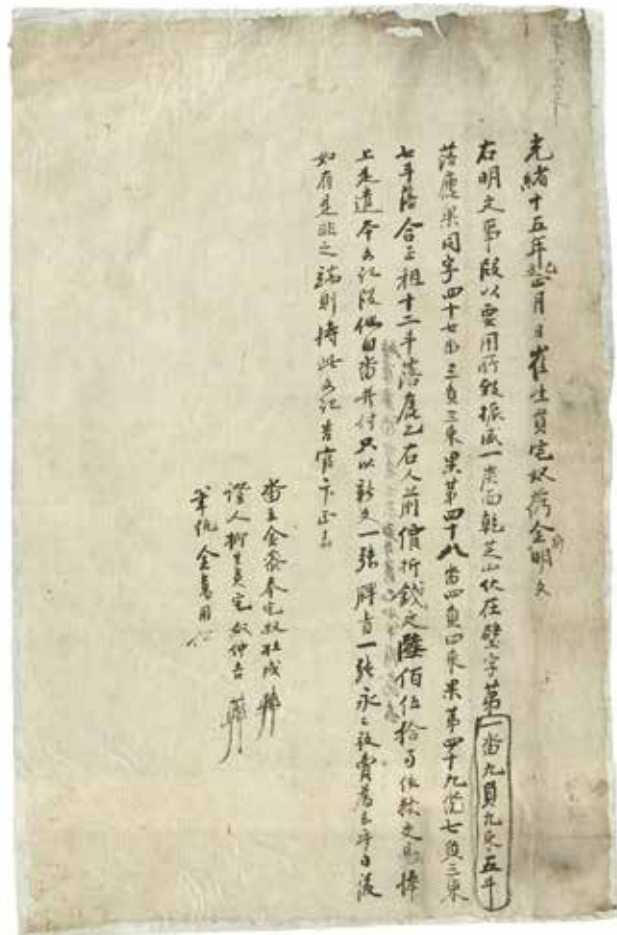
토지매매명문 土地賣買明文

1-3-8 | 賣主 金參奉宅 奴 壯成-崔生員宅 奴 苧金
| 光緒 15年 己丑 正月 日(1889년, 고종 26)

1889년(고종 26) 정월에 김참봉댁 金參奉宅에서 최생원댁 崔生員宅에 토지를 650냥에 매매한 문서이다. 매매 토지는 진위현 振威縣 일탄면 一炭面 건지산 乾芝山에 있는 벽 壁자 제1답 畝 9부 負 9속 束 5두락 斗落, 위와 같은 자호 字號의 47답 3부 3속, 제48답 4부 4속, 제49답 7부 3속 7두락 등 모두 정조 正租 12두락을 수확할 수 있는 곳이다.

본문기 本文記는 해당 거래 토지 외에 다른 전답 田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새로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며, 조선시대 양반들이 토지를 매매할 때 가노 家奴에게 준 일종의 위임장인 배지 牌旨 1장도 함께 준다고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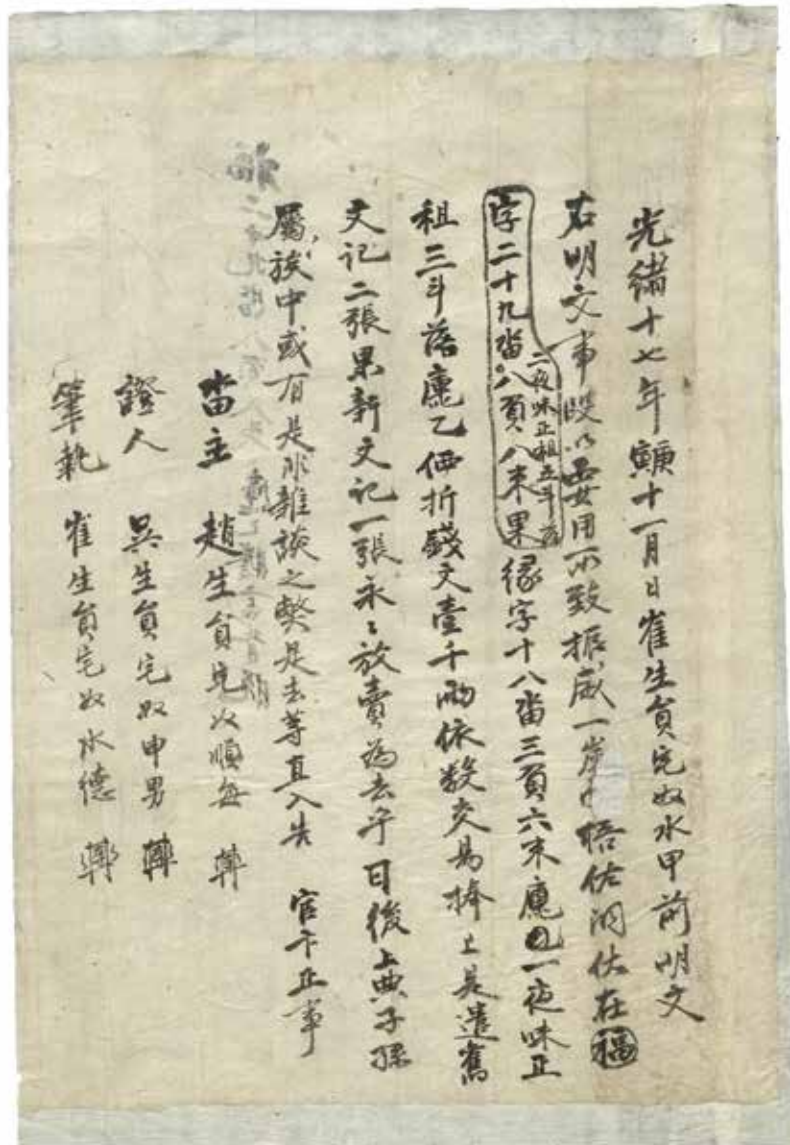
본문이 시작되는 첫줄 하단에 기재된 토지 부분에 효주 爻周되어 있다. 이 문서가 작성된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를 넘겨주는 일이 발생하여 이처럼 기록을 말소한 것이다. 문서의 뒷면에는 이 토지의 소유 이전에 대한 기록이 표기되어 있다.



토지매매명문 土地賣買明文

1891년(고종 28) 진위현 振威縣 일탄면 一炭面 오좌동 梧佐洞 복 福자 29답 2배미
 정조 正租 5두락 8부 8속과 연 緣자 18답 畓 3부 負 6속 1배미 정조 3두락을 전문
 錢文 1,000냥에 방매하는 문서이다.

1-3-9 | 畚主 趙生員宅 奴 順每-崔生員宅 奴 水甲
 | 光緒 17年 11月 日(1891년, 고종 28)



토지매매명문 土地賣買明文

1-3-10 | 畚主 金箕喆·崔氏 宗中 | 大韓 光武 4年 庚子 10月 29日(1900년)

1900년(광무 4) 10월 29일에 김기철(金箕喆)이 최씨(崔氏) 宗中에게 진위현(鎭威縣) 일탄면(一炭面) 우곡전평(牛谷前坪)에 있는 곡(谷)자 20답(畓) 4부(負) 4속(束) 정조(正租) 3두락(斗落)을 1,500냥에 매매한 문서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 계약이 성사되기 이전 같은 해 3월 7일에 작성된 수표(手標)라는 문서가 함께 묶여 보관되어 온 것이다. 수표는 조선시대 임대, 기탁, 매매, 약속 등을 할 때 주고받은 증서로 수기(手記)라고 한다. 진위현에 있는 종답(宗畓) 3두락을 종손(宗孫)에게 주니 후일에 자손 중에 시비(是非)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서로 빙고(憑考)하라는 내용이다. 매매 토지와 관련된 문서이므로 계약당시 매도자 김씨 측에서 본 계약문서와 함께 최씨 종중에 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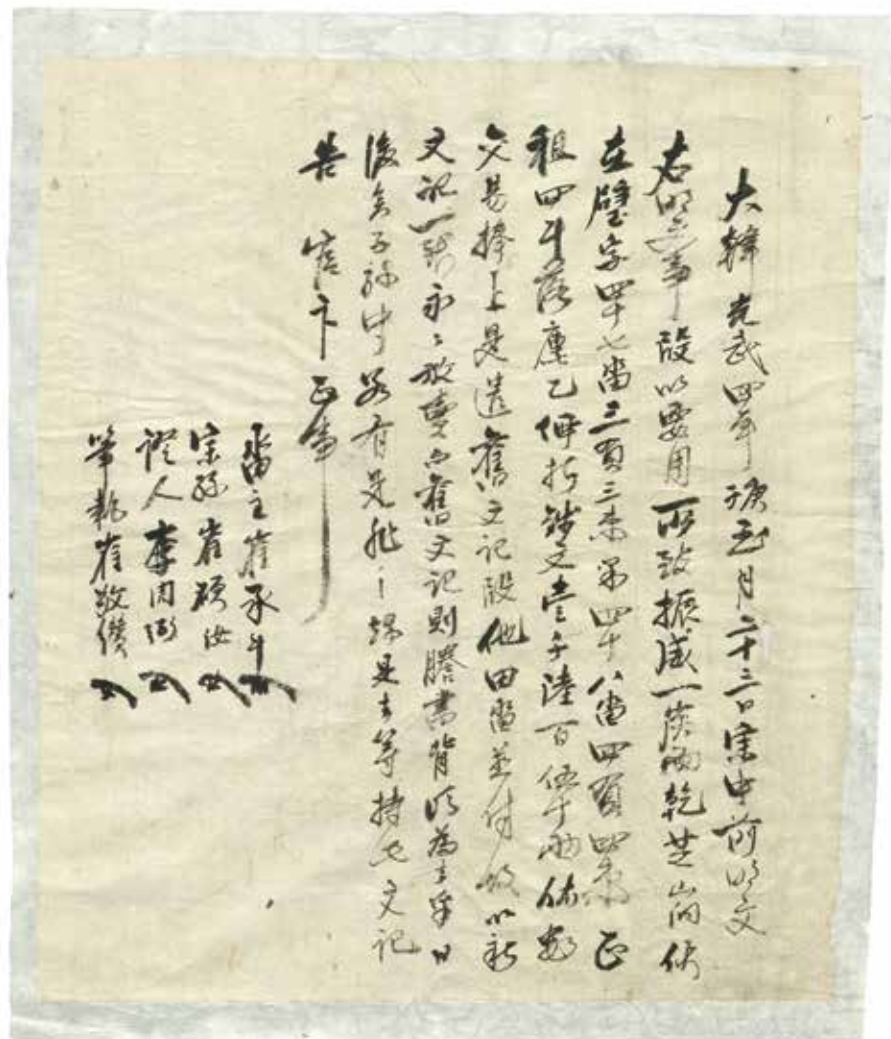


토지매매명문 土地賣買明文

1-3-11 | 畚主 崔承斗-崔氏 宗中 | 大韓 光武 4年 庚子
11月 23日(1900년)

1900년(광무 4) 11월 23일에 최승두崔承斗가 진위현振威縣 일탄면一炭面 건지산동乾芝山洞에 있는 벽자 47답畓 3부負 3속東과 48답 4부 4속 정조正租 4두락을 1,650냥에 수성 최씨 중증宗中에 매대한 문서이다.

후일에 자신의 자손 중에 시비是非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고하여 변정하라고 하였다. 문서 말미에서 당시 매매에 참여한 사람으로 답주畚主 최승두와 종손宗孫 최원여崔願汝, 증인證人 이주필李周弼, 필집筆執 최경찬崔敬繼의 성명과 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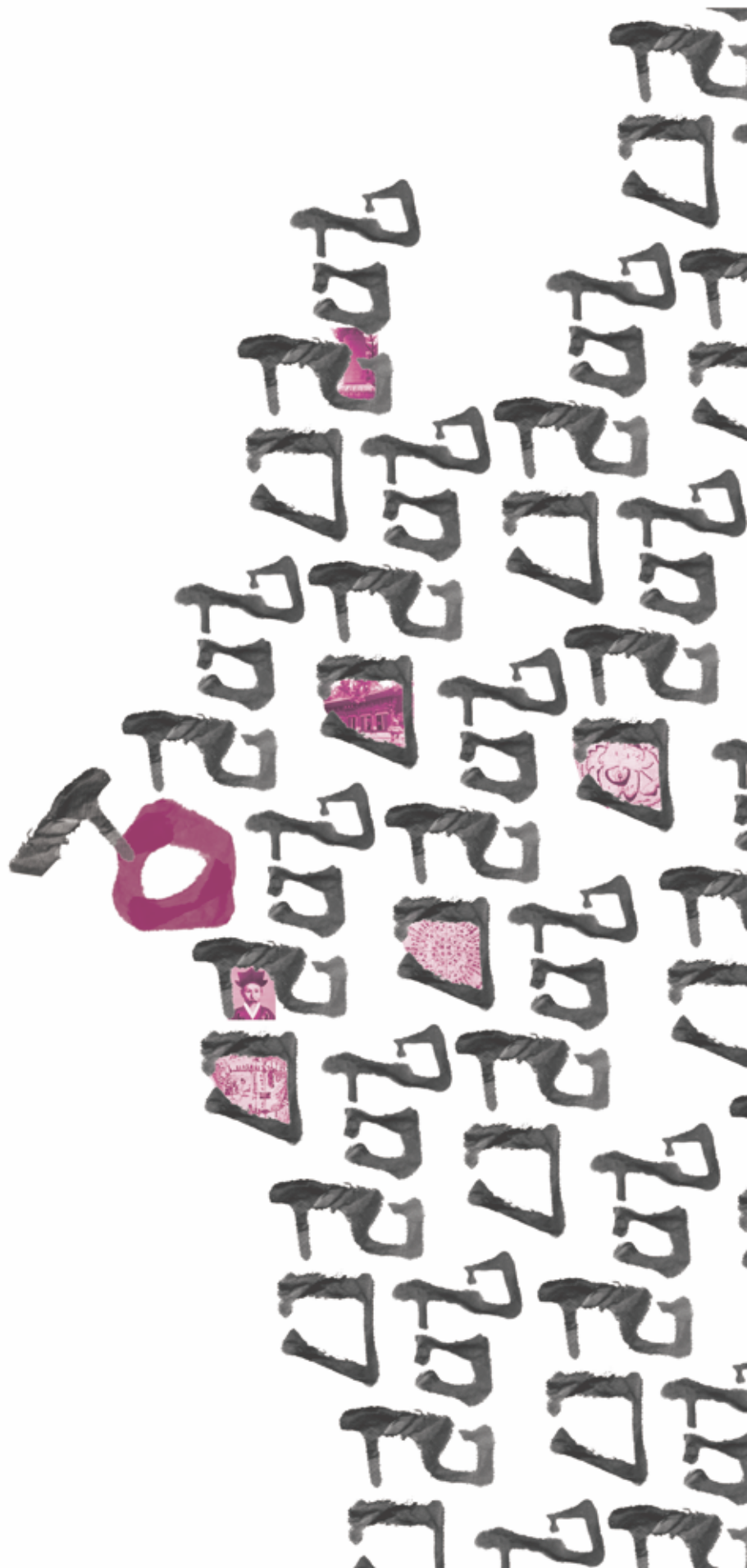




세 월 과 함 께 한 수 원 의 옛 문 서

제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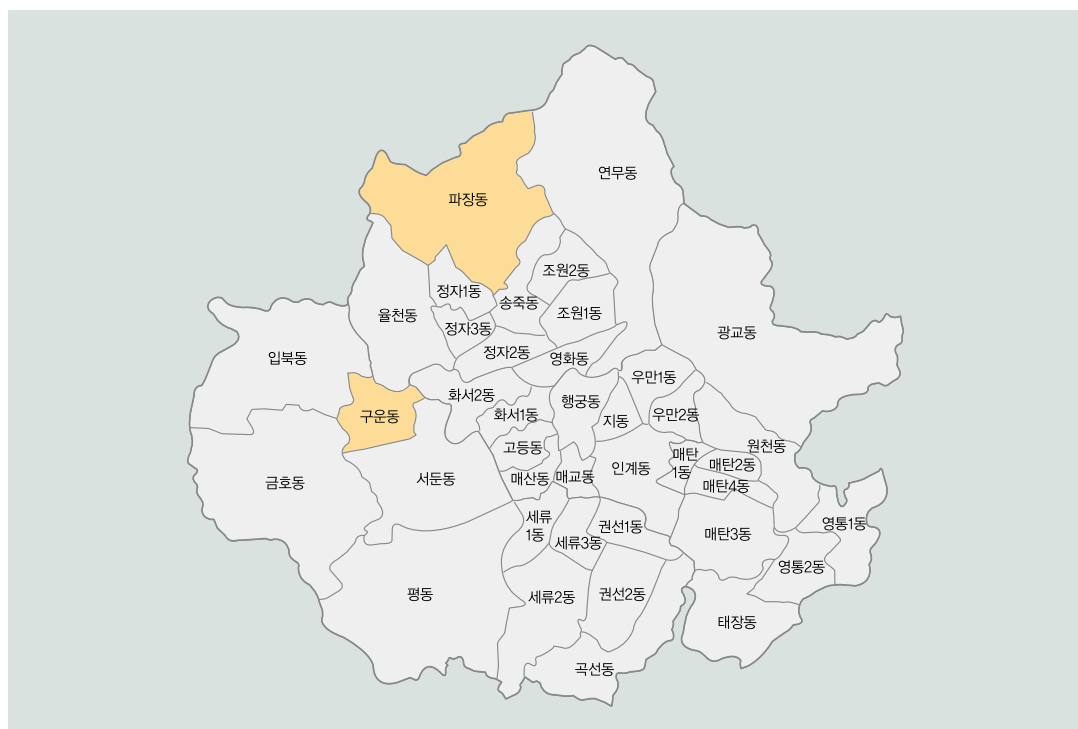
화령전을 수호한
밀양 손씨가



밀양 손씨, 수원에 터를 잡다

밀양 손씨는 문효공^{文孝公} 손순^{孫順}을 시조로 하고, 광리군^{廣理君} 손궁훈^{孫兢訓}을 중시조로 한다. 18세 밀성군^{密城君} 손빈^{孫賓}의 후손들이 본격적으로 분파하여 확장된다.

수원에 거주하는 밀양 손씨는 소윤공파^{小尹公派}로 개성소윤^{開城少尹}을 역임한 손진^{孫鎭}을 파시조로 한다. 손진은 밀양 손씨 30세로 세종 때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개성소윤에 올랐다. 그는 용인^{龍仁}에 처음 묘역을 조성하여, 용인·수원에 관련을 맺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손진의 아들 31세 손원사^{孫元嗣}는 문종조에 진사를 역임하였으며, 수원에 묘역을 처음 조성한 입묘조^{入墓祖}가 된다. 그러나 손원사의 입묘^{入墓}는 세거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들 32세 손서^{孫叙}에서 36세 손열^{孫說}에 이르기까지 모두 용인의 보라리와 성북동 일대에 묘역을 조성하고 세거하고 있어, 조선 중기부터 이미 용인에 들어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손원사의 입묘와 용인 세거에서 자연스럽게 수원 지역으로 세거지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밀양 손씨 세거지

수원에 처음 입향한 이는 37세 손경신(孫敬新)이다. 밀양 손씨 소윤공파 족보에 의하면 손경신 이 일형면(日荊面) 구운리(九雲里)에 처음으로 거주하였다고 한다. 그의 묘역은 선대 세거지인 용인에 있지만, 수원에 최초로 거주한 밀양 손씨 소윤공파의 입향조(入鄕祖)가 된다. 경신 이후 밀양 손씨는 구운동에서 파장동으로 세거지를 확장하였다. 39세 손명인(孫命仁)과 40세 손계룡(孫啓龍), 손계룡의 장자인 손상봉(孫祥鳳)이 파장동에 거주하면서 세거하였다.

본격적으로 분파가 시작된 것은 41세 장자 손상봉과 차자 손귀봉(孫貴鳳) 대이다. 장자 손상봉은 파장동에서 세거하지만, 둘째 손귀봉은 선대 손경신이 입향한 구운동에서 세거한다. 이로써 밀양 손씨 파장동파와 구운동파가 시작된다. 파명(派名)은 조선시대 관직명으로 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38세 손경운(孫景雲)이 가선대부행중추부사(嘉善大夫行中樞府事)를 역임한 이래 특별한 관직이 없었던 탓에, 세거지명을 파명으로 고착시켰다. 밀양 손씨 소윤공파 중 수원 파장동과 구운동에 거주하는 문중만을 칭하는 소파의 명칭이 된 것이다. 41세 손상봉이 파장동파 시조로, 손귀봉이 구운동파 시조, 막내아들 손삼봉(孫三鳳)은 우정면(雨汀面)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나 수원 지역에 있었던 묘역은 1973년 도시개발에 따라 성북동에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이장하였다. 또한 후손들은 수원시 권선구에 밀양 손씨 수원종중회관을 건립하고, 종중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밀양 손씨 파장동파와 구운동파에서 관직에 진출한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밀양 손씨는 입향조 37세 손경신(孫敬新)이 감역관(監役官)을 역임하고, 아들 손경운(孫景雲)이 가선대부행중추부사(嘉善大夫行中樞府事)를 역임한 이래, 파장동파는 1890년(고종 27) 46세 손원진(孫源鎭)에 이르러 종2품 당상관인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종2품))에 진출한다. 손원진이 종2품 실직인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자, 문무관 실직 2품 이상의 관직자에게는 3대를 추증한다는 『경국대전』의 추증조(追贈條)에 따라 손원진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대가 추증(追贈)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같은 달에 손원진은 추가로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겸오위장(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兼五衛將)에 임명되었다. 용양위(驤衛)는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에 해당하며 호군(護軍)은 무관직으로 오위에 속하는 정4품의 실직이며, 오위장(五衛將)은 오위에서 제일 높은 벼슬로 정3품의 실직이다. 그는 종2품 관품을 가지고 있으나 정3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받은 경우이다. 손원진에 이어 아들 손제인(孫濟仁)과 손자 손양근(孫亮根)이 무과에 급제하면서 3대에 걸쳐 관직에 진출한다. 손원진은 1902년에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서(陞敘)한다. 나이 80세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경축하는 뜻에서 가자(加資)한 것이다. 1890년(고종 27) 종2품 가선대부에 올랐던 손원진에게 그보다 품계가 낮은 정3품 통정대부를 가자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손제인은 1891년(고종 28)에 무과 병과에 급제했고, 손양근도 같은 해 아버지 손제인과

함께 무과에 급제한다. 손제인은 병과 제309인으로 급제하였고, 손양근은 제312인으로 급제하였다.

구운동파는 44세 손수항(孫秀恒), 45세 손치영(孫致榮), 46세 손택진(孫宅鎭), 47세 손제만(孫濟萬)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무과에 급제한 무인 집안이다. 손치영은 1818년(순조 18)에 총리영별효사(總理營別驍士)로 차정(差定)된다. 총리영은 수도 외곽 일부의 수비를 담당하기 위해 수원부에 설치한 군영으로 장용위를 개편한 것이다. 1819년 종6품인 전략장군행용양위부사과(宣略將軍行龍陽衛副司果)에, 1823년에는 무과 병과 318인으로 급제한다. 1831년(순조 31)에는 종9품 총리영좌사좌초관(總理營左司左哨官)에 차정되었고, 1837년에는 효력부위화령전수문장(效力副尉華寧殿守門將)을 역임한다. 1840년(헌종 6) 부사과(副司果), 1841년 전략장군무신겸선전관(宣略將軍武臣兼宣傳官), 1847년에는 중립찰방(重立察訪), 1875년에는 종4품인 부호군(副護軍)에 단부(單付)된다. 1876년(고종 13)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을 역임한다. 약 58년간 지속적으로 관직에 진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손택진(孫宅鎭)은 1889년(고종 26) 무과 병과(丙科)에 제869인으로 급제하였고, 1893년(광서 19)에 정3품 통정대부돈녕부도정(通政大夫敦寧府都正)에 임명된다. 손제만(孫濟萬)은 1880년(고종 17)에 무과 병과 제203인으로 급제한다. 그러나 그는 무과에 급제하기 전에 이미 선무군관(選武軍官)을 지내고 있었다. 선무군관은 경기·충청·전라·경상도의 지방 군관 중에서 무술시험을 거쳐 선발한 군관으로, 전국의 토호(土豪)와 부민(富民)의 자제를 선발하여 평상시에는 군관포(軍官布) 1필을 내면서 무예를 연습하고 유사시에 소집하여 군졸을 지휘하게 하였다. 손제만은 같은 해 9월 총리영별군관(總理營別軍官)을, 다음 해 1881년에 총리영우사중초관(總理營右司中哨官)을 역임한다. 이어 1889년(고종 26)에는 수원부초관(水原府哨官)이었던 손제만이 효력부위용양위(效力副尉龍驤衛) 화령전수문장(華寧殿守門將)에 임명되는데, 50여 년 만에 손치영에 이어 손자인 손제만이 다시 화령전수문장에 임명된 것이다. 그 후 1893년(고종 30)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오르는데, 이는 문관의 품계로 정3품 당하관(堂下官)이다. 통훈대부에 가자되는 동시에 제만은 사헌부감찰에 제수됨으로써 무과에 급제한 지 13년 만에 6품의 실직에 오르게 되었다.

밀양 손씨 세계도(파장동)





① 초록색은 입묘조(또는 입향조)와 분파조이고, 파란색은 관직에 진출한 인물이다.

② * 『밀양손씨소윤공파보』 전초에는 손원진孫源鎭의 증조부의 이름이 손순복孫順福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890년(고종 27)에 발급된 추증교지(고신 2-6)에는 이름이 손상룡孫相龍으로 기재되어 있다. 우선 여기서는 족보의 이름이 아닌 고문서의 이름을 따랐다. 손원진의 부와 조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 『밀양손씨소윤공파보』 전에는 손원진의 조부의 이름이 손부항孫富恒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890년(고종 27)에 발급된 추증교지(고신 2-4)에는 이름이 손해창孫海昌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밀양손씨소윤공파보』 전에는 손원진의 부의 이름이 손치대孫致大로 기재되어 있으나, 1890년(고종 27)에 발급된 추증교지(고신 2-3)에는 이름이 손귀재孫貴載로 기재되어 있다.

밀양 손씨 세계도(구운동)



① 초록색은 입묘조(또는 입향조)와 분파조이고, 파란색은 관직에 진출한 인물이다.
② * 귀봉 이하의 후손들 중 묘역의 위치가 성북리로 표시된 것은 원래 구운동에 조성되었던 묘역이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정조의 어진을 모신 화령전의 수문장¹⁾

화령전(華寧殿)은 조선 후기 개혁신주로 알려진 정조를 추모하기 위하여 순조가 1801년(순조 1)에 세운 영전(影殿)으로, 화성행궁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늘의 은하수를 뜻하는 의미를 지닌 운한각(雲漢閣)은 화령전의 정전으로, 이곳에는 정조의 어진(御眞)이 봉안되었고 순조가 아버지를 추모하며 직접 쓴 편액이 걸렸다. 이처럼 정조의 어진이 모셔지고 순조 어필이 걸린 화령전은 조선시대 내내 신성공간으로 존송되었고, 역대 국왕들은 용릉과 건릉을 참배하면서 정조의 사당인 화령전도 반드시 참배하였다.

국왕의 어진을 모신 사당인 화령전은 견고하고 질박하게 지으라는 순조의 하명에 따라 단아하면서도 장중한 맛이 나게 지어졌다. 건물 구성은 외삼문과 내삼문, 운한각을 일직선으로 배치하고, 운한각 좌측에 복도각과 이안청을 두었다. 좌측 담 밖의 재실 기능을 하는 풍화당(風化堂)까지 포함하는 공간 구성이다.

풍화당은 화령전의 재실로 사용하던 건물로, 운한각의 좌측 내곽담장 바깥에 있다. 화령전의 제향이 있을 때 헌관이 머무르는 장소로, 건물 가운데 큰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과 한단 높은 툇마루를 두었다. 운한각 우측 내곽담장 바깥에 있었던 전사청(典祀廳)은 제사를 준비하던 장소로 향대전(香大殿)과 연결해 있는 복합건물이었다.

화령전에는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화령전령(華寧殿令)과 경비를 담당하는 수문장 등 두 직책이 가장 권위를 지닌 자리였다. 화령전령 1인은 수원부의 판관(判官)이 겸임하였고, 종9품의 수문장 2명이 배치되었다. 화령전수문장은 수문장 소속기관인 수문장청(守門將廳)에 속하지 않고 각전수문장(各殿守門將)에 소속되었으며, 화영 소속 초관(哨官) 중에서 해당 관청에서 2인을 추천하면 단부(單付)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화령전은 1891년 대대적으로 개수(修改)되었다. 그 공로로 김명제(金明濟)는 6품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령전이 개수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는 1908년에 정조 어진은 덕수궁 선원전(璿源殿)으로 이안(移安)되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 일제에 대한 저항이 거세진 동시에 구한국 황실에 대한 민심도 이반하였다. 당시 화령전 본전(本殿)에 수직관(守直官) 2명을 두었는데, 엄연히 나라에서 설치한 관직임에도 늙어서 퇴직한 장리(將吏)로 궁색하게 채워졌다. 이렇듯 황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화령전을 수호(守護)하는 일을 소홀히 여김에 따라 1907년 8월 2일(음력)

1) 한동민, 『수원을 걷는다-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2012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화령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에는 일반 민인이 화령전 정전인 운한각의 함문을 칼로 뜯고 들어가는 변고가 생길 정도였다.

민심이 이반되고 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나자 대한제국정부는 경기 지역 능원의 제향절차를 줄이고 진전眞殿을 합설하는 등 운영상의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화령전을 비롯한 영희전永禧殿, 목청전穆淸殿, 냉천정冷泉亭, 평락정平樂亭, 성일헌誠一軒에 봉안된 어진이 덕수궁 선원전으로 옮겨졌고, 화령전에 모셔져 있던 정조의 위패와 어진은 1908년 9월 20일 덕수궁 선원전으로 이안되었다. 이로써 1801년에서 1908년까지 108년간 화령전에 봉안되어 수원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던 어진은 영영 수원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정조 어진이 없는 화령전은 더 이상 권위를 상징하는 그 화령전이 아니었다.

옛문서로 본 밀양 손씨가

고신 告身

2-1 | 國王-孫源鎭 | 光緒 16(고종 27, 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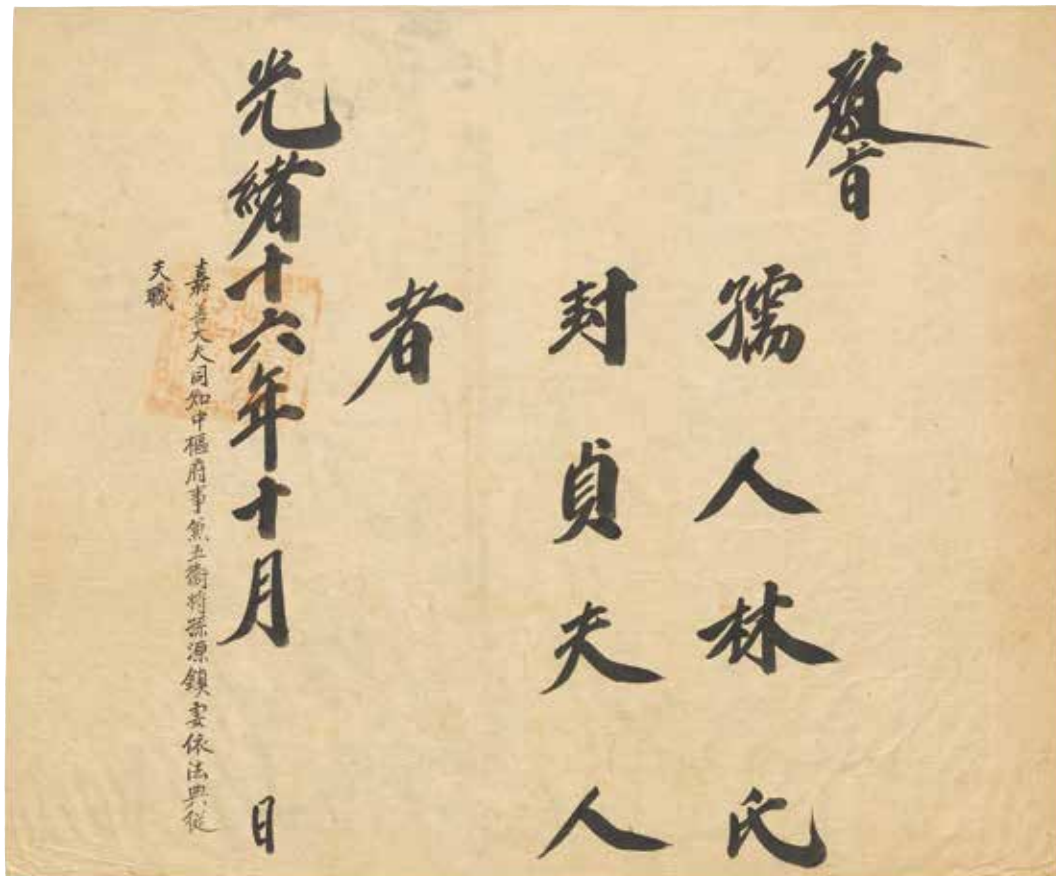
1890년(광서 16) 10월에 손원진 孫源鎭을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하는 고신 告身이다. 가선대부 嘉善大夫는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종2품 당상관의 품계이다.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는 조선시대 중추부 中樞府에 두었던 종2품 관직인 동지사 同知事로 정원은 8원이다. 중추부는 조선시대 일정한 직무가 없는 당상관 堂上官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다. 오위장 五衛將은 오위의 으뜸 벼슬로 종2품이었다가 정조 때 정3품으로 격하되었으며 정원 15원이다. 주로 입직 入直과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행순 行巡 및 시위 侍衛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손원진이 이 고신으로 종2품 실직인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됨에 따라, 문무관 실직 2품 이상의 관직자에게는 3대를 추증한다는 경국대전의 추증조 追贈條에 따라 손원진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대가 추증 追贈을 받았다.



고신 告身

2-2 | 國王-孺人 林氏 | 光緒 16(고종 27, 1890)

1890년(광서 16) 10월에 손원진 孫源鎭의 처 유인 孺人 임씨 林氏를 정부인 貞夫人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고신의 발급사유는 연호의 왼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남편 손원진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되어 종부직에 따라 정부인에 임명된 것이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의정부 정·종2품의 품계로 정2품인 정헌대부 正憲大夫·자헌대부 資憲大夫의 처와 종2품인 가정대부 嘉靖大夫·가선대부 嘉善大夫의 처에게 주었다.



고신 告身

2-3 | 國王-孫貴載 | 光緒 16(고종 27, 1890)

1890년(광서 16) 10월에 손원진 孫源鎭의 아버지인 손귀재 孫貴載를 가선대부 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 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로 추증하는 고신이다. 고신의 발급사유는 연호의 왼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아들 손원진이 종2품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경국대전』 이전 吏典 추증조에는 “종친 및 문무관으로 실직 2품 이상은 3대를 추증한다. 부모는 자기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각기 1등씩 낮추어서 준다.”는 규정에 따라 손귀재는 손원진과 동일한 품계를 추증받았다.



고신 告身

2-4 | 國王-孫海昌 | 光緒 16(고종 27, 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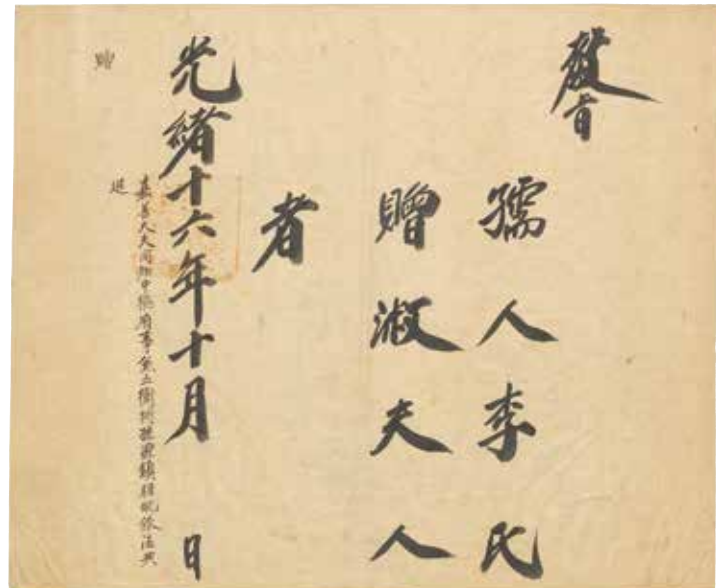
1890년(광서 16) 10월에 손원진의 조부 학생 學生 손해창 孫海昌을 통정대부승정원 좌승지검경연참찬관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으로 추증하는 고신이다. 손원진이 종2품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어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고신 告身

2-5 | 國王-孺人 李氏 | 光緒 16(고종 27, 1890)

1890년(광서 16) 10월에 손원진의 조비 祖妣인 유인 孺人 이씨 李氏를 숙부인 淑夫人으로 추증하는 고신이다. 고신의 발급사유는 연호의 왼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손자 손원진이 종2품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어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고신 告身

2-6 | 國王-孫相龍 | 光緒 16(고종 27, 1890)

1890년(광서 16) 10월에 손원진의 증조고曾祖考인 손상룡孫相龍을 통정대부 사복시정通政大夫司僕寺正으로 추증하는 고신이다. 고신의 발급사유는 연호의 왼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증손자인 손원진이 종2품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어 법전에 따라 추증한 것이다.



고신 告身

2-7 | 國王-孫源鎮 | 光緒 16(고종 27, 1890)

1890년(광서 16) 10월에 손원진을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겸오위장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兼五衛將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용양위驤衛護는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에 해당하며 호군護軍은 무관직으로 오위에 속하는 정4품의 실직이며, 오위장은 오위에서 제일 높은 벼슬로 정3품의 실직이다.



칙명 勅命

2-8 | 國王-孫源鎮 | 光武 6(고종 39, 1902)

1902년(광무 6) 9월 25일에 손원진을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시陞敍하는 칙명이다. 칙명의 발급사유는 연호의 왼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고종이 기사社에 들어간 것을 경축하는 뜻에서 손원진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으므로 가자加資한 것이다. 기사는 조선시대 나이 70이 넘는 정2품 이상의 문신들을 경로 및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기로소耆老所 혹은 기소耆所라고 한다. 고종 27년 종2품 가선대부에 올랐던 손원진에게 그보다 품계가 낮은 정3품 통정대부를 가자한 점이 이상한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홍패 紅牌

2-9 | 國王-孫濟仁 | 光緒 17(고종 28, 1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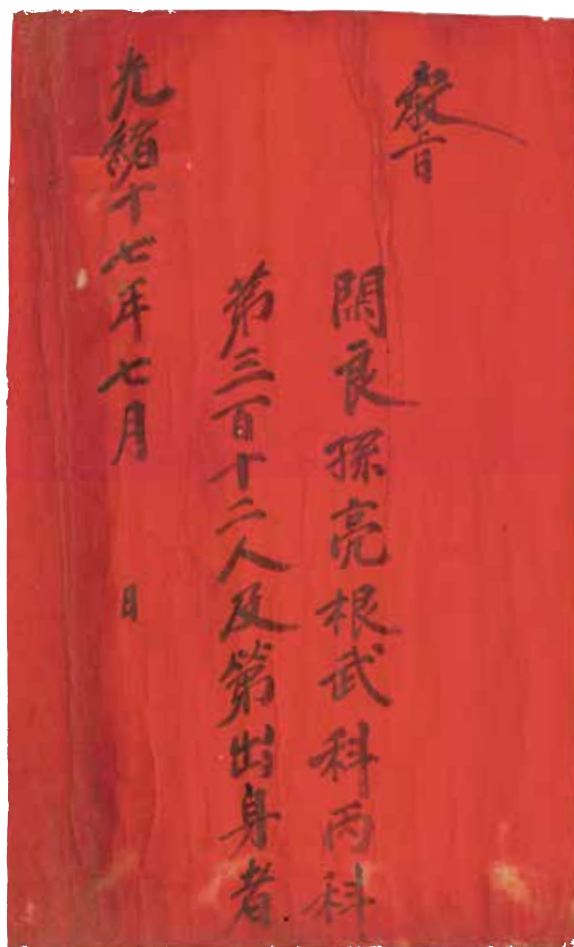
1891년(광서 17) 4월에 한량 閑良 손제인 孫濟仁이 무과에 병과 丙科 제309인으로 급제하여 받은 홍패이다. 배면에는 황색침지에 한량손제인무과병과제삼백구인 閑良孫第人武科丙科第三百九人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손제인은 손원진의 아들이다.



홍패紅牌

2-10 | 國王-孫亮根 | 光緒 17
(고종 28, 1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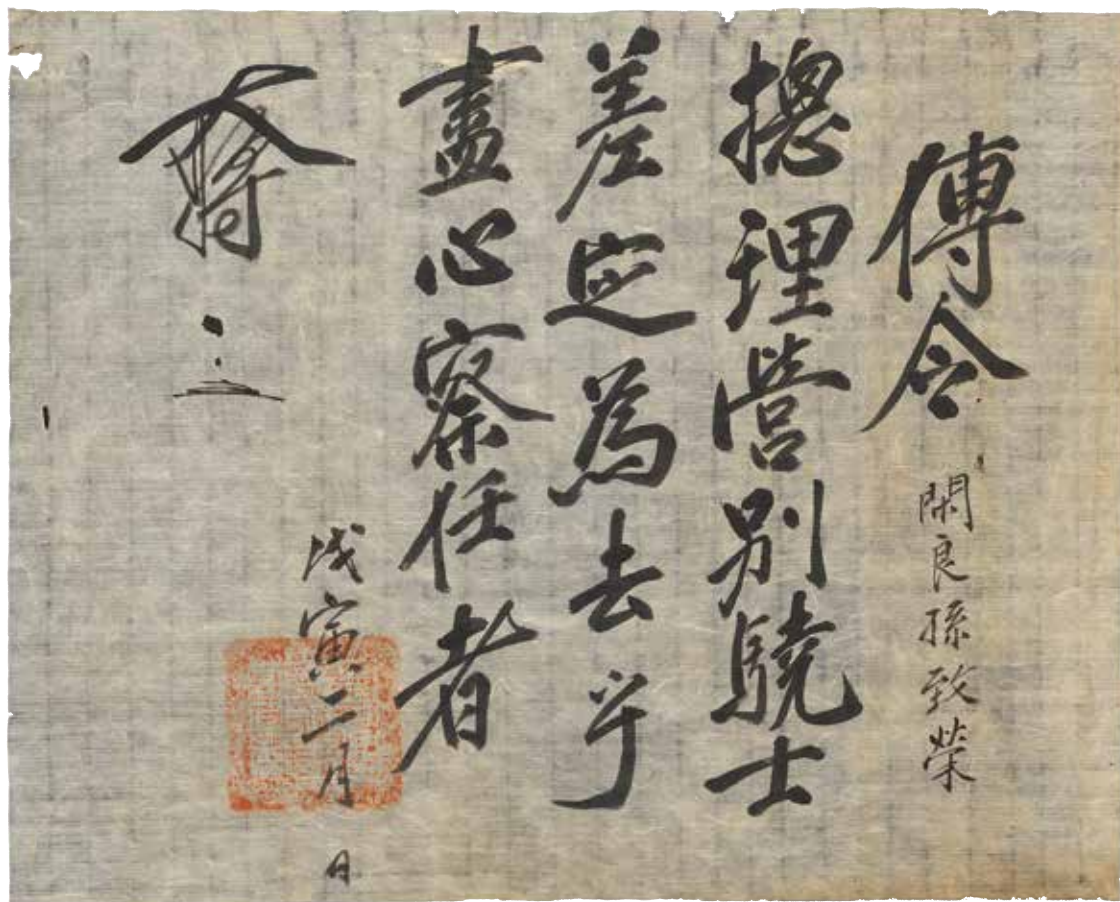
1891년(광서 17) 4월에 한량^{閑良} 손양근^{孫亮根}이 무과에 병과 제312인으로 급제하여 받은 홍패이다. 배면에 한량손양근무과병과제삼백십이인^{閑良孫亮根武科丙科第三百十二人}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손양근은 손제인의 아들로, 부자가 모두 무과에 급제하였다.



전령傳令

2-11 | 總理營大將-孫致榮 | 戊寅 2月
(순조 18, 1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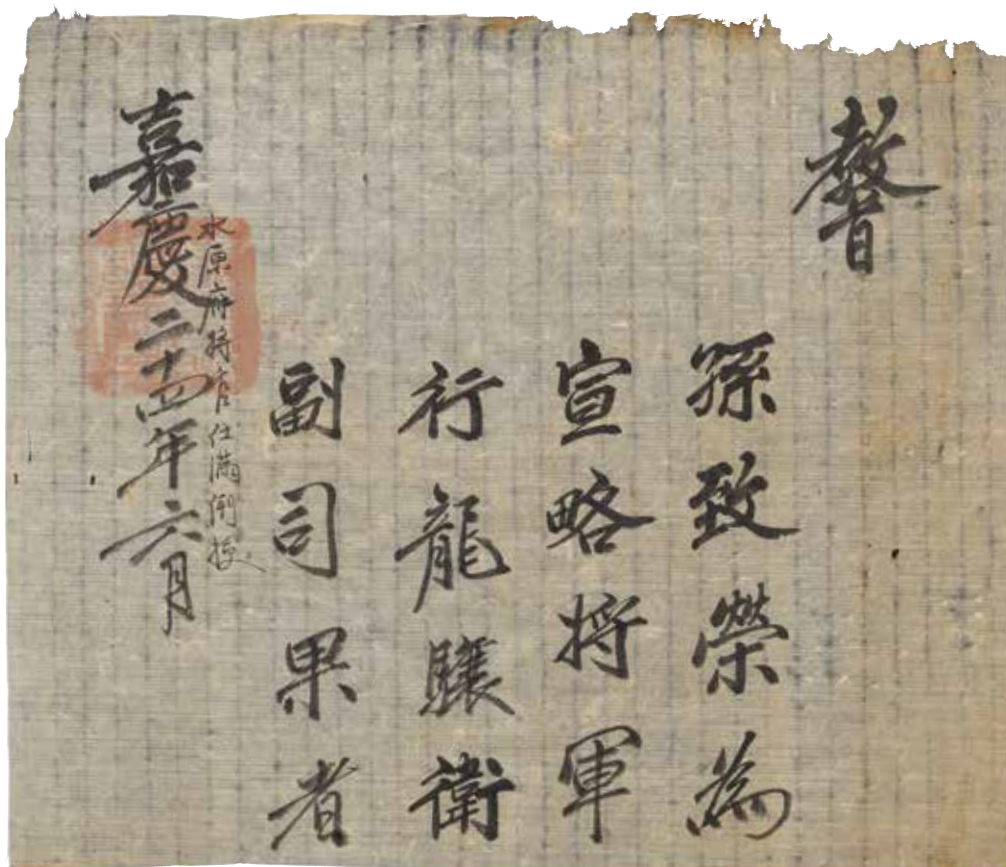
1818년(무인년) 2월 한량 손치영孫致榮을 총리영별효사總理營別驍士로 차정差定하는 전령傳令이다. 총리영은 1802년(순조 2)에 수도 외곽 일부의 수비를 담당하기 위해 수원부에 설치한 군영으로 장용위를 개편한 것이다. 유수留守(정2품)가 총리사總理使를 겸하고 그 밑에 중군中軍(정3품)·종사관從事官(중5품) 각 1명, 별효장別驍將(정3품) 2명, 파총把總(중4품) 12명, 척후장斥候將(중9품) 1명, 초관哨官(중9품) 25명, 교련관 8명, 지구관知穀官 10명, 별군관 100명, 수첩군관守摺軍官 12명, 별효사別驍士 200명으로 구성되었다. 한량 손치영은 총리영별효사에 임명된 지 5년 만에 무과에 급제하게 된다.



고신 告身

2-12 | 國王-孫致榮 | 嘉慶 24(순조 19,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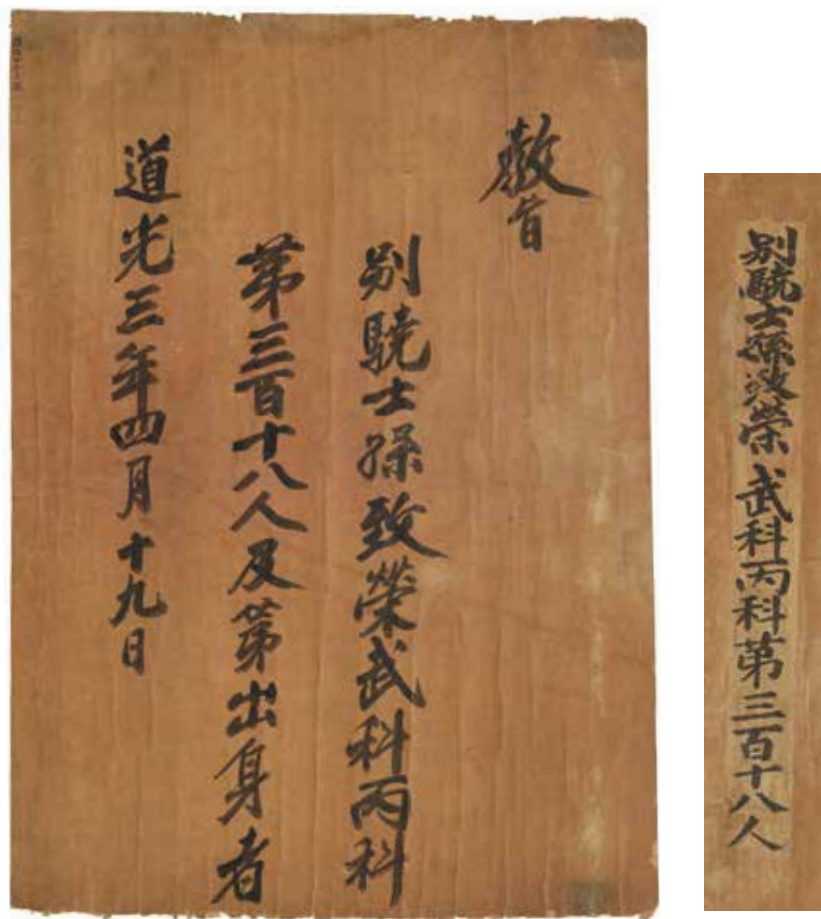
1819년(가경 24) 6월 손치영 孫致榮을 선략장군행용양위부사과 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고신의 발급사유는 수원부장관 水原府將官의 임기가 다 찼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제수한 것이다. 선략장군 宣略將軍은 종4품 무관의 품계이다. 용양위 龍驤衛는 조선 전기에 중앙군사 조직인 오위의 하나로 좌위 左衛에 해당된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오군영 五軍營이 설치됨으로써 무보직자와 다른 군영 및 여러 관청의 잡직 등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관직으로 바뀌었다. 부사과 副司果는 오위의 종6품의 관직을 말한다.



홍패 紅牌

2-13 | 國王-孫致榮 | 道光 3(순조 23, 1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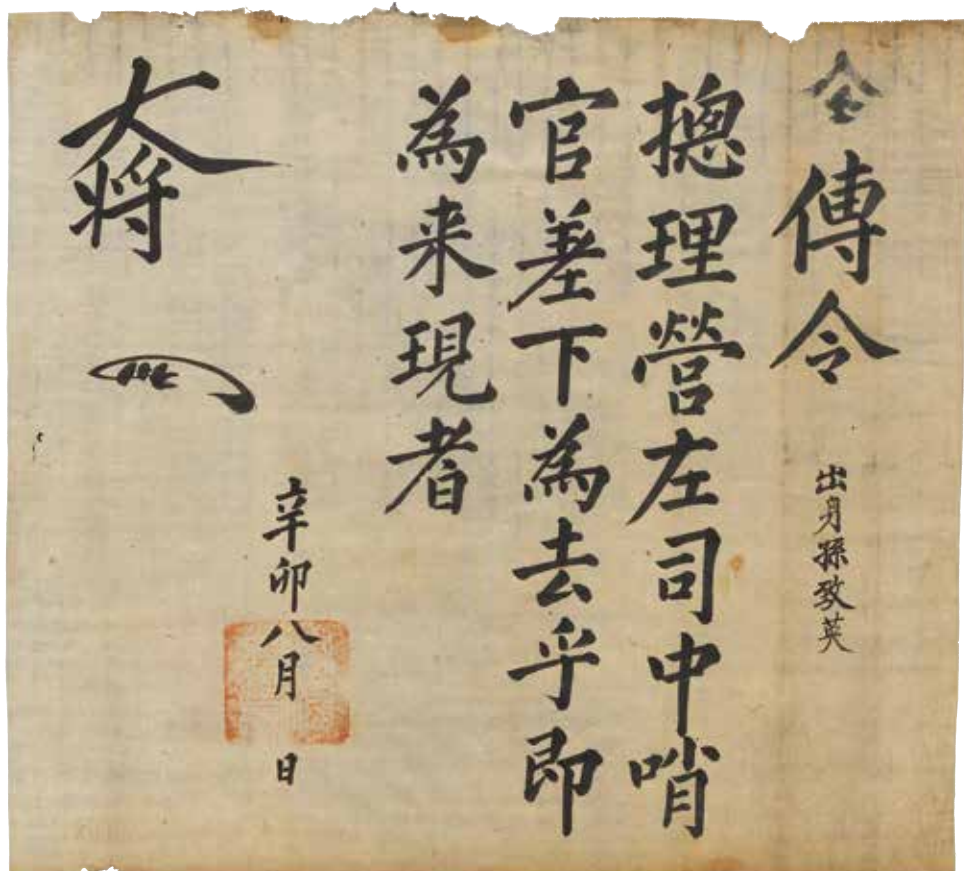
1823년(도광 3) 4월에 별효사別驍士 손치영孫致榮이 무과 병과에 제318인으로 급제하여 받은 홍패이다. 손치영은 1818년(순조 18) 총리영별효사에 임명된 지 5년 만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배면背面에는 황색침지에 별효사손치영무과병과제삼백십팔인別驍士孫致榮武科丙科第三百十八人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령傳令

2-14 | 總理營大將-孫致榮 | 辛卯 8月
(순조 31, 1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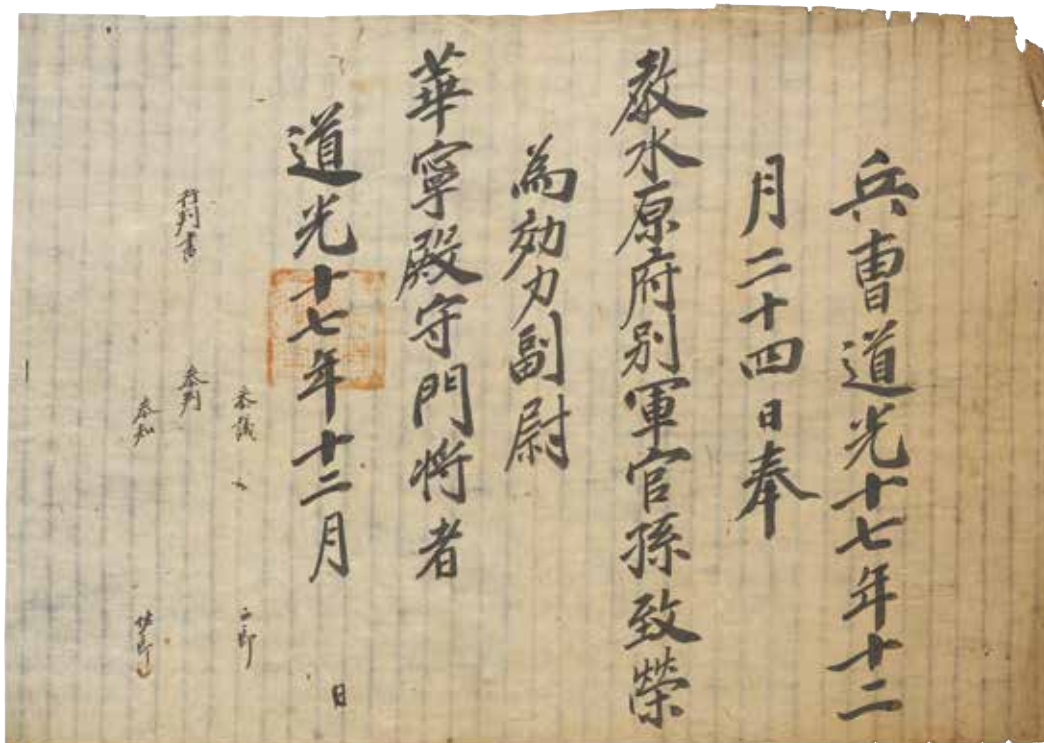
1831년(신묘년) 8월에 출신出身 손치영孫致榮을 총리영좌사중초관總理營左司中哨官으로 차정差定하는 전령이다. 손치영은 무과 병과에 급제한 이후 8년만에 총리영總理營 좌사左司의 초관哨官에 차정되었다.



고신 告身

2-15 | 兵曹-孫致榮 | 道光 17(헌종 3, 1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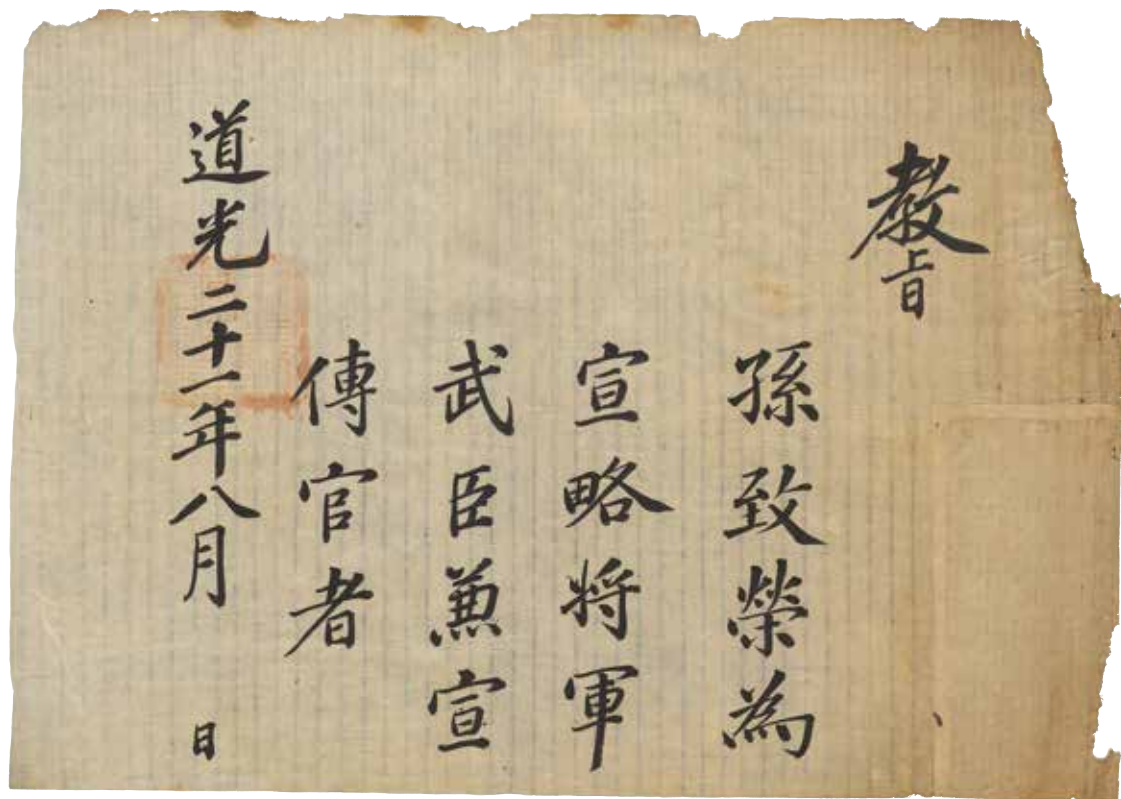
1837년(道光 17) 12월에 병조兵曹에서 수원부水原府 별군관別軍官 손치영孫致榮을 효력부위화령전수문장效力副尉華寧殿守門將으로 임명하는 5품 이하 고신이다. 효력부위效力副尉는 무신 정9품의 품계이다. 화령전華寧殿은 정조의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하던 전각이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화산化山으로 옮기고 수원부를 설치하였던 정조의 효심과 유덕을 받들기 위해 1801년(순조 1) 수원부 행궁 옆에 건립하였다. 제조提調 1인을 두어 수원부유수水原府留守가 겸임하였으며 화령전령華寧殿令 1인은 수원부의 관관判官이 겸임하였다. 수문장守門將은 도성 및 궁궐의 각 문을 지키던 관직으로 수문장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수문장청守門將廳에 소속되지 않는 각 전수문장各殿守門將이 따로 있었는데, 화령전의 수문장이 여기에 속한다.



고신 告身

2-16 | 國王-孫致榮 | 道光 21(헌종 7, 1841)

1841년(道光 21) 8월 손치영 孫致榮을 선략장군무신겸선전관 宣略將軍武臣兼宣傳官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무신겸선전관 武臣兼宣傳官은 조선시대 선전관 청에 속한 무관으로 선전관을 겸한 자를 말하며, 정3품 당상관부터 종9품 까지 있었다. 주로 왕의 시위 侍衛·전령 傳令·부신 符信 등의 출납과 사졸의 진 퇴를 호령하는 형명 등의 임무를 맡아 본 무직승지의 구실을 하였다.



고신 告身

2-17 | 國王-淑人 金氏 | 光緒 2(고종 13, 1876)

1876년(광서 2) 6월 손치영의 처 숙인淑人 김씨金氏를 숙부인淑夫人에 봉하는 고신이다. 고신의 발급 사유는 남편 손치영이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겸 오위장折衛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이라는 정3품 실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종부직에 따라 숙부인에 봉한 것이다. 숙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 정3품의 품계로 정3품의 통정대부와 절충장군의 처에게 주었다.



홍패 紅牌

2-18 | 國王-孫宅鎭 | 光緒 15(고종 26, 1889)

1889년(광서 15) 12월 무사(武士) 손택진(孫宅鎭)이 무과에 병과 제869인으로 급제하여 발급받은 홍패(紅牌)이다. 배면에는 황색침지에 무사손택진무과병과제팔백육십구인(武士孫宅鎭武科丙科第八百六十九人)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손택진은 손치영의 장자로 부자가 모두 무과에 급제하고 있다.



고신 告身

2-19 | 國王-孫宅鎭 | 光緒 19(고종 30, 1893)

1893년(광서 19) 10월에 손택진(孫宅鎭)을 통정대부·돈녕부도정(通政大夫敦寧府都正)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통정대부는 문관의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다. 돈녕부(敦寧府)는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에 들어가지 못하는 임금의 친척과 외척을 위한 예우기관으로 정1품 아문이다. 도정(都正)은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훈련원(訓練院)의 정3품 당상관 관직이다.



고신 告身

2-20 | 國王-孺人 徐氏 | 光緒 19(고종 30, 1893)

1893년(광서 19) 10월에 손택진 孫宅鎭의 처 유인 孺人 서씨 徐氏를 숙부인 淑夫人에 봉하는 고신이다. 손택진이 정3품 통정대부 돈녕부도정에 임명되어 종부직에 따라 숙부인에 봉한 것이다.



홍패紅牌

2-21 | 國王-孫濟萬 | 光緒 6(고종 17, 1880)

1880년(광서 6) 8월에 선무군관選武軍官 손제만孫濟萬이 무과 병과 제203인으로 급제하여 발급받은 홍패이다. 손제만은 무과에 급제하기 전 선무군관選武軍官을 지내고 있었다. 선무군관은 경기·충청·전라·경상도의 지방 군관 중에서 무술시험을 거쳐 선발한 군관이다. 주로 전국의 토호土豪와 부민富民의 자제를 선발하여 평상시에는 군관포軍官布 1필을 내면서 무예를 연습하고 유사시에 소집하여 군졸을 지휘하게 하였다. 매년 관찰사의 주관 하에 재능을 시험하여 1등에 합격하면 전시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으며, 2등에 합격하면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손제만도 선무군관을 지내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무과에 급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제만은 손택진의 장자이다. 손제만이 고종 17년 무과에 급제함으로써 이 집안은 손치영-손택진-손제만 3대가 무과에 급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選武軍官孫濟萬武科第百三及第出身者

光緒六年八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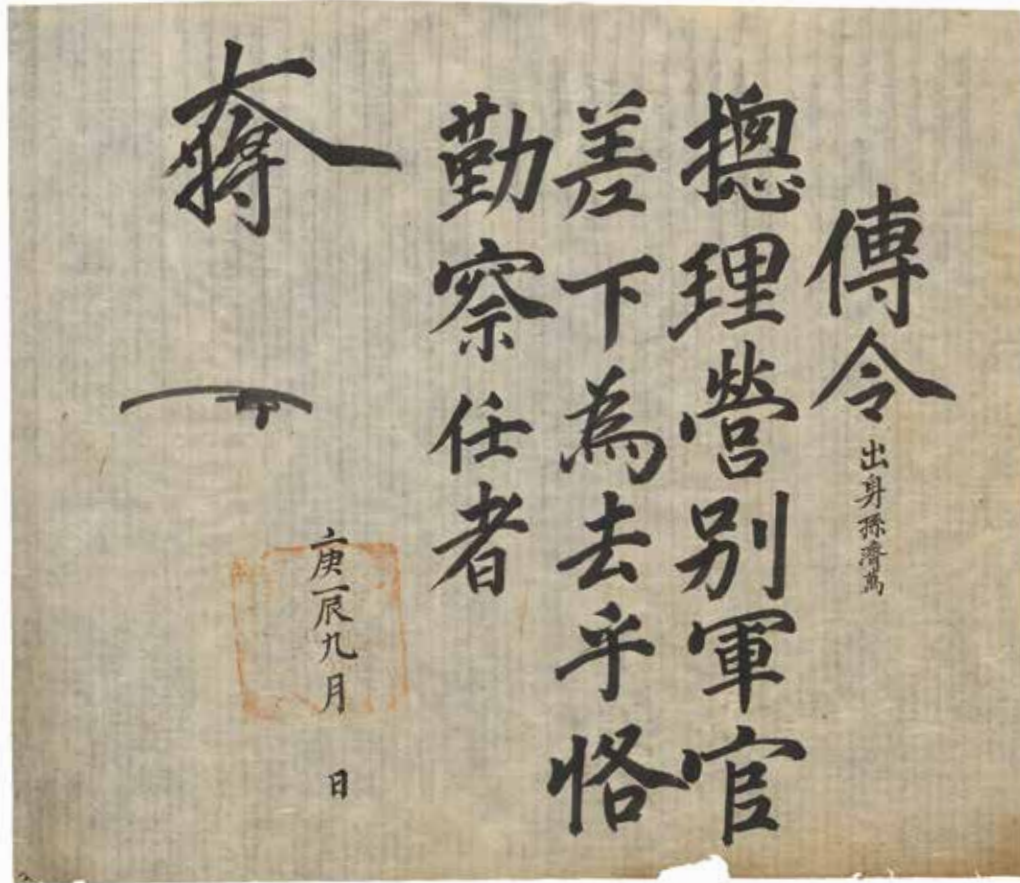
聲

選武軍官孫濟萬武科第百三及第出身者

전령傳令

2-22 | 總理營大將-孫濟萬 | 庚辰 9月
(고종 17, 1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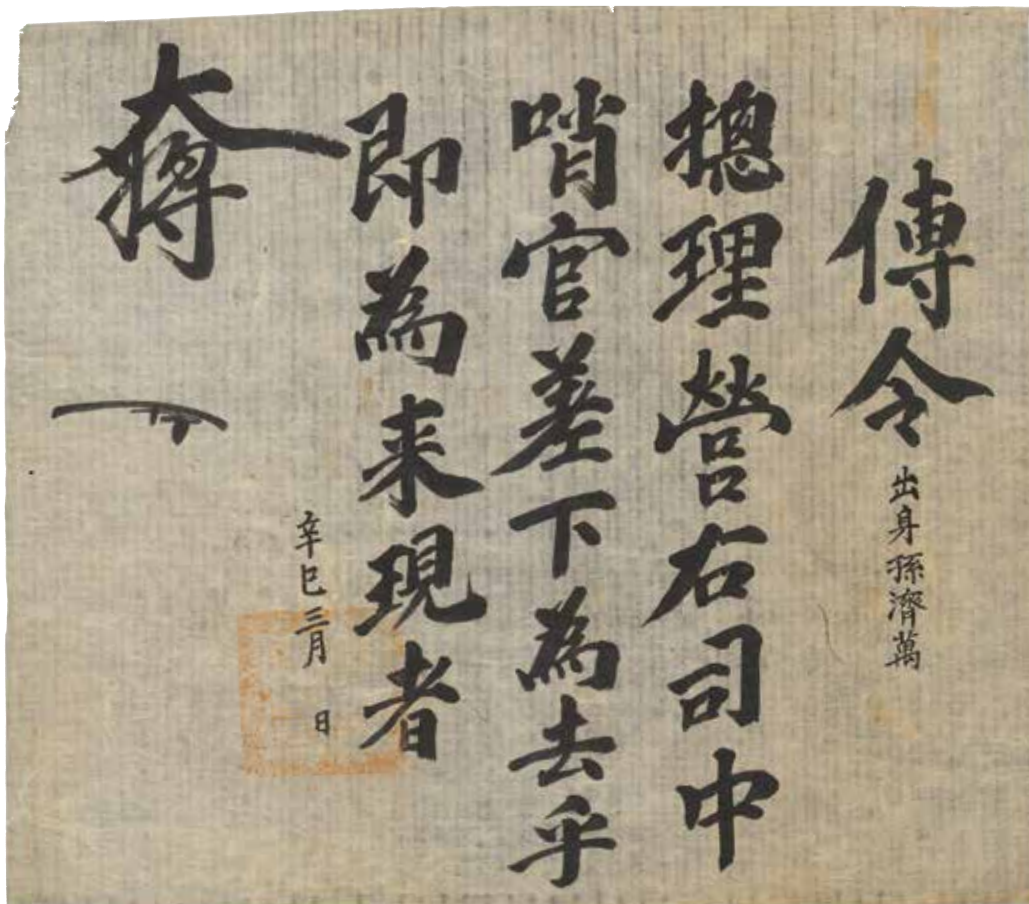
1880년(경진년) 9월에 출신^{出身} 손제만을 총리영별군관^{總理營別軍官}으로 차하^{差下}하는 전령이다. 선무군관을 지내다 무과에 급제한 손제만은 급제한 지 한 달 뒤 총리영별군관에 임명되었다. 별군관^{別軍官}은 총리영에 소속된 군직으로 별효사^{別驍士} 중에서 임명하였으며, 화성에 있는 화산^{花山}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전령傳令

2-23 | 總理營大將-孫濟萬 | 辛巳 3월
(고종 18, 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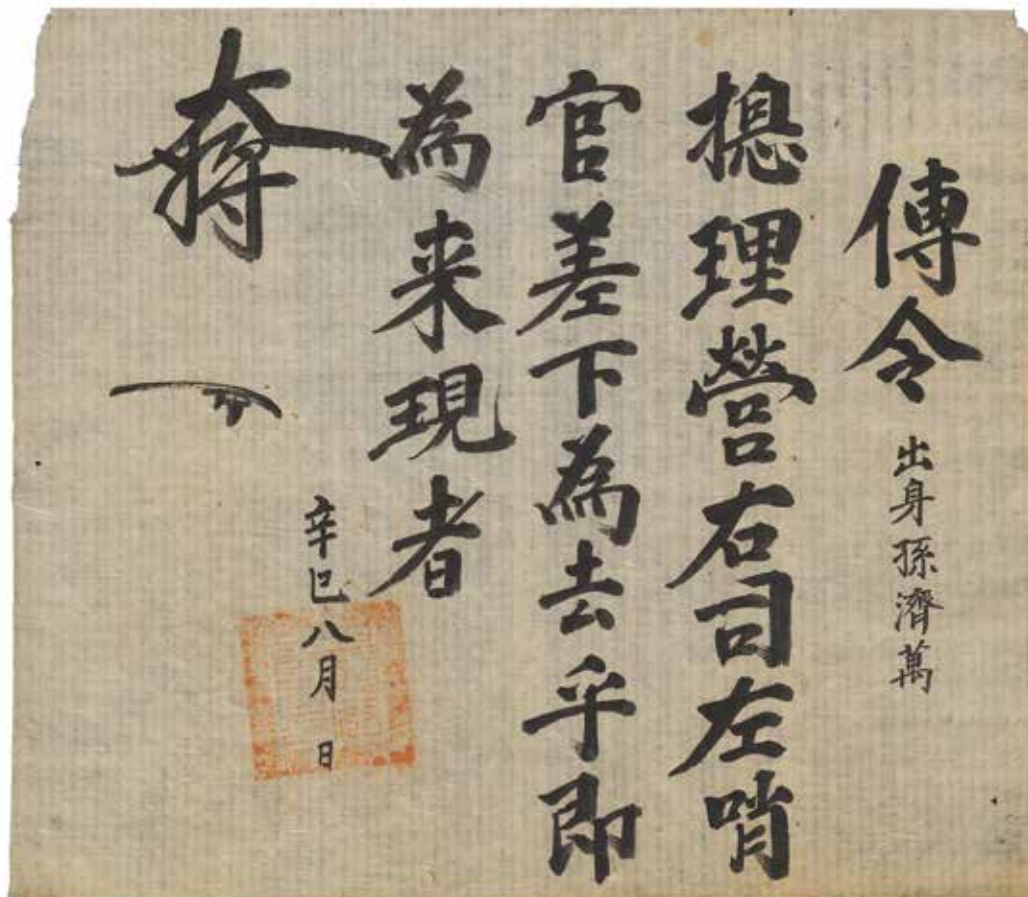
1881년(신사년) 3월 출신^{出身} 손제만^{孫濟萬}을 총리영우사중초관^{總理營右司中}
哨官으로 차하^{差下}하는 전령이다. 총리영^{總理營}은 좌사^{左司}·중사^{中司}·우사^{右司}
로 구분되어 있었다. 초관^{哨官}은 총리영에 소속된 종9품직으로 정원은 200
명이다.



전령傳令

1881년(신사년) 8월에 출신出身 손제만孫濟萬을 총리영우사좌초관總理營右司
左哨官으로 차하差下하는 전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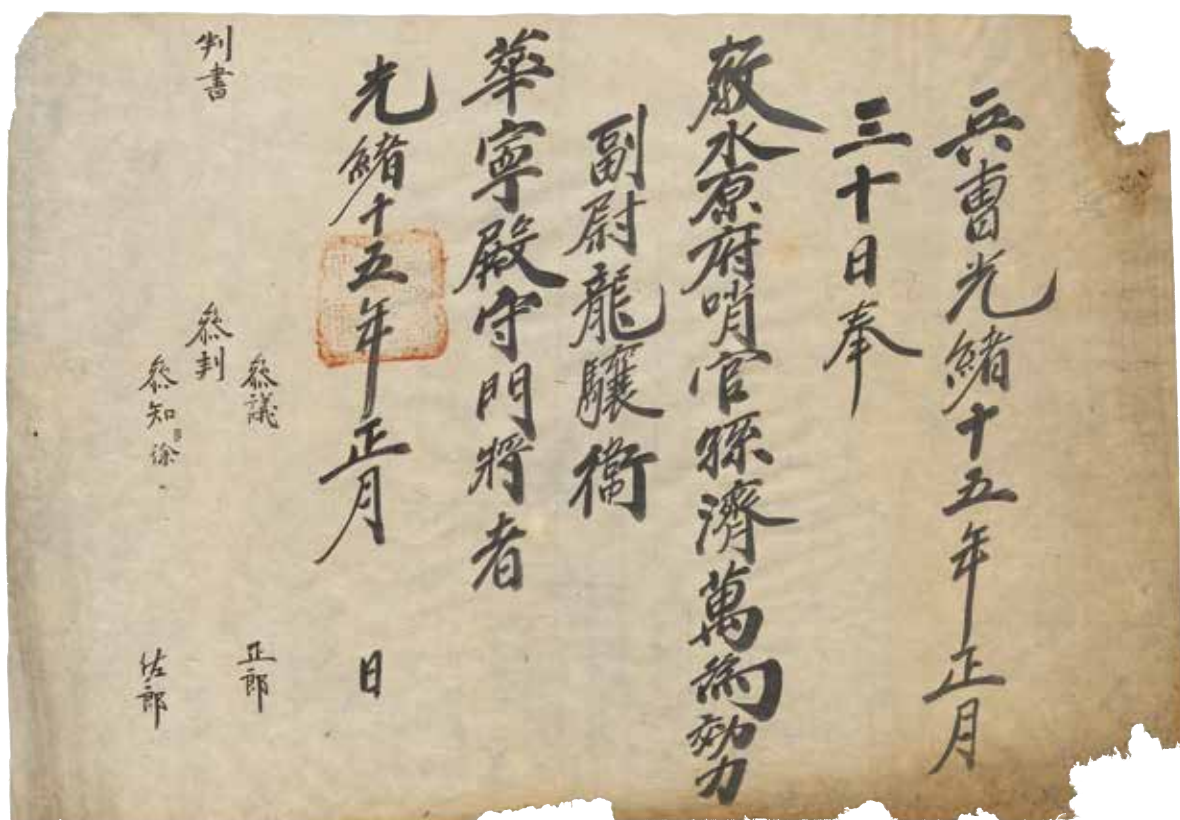
2-24 | 總理營大將-孫濟萬 | 辛巳 8월
(고종 18, 1881)



고신 告身

2-25 | 兵曹-孫濟萬 | 光緒 15(고종 26, 1889)

1889년(광서 15) 1월에 수원부초관 水原府哨官 손제만 孫濟萬을 효력부위용양 위화령전수문장 效力副尉龍驤衛華寧殿守門將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50여 년 전 조부 손치영에 이어 손자인 손제만 역시 화령전수문장에 임명되고 있다.



고신 告身

2-26 | 國王-孫濟萬 | 光緒 19(고종 30, 1893)

1893년(광서 19) 10월에 손제만을 통훈대부행사헌부감찰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문관의 품계로 정3품 당하관堂下官에 해당한다. 사헌부司憲府는 조선시대 종2품 아문으로 관원으로는 대사헌大司憲(종2품), 집의執義(종3품) 각 1원, 장령掌令(정4품), 지평持平(정5품) 각 2원, 감찰監察(정6품) 13원을 두었으며, 감찰은 문관 3인, 무관 5인, 음관 5인으로 구성하였다. 감찰이 맡은 업무는 지방관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분대어사分臺御使라는 이름으로 파견되기도 하며, 회계감사의 요청에 응해서 감찰 직무를 수행하였다. 손제만은 사헌부감찰에 제수됨으로써 무과에 급제한 지 13년 만에 6품의 실직에 오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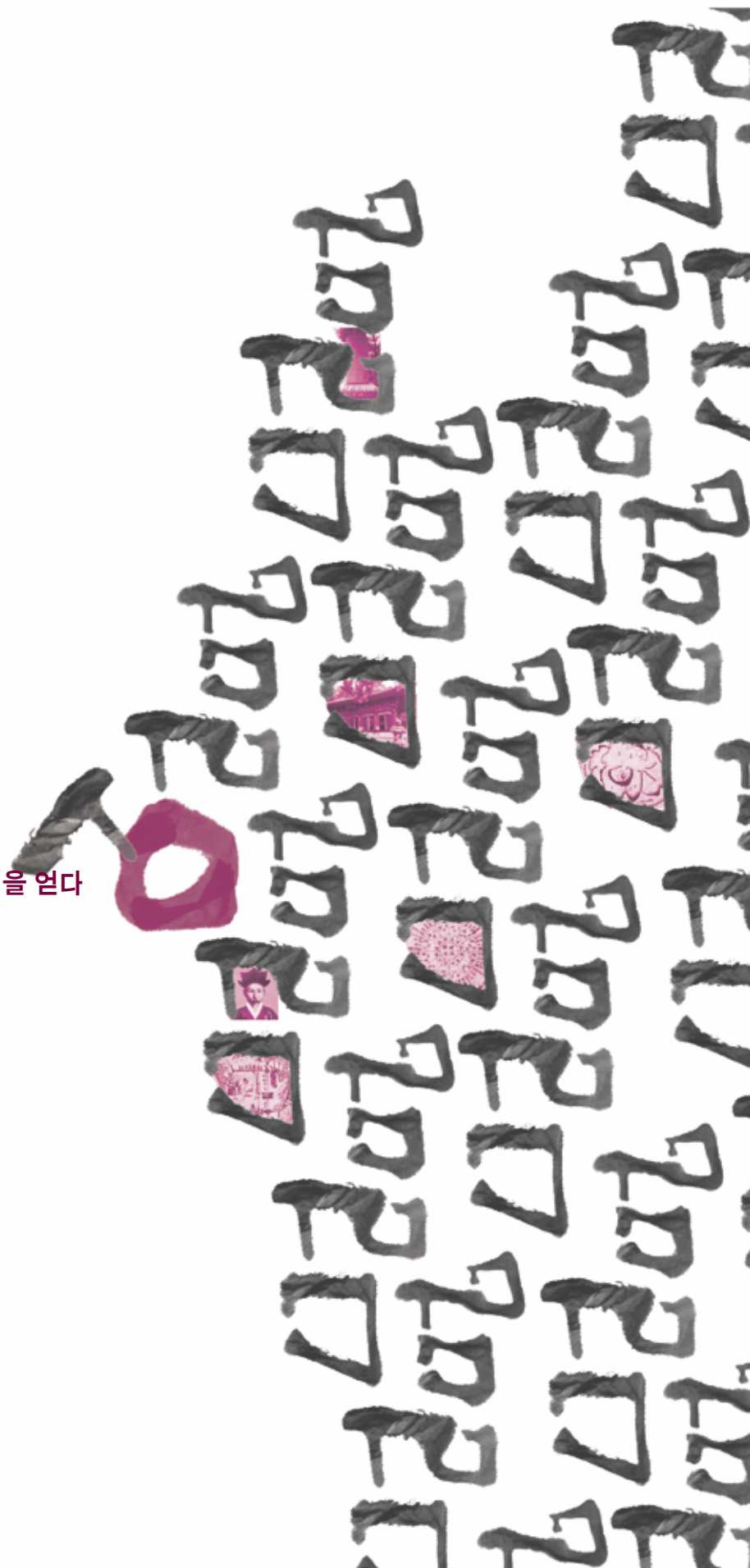




세 월 과 함 께 한 수 원 의 옛 문 서

제3부

수원을 본관으로 삼은
차씨가, '팔부자'의 명성을 얻다



수원 화성과 함께 성장한 차씨가, ‘수원’을 본초로 삼다

연안 차씨는 고려왕조 성립 과정에 필요한 군량미를 헌납한 공으로 연안군延安君에 봉해진 차효전車孝全을 시조로 한다. 수원에 거주하는 차씨는 차효전의 20세손인 문절공文節公 차원부車原類(1320~1398)의 후손이다. 차원부는 고려 말 조선 초에 두문동에 은거한 72인의 한 사람으로 태조 이성계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가, 1398년에 죽음을 맞았다.¹⁾ 그는 1456년 문절공文節公의 시호와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좌찬성겸문하시중議政府左贊成兼門下侍中을 증직받아 문절공파의 파조가 되었다. 20세 이후 행적은 대수와 고려 관직명만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자세하지 않으며, 31세 차성규車聖規(1671~?)에 이르러 기록에 등장하여 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차성규는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이 있어 구무원종공신舊武原從功臣으로 통훈대부군자감정에 증직을 받았다. 차위재는 증통정대부贈通政大夫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역임하였으며, 차득대는 증가선대부贈嘉義大夫 한성부윤겸오위도총부총관漢城府尹兼五衛都總府總管을 역임하였다.

한편 31세 차성규, 32세 차위재, 33세 차득대車得大(1732~1782)는 양성陽城에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차득대의 부인 경주 김씨慶州 金氏와 그 아들 차기봉車起鳳(1759~1842)은 수원에 묘



『연안차씨세계』

1) 연안 차씨 중앙종친회(<http://www.cha.or.kr>), 연안 차씨 연혁.



『차씨가승초』

역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은 양성에서 세거하다가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에 수원으로 이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차기봉은 수원 입묘조(入墓祖)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차씨 종중에서는 수원에 입향한 조상을 차득대로 보고 있는데,²⁾ 차득대가 이곳에 이주하였다가 선영이 있는 양성에 묻힌 것이지, 아니면 그 아들 차기봉 대에 수원으로 이거했는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집안의 수원 입향 계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정조의 화성신도시 육성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화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수원 부의 이주민이 빠른 시간에 정착하여 편안하게 먹고살 수 있도록 윤음을 내려 각종 혜택을 주었다. 특히 수원에서 문무과 시취를 계속 베풀어 구읍에서의 이주민뿐만 아니라 타처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일종의 유인책을 사용하였다. 또한 화성의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시전을 설치하였고, 한양의 부상과 수원의 상인 그리고 전국 경향 각지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특정의 독점권 없이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원책에 힘입어 화성의 지역적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차씨가도 수원으로 이거하여 유력한 집안으로 성장해 간 것으로 보인다. 수원 차씨 묘역이 문시면에서 점차로 남면(南面), 권선리(權善里), 삼봉면(三峰面), 동문(東門) 밖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 내에

2) 차준오 인터뷰,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III, 수원시, 2005. 차준오는 인봉(仁鳳)의 후손이다.

서 생활영역을 점차 넓혀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차득대는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 중 다섯 아들이 관직에 진출하거나 후손에 의해 증직을 받는다. 특히 35세에 대거 관직에 진출하였는데, 차운룡車雲龍(1778~1884)은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 차문룡車文龍(1782~1856)은 승전가선대부承傳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護軍, 차응룡車應龍(1794~1815)은 통정대부通政大夫 행덕포진첨절제사行德浦鎭



준호구準戶口

함풍咸豐 5년 을묘년(1855)에 수원부水原府에서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 차해룡車海龍(52, 갑자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본관을 '수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僉節制使, 차하룡車夏龍(1799~1875)은 훈련침정訓練僉正, 차은룡車殷龍(1794~1885)은 통훈대부通訓大夫 훈련판관訓練判官, 차해룡車海龍(1809~1897)은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첨지중추부사行龍驤衛僉知中樞府事, 차관룡車寬龍(1805~1887)은 행직공만호통정대부行直松萬戶通政大夫 월곶진첨절제사月串鎭僉節制使, 차형룡車亨龍(1808~1876)은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다. 또한 차무봉車茂鳳과 차인봉車仁鳳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가세가 확장되었는데, 34세 차신봉·차무봉, 35세 차의천·차운룡·차문룡, 36세 차운학·차홍식 7명이 동일 관직인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을 제수받는 것이 특징이다.

수원에서 세거하던 이 집안은 19세기 중반에 본관으로 ‘연안’이 아닌 ‘수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19세기 중후반에 기록된 차유천車維天(차해룡)³⁾과 그 아들 차운근車胤根의 준호구準戶口에 본관을 수원水原으로 기재하고 있다. 최초로 수원이라는 본관을 사용한 문서는 1855년 차해룡의 준호구이고, 차운근의 1879년 준호구에는 수원의 별칭인 ‘수성’을 본관으로 적고 있다. 이렇듯 연안 차씨 중에 수원에 거주하는 33세 차득대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본관을 ‘수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본관을 수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집안은 수원으로 이주한 이후 관직에 진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등 수원을 기반으로 하여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즉 ‘용龍’자 항렬에서는 대거 관직에 진출하였고 차무봉車茂鳳과 차인봉車仁鳳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무반 집안으로 성장해 갔다. 이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안으로서 수원과의 관련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수원’을 본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차유천과 차화룡이라는 이름도 같이 사용하였다. 해룡 계열 인물은 족보, 준호구, 가승, 교지, 민적부 등 자료에 따라 이름을 달리 적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안 차씨 문절공파 세계도



* 문절공文節公 차원부(차효전, 1320~?)의 자는 사평思平이며, 1364년 공민왕 대 문과 급제하여 행훈원대부보문각직제학겸지국평장사行諫議大夫實文閣直提學兼知國平章事를 지냈다. ** 『연안차씨세계』에는 문시면 금암리로 되어 있으나 최근 발행한 족보에는 오산면으로 되어 있다. 행정구역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지명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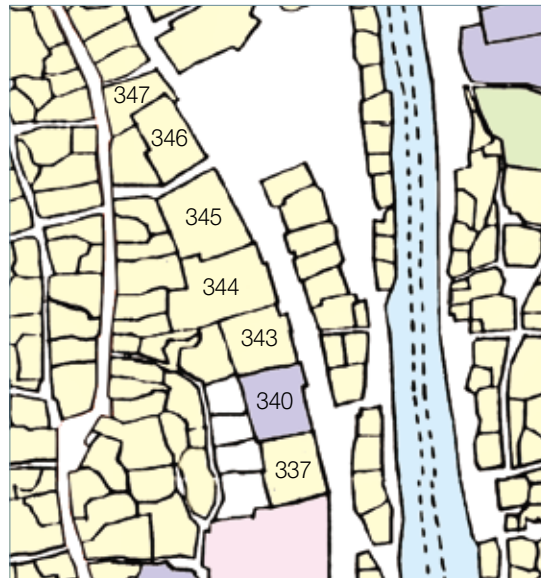
수원 ‘팔부자’의 명성을 얻은 차씨가, 지역의 근대적 변화를 이끈다

수원 차씨가는 수원의 ‘팔부자’로 일컬어지는데, ‘팔’이 정확하게 여덟 성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세기 후반에는 이미 ‘팔부자’의 명성이 민간에서 회자되었고 그 내용은 팔부자거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행궁 앞 십자대로 주변에 개설된 시전을 중심으로 ‘대도회’로 성장해 가던 화성에는 ‘팔부자거리’가 형성되었다. 팔부자거리에 대한 내용은 1897년 2월 10일 갓등이성당의 신부인 알릭스(Joseph Alix)가 천주교 조선교구장 뮈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수원에 팔려고 내놓은 집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팔부자집인데 약 30칸입니다. 값은 5,000냥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이 팔부자집을 천주교 측에서 구입하게 된 것은 한 달 뒤인 3월 말의 일이었다. 그리고 알릭스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보낸 1897년 4월 27일자 편지에서 ‘팔부자거리’와 ‘팔부자집’에 대한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9세기 「화성도」에 나타난 팔부자거리(수원박물관 소장)



일제시기 「지적도」에 나타난 팔부자거리

조선왕국의 8도를 대표하는 최고 부자 8명이 똑같은 설계로 나란히 8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팔부잣집’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본인이 산 집은 그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제일 잘 보존된 것입니다. 만약 조선 국왕이 미래의 선교사를 위해 집을 짓는다는 것을 알았다더라면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을까요?

팔부잣집은 보시동(북수동) 성 안 우시장 인근에서 중영에 이르는 길목에 연달아 서 있던 번듯한 기와집들을 일컫는다. 일제시기 자료를 통해 그 소유 상황을 살펴보면, 북수리 340번지(219평)는 프랑스 르각 신부의 소유였는데 이는 앞에서 본 천주교 측에서 구입한 팔부잣집이다. 바로 위쪽 343번지(204평)는 최송의 소유였고, 344번지(322평)는 이성의, 345번지(279평)는 민영린, 346번지(188평)는 차형린, 347번지(129평)는 차동린 소유의 기와집이었다.

차동린과 차형린은 차무봉의 후손으로, 조부인 차해룡과 부친인 차윤근의 준호구에는 본관이 ‘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시기의 팔부잣집은 수원의 대표적 가문이었던 전주 이씨와 여흥 민씨, 수성 최씨, 수원 차씨의 소유였던 셈이다.⁴⁾

한편 차씨 집안의 근현대 인물은 새로운 유지집단인 양씨, 홍씨, 윤씨 가문 등과 더불어 수원 지역의 근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주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인봉의 후손인 차재형, 차유순, 차준담, 차재운, 차정운 등을 들 수 있다.



경기도 관찰부 주사를 지낸 차재형(차수영 소장)

후손들의 말에 따르면 수원 차씨가는 차재형(1858~1941)⁵⁾ 때에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하는데, 그는 1896~1904년에 경기도 관찰부 주사를 역임하였다. 특히 차재형의 아들인 차유순은 수원의 거부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30년대 수원과 진위 일대에 460여 정보를 소유하였으며, 양성관·한상봉 등 수원 지역 1세대 유지들과 함께 기호흥학회 수원군지회 활동, 국채보상운동, 교육사업 등을 펼쳤다.⁶⁾

차유순의 아들 차준담도 1930년대 130여 정보(약 40만 평)를 소유한 지주였고, 아버지 차유순의 사회적 관계망과 통혼관계를 통해 지역엘리트로서

4) 한동민, 「성안 우시장과 팔부자거리」, 『사이다』 3, 2012년 11월.

5) 차재형은 족보에는 업린(業麟)으로, 1894년(광서 20) 호구에는 병규(丙圭)로 되어 있다.

6) 「小作料를 減除, 水原富豪車裕舜氏」, 『동아일보』, 1928년 12월 30일; 「車裕舜 地主頌德, 일반 소작인이」, 『동아일보』, 1929년 12월 5일; 「水原中學期成會에 三萬圓喜捨, 兩車氏가 二萬圓과 一萬圓, 寄附認可」, 『동아일보』, 1935년 6월 30일; 「지방인사 특지」, 『중외일보』, 1929년 11월 3일.



용인 먹조산 화운사와 화운사 창건기념비

사회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였다. 그는 1937년 열린 제15회 수원실업협회 정기총회에서 회두 최재엽과 함께 부회두로 선임되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을 했다.⁷⁾ 또한 해방 이후 부통령이던 이시영의 양아들로 이화장 건립에 큰돈을 대기도 했다.⁸⁾

차석완은 차은룡(車殷龍)의 증손자이며, 수원의 유력 부호인 홍사훈·김학배·이유복과 함께 수원직포주식회사를 창립하였고, 곡자제조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아들 차재운은 조선국자제조(朝鮮麵子製造)에 지배인으로서 경남주조(京南酒造) 이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차재운에 대한 행적은 용인 먹조산 화운사(華雲寺) 창건기념비(創建年記碑)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관악산 연주암을 중창하고, 화운사를 설립하였으며, 1944년에는 양로원기금으로 토지를 기부하였다. 1946년에는 전재민 원호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자 250만 원을 임시 주택건설비로 쾌척하기도 했다. 또한 1948년에는 중앙신학원(현 강남대학) 재단 조성을 위해 땅을 기부하였다.

차정운은 동성직물공장(東星織物工場) 대표를 맡았고, 아버지 차석완, 형 차재운과 함께 조선국자제조(朝鮮麵子製造)에 투자하였다. 수원에서 직물공장을 경영하는 등 근대 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렇듯 수원 차씨가 입향 이후 수원 지역에서 기반을 다지면서 성장하였고, 특히 근현대 수원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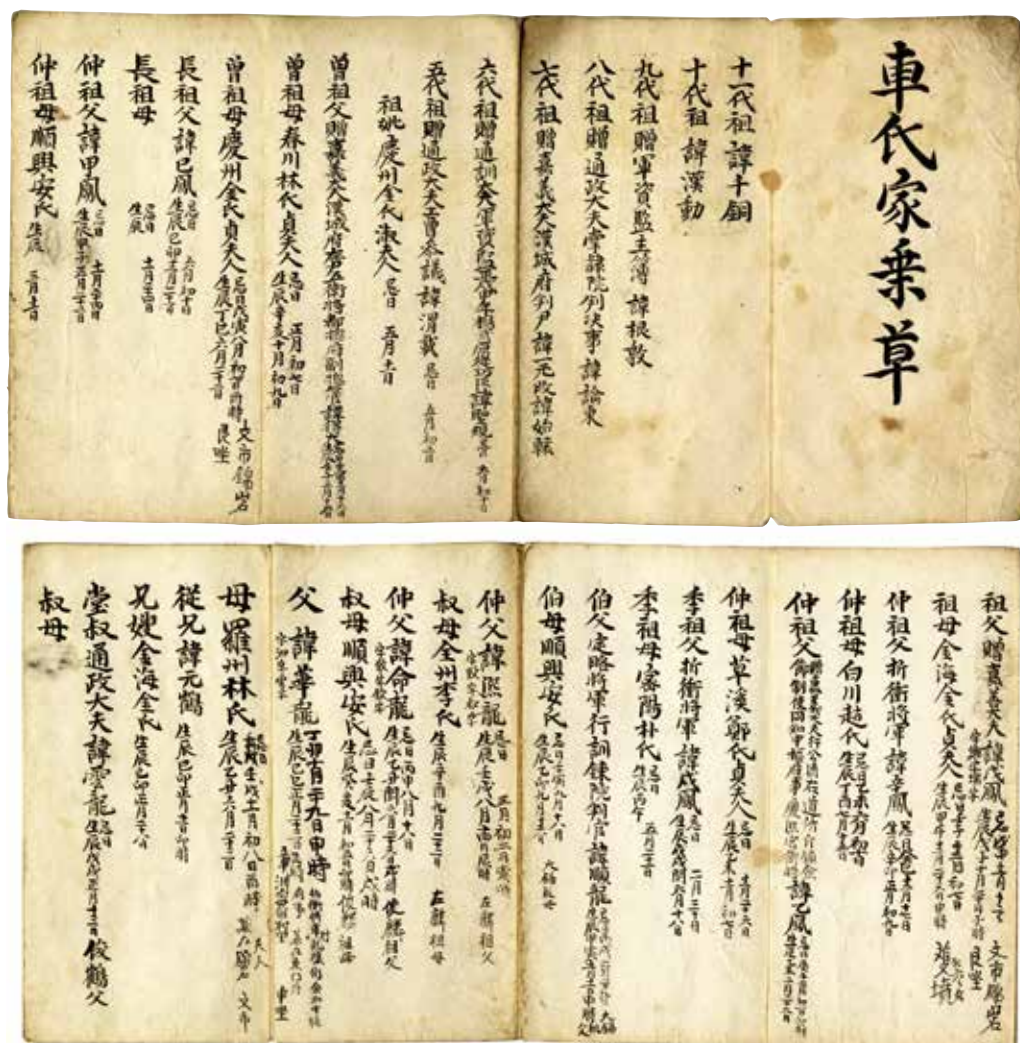
7) 「수원실업협회 정기총회성황」, 『매일신보』, 1937년 5월 2일.

8) 차준오 인터뷰,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III, 수원시, 2005.

옛문서로 본 수원 차씨가

3-1 | 28.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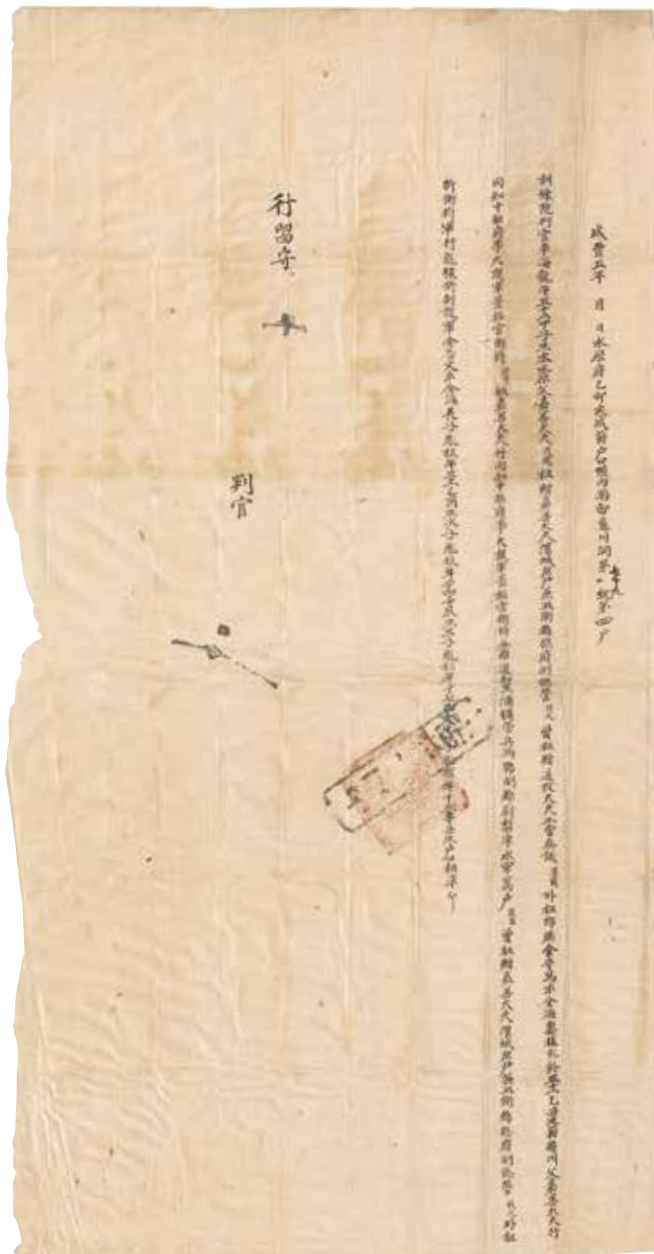
[illegible]



가승家乘

3-2 | 車胤植 | 22×13

연안 차씨延安 車氏의 세계世系를 적어 놓은 차씨가승車氏家乘이다. 각 집안의 부부의 생신과 기일을 기록하였으며, 기록의 범위는 우선 11대조 차천동車千銅부터 차덕린車德麟까지이고, 아울러 고모댁과 외가, 처가까지 기록하였다. 이 가승은 부친을 화룡華龍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차해룡車海龍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 그리고 처가가 수성 최씨隋城 崔氏인 것으로 보면, 가승의 기록자는 차해룡의 장남인 차운식車胤植일 것이다. 이 세계를 통해 차득대車得大를 중심으로 내려오는 계통의 친족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세보와 비교하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 연안 차씨 가계를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준호구準戶口

3-3 | 수원행유수-車海龍 | 咸豐 5(철종 6, 1855) | 64×95

함풍咸豐 5년 을묘년(1855)에 수원부水原府에서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 차해룡車海龍(52, 갑자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차해룡의 주소지는 수원 남부南部 구천동龜川洞 제77통 제4호이고, 본관을 수원水原으로 기재하고 있다. 차해룡의 4조인 부 가선대부嘉善大夫 차무봉車茂鳳, 조 증가선대부한성좌윤겸오위도총부부총관贈嘉善大夫漢城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차득대車得大, 증조 증통정대부공조참의贈通政大夫工曹參議 차위재車渭載, 외조 낭청郎廳 김해金海 김수만金守萬을 기록하고, 또 처 나주 임씨羅州 林氏(51, 을축생), 처부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대호군경복궁위장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大護軍景福宮衛將 임계갑林啓甲, 처증조 증가선대부한성좌윤겸오위도총부부총관贈嘉善大夫漢城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임지원林枝元, 처외조 절충장군행융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김선문金善文을 기록하였다. 차해룡의 자식으로 장자 차윤식車胤植(31, 을유생), 차자 차윤근車胤根(24, 임진생), 셋째 아들 차윤백車胤栢(17, 기해생), 넷째 아들 차윤권車胤權(15, 신축생)을 기록하였다. 차해룡의 관력은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이고, 훈련원판관은 차은룡車殷龍의 관력이므로 여기서는 오기誤記로 보인다.

준호구準戶口

3-4 | 水原行留守-車維天 | 同治 3(고종 1, 1864)
| 64×95

동치同治 3년 갑자년(1864)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차유천車維天(56, 기사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이는 신유호구辛酉戶口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었다. 차유천의 주소지는 수원 북부北部 제17통 제1호이다. 차유천의 4조인 부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차무봉車茂鳳, 조 증가선대부한성좌윤겸오위도총부부총관贈嘉善大夫漢城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차득대車得大, 증조 증통정대부공조참의贈通政大夫工曹叅議 차위재車渭載, 외조 김수만金守萬을 기록하였다. 또 처 나주 임씨羅州 林氏, 처부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경복궁위장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景福宮衛將 임계갑林啓甲, 처조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경복궁위장전라도 가리포진관병마절제도위리진수군만호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景福宮衛將全羅道加里浦鎭管兵馬節制都尉利津水軍萬戶 임준창林俊昌, 처증조 증가선대부한성좌윤겸오위도총부부총관贈嘉善大夫漢城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임지원林枝元, 처외조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김선문金善文과 장손자 차영팔車榮八(17, 무신생), 차자 차윤근車胤根(33, 임진생), 차자 부인 전주 이씨全州 李氏(24, 신축생), 셋째 아들 차윤백車胤栢(26, 기해생), 넷째 아들 차윤권車胤權(24, 신축생), 넷째 부인 영월寧月 엄씨嚴氏(21, 갑진생)와 솔비 순덕順德(25, 경자생)을 기록하였다.

十七號第一戶

三子胤栢年二十六己亥生四子胤權年二十四辛丑生婦嚴氏於壬子甲辰生霜寧是

率婢曠德年二十五庚子生辛酉方口相準印

行留守

判官

준호구準戶口

3-5 | 水原行留守-車維天 | 同治 6(고종 4, 1867)
| 64×95

동치同治 6년 정묘년(1867)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유학幼學 차유천車維天(59, 기사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이는 갑자호구甲子戶口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차유천의 주소지는 수원 남부南部 제5통 제1호이다. 차유천의 4조는 부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차무봉車茂鳳, 조 중가선대부한성좌윤겸오위도총부부총관贈嘉善大夫漢城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차득대車得大, 증조 증통정대부공조참의贈通政大夫工曹叅議 차위재車渭載, 외조 낭청郎廳 김해金海 김수만金守萬이다. 장손은 차영팔車樞八(20, 무신생), 손부 밀양 박씨密陽 朴氏(22, 병오생), 차자 차윤근車胤根(26, 임진생), 부인 전주 이씨全州 李氏(27, 신축생), 셋째 차윤백車胤栢(29, 기해생), 넷째 차윤권車胤權(27, 신축생), 부인 영월 엄씨寧月 嚴氏(24, 갑진생), 차손 차영완車榮完(9, 기미생), 셋째 손자 차중린車仲麟(7, 신유생)이고 솔비率婢는 순덕順德(28, 경자생)이다.



同治六年丁卯正月 日水原府成籍戶口帳內南部第 五統第一戶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重緒天年伍拾玖己巳生本水原父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遠祖 贈嘉善大夫漢城左尹兼五衛都提

府副總管 得大曾祖 贈通政大夫工曹參議 渭載 外祖即廳金守萬本金海長孫禮八年貳拾玖申生孫婦朴氏齡貳拾玖丙午生

籍富陽次子胤根年叁拾陸壬辰生婦李氏齡貳拾柒辛丑生籍全川三子胤栢年貳拾玖己亥生四子胤權年貳拾柒辛丑生婦嚴氏

齡貳拾肆甲辰生籍寧越次孫榮完年玖己未生三孫仲麟年柒辛酉生

率婢順德年貳拾捌庚子生甲子戶口相繼印

行留守

判官

司



준호구準戶口

3-6 | 수원行留守-車胤根 | 同治 9(고종 7, 1870)
16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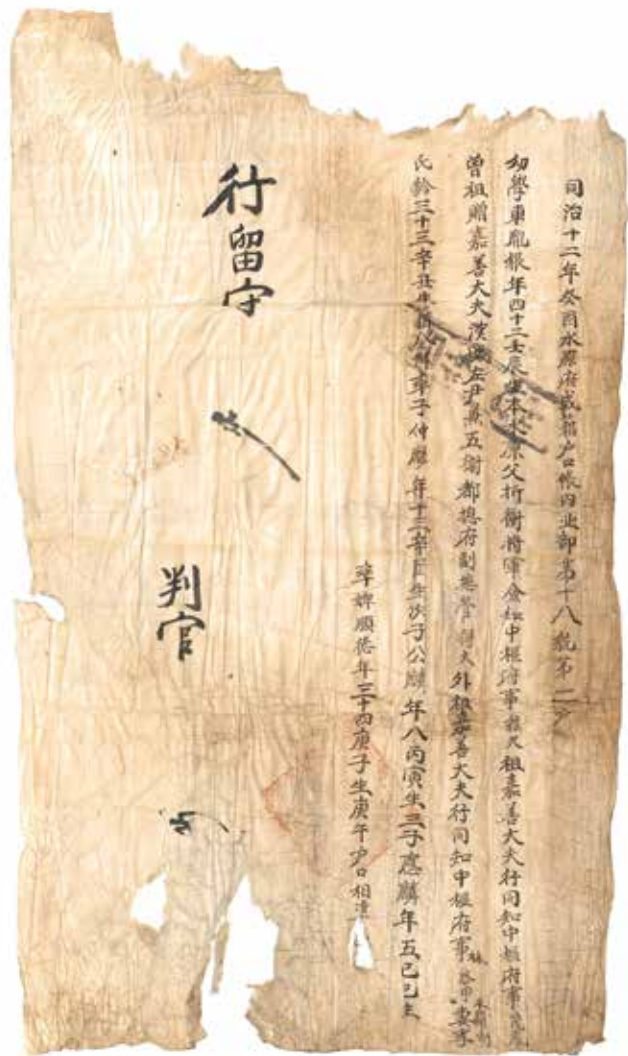
동치同治 9년 경오년(1870)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유학幼學 차윤근車胤根(39, 임진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이는 정묘호구丁卯戶口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차윤근의 주소지는 수원 북부北部이다. 차윤근의 4조는 부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차유천車維天, 조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차무봉車茂鳳, 증조 증가선대부한성좌윤겸오위도총부부총관贈嘉善大夫漢城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차득대車得大, 외조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임계갑林啓甲이다. 처는 전주 이씨全州李氏(30, 신축생)이고, 솔자 차중린車仲麟(10, 신유생), 차자 차공린車公麟(5, 병인생), 솔비率婢 순덕順德(31, 경자생)을 기록하였다.



준호구準戶口

3-7 | 水原行留守-車胤根 | 同治 12(고종 10, 1873)
164×95

동치同治 12년 계유년(1873)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유학幼學 차윤근車胤根(42, 임진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이는 경오호구庚午戶口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차윤근의 주소지는 수원 북부北部 제18통 제2호이다. 차윤근의 4조는 부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차유천車維天, 조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차무봉車茂鳳, 증조 증가선대부한성좌윤겸오위도총부부총관贈嘉善大夫漢城左尹兼五衛都總府副總管 차득대車得大, 외조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임계갑林啓甲이다. 처는 전주 이씨全州 李氏(33, 신축생)이고, 술자 차증린車仲麟(13, 신유생), 차자 차공린車公麟(8, 병인생), 셋째 차응린車應麟(5, 기사생), 술비率婢 순덕順德(34, 경자생)을 기록하였다.



준호구準戶口

3-8 | 水原行留守-車胤根 | 光緒 5(고종 16, 1879)
164×95

광서光緒 5년 기묘년(1879)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유학幼學 차윤근車胤根(48, 임진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이는 병자호구丙子戶口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차윤근의 주소지는 수원 북부北部 제146통 제1호이고, 본관을 수성隋城으로 기재하고 있다. 차유천의 4조는 부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차유천車維天, 조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차무봉車茂鳳, 증조 증가선대부한성좌윤겸오위도총부부총관贈嘉善大夫漢城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차득대車得大, 외조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임계갑林啓甲이고, 부인은 전주 이씨全州 李氏(39, 신축생)이다. 슬자率子 차중린車仲麟(19, 신유생), 부인 철원 황씨鐵原 黃氏(24, 병진생), 차자 차공린車公麟(14, 병인생), 셋째 차형린車亨麟(11, 기사생), 넷째 차정린車貞麟(7, 계유생)을 기록하였다.



준호구準戶口

3-9 | 수원行留守-車丙珪 | 光緒 20(고종 31, 1894)
| 64×95

광서 光緒 20년 갑오년(1894)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유학幼學 차병규車丙珪(34, 신유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이는 4년 전에 만든 신묘호구辛卯戶口를 기준으로 삼아 작성해 주었다. 차병규의 주소지는 수원 북부北部 장안동長安洞 제22통 제1호이다. 차병규의 4조로 부차윤근車胤根, 조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차유천車維天, 증조 가선대부행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 차무봉車茂鳳, 외조 이명혁李命赫과 봉모奉母 전주 이씨全州 李氏(54, 신축생)를 기록하였다. 또 자신의 처 창원 황씨昌原 黃氏(39), 슬제率弟 차병순車丙純(29, 병인생), 제수 충주 지씨忠州 池氏(30, 을축생), 동생 차병준車丙駿(26, 기사생), 제수 남양 홍씨南陽 洪氏(24, 신미생), 동생 차병대車丙大(22, 계유생), 동생 차동인車東仁(16, 기묘생)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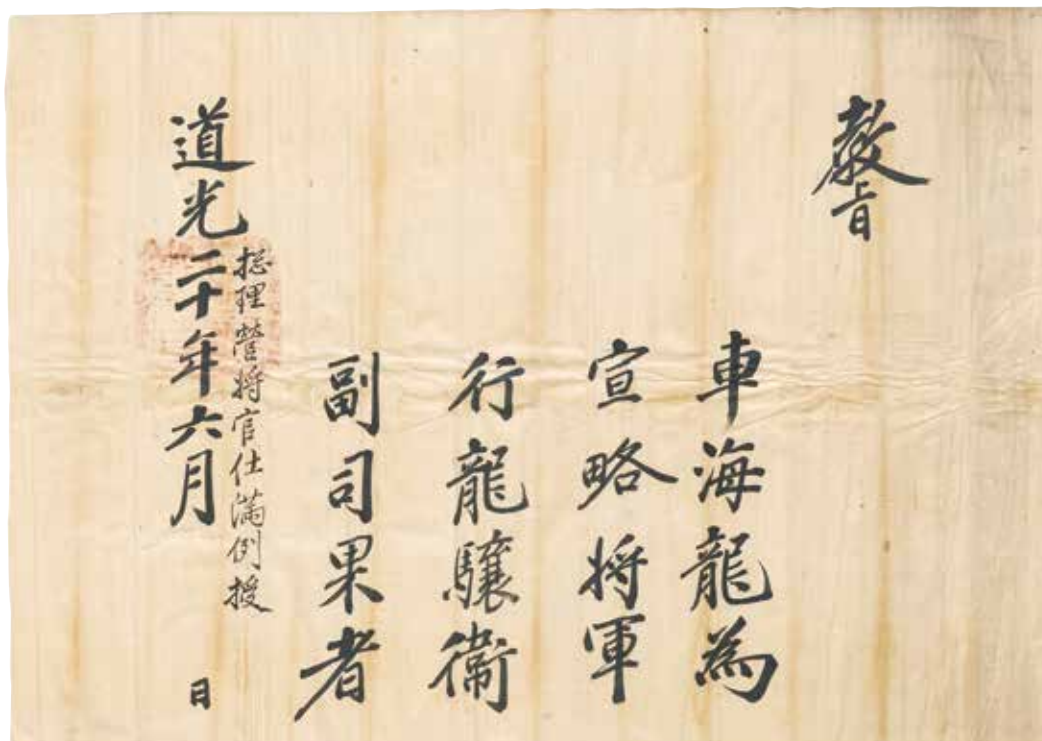


本延安

고신 告身

3-10 | 國王-車海龍 | 道光 20(현종 6, 1840)
| 52.5×73.4

1840년 6월에 차해룡車海龍(1809~1897)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선략장군宣略將軍은 무관의 종4품 품계이고,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의 용양위는 중앙군사 조직의 좌위左衛이며, 부사과는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6품 무관직武官職이다. 연호 우측에 있는 소자小字의 기록은 무관직에 대해서 고신을 내려주는 사유를 적은 것이다. 그 사유는 총리영장관總理營將官의 근무 일수를 다 채웠으므로 전례에 따라 준다는 것이다. 이는 차해룡이 32세 때 받은 것으로, 녹봉을 주기 위해 내리는 실무가 없는 체아직遞兒職이다.



고신 告身

3-11 | 國王-車維天 | 咸豐 10(철종 11, 1860)
| 53.8×73.9

1860년 5월에 차유천(車維天, 1809~1897)을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절충장군(折衝將軍)은 품계가 정3품으로 당상관(堂上官) 무관이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는 중추원(中樞院)에 속한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이다. 차씨 문중의 준호구(準戶口)를 보면 차유천은 차무봉(車茂鳳)의 아들로 기재하고 있고, 『연안차씨세보』에 의하면 차무봉의 아들은 은룡(殷龍), 희룡(義龍), 명룡(命龍), 해룡(海龍)인데,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사람은 해룡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차유천은 차해룡과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개명(改名)과 관련한 특별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첩정牒呈

3-12 | 尊位 金連植 等-水原留守

咸豐 4(철종 5, 1854) | 62×54.2

갑인년(1854) 12월에 남부南部 구천동龜川洞의 존위尊位 김연식金連植 등이 수원유수水原留守에게 차해룡車海龍의 효도에 대해 포상을 해 달라고 올린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하급관원이 상급관원에게 올리는 보고서인데, 이 첩정은 보고서보다는 청원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차해룡은 효도와 우애가 남다르다고 원근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제작년 11월에 모친이 병으로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니 7일을 더 살았고, 또 같은 상황이 되자 다시 한 손가락을 잘라 한 달을 더 살게 하였다. 12월이 되어 병이 위독하여 손가락을 깨물어 앞과 같이 하여 오십의 나이로 두 번이나 모친의 목숨을 연장시켰으니 이런 효도에 대해 포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첩정을 올린 뒤 김연식은 경기감영(수원유수겸관찰사)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첩정을 올렸다. 감영보다 수원유수에게 첩정을 먼저 올렸으나 때마침 수원유수가 서울에 있어 판결은 감영에 올린 첩정보다 오히려 하루 뒤인 18일에 내려졌다. 서울에 있던 수원유수는 이에 대해 차해룡이 부모를 섬기는 효가 탁월하여 흠모할 만하다고 제움을 작성하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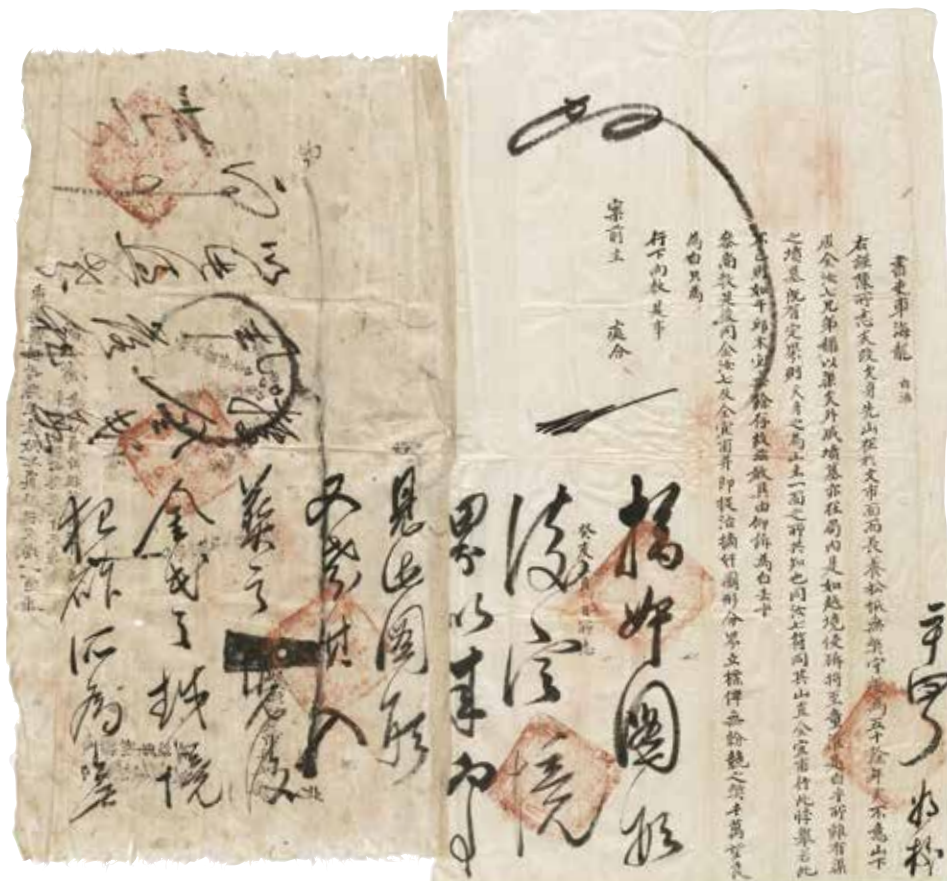


첩정牒呈

3-13 | 尊位 金連植 等-水原留守兼觀察使
| 咸豐 4(철증 5, 1854) | 66.3×55

갑인년(1854) 12월에 남부南部 구천동龜川洞의 존위尊位 김연식金連植 등이 수원유수겸관찰사水原留守兼觀察使에게 차해룡車海龍의 효도에 대해 포상을 해 달라고 올린 첩정牒呈이다. 앞서 수원유수에게 올린 첩정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자 경기감영에 또다시 첩정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월 17일에 수원유수겸관찰사는 공의公議를 기다리라고 하며 애매한 판결을 내려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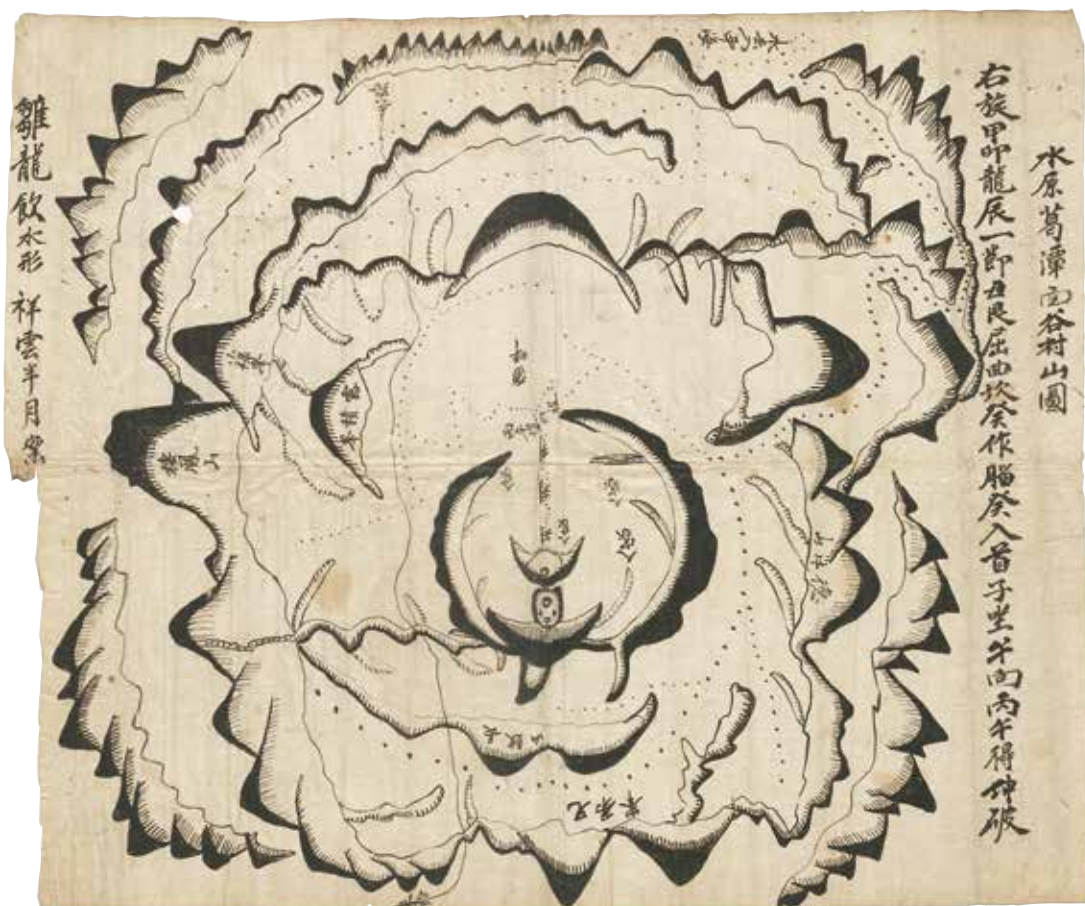
발괄白活

3-14 | 車海龍-水原府使 | 同治 2(철종 14, 1863)

① 63.8×35.4 ② 58.5×32.4

계해년(1863) 3월에 서리書吏 차해룡車海龍이 수원유수에게 벌목처의 경계를 정해 달라고 올린 소송장인 발괄白活과 이를 처리한 적간도형摘奸圖形이다. 그 내용은 차해룡의 선산先山이 문시면文市面에 있는 지 50여 년이 되었는데, 산하山下에 사는 김여칠金汝七 형제가 자기들 외척의 묘소가 영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계를 넘어와 나무를 모두 다 베어 갔다. 차해룡은 산 주인과 그 경계를 분명히 정했는데, 김여칠이 그 산지기인 전의보全宜甫와 모의하여 나무를 모두 베어 가니, 이들과 함께 묘소에 가서 도형을 조사하고 그 경계를 분명하게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3월 24일 수원유수는 장교將校를 보내어 도형을 조사한 후에 정계를 분명하게 정하라고 판결하였다.

3월 24일에 수원유수의 판결을 받아 이틀 후에 장교와 함께 묘소에 가서 그 경계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차해룡의 조모 무덤과 김여칠의 진외조부眞外祖父의 무덤 사이는 백 보가 떨어졌는데, 나무를 베는 곳은 차해룡과는 23보가 떨어져 있고 김여칠과는 77보가 떨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수원유수는 3월 26일 김여칠이 경계를 넘어 나무를 베어 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해룡의 승소를 판결하였다.



산도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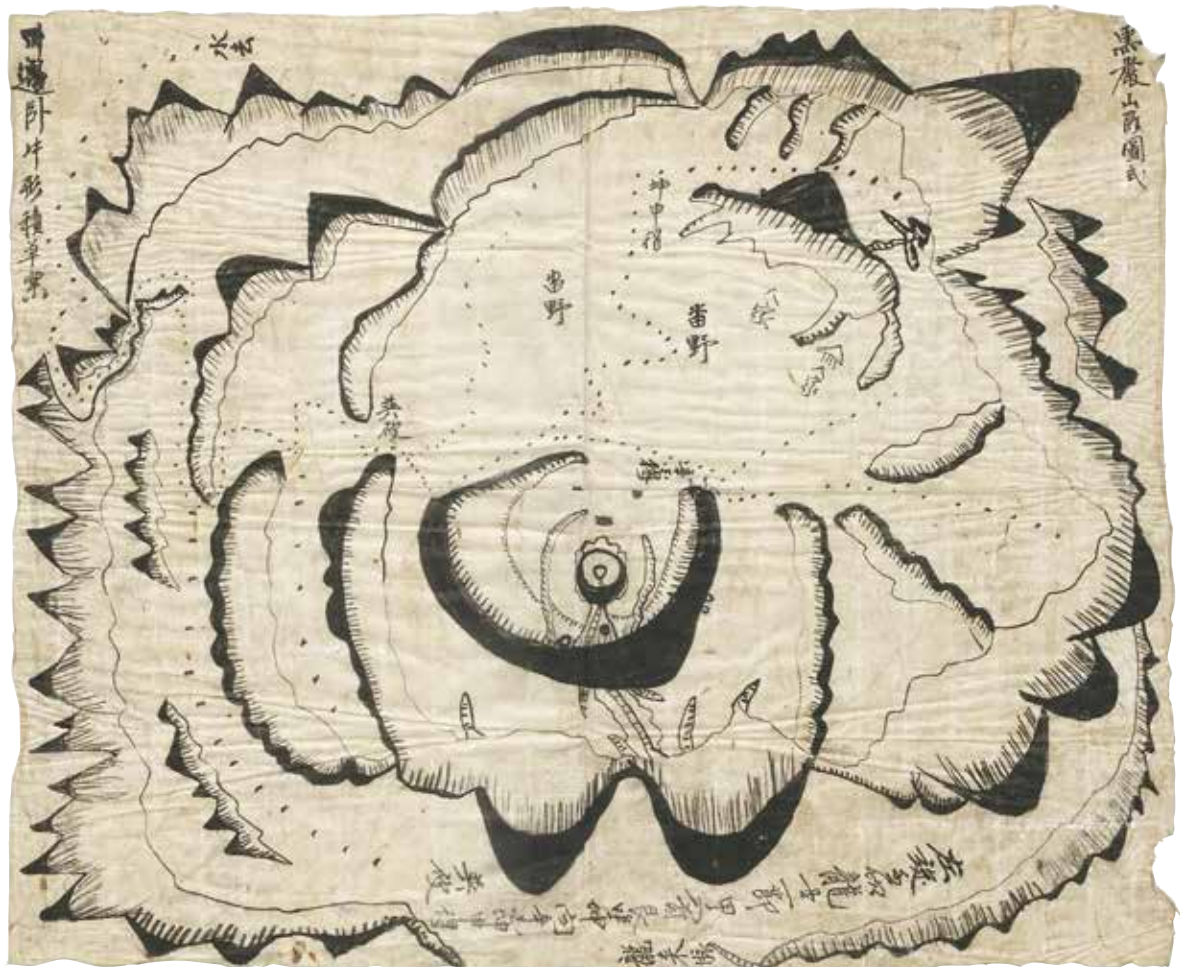
3-15 | 49.3×62

수원 갈담면 葛潭面 곡촌谷村의 산세를 그린 산도山圖이다. 형국은 추룡離龍이 물을 마시는 형상이고 반달에 상서로운 구름이 낀 안산의 뜻인 '추룡음수형離龍陰水形 상운반월안祥雲半月案'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수원 봉담읍의 수원가톨릭대학교 인근으로 보인다.

산도山圖

3-16 | 35.4×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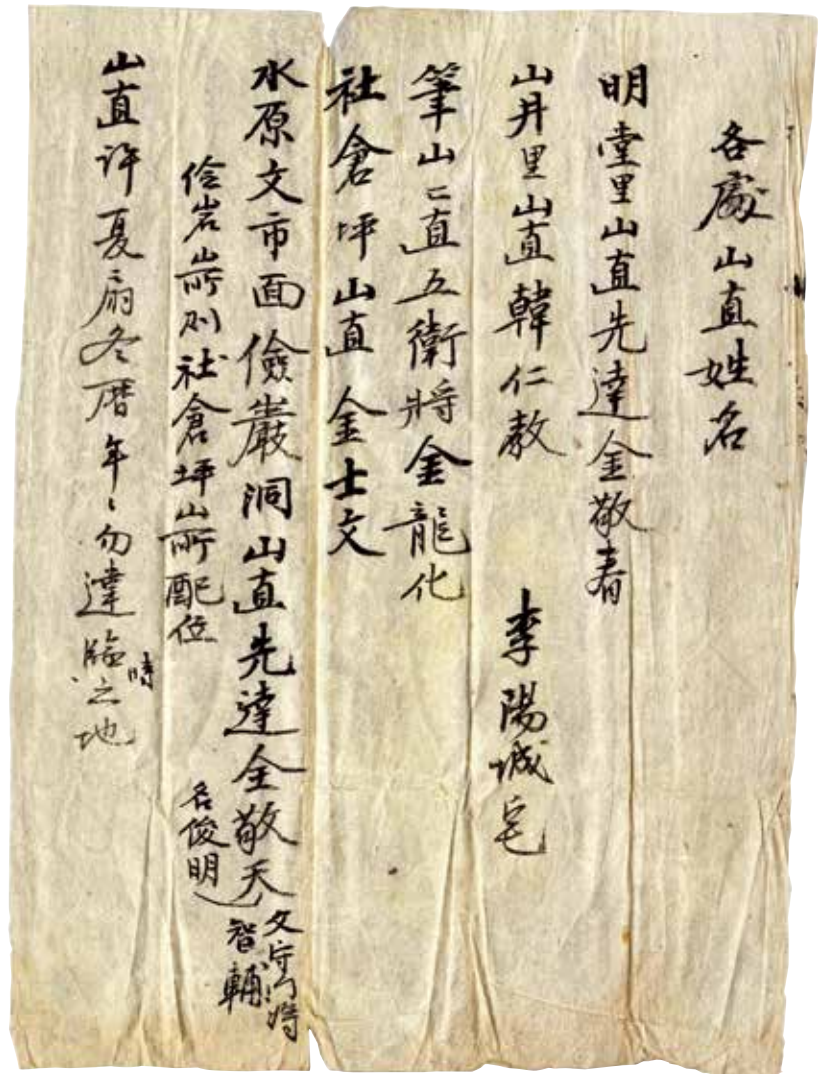
수원 흑암黑巖에 있는 연안 차씨 산소를 풍수적으로 해석한 산의 도형圖形이다. 이곳은 좌선左旋한 북쪽 방향의 임坎壬坎 내룡來龍이 갑甲 방향에 입수入首한 곳이다. 그 혈맥처에 간좌곤향艮坐坤向으로 묘소를 썼다. 이 산형에 대해서 중앙에 누워 있는 형세이고, 풀을 쌓아 놓은 안산을 하고 있다는 ‘와중형臥中形 적초안積草案’으로 풀이하고 있다.



각처산직성명各處山直姓名

3-17 | 23.3×17.5

명당리明堂里, 산정리山井里, 필산筆山, 사창평社倉坪, 수원水原 문시면文市面 검암동檢巖洞에 있는 산소를 지키는 산지기 명단이다. 이들에게는 매년 여름에는 부채를, 겨울에는 달력을 보내 주되 어김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장사택일기 葬事擇日記

3-18 | 地官-車茂鳳 | 嘉慶 23(순조 18, 1818)
| 피봉 23.3×3.4 내지 35.7×4

무인년(1818)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차득대(車得大, 1732~1782)의 둘째 부인인 경주 김씨(慶州 金氏, 1737~1818)를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망자(亡子)는 정사생(正思生) 여자이고, 주상자(主喪子)가 무자생과 을미생인데, 차무봉(車茂鳳, 1768~1848)과 차인봉(車仁鳳, 1775~1840)이 이에 해당한다. 차득대는 전부인이 춘천(春川) 임씨(林氏)이고, 둘째 부인이 경주 김씨이다. 이 문서는 경주 김씨가 죽어 합장(合葬)할 때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안장(安葬)일은 8월 3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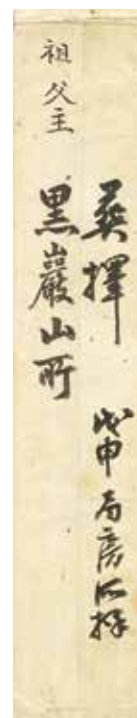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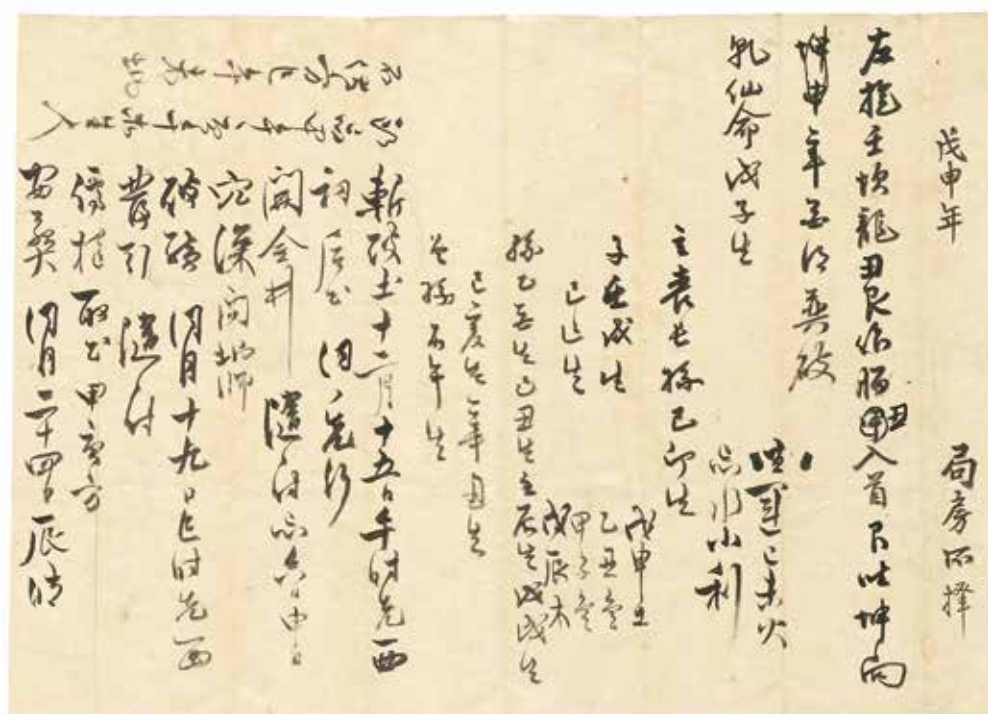
피봉의 표면에 ‘증조모주 흑암산소 장택(曾祖母主 黑巖山所 葬擇)’이라 적혀 있다. 연안차씨세보를 참고하면 경주 김씨(慶州 金氏, 1737~1818)는 차윤식(車胤植, 1825~1860)의 증조모이다. 차윤식의 생몰년을 보면 아직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므로, 직접 주관하였다기보다는 차후에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봉에 기록해 둔 것으로 보인다. 흑암(黑巖)은 연안 차씨 선산(先山)이 있는 곳으로 검암(黔巖) 또는 금암(錦巖)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의 행정구역상 오산에 위치하고 있다.



장사택일기 葬事擇日記

3-19 | 地官 局房-車元鶴 | 道光 28(헌종 14, 1848)
| 피봉 31.8×6.5 내지 31.6×44

무신년(1848)에 차무봉 車茂鳳(1768~1848)을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망자亡자는 무자생 남자이고, 주상장손主喪長孫이 기묘생인데, 이는 차원학 車元鶴(1794~1885)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차해룡 車海龍의 부친인 차무봉의 장사택일기이다. 이 문서의 작성주체가 차원식 車胤植인 만큼 피봉에 '조부주 祖父主'라고 적힌 것으로 볼 때 차무봉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안장安葬일은 무신년 12월 15일이고, 좌향이 간좌곤향 艮坐坤向이며, 물은 신유辛酉에 득수得水하여 순향巽向으로 파구破口하는 형세이다. 1848년에 차무봉과 부인 김해 김씨 金海 金氏가 모두 별세하였는데, 부인의 장사택일기는 1852년으로 이보다 늦지만, 장지葬地의 위치가 같은 곳으로 보인다. 이 문서를 작성한 지관地官은 '국방 局房'으로 적혀 있다. 이 장사택일기는 중간에 '혈심穴深 문지사問地師'라고 한 구절로 보아 대략적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장사택일기 葬事擇日記

3-20 | 地官 閔輔景-車義龍 | 道光 28(헌종 14, 1848)
| 피봉 34.2×7 내지 3×48.5

무신년(1848)에 차무봉 車茂鳳(1768~1848)을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이는 앞에 동일한 장사택일기가 존재한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나, 서로 차이 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다른 택일기는 지관 地官이 '국방 局房'이고, 이 문서는 '민보경 閔輔景'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다. 또 본문의 마지막에 장지 葬地의 형세를 풀이한 구절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택일기는 '혈심 穴深 문지사 問地師'라고 적혀 있으나 이곳은 혈심을 정확하게 적고 있다는 점에서 이 택일기가 최종 완성본임을 추정할 수 있겠다.

戊申年
左旋壬坎龍丑艮作腦尹首艮坐坤向辛酉得美破
乾仙舍 戊子火
斬破土 十二月初二日午時先酉
破殯 同月二十日酉時先酉
祠后土 隨時
告由事 隨時
開金井 忌六申日
穴深 五尺一寸看土色止
安葬 同月二十四日
下棺 辰時
停柩 忌美方
取土 宜甲庚方
設幄
不伏 巳午未方
咩冲 辛丑甲子庚子生等
周堂 勿計
坐心得勢 樓運通財 丙奇照日 壬命為食
財子生旺 定局散福 開門到時 巳命為吉
乙命為貴 祿馬到穴
辛命為財 歲君小利
主喪 子壬戌生
孫 巳巳生
乙酉生
乙丑生
壬辰生
戊戌生
辛丑生
巳亥生
曾孫丙年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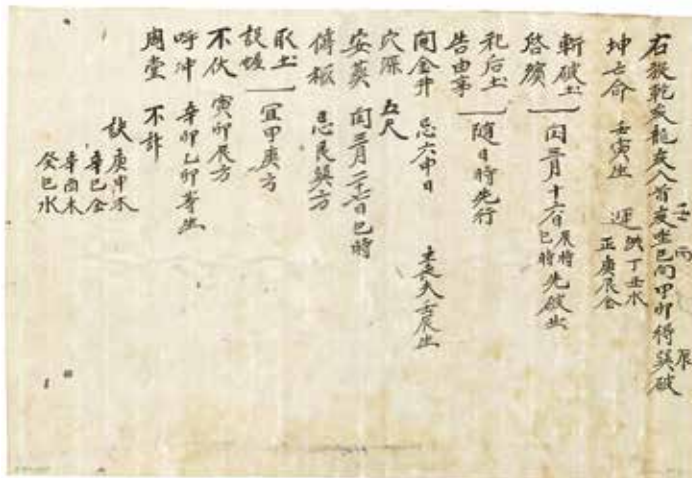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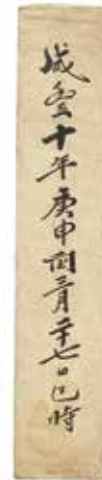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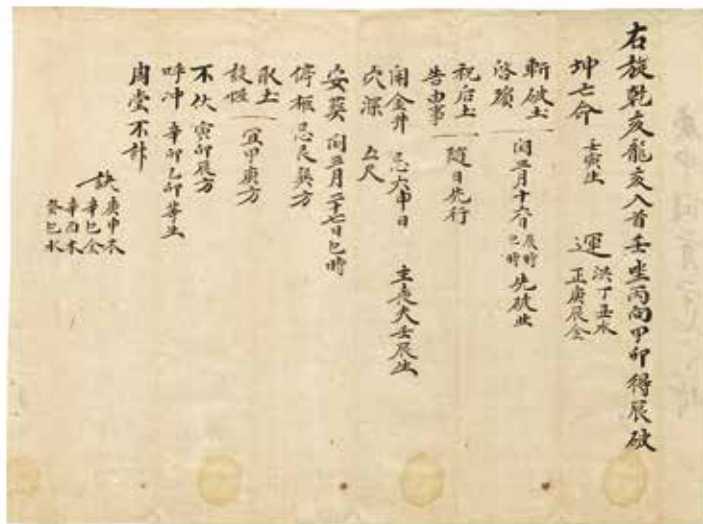
葬擇
黑巖 山
戊申肉地及丙得

장사택일기 葬事擇日記

3-21 | 地官 閔輔景-車海龍 | 咸豐 2(철종 3, 1852)
| 피봉 34.5×7.1 내지 34.5×56

임자년(1852)에 차무봉 車茂鳳(1768~1848)의 부인 김해 김씨 金海 金氏를 장사 지내면서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망자亡자는 갑오생 여자이며, 주상자主喪자가 기사생인데 이는 차해룡 車海龍에 해당한다. 안장安葬일은 임자년 12월 15일이고, 좌향이 간좌곤향 艮坐坤向으로 북동에서 남서쪽을 바라보는 형태이며, 물은 서쪽인 신유 辛酉 방향에서 득수得水하여 동남쪽인 손향 巽向으로 흘러가는 형세이다. 이 문서를 작성한 지관地官은 민보경閔輔景이다.





장사택일기 葬事擇日記

3-22 | 地官-車胤根 | 咸豐 10(철증 11, 1860)
 | 피봉 33.5×6.5 내지大 33.2×44.7
 내지小 22.8×33.5

경신년(1860) 윤3월 27일에 차윤근(車胤根, 1832~1883)의 부인인 순흥 안씨(順興 安氏, 1842~1860)를 장사를 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차윤근은 차해룡(車海龍)의 둘째 아들이다. 세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신기 일록(生辰忌日錄) 문서에는 차윤근의 부인은 순흥 안씨와 전주 이씨(全州 李氏)가 기록되어 있다. 문서에 망자(亡者)는 여자로서 임인생(壬寅生)이고, 상부(喪夫)가 임진생(壬辰生)에 해당하는 사람은 순흥 안씨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좌향(坐向)과 파구(破口)를 수정하였기 때문에 같은 것이 2부가 있다. 처음에는 해좌사향(亥坐巳向), 즉 향(向)을 정남(正南)에서 20도 정도로 동쪽으로 정했는데, 다시 임좌병향(壬坐丙向)으로 남쪽으로 10도 정도 더 돌렸다. 파구(破口) 또한 손향(巽向)인 것을 진향(辰向)으로 수정하였다.

左旋龍主亥遠逝去坎落脉主入首子坐午向庚
搜子入首亥以丁向庚得石破
黑岩山脈有此分金 上辛是初

庚申年
左旋龍主亥遠逝去坎落脉主入首子坐午向庚
坤仙禽戊子火
新破土七月二十三日巳時先束
破土 同月二十七日巳時先束
祠神 隨日時 忌水旺庚辰金運
告由 隨日時 忌水旺庚辰金運
傳樞 忌艮庚方
開金井 忌六申日
穴深 四尺五寸
安葬 同月二十九日
下棺 未時
取土 宜壬丙方
殺曜
不伏 忌申酉戌方
呼冲 戊辰巳卯生等
周堂 在外不計
文市面洪生負取擇

黑岩山脈青龍外
小室葬擇

장사택일기 葬事擇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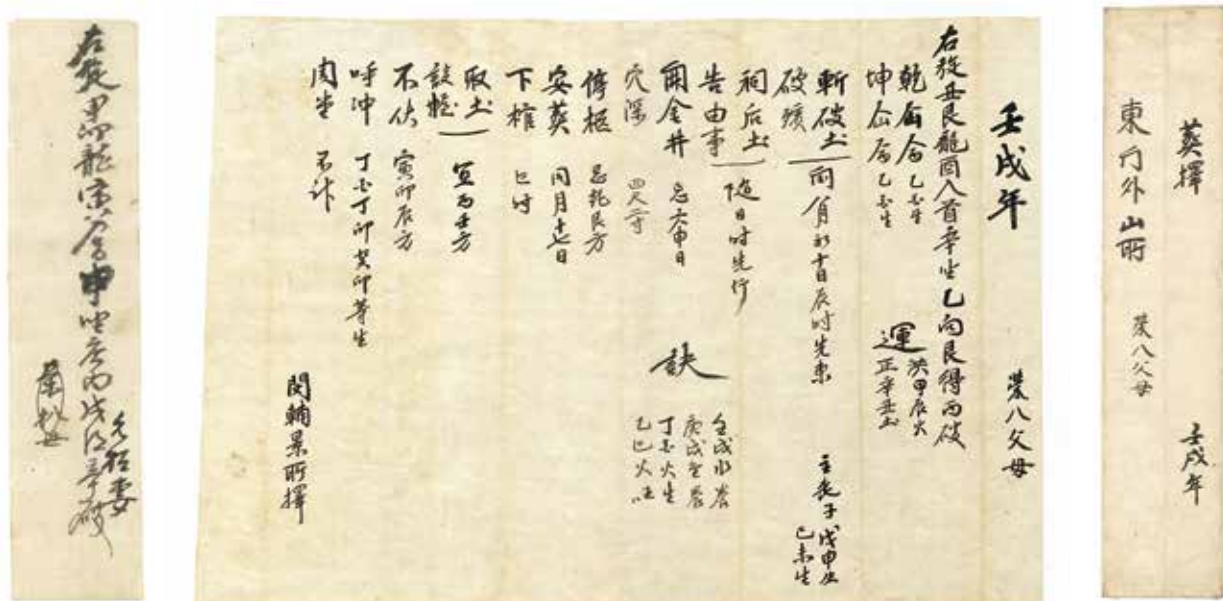
3-23 | 地官 洪生 | 庚申(철증 11, 1860 추정)
| 피봉 28.8×5.9 내지大 27.5×4
내지小 25.2×8.8

경신년에 작성된 장사택일기이다. 망자亡자는 무자생 여자이고, 주부主夫가 기사생이다. 안장安葬일은 경신년 7월 29일이고, 좌향이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정남향을 바라보며, 물은 서쪽인 신경辛庚에서 득수得水하여 동남쪽인 진향辰向으로 파구破口하는 형세이다. 문서를 작성한 지관地官은 문시면文市面に 사는 홍생洪生이다.

장사택일기 葬事擇日記

3-24 | 地官 閔輔景-車榮八 | 同治 1(철종 13, 1862)
| 피봉 31.1×6.3 내지 31×43.7

임술년(1862)에 차윤식 車胤植(1825~1860)과 부인인 수성 최씨 隋城 崔氏(1825~1848)를 합장 合葬하면서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이 문서는 ‘영팔부모 榮八父母’라 적혀 있어 차영팔의 부모인 차윤식과 수성 최씨의 장사택일기임을 알 수 있다. 또 주상자 主喪子인 무신생과 기미생은 모두 차영팔 車榮八과 차영완 車榮完의 생년이다. 차윤식은 차해룡 車海龍의 첫째 아들이다. 연도로 보자면 부인이 먼저 죽고 차윤식이 죽은 2년 후에 같이 합장한 것으로 보인다. 안장 安葬한 일자는 임술년 윤8월 17일이고, 좌향이 신좌을향 辛坐乙向으로 서북에서 동남쪽을 바라보며, ‘민보경소택 閔輔景所擇’이라 적혀 있어 이 문서를 작성한 지관 地官이 민보경임을 알 수 있다.



장사택일기 葬事擇日記

3-25 | 地官 閔輔景-車岩回 | 同治 2(철종 14, 1863)
| 피봉 31.5×6.5 내지 3.9×43.8

계해년(1863)에 차희룡(車義龍, 1802~1863)을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망자亡子는 임술생(임술생) 남자이며, 주부主婦가 신축생이고, 아들은 무술생으로 차암회(車岩回, 1838~?)에 해당한다. 차희룡은 차무봉(車茂鳳)의 아들이다. 안장安葬일은 계해년 2월 18일이고, 좌향이 간좌곤향(艮坐坤向)이며, 신유辛酉 방향에 득수得水하여 손향巽向으로 파구破口한 형세이다. 장사택일기를 작성한 지관地官은 민보경(閔輔景)이다.

左旋壬坎龍丑艮作腦丑入首艮坐坤向辛酉得美破
乾仙命 壬戌生
破旧殯 二月初二日未時先破午方
新破土
祠后土 隨日時
告由事 運 洪 巳未火
正 丙辰土
開金井 忌六甲日
穴深 四尺二寸
停柩 甲辰方
安葬 同月十八日
下棺 申時
取土 甲辰方
設帳
不伏 亥子丑方
呼冲 辛丑甲子庚子等少避
周堂 變
閔輔景所擇

訣 癸亥水 孫
甲午金 文
壬申金 兄

主婦 辛丑生
子 戌戌生

葬擇
黑巖 山所 巖曰家
什父 丙土

장사택일기 葬事擇日記

3-26 | 地官-車海龍 | 同治 3(고종 1, 1864)
| 피봉 31.1×6.4 내지 31×43.9

갑자년(1864)에 차해룡 車海龍(1809~1897)의 부인 나주 임씨 羅州 林氏(1805~1862)를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망자亡자는 을축생 여자이고, 주부主夫가 기사생이고, 아들이 임진생 등이다. 차해룡이 기사생이고, 그의 아들 차윤근이 임진생이다. 안장安葬일은 갑자년 4월 24일이다. 좌향은 간좌곤향 艮坐坤向이며, 신유 辛酉 득수得水에 손향 巽向 파구破口로서 문중의 산소와 형세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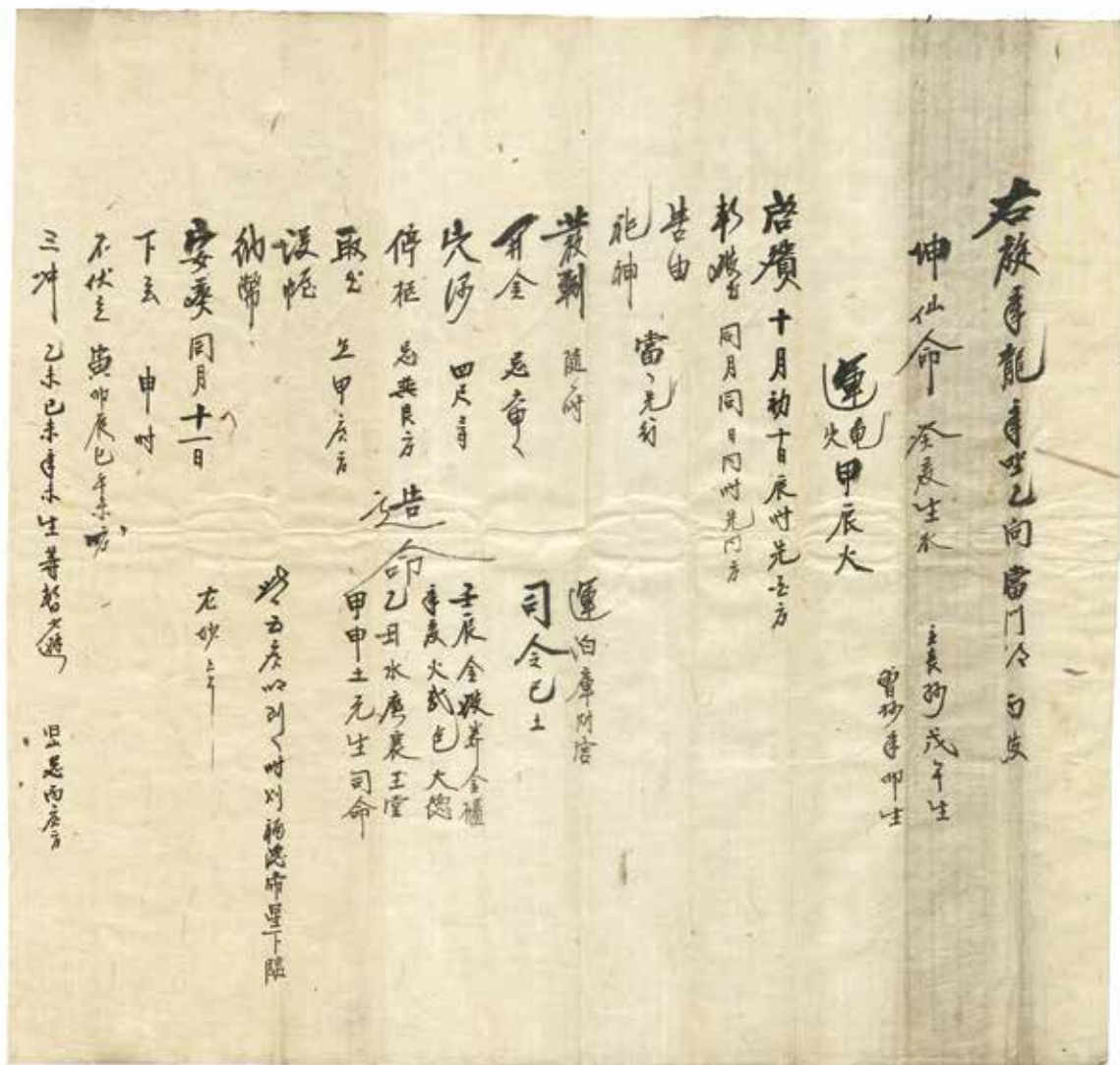


문산기問山記

3-27 | 地官-車海龍 | 同治 3(고종 1, 1864)
| 23.7×57

갑자년(1864)에 차해룡車海龍의 부인 나주 임씨羅州 林氏(1805~1862)의 장지에 대해 풀이한 문산기問山記이다. 앞의 장사택일기와 사과四課가 동일한 점에서 서로 관련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망자亡子의 사주를 가지고 여러 음양오행에 대입하여 풍수적으로 풀이한 것으로, ‘성인등보전격聖人登寶殿格’으로 자손들의 관직과 부귀가 왕성해지는 운수로 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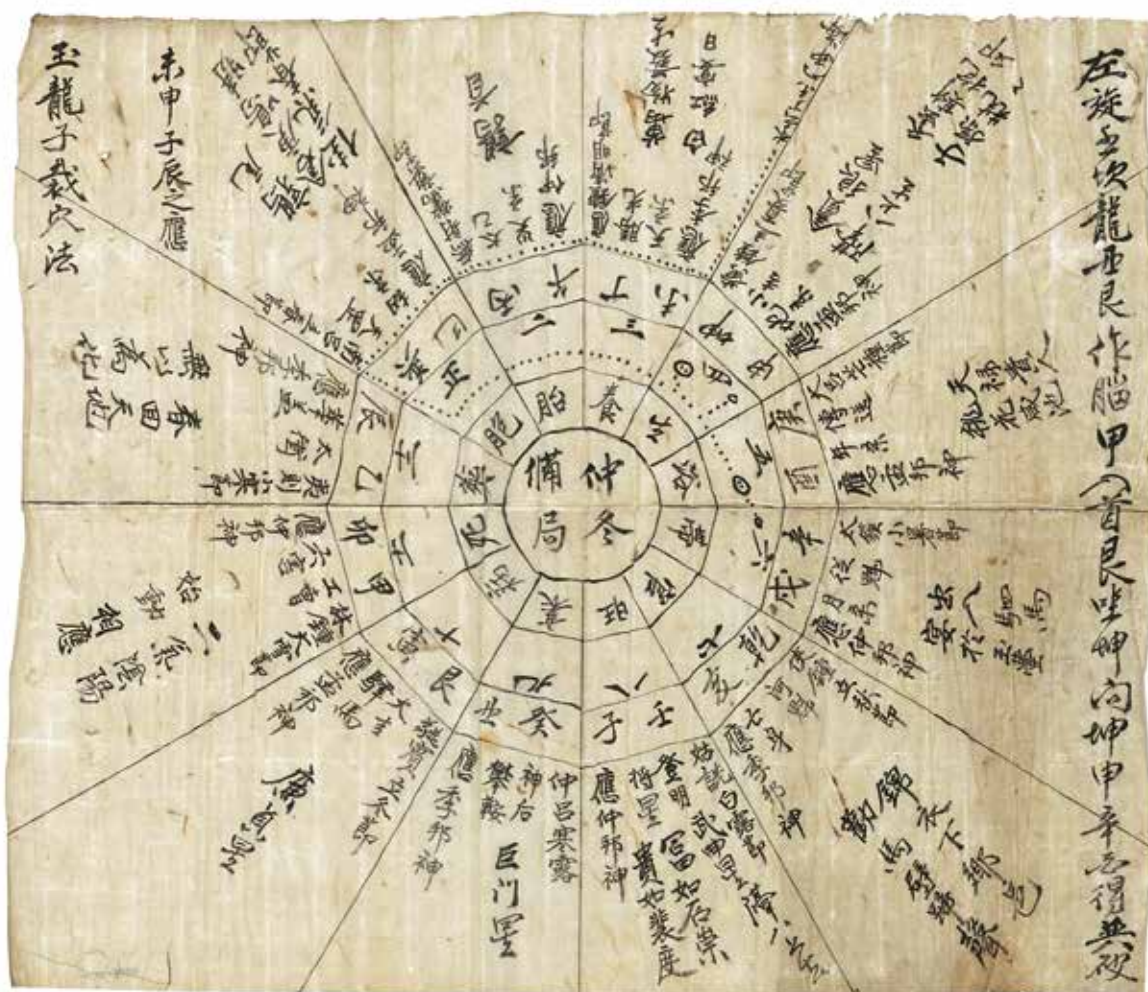




장사택일기 葬事擇日記

3-28 | 地官-車命龍 | 光緒 18(고종 29, 1892)
149.5×51.8

임진년(1892)에 차명룡車命龍(1805~1897)의 부인 순흥 안씨順興 安氏(1803~1892)를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망자亡子는 계해생 여자이며, 주상손主喪孫이 무오생이고, 증손曾孫이 신묘생인데, 이는 차준린車俊麟(1858~?)과 차구용車求鎔(1891~?)을 말한다. 차명룡은 차무봉車茂鳳의 셋째 아들이자 차해룡車海龍의 형이다. 안장安葬일은 임진년 10월 11이고, 좌향이 신좌을향辛坐乙向으로 동남쪽 방향이다.



재혈법도 裁穴法圖

도선국사 道詵國師(827~898)가 지은 풍수 風水의 혈자리 정하는 방법을 적은 도형이다. 옥룡자 玉龍子는 도선국사의 자字이다.

3-29 | 36.3×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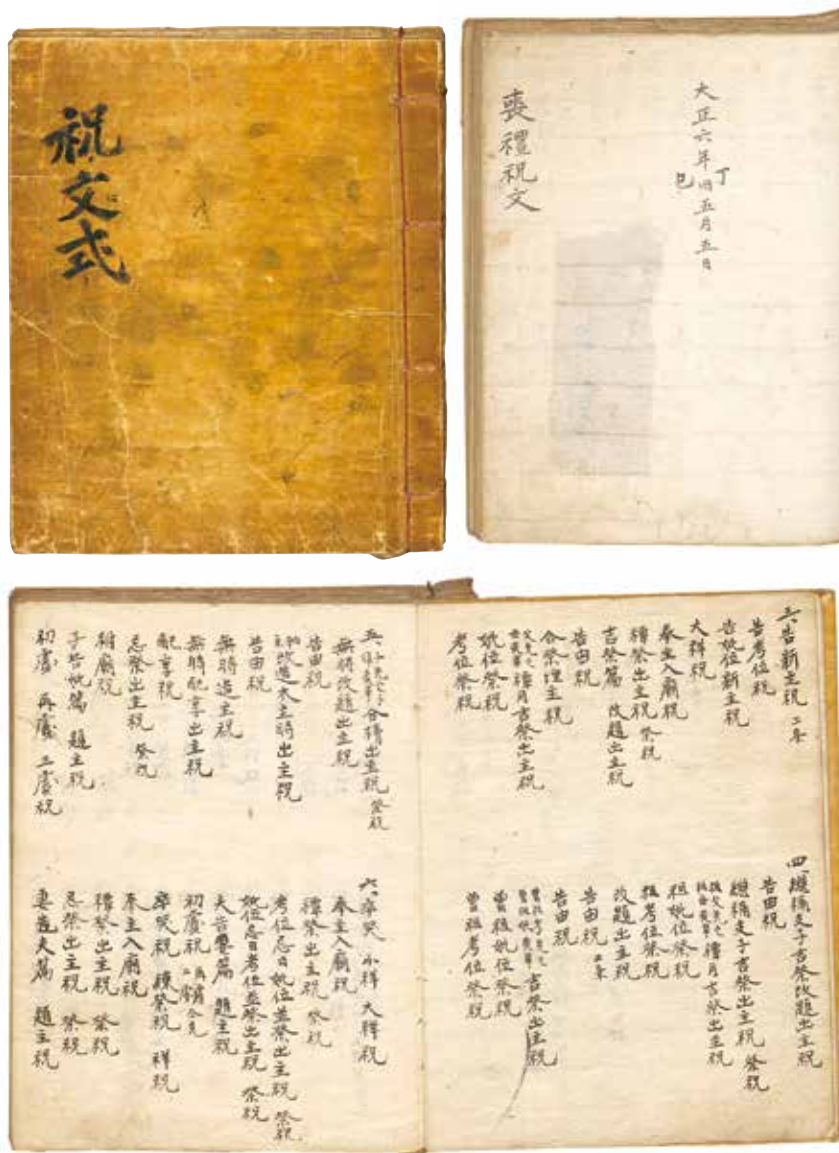
고유문 告由文

3-30 | 24×9.4

신주神主를 묻으면서 사용한 고유문告由文의 서식을 베껴 놓은 것이다. ‘매조주시고사埋主時告辭’, ‘장천매주시고사將遷埋主時告辭’라 적혀 있으니, 장사葬事를 지내거나 천장遷葬을 할 때의 고유문이다. 간지干支와 실명實名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서식을 베껴 놓은 것이다.

埋主時告辭
維歲次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某孫姓名敢昭告于
五代祖考某官府君
五代祖妣某封某氏今就潔地奉安先主永訣終天不勝悲感謹以
清酌用伸虔告

將遷埋主時告辭
維歲次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某孫姓名敢昭告于
五代祖考某官府君
五代祖妣某封某氏先王制禮追遠有懷今將永遷不勝
感愴以酒果用伸虔告謹告



상례축문식喪禮祝文式

3-31 | 1917 | 21.7×17.8

상례(喪禮) 때 사용하는 축문(祝文)의 서식을 필사한 서책이다. 내지는 총 44장으로, 표지의 서명은 ‘축문식(祝文式)’이고, 편제명은 ‘상례축문식(喪禮祝文式)’, 목록제는 ‘상례축문식(喪禮祝文式)’이다. 작성연도는 ‘대정육년정사구오월오일(大正六年丁巳舊五月五日)’이란 기록을 통해 볼 때, 1917년임을 알 수 있다. 또 책의 뒷면에 ‘제주(祭主) 중린(仲麟)’, ‘망실유인철원황씨지위(亡室孀人鐵原黃氏之位)’란 기록이 있어 차중린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시헌서時憲書

3-32 | 觀象監 | 同治 6(고종 4, 1867) | 29.7×15

관상감 觀象監에서 간행한 1867년도의 목판본 책력冊曆이다. 책명은 ‘대청동치육년세차정묘시헌서 大清同治六年歲次丁卯時憲書’이다. 시헌력은 1653년부터 1897년까지 간행하던 책력인데, 청 淸나라 건륭제 乾隆帝(1711~1799)의 이름을 피휘 避諱하는 것으로 인해 ‘시헌력時憲曆’과 ‘시헌서時憲書’로 나누어진다. 첫 장에 찍힌 인장은 뚜렷하지 않지만 ‘관상감인 觀象監印’이다.



3-33 | 16.5×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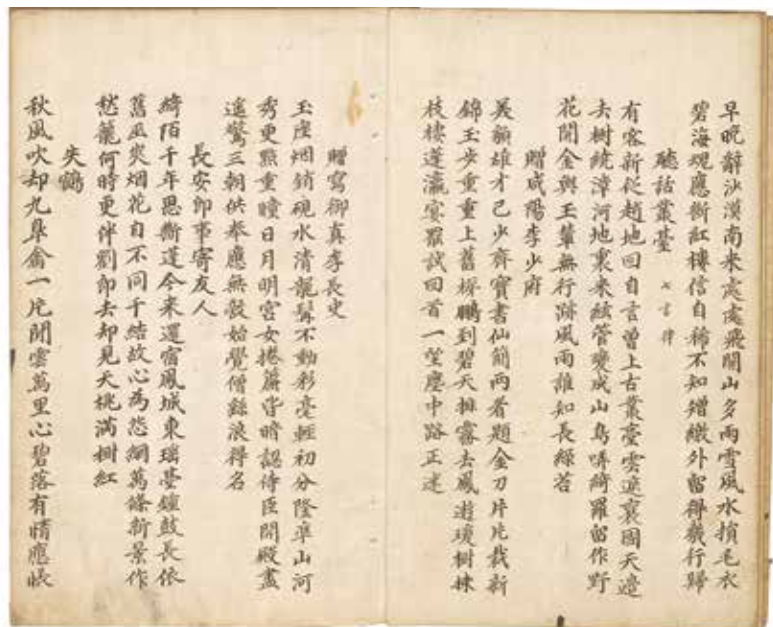
차득대車得大(1732~1782)에서 차한용(1897~?)까지 생신과 기일, 장지葬地를 기록한 기록지이다. 부모와 조부 등 그 관계를 표시한 것을 보면, 본래 차중린이 기록한 것을 후에 차한주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선만당시精選晩唐詩

3-34 | 27×18

이원李遠, 옹도雍陶 등 20인의 만당晩唐시대 시인의 시를 초록해 필사한 것이다. 총 50장으로, 표지서명이 '정선만당시精選晩唐詩'이고 '인人'은 편차로 천지인 순서에 따라 세 번째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탁본첩 拓本帖

3-35 | 李夔 | 光緒 3(고종 14, 1877) | 3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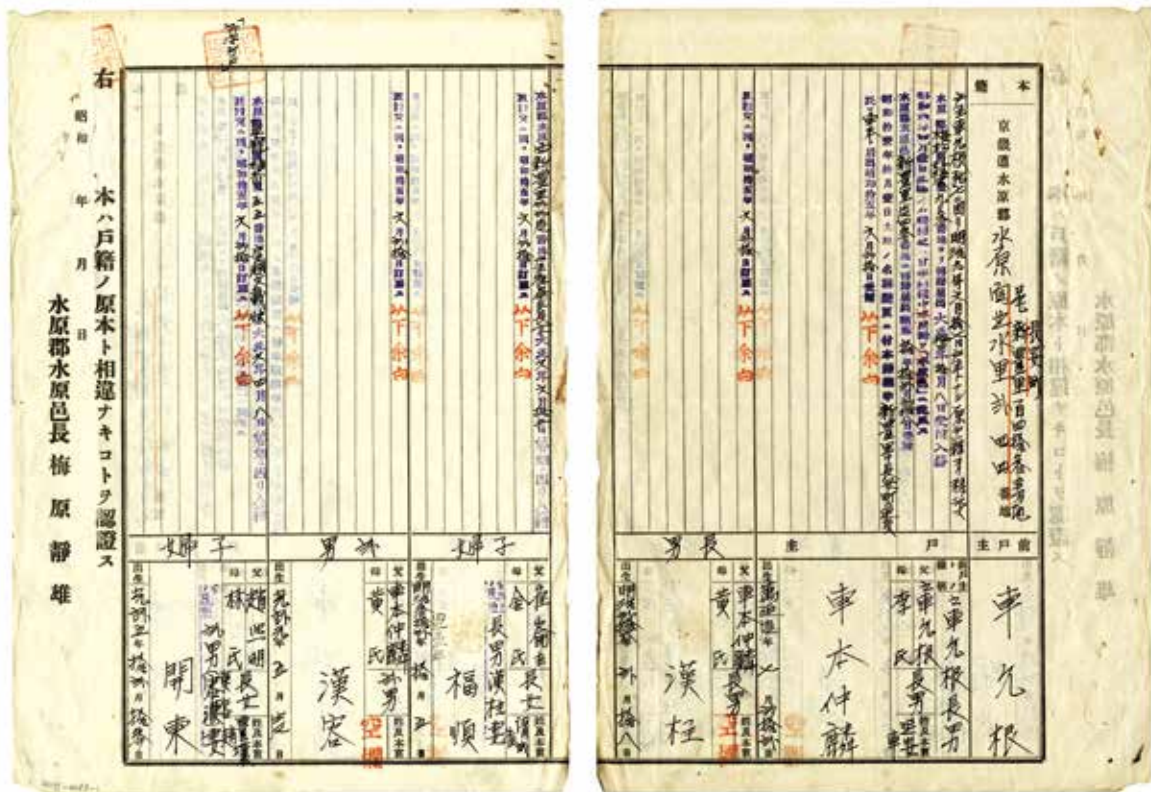
천수령千受齡(1702~1766)의 사적을 기록한 묘비명墓碑銘이다. 묘비명의 이름은 ‘유명조선국증통정대부호조참의수원천공휘수령지묘 증숙부인연일정씨부좌 증숙부인전주이씨부우有明朝鮮國贈通政大夫戶曹參議水原千公諱受齡之墓贈淑夫人延日鄭氏附左贈淑夫人全州李氏附右’이다. 작성한 연도는 1877년이며, 찬자撰者는 이기李夔이고, 글씨를 쓴 사람은 천도형千道亨이다. 책의 형태는 파란색 비단으로 표지를 감싼 호접장胡蝶粧이며, 본문은 한 면에 4행 8자로 되어 있다.



호적등본 戶籍謄本

3-36 | 水原邑長 梅原靜雄-車仲麟 | 1941
| 27×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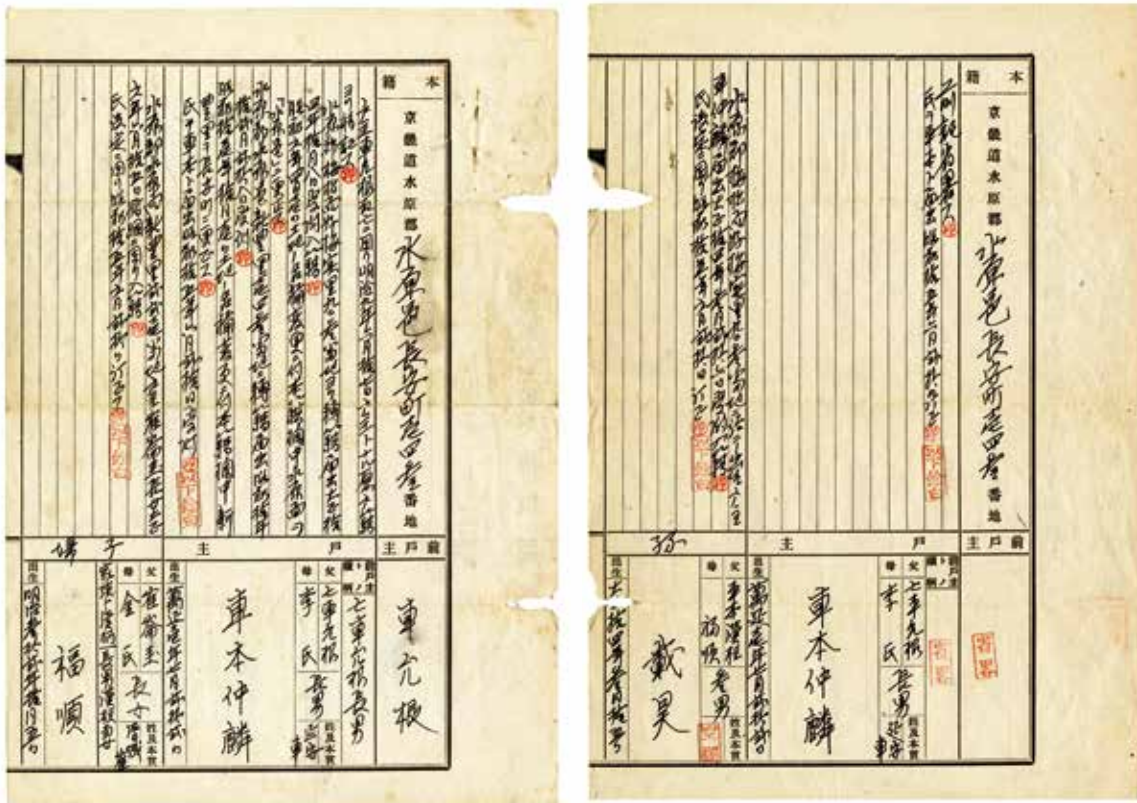
1941년 9월 22일에 수원읍에서 차중린 車仲麟에게 발급해 준 호적등본이다. 등본은 4장인데, 첫째 장에는 전 호주 차윤근 車允根, 현재 호주 차본중린 車本仲麟, 장남 차한주 車漢柱, 자부 최복순 崔福順, 둘째 아들 차한용 車漢容, 자부 조개동 趙開東이 적혀 있고, 둘째 장에는 손자 차상철 車相澈, 손녀 차갑석 車甲哲, 손자 차재호 車載昊, 차광석 車光哲, 차태석 車兌哲, 자부 김래금 金來金이 적혀 있고, 셋째 장에는 손녀 차거복 車巨福의 장녀 차복동 車福童, 손자 차재익 車載益, 차홍석 車洪哲, 차재훈 車載勳, 손녀 차재숙 車載淑, 차거복 車巨福의 장녀 차순득 車順得이 적혀 있고, 넷째 장에는 손부 박희병 朴姬秉이 적혀 있다. 본적은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 장안정 143번지이다.



호적등본 戶籍謄本

3-37 | 水原邑長 梅原靜雄-車仲麟 | 1943
| 27.1×18.7

1943년 4월 2일에 수원읍에서 차중린 車仲麟에게 발급해 준 호적등본이다. 등본은 2부인데, 한 부는 전 호주 차윤근 車允根, 현재 호주 차본중린 車本仲麟이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자부 최복순 崔福順, 손자 차재호 車載昊, 손녀 차거복 車巨福의 장녀 차복동 車福童, 손자 차재익 車載益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호주 차본중린 車本仲麟, 손자 차재호 車載昊, 손녀 차거복 車巨福의 장녀 차순득 車順得이 기재된 것이다. 본적은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 장안정 143번지이다.



호적등본 戶籍謄本

1949년 7월 4일에 수원읍에서 차재호 車載昊에게 발급해 준 호적등본이다.
세대주 차재호만 기재되어 있다. 본적은 북수동 235번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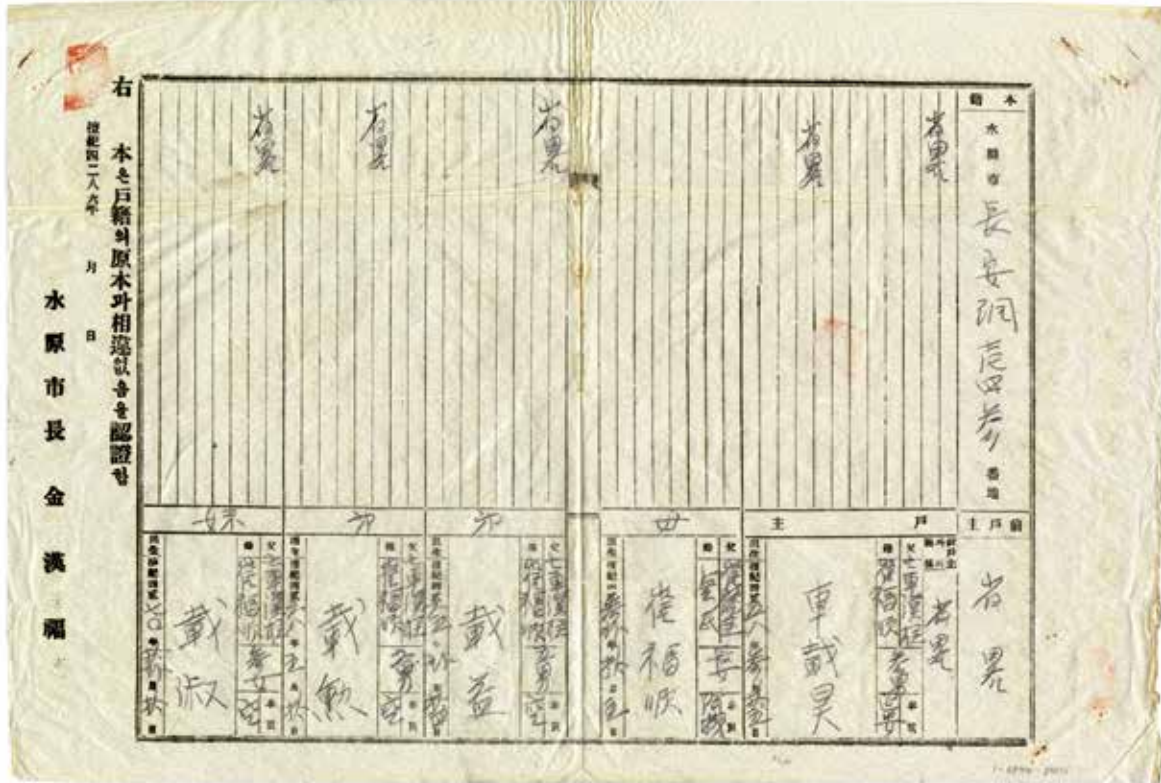
3-38 | 水原邑長 李珍榮-車載昊 | 檀紀 4282(1949)
| 25.3×17.6

右抄本邑長李珍榮 檀紀四二年七月四日 水原縣水原邑長李		所屬科別實 北水洞貳參五番地	
		世帶 車載昊	
出生 檀紀四二年 月 日	出生 檀紀四二年 八月拾五日	本籍水原郡水原邑長安洞 趙果實戶主	

호적등본 戶籍謄本

3-39 | 水原市長 金漢福-車載昊 | 檀紀 4286(1953)
| 26.4×39.5

1953년 2월 2일에 수원시에서 차재호車載昊에게 발급해 준 호적등본이다.
호주는 차재호이고, 모 최복순崔福順, 아우 차재익車載益, 차재훈車載勳, 차재
숙車載淑이 기재되어 있다. 본적은 수원시 장안동 143번지로 되어 있다.



표창장

3-40 | 수원시장 이백일-차화영 | 1962 | 32.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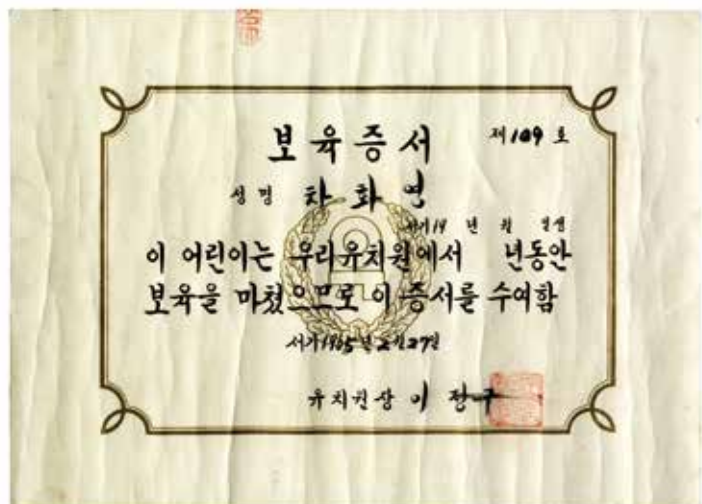
196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수원시장이 차화영에게 우량아로 선발되었기에 준 표창장이다.



보육증서

3-41 | 유치원장 이정구-차화영 | 1965 | 25.8×35.8

1965년 2월 27일에 유치원장 이정구가 차화영에게 유치원의 보육과정을 마쳤으므로 주는 증서이다.





졸업증서 卒業證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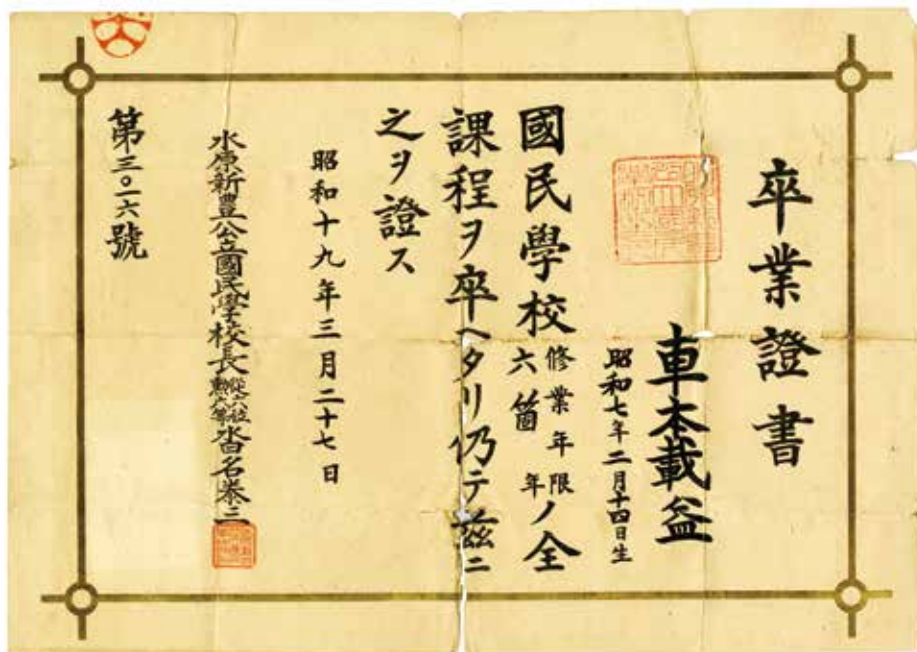
3-42 | 水原新豊公立尋常小學校長-車載昊 | 1939
| 26.7×38

1939년 3월 25일에 차재호(車載昊)가 수원신평공립심상소학교(水原新豊公立尋常小學校)에서 6년 동안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면서 받은 졸업장이다. 당시 교장은 쿠즈나타이조오(舊名泰三)이다. 2010년 2월 19일자 수원일보에 기재한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의 기사에 의하면, 1896년 수원 최초의 근대적 학교인 ‘수원군공립소학교’는 일제에 의해 1906년 9월 18일에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가 ‘수원공립보통학교(水原公立普通學校)’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에 1938년 4월 교육령 개정에 의해 공립보통학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또 이름이 바뀌었다. 수원공립보통학교는 일본인 ‘수원공립심상소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신평심상소학교(新豊尋常小學校)’로 바뀐다.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시작한 일제에 의해 ‘황국의 신민’의 국민(國民)을 길러낸다는 의미에서, 1941년 4월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國民學校)’로 만들었다. 이에 신평국민학교(新豊國民學校)로 이름이 바뀌어, 1996년 ‘신평초등학교’로 바뀔 때까지 지속되었다.

졸업증서 卒業證書

1944년 3월 27일에 차재익 車載益이 수원신평공립국민학교 水原新豐公立國民學校에서 6년 동안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면서 받은 졸업장이다.

3-43 | 水原新豐公立國民學校長-車載益 | 1944
| 26.3×37.2



사주단자四柱單子

3-44 | 車漢柱·崔福順 | 피봉 25.5×6.7
내지 24.2×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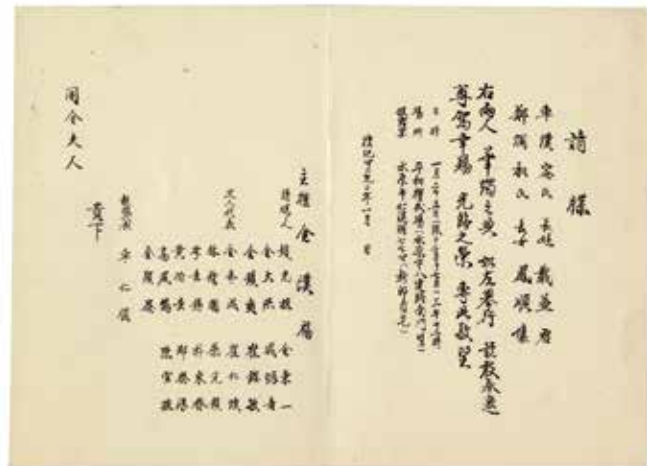
차한주車漢柱(1894~1942)가 혼인할 때 신부댁인 수성 최씨隋城崔氏 최복순崔福順(1899~?)에게 보낸 사주단자이다. 갑오년 2월 18일 축시丑時가 생일인 사람은 연안 차씨가승에 의하면 차한주이다. 차한주의 부친은 차중린車仲麟(1859~1921)이고, 증조부는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첨지중추부사行龍驤衛僉知中樞府事를 지낸 차해룡車海龍(1809~1867)이다. 문서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같은 내용의 사주단자가 또 한 부 남아 있는 점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 글씨 연습을 한 것을 남겨 둔 것으로 보인다.



청첩장 請牒狀

3-45 | 車載益 | 단기 4292(1959) | 15.5×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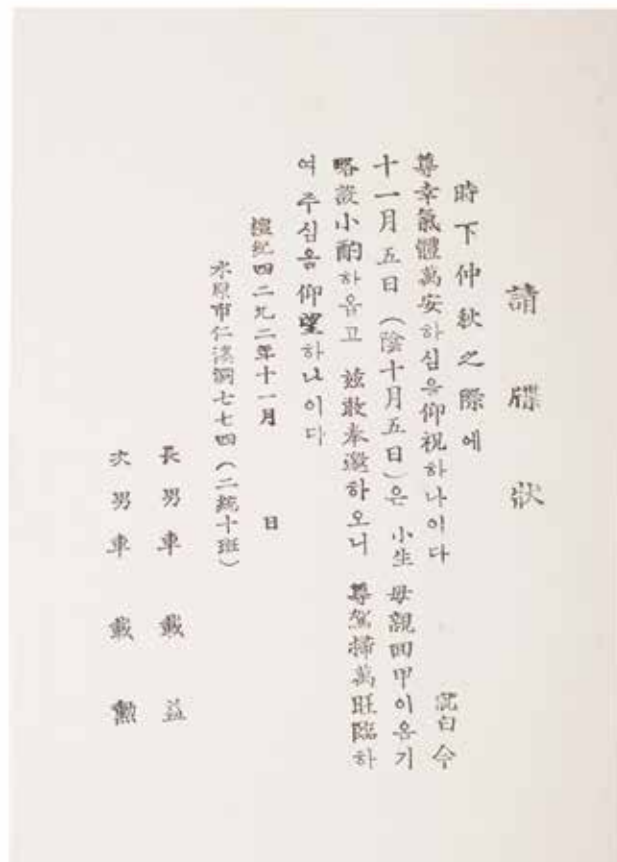
1959년 1월 25일 차재익車載益과 정봉순鄭鳳順이 결혼을 하면서 하객을 초대하는 청첩장이다. 주례는 김한복金漢福이고, 장소는 수원시 팔달로 남문 옆의 평화예식장平和禮式場이다. 피로연 장소는 신랑의 자택인데, 수원시 인계동 774번지이다.



청첩장 請牒狀

3-46 | 車載益 | 단기 4292(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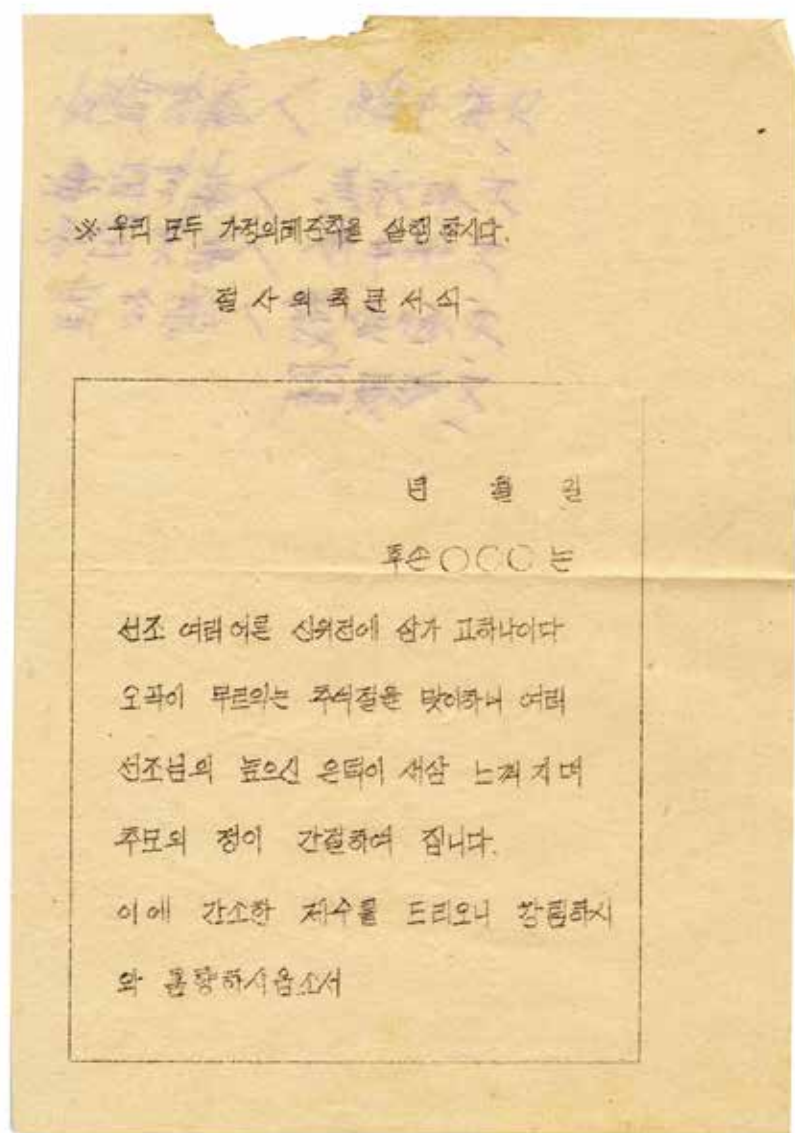
1959년 11월에 모친 최복순崔福順(1899~?)의 회갑이므로 하객을 초대한다는 초대장이다. 이를 주관하는 사람은 아들 차재익과 차재훈이다.



절사의 축문서식

3-47 | 18.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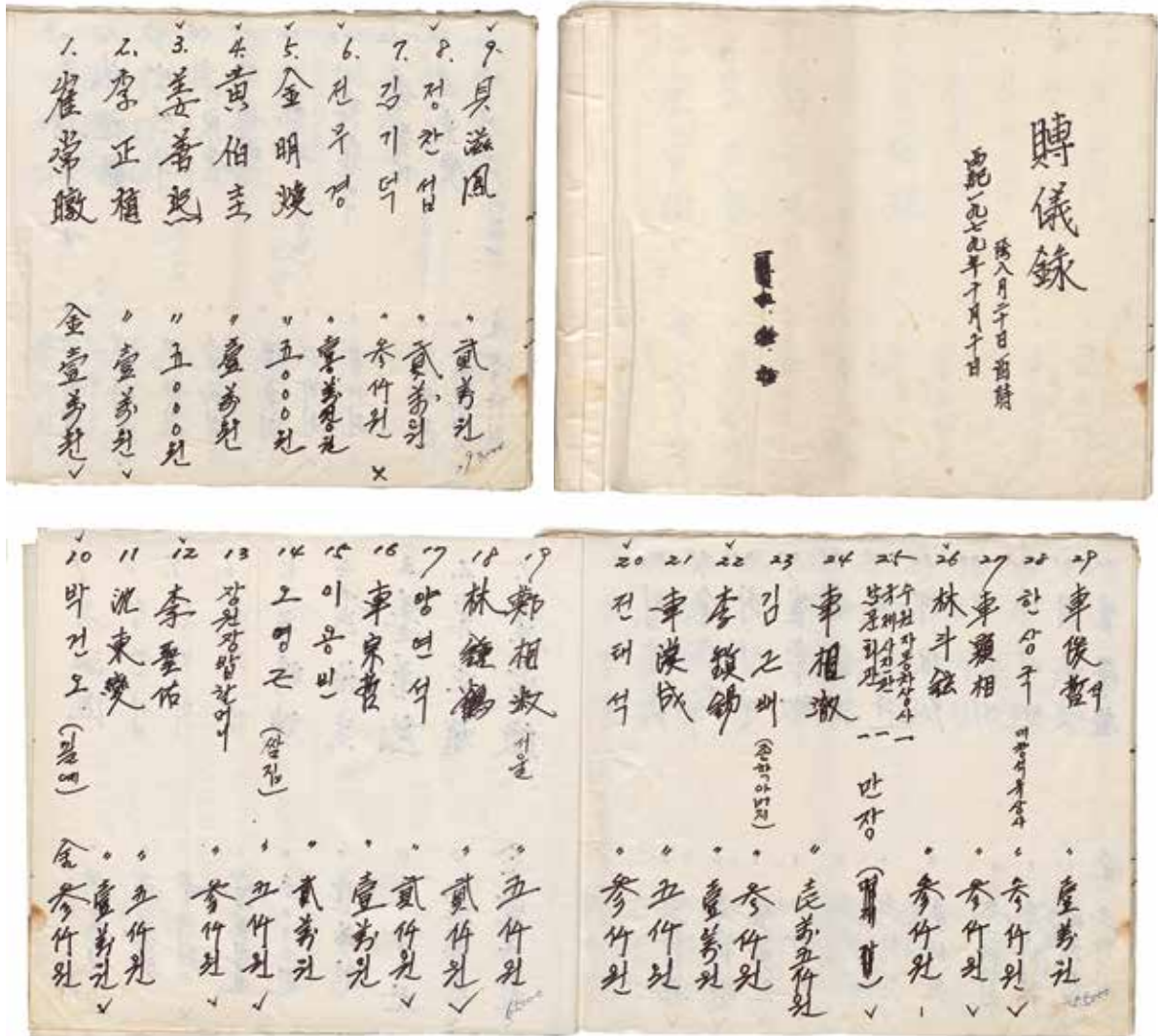
1969년 가정의례준칙을 실시한 후에 만든 절사의 축문서식을 한글로 등사한 것이다.



부의록 賻儀錄

3-48 | 1979 | 33×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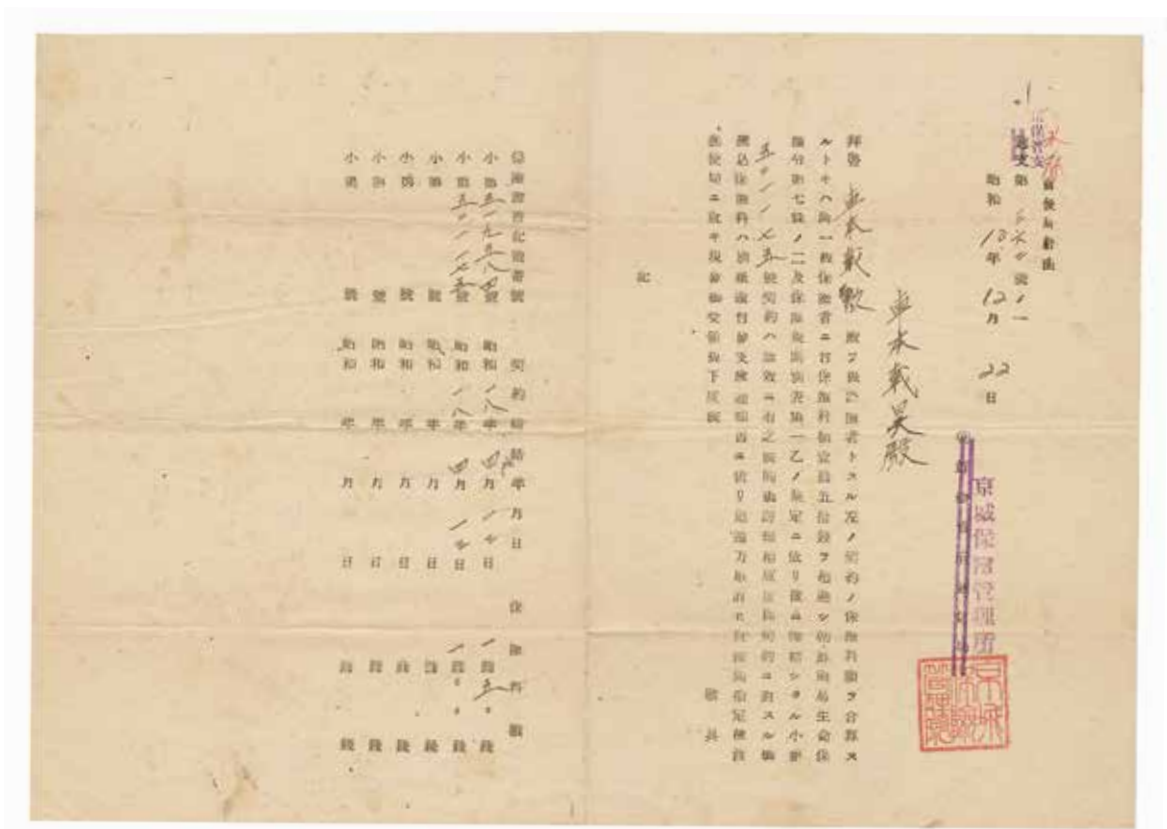
상사喪事에 부의금 賻儀金을 전달한 인명과 액수를 적은 놓은 부의록 賻儀錄이다. 날짜는 서기 1979년 10월 10일에 해당하고, 번호는 216번까지 있으나 기록된 명단은 총 221명이다. 평균적인 부의금 비용은 삼천 원에서 오천 원 사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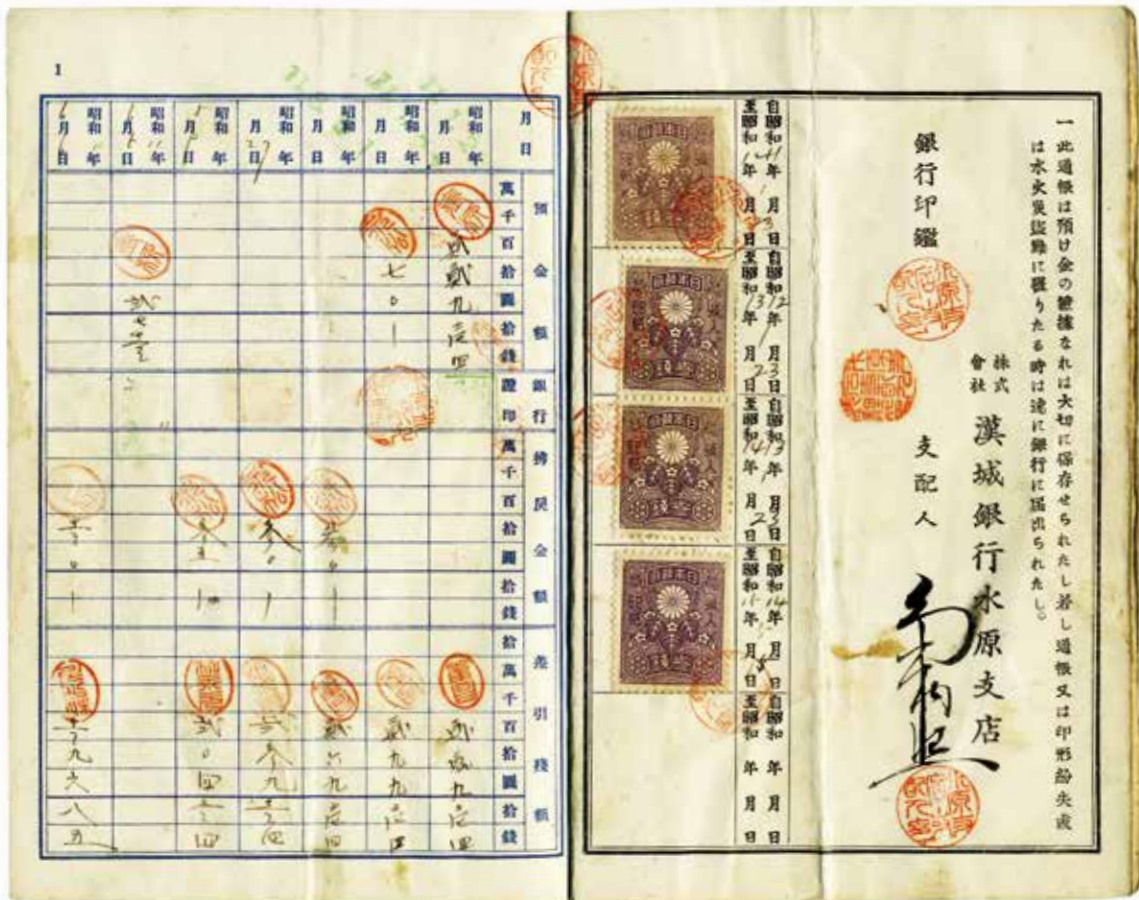


통지서 通知書

1935년 12월 22일에 경성보험관리소京城保險管理所에서 차재호車載昊에게 그 동안 체결한 보험금을 돌려주니 찾아 가라는 통지서이다.

3-49 | 京城保險管理所-車載晁 | 1935 | 25.7×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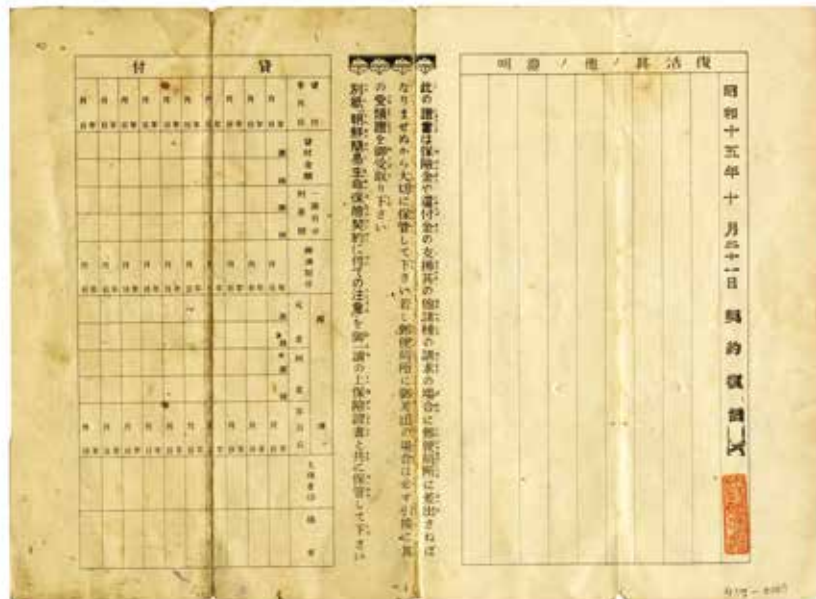




특별당좌예금통장 特別當座預金通帳

3-50 | 漢城銀行水原支店長 南丙熙-華北 | 1936 | 16.3×11.7

1936년부터 1940년까지 화북華北이라는 예금자가 입금한 것에 대한 예금통장이다. 이 통장은 한성은행 수원지점에서 발급하였으며, 면수는 10면으로 앞부분에는 예금규정과 인지가 붙어 있다.



보험증서 保險證書

3-51 | 朝鮮總督府通信局長-車漢柱 | 1937 | 19.4×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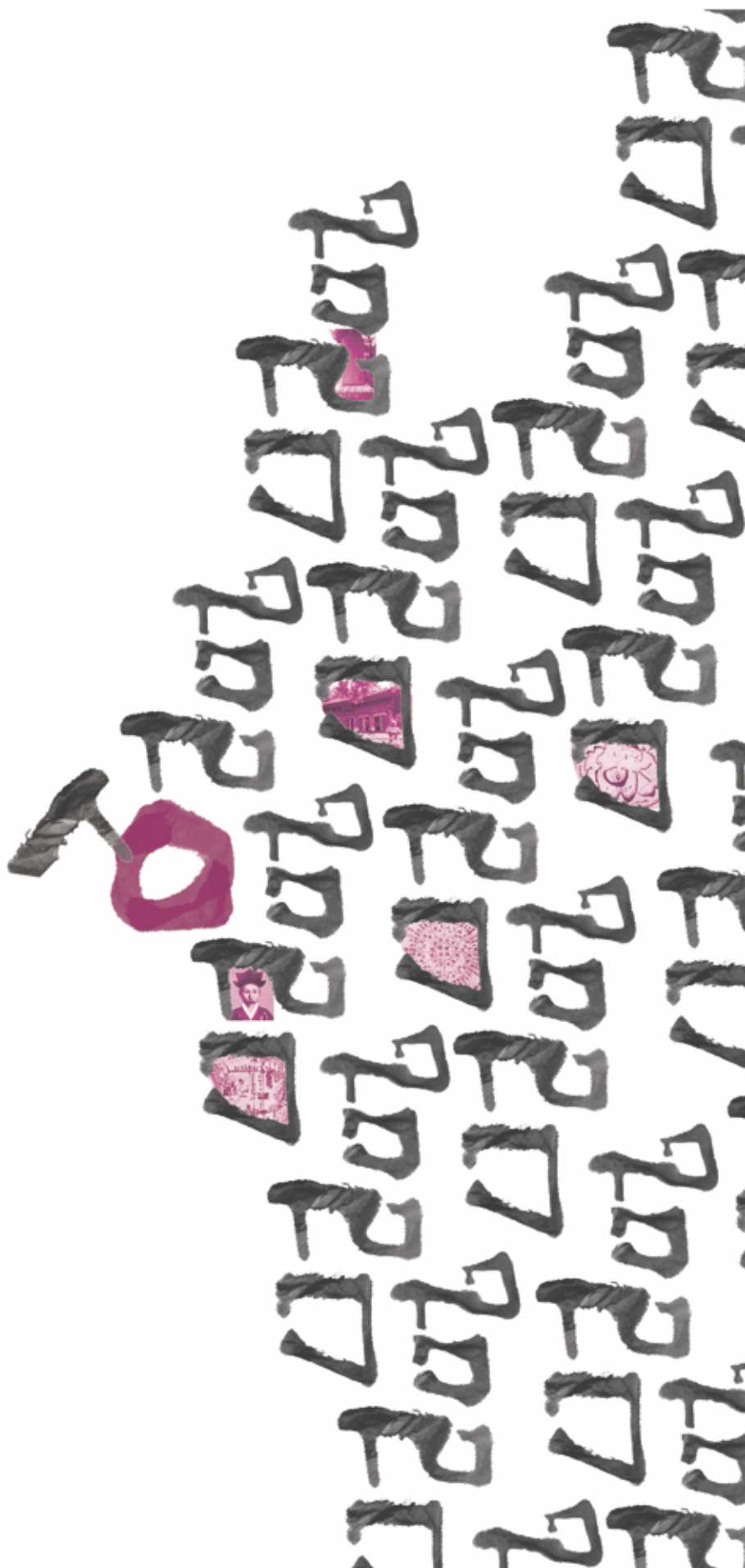
1937년 4월 5일에 차한주車漢柱가 조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通信局의 종신보험을 계약하고 받은 보험증서保險證書이다. 조선간이생명보험증서朝鮮簡易生命保險證書는 조선총독부체신국이 제정과 전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조선간이생명보험령(1929)에 따라 종신보험, 양로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한 보험증서를 말한다. 뒷면에는 1940년 10월 21일에 계약이 부활하였다고 적혀 있다.



세 월 과 함 께 한 수 원 의 옛 문 서

제4부

해주 오씨 추탄공파의
수원 정착과 오성선의
농촌진흥사업



해주 오씨 추탄공파의 분파와 이거

수원의 해주 오씨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14세 추탄공^{楸灘公} 오윤겸^{吳允謙} (1559~1636)의 후손들이다. 오윤겸의 선대는 대대로 용인에 세거해 왔다. 8세 오희보^{吳希保} (1360~1426)가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내기 위해 용인 원삼면에 처음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후손들이 원삼면 죽능리와 목신리, 학일리 일대에 세거하며 동족촌을 이루었다. 그중 일부는 다시 모현면 오산리 일대로 이거하여 집성촌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후대에 ‘추탄공파^{楸灘公派}’라는 이름으로 분파한 오윤겸의 후손들이다. 해주 오씨가 오산리에 터를 잡게 된 것은 오윤겸의 아버지 13세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이 처향을 따라 오산리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오희문의 후손들이 대대로 오산리에 세거하며 집성촌을 이루고, 오윤겸을 필두로 후손들이 줄줄이 문과에 급제하여 현달하게 되자, 오윤겸의 현손 대에 이르러 이들은 용인의 해주 오씨 중에서도 오윤겸을 파조로 하는 추탄공파로 분파하여 소종을 이루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동족 촌락과 문중이 형성되면 가까운 선조 중 가장 현달한 인물을 파조로 삼아 분파하는 경향이 있었다. 파시조가 현달한 인물일수록, 게다가 가까운 조상일수록, 그 집안은 현달한 조상 아무개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이는 지역사회에서 가계^{家格}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산리의 해주 오씨들에게 영의정까지 오른 추탄공 오윤겸은 파조로 삼기에 더없이 훌륭한 조상이었다. 이후 오윤겸의 후손들 역시 문과에 급제하여 대대로 관직에 진출하며 오산리의 해주 오씨들은 명문 거족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오윤겸이 가장 현달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오윤겸을 파조로 하여 분파한 추탄공파는 이후 해주 오씨 중에서도 중요한 문파의 하나를 이루게 된다. 오윤겸의 생애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윤겸은 1582년(선조 15) 사마시에 합격한 뒤 1589년 전강에서 장원해 영릉참봉·봉선전 참봉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호체찰사^{兩湖體察使} 정철^{鄭澈}의 종사관으로 발탁되었으며, 시직^{侍直}을 거쳐 평강현감으로 5년간 봉직하면서 1597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부수찬·이조좌랑·지제교·부교리를 역임하고, 1602년 모함을 받아 곤경에 처한 스승 성혼을 변호하다가 시론^{時論}의 배척을 받아 경성판관으로 출보^{黜補}되었으며, 그 뒤 7~8년간 안주목사·동래부사 등의 외직을 전전하였다. 1610년(광해군 2) 내직으로 들어와 호조참의·우부승지·좌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다가 권신 정인홍이 이언적과 이황의 문묘 종사를 반대, 사림과 대립하자 이를 탄핵하다가 왕의 뜻에 거슬려 강원도관찰사로 좌천되었다. 1년 남짓 관찰

사로 재임하는 동안 기민機民을 구제하는 한편,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묘를 수축해 제례 절차와 각 고을로부터의 제수 마련 법식을 제정해 이후 이를 준용하게 하였다.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 첨지중추부사가 되었으나, 집권 세력인 북인의 발호로 계축옥사가 일어나는 등 정계가 혼란해지자 늙은 아버지의 봉양을 구실로 광주목사를 자원하였다.

1617년 다시 첨지중추부사가 되어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의 정사로서 사행 400여 명을 이끌고 일본에 가서 임진왜란 때 잡혀 갔던 포로 150여 명을 쇄환했으며, 이때부터 일본과의 수교가 다시 정상화되었다. 1618년 북인들에 의해 폐모론이 제기되자 이를 반대, 정청庭請에 불참하였다. 이로 인해 탄핵을 받자 벼슬을 그만두고 광주 선영 아래의 토당으로 물러나 화를 피하였다. 1622년 명나라 희종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하극사賀極使로 선발되어, 육로가 후금에 의해 폐쇄되었으므로 바다로 명나라를 다녀와 그 공으로 우참찬에 올랐다. 이듬해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대사헌에 임명되고, 이어 이조·형조·예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까지 호종하였다. 이어 예조판서·지중추부사를 거쳐 1626년 우의정에 올랐다. 이듬해 정묘호란이 발생하자 왕명을 받고 자전慈殿과 중전을 모시고 먼저 강화도로 피난했으며, 환도 뒤 좌의정을 거쳐 1628년 70세로 영의정에 이르렀다. 이때 노서·소서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자 이의 중재에 힘썼으며, 특히 경연에서 정치 혁신을 위한 왕의 각성과 성리학에의 전념을 촉구하였다.

이듬해 인조의 생부인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숭하고 또 부묘하려는 논의가 일자 이에 반대해 영돈녕부사로 물러났다가 1633년 좌의정에 재임되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인열왕후의 상에 총호사總護使로서 과로한 나머지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외직에 있으면서 평강현과 경성부의 민폐를 다스려 정치를 잘한 수령으로 명성을 얻었다. 중앙관으로는 온아단수溫雅端粹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 주위의 촉망을 받았다. 만년에 재상의 자리에 10여 년간 있을 때 백성의 편의를 위해 연해 공물의 작미作米와 대동법의 시행을 추진하고 명분론의 반대를 물리치면서까지 서얼의 등용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림을 아끼고 보호해 어진 재상이라 불렸다. 죽기 직전 유언으로 조정에 시호를 청하지 말고 신도비를 세우지 못하게 했으나, 1663년(현종 4) 충간忠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광주의 구암서원과 평강의 산양재영당山仰齋影堂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 『추탄집』, 『동사일록東槎日錄』, 『해사조천일록海槎朝天日錄』 등이 전한다.

현재 오산리에는 추탄공파의 종가와 재실인 유덕재維德齋, 부친 오희문과 증손 오수량吳遂良에 이르기까지 오윤겸 집안의 묘소가 위치해 있다. 한편, 오산리의 해주 오씨가 명문가로 성장하면서 ‘오산리’라는 지명이 오씨의 종산이 있어 붙여진 명칭이라는 구전도 전한다. 실제로 능원리와 오산리 일대에서는 오씨네 종산을 ‘오산’이라 부르고 있다.



오윤겸과 배위 경주 이씨 묘소 및 오산리 묘역 전경

오윤겸은 정실부인인 경주 이씨에게 두 아들, 측실에게서 세 아들을 두었다. 수원의 해주 오씨는 그중 셋째 아들인 오달조吳達朝(1604~1689)의 후손이다. 오달조는 다시 4형제를 두었는데, 그중 3형제가 모두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면서 이후 후손들은 대대로 무반의 길을 걷게 된다. 오달조의 4형제인 16세부터 23세에 이르기까지 이 집안에서는 총 16명이나 되는 무과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오달조는 비록 서출이었으나, 그의 아들 대부터 후손들은 대대로 무반의 길을 택하여 무과에 급제, 관직에 진출하면서 명문가 후손으로서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22세 후손 중에는 오승묵吳升默, 오원묵吳元默, 오창묵吳昌默, 오정묵吳定默, 오성묵吳成默이, 23세에는 오직선吳直善, 오정선吳鼎善, 오영선吳榮善, 오석선吳奭善, 오성선吳性善에 이르기까지 두 대에 걸쳐 총 10명이 대거 무과에 급제함으로써, 이들 집안은 무반 가문으로서의 새로운 전통을 창출, 나름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그중 현재 문서 소장자인 오국환吳國煥 씨의 직계 조상으로 22세 오성묵과 그의 아들 중 3형제의 관력 및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성묵吳成默(1832~1904)의 주요 관력과 이력

임명 시기	임명 관직	출처
1856년(철종 7)	무과 급제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859년(철종 10)	宣薦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869년(고종 6)	折衝將軍(정3품 당상)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869년(고종 6) 4월 11일	五衛將(정3품)	承政院日記

임명 시기	임명 관직	출처
1869년(고종 6) 4월 27일	僉知中樞府事(정3품 당상)	承政院日記
1875년(고종 12)	中軍(정3품 당상)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875년(고종 12) 7월 24일	忠翊將(정3품)	承政院日記
1878년(고종 15) 8월 28일	忠壯將(忠壯衛將)(정3품)	承政院日記
1884년(고종 21)	宣傳官(정3품 당상)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887년(고종 24) 8월 27일	慈仁縣監(종6품)	日省錄
1887년(고종 24) 8월 29일	禁軍將(정3품)	日省錄
1892년(고종 29)	統禦營領官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895년(고종 32) 6월 18일	咸陽郡守(종4품)	日省錄
	鍾城地方隊大隊長	日省錄
1898년(광무 2) 9월 23일	參領(奏任官 3등)	日省錄
1902년(광무 6)	壽職으로 嘉善大夫(종2품)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오성묵의 장자 오철선吳喆善(1857~1927)의 주요 관력과 이력

임명 시기	임명 관직	출처
1887년(고종 24) 윤4월 2일	幼學 吳喆善을 電報局主事に 임명	承政院日記
1887년(고종 24) 12월 26일	五衛將加設	承政院日記
1888년(고종 25)	訓練主簿加設	承政院日記
1888년(고종 25) 7월 27일	訓練主簿加設 吳喆善을 施賞하여 그 직을 仍任시키고 陞六	承政院日記·日省錄
1897년(광무 원년) 11월 20일	中樞院 3等 議官	고종시대사 4집
1900년 3월 28일	侍從院分侍從	皇城新聞 官報
1908년 9월 25일	기호흥학회 수원지부 財政部長	기호흥학회월보 제2호
1910년 8월 27일	6품 吳喆善을 正3품에 가자	순종실록

오성묵의 2자 오석선吳奭善(1862~1934)의 주요 관력과 이력

임명 시기	임명 관직	출처
1882년(고종 19)	무과 급제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889년(고종 26)	折衝將軍(정3품 당상)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889년(고종 26) 4월 29일	五衛將(정3품)	承政院朝報
1894년(고종 31) 4월 15일	忠壯衛將(정3품)	承政院日記
1894년(고종 31) 4월 27일	僉知中樞府事(정3품 당상)	承政院日記
1894년(고종 31) 5월 17일	忠壯衛將 吳奭善이 병으로 체직	承政院日記

오성묵의 3자 오혁선吳赫善(1867~1935)의 주요 관력과 이력

임명 시기	임명 관직	출처
1888년(고종 25) 3월 19일	昭慶園守奉官	日省錄
1900년(광무 4) 7월 3일	용인군에 私立小學校 설립	皇城新聞
1905년	6품에 陞資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929년 4월 3일	전라북도 群山府 직원	毎日申報
1929년	전라북도 익산군 직원(8등)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용인에 세거하던 이들이 수원에 입향하게 된 계기는 20세 오태의 吳泰義의 묘를 수원 태장면 청명산에 쓰기 시작하면서이다. 이후 이들은 태장면 청명산, 원천리, 능원리와 영통 등에 묘역을 조성하며 수원으로 이거하여 현재 수원 영통리에 정착하여 세거하고 있다.

해주 오씨 추탄공파 세계도



- 1) 아들 수국^{遂國}이 분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어 통정대부병조참의에 오름.
- 2) 1726년 통훈대부군기시주부, 1739년 성환찰방^{成歡察訪}, 이인좌 난에 자원 출전하여 안성에서 적을 격파, 원윤^{元胤}의 목을 베어 통정대부에 가자, 분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 방답첨사^{防踏僉使}를 지냄.
- 3) 『해주오씨추탄공파세보』에는 언눌^{彦訥}의 생년이 병인^{丙寅}(1746)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동생 언호^{彦好}의 생년(1739)과 맞지 않으므로, ‘병인^{丙寅}(1746)’은 ‘병진^{丙辰}(1736)’의 오키가 아닐까 판단된다(해주오씨추탄공파종중, 『해주오씨추탄공파세보』, 農經出版社, 1979).
- 4) 1770~1848, 묘 태장면 청명산.
- 5) 1761~1852, 증통정대부, 묘 서천리.
- 6) 1770~1854, 1800년 무과, 1842년 동래수군우후^{東萊水軍虞侯}, 증좌승지, 묘 기곡면.
- 7) 1788~1829, 묘 영통.
- 8) 1818~1890, 1846년 무과, 1880년 훈원원첨정, 1893년 자헌대부에 가자[命前同知吳元默加資憲 四子一孫登科人 依法典加資也(『고종실록』, 고종 30년 8월 26일)], 묘 일왕면 광고리.
- 9) 1820~1881, 1852년 무과, 1856년 절충^{折衝}, 1867년 윤봉현감, 1879년 가선대부, 묘 태장면 원천리.
- 10) 1832~1904, 1856년 무과, 1884년 선전관, 1887년 자인현감, 1895년 함양군수, 묘 용인 부아산^{負兒山}.
- 11) 1875~1947, 1887년 무과, 1898년 육군참위^{陸軍參尉}, 1900년 副尉, 1901년 정3품, 묘 하갈리.
- 12) 1854~1911, 1876년 무과, 1879년 절충^{折衝}, 1891년 격포첨사, 묘 원천리.
- 13) 1857~1927, 1887년 전보국주사^{電報局主事}, 오위장가설^{五衛將加設}, 1888년 훈원주부가설^{訓鍊主簿加設}, 1897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1900년 시종원분시종^{侍從院分侍從}, 1906년 통정대부에 가자, 묘 용인 보라리.
- 14) 1862~1934, 1882년 무과, 1889년 절충장군^{折衝將軍}, 오위장^{五衛將}, 1894년 충장위장^{忠壯衛將},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묘 영통.
- 15) 1867~1935, 1888년 소경원수봉관^{昭慶園守奉官}, 1905년 승육^{陞六}, 1929년 전북 군산부 익산군 직원, 묘 반월.
- 16) 1872~1950, 1893년 무과, 1897년 시어^{侍御}, 1900년 상의사주사^{尙衣司主事} 관임관^{判任官} 6등, 돈녕원주사^{敦寧院主事}, 1902년 승육^{陞六},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묘 서천리.
- 17) 1901~1963, 일본 법정대학 경제학부 졸업, 묘 영통.
- 18) 1880~1957, 호 화은^{華隱}, 육군부위^{陸軍副尉}, 통훈대부, 묘 용인, 문집 『화은시집^{華隱詩集}』.
- 19) 1887~1965, 일본 명치대학 법정학부 졸업, 태장초등학교 창설, 묘 영통.
- 20) 1904~1972, 일본 중앙대학 경제학부 졸업, 경기도주사, 기흥면장, 묘 농서리.
- 21) 1914~, 서울상대 졸업. 도기수^{道技手}.
- 22) 서울대 의대 졸업, 육군군의관.



忠孝齋 東主 [晦華](소장자 집안 안채에 걸려 있던 충효재忠孝齋 현판)



幽趣軒 東主 [晦華](해주 오씨가 가전家傳 현판)



月明竹窓一咏觴 其昌(해주 오씨가 가전家傳 현판)



해주 오씨 집안에서 사용하던 붓, 연적, 벼루함



갓과 갓집



반달이



문갑



삼층책장

“농촌 개발의 선구자, 빈농 구제의 아버지 오성선吳性善”



용수흥농주식회사 사장 오성선
(1872~1950)

현재 오씨가에는 일제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오씨 집안 인물들의 활동과 용인·수원 두 지역의 근대사를 보여 주는 문서들이 다수 남아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문서를 남긴 인물은 바로 22세 오성묵의 넷째 아들인 오성선吳性善(1872~1950)이다. 오성선은 1893년(고종 30) 무과에 급제하여 상의사주사尙衣司主事, 돈령원주사敦寧院主事,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등의 관직을 거쳤다.

오성선은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으로 추대되어 일본 농촌을 시찰하면서, ‘조선 농촌의 진흥은 실로 농사의 개량과 금곡金穀의 저리유통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귀국하였다. 이에 이듬해인 1909년 용인과 수원 지역의 농업 진흥을 위하여 용인과 수원의 첫 글자를 따서 ‘용수농업연구회龍水農業研究會’를 창설하고, 같은 해 11월 용수농계龍水農契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22년에는 별도로 ‘용수저축조합’을 병설하고, 1927년에는 용수농계와 저축조합을 합병하여 ‘용수흥농조합’을 설립한 뒤, 1929년 5월 10일 용수흥농주식회사를 창립하였다. 용수농업연구회로부터 용수흥농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오성선은 오로지 농촌 진흥과 빈농 구제에 그 목적을 두고 농사개량과 저리의 농업자금 유통을 통한 농민들의 구제 상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성선(1872~1950)의 주요 관력과 이력

임명 시기	임명 관직 및 이력	출처
1893년(고종 30)	무과 급제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897년(광무 원년)	侍御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900년	尙衣司主事 判任官 6등	日省錄
1900년	敦寧院主事	日省錄
1902년	陞六, 中樞院議官	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1909년	龍水農業研究會 창설 龍水農契로 변경	
1922년	龍水貯蓄組合 설립	
1924년	養慰資金貯蓄組合 설립	

임명 시기	임명 관직 및 이력	출처
1925년	龍水機業組合 설립	
1927년	龍水興農組合 설립	
1929년 5월 10일	龍水興農株式會社 창립	
1944년	龍水農契 해산	
1946년 1월 30일	龍水興農株式會社 해산	

경성일보 (제8826호) 소화 7년 6월 23일

“농촌 개발의 선구자, 빈농 구제의 아버지 오성선 씨”

현 사장 오성선 씨는 명문가 출신으로 명치 40년(1907)에 관직을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향시 지방개발과 산업개발에 뜻을 두고 있던 중, 동 41년(1908)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으로 천거되자 일본으로 건너가 내지 농촌을 시찰하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는 ‘조선 농촌의 진흥은 실로 농사의 개량과 금곡(金穀)의 저리 윤통에 있다.’고 직감하고 귀국하여, 이듬해인 42년(1909) ‘용수농업연구회’를 창설, 같은 해 11월 ‘용수농계(龍水農契)’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정 11년(1922) 별도로 ‘용수저축조합’을 병설, 소화 2년(1927) 농계와 조합을 합병하여 ‘용수흥농조합’으로 하고, 소화 3년(1928)에는 ‘용수흥농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금일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에 이르는 사이 명칭과 시설은 수시로 개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시종일관 용인 및 수원의 두 군에서 농업을 진흥함으로써 빈농을 구제하는 데 두었다. 어떤 방법으로 농업을 진흥하고 빈농을 구제하였는가 하면, 첫째 가난한 이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윤통하고, 둘째 농사를 점차로 개량하여 수확의 증가를 도모하였다. 용인 땅은 예로부터 좋은 쌀 생산지로 명성이 높은 곳으로, 지금은 수리의 편리함까지 갖추어져 점점 더 농업의 발달을 보게 될 상황이며, 게다가 용수흥농회사가 있어 그 업적이 날마다 성황이라고 한다.



용수흥농주식회사 임원

회사의 창립자 오성선 씨의 사람 됨됨이나 그 사업과 같은 것은 현시 조선의 업계가 가장 대망하는 바이며, 게다가 쉽게 구해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농사 개량은 실로 농사로서 생계를 영위하는 자들이 대다수를 점하는 조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기술의 진보·개선은 현재 그 효과가 점차 현저해지고 있어서, 누구도 그 진위를 의심하는 이는 없다. 그리하여 얻어진바 복리의 증진을 다수의 소농가에 철저히 다하게 함은 금후 일대(一大)의 긴요한 일이다.

오씨는 형안(炯眼)이 일찍부터 트여서 그 필요를 인지하고, 20여 년 전 숭선하여 업을 일으켜 여러 곤란을 타파하고 착착 실적을 올려 금일에 이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높이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부대사업으로서 양위조합(養慰組合), 학계(學契), 양잠조합, 연입(筵入)조합, 공동구우계(共同購牛契), 기업조합(機業組合) 등을 조직하여 오로지 지방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지역 농민들도 점차 혜택을 보게 되자, 오성선은 1932년 『경성일보』에 “농촌 개발의 선구자, 빈농 구제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기도 하였다.

용수홍농주식회사 외에 1924년에는 “어른과 어린이를 봉양하고 교육하며, 남녀를 결혼시키고, 장례에 유감이 없게 할” 목적으로 양위자금저축조합(養慰資金貯蓄組合)을 설립하여 출자금을 불입, ‘양안(養安)·교육·장수(長壽)·결혼·양로(養老)’에 대비하게 하였다. 또한 농가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1925년에는 용수기업조합(龍水機業組合)을 설립하여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방직과 제사업(製絲業)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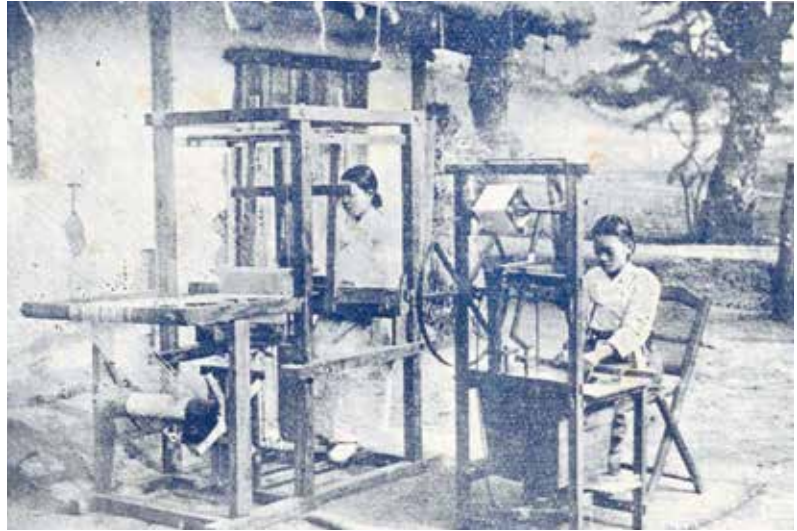
현재 오씨가에는 용수농계, 용수홍농주식회사, 양위자금저축조합, 용수기업조합의 운영 실상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문서가 남아 있다. 용수농계는 주로 종자 개량, 제초, 비료, 시비 보급 등을 통한 농사개량 및 저곡(貯穀)과 곡식 대부업을 주 활동으로 하였다. 저곡은 춘궁기의 곡식 대부를 목적으로 백미로 저곡을 마련하여 연 3할의 이율로 계원들에게 대부해 주고, 그중 2할 5푼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배분한 출자미와 배당미 관련 문서, 1944년 해산하면서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 위로금 관련 문서 등이 있다.

양위자금저축조합의 1932년 인수인계 관련 문서는 1930년대 양위자금저축조합의 운영 실



1915년 용수농계 곡식 저장 창고

1909년 11월 출범한 용수농계는 농업자금 대부 외에 농민들이 춘궁기에 쓸 수 있도록 저리로 백미를 대부해 주고 가을에 상환하게 하는 곡식 대부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용수농계의 저곡창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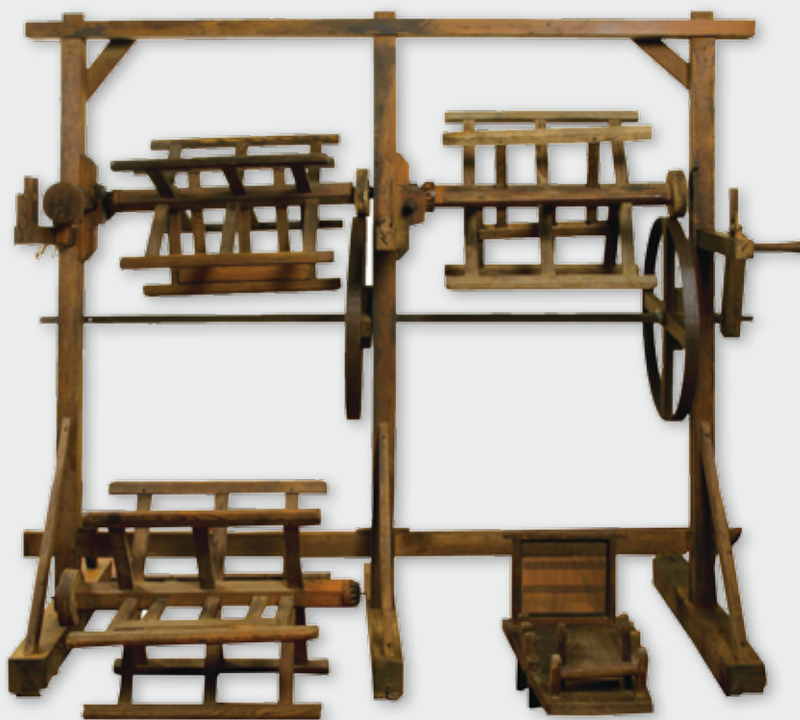


용수기업조합 직조 모습

상과 자금 규모 등을 상세히 보여 준다. 오성선은 양위자금저축조합 이름으로 학계^{學契}를 만들어 그 자금으로 경성에 학생 기숙사를 설립하여 조합원의 자제 중 유학하는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때 기숙사에 대하여 경성부윤에게 납부한 가옥세 영수증도 남아 있다.

용수기업조합 관련 문서를 통해서는 1925년 조합을 설립한 이래 1930년대부터 시작한 제사업^{製絲業}의 운영 과정을 살필 수 있다. 1936년 정부의 승인을 받고 제사업^{製絲業}의 운영을 시작하여, 1941년에는 제사업^{製絲} 제조장을 설치하였으며, 제조장에서 저사업^{苧絲} 제조업을 시행하여 이에 참여한 직공들의 임금 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용수농업주식회사와 관련해서는 1930~1940년대 영업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영업 보고서, 대부업 관련 문서, 주권 양수와 양도에 대한 문서 및 1946년 해산 직전까지의 배당금 관련 문서 등이 있다. 1930년대 초 용수농업주식회사가 대부금 상환에 대해 받은 독촉 문서는, 빈농 구제와 농업자금 융통에 설립 목적을 두고 회사 명의로 은행이나 금융조합에서 저리로 대부를 받아 농민들의 구채를 갚아 주거나 자금을 융통해 준 뒤 매년 조금씩 상환하도록 하였으나, 1920년대 말 대공황과 물가 폭등으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1930년대 초반에는 회사 자체가 채권자로부터 대부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며 곤란을 겪기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대부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감정보고서, 소작료 인도증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이 있다. 용수농회는 처음에 빈농들의 구채상환과 농업자금 융통을 위해 대부업을 시행하였으나, 대부업이 활성화되



일제시기 용수기업조합에서 사용한 직조기



직조기 부속물

자 부동산을 담보로 농업자금뿐만 아니라 상업 및 공업 자금까지 대부해 주기 시작하였다. 특히 오만선은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버스 운송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해방 무렵의 배당금 기입장은 회사 설립 이래 배당률이 최하 3.5% 까지 하락하면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1909년 용수농업연구회로 출발하여 1929년 주식회사로 발전, 지역사회의 농업 진흥과 경제 향상에 꾸준히 기여해 온 용수농업주식회사는 1946년 1월 30일, 마침내 그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용수농업주식회사의 해산과 관련된 문서로는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이 오성선에게 발급한 최고서 등이 있다.

이러한 농촌진흥사업과 함께 1920년대 후반에는 농사 개량에 필수적인 관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해나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보급을 위해서는 수리시설이 절실히 요청되었으나,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리조합을 접해 보지 못해 의구심을 품고 있던 지주나 농민들에게 저수지 조성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부담시킬 수도 없었다. 이에 오성선은 공사비용의 절반은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머지 절반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서 대부하여 관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농업 개량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관개사업과 수리조합의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었다. 경기도에도 수리시설의 최초 공사비를 지원하는 대신, 공사 완료 후의 유지비는 계를 조직하여 지주들의 부담에 의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었다. 오성선은 이를 활용하여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 일제시기 초기부터 경지 정리에 성공하여 전국에서 수리조합의 모범사례로 꼽히던 전북 익산의 익옥수리조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한편, 지역 농가의 농업 실태와 생산량, 수리시설 조성 이후 발생하게 될 실익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장문의 관개사업 계획서를 작성, 경기도에 보고하였다. 철저한 조사와 사업 계획서 덕분에 결국 도의 지원을 받는 데 성공하여, 1929년 5월 10일 공사에 착수하여 6월 21일 40여 일 만에 2개의 저수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의 지원금으로 축조한 저수지는 준공 후 2개월 안에 제언계를 조직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가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계 조직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처럼 제언계 조직이 지체된 것은, 최초의 공사비만 도에서 지원하고 사후 저수지의 운영은 계원인 지주들의 지주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으로 계원의 모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시기 신문기사에 따르면, 수리조합이 활성화되기 전 수리시설 조성 이후 지주들은 지주부담금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껴 이를 피해 몽리답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시설로 인해 점차 생산량이 증대되고, 농가 소득의 향상이 검증되자 수리시설의 조성과 지주부

담금에 대한 지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점차 사라졌다고 한다. 공사 준공 후 몇 달이 지나도 제조직에 대한 보고가 없자, 오성선은 상부로부터 제조직에 대해 보고하라는 독촉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에 해당 저수지의 혜택을 받는 지주와 소작인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 회의를 소집, 설득한 끝에 공사가 준공된 지 6개월 만인 12월에 드디어 제언계를 조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에 축조된 두 개의 제언이 바로 성화제(成和堤)와 만선제(滿善堤)이다.

현재 오씨가에는 일제시기 성화제와 만선제의 축조를 위한 관개사업 계획서부터 공사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 주는 문서, 그리고 해방 이후 제언계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관련 문서가 매우 상세히 남아 있다. 오성선이 이끌었던 서천리의 제언계는 1940년 무렵 ‘토지개량계’로 전환되었다. 토지개량계 역시 정부의 보조금과 지주부담금에 의해 농지 개량 및 관개 사업을 시행하다가, 1960년대 초 ‘토지개량조합’으로, 1970년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으로 전환하게 된다. 해방 후의 토지개량계 관련 문서에서는 일제시기 저수지 신설공사비만 지원했던 제언계와 달리, 신설 이후 운영 과정에 소요되는 개수 공사비용까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성선은 서천리 외에 농서리에서도 토지개량계장을 맡아 관개사업을 주도하였으며, 오성선의 사후 서천리의 토지개량계는 그의 아들 오환영이 아버지를



성화제·만선제 기념비

이어 계장을 맡아 운영하였다. 오씨가에는 현재 서천리 외에 용인군 기흥면 공세리와 농서리의 토지개량계 관련 문서도 1960년 무렵까지 남아 있어, 일제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이 지역 수리조합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해방 직전 보급비 마련을 위한 일제의 공출 관련 문서도 남아 있다.

해주 오씨들은 당시 용인 일대의 대표적 지주로서, 이처럼 농촌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외에 교육사업 및 사회사업에도 활발하게 종사하였다. 오성선은 이 지역에 보통학교가 설립되기 전 학계學契를 조직하여 1916년 장흥의숙章興義塾을 설립하였으며, 오철선의 둘째 아들 오덕영吳德泳은 태장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또 오성선의 동생 오만선吳晩善은 버스 운송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경영하는 동시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상이군사들을 위해 경기 정양원靜養院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문세가 출신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지주로서 오씨가 인물들은 조선 후기에는 무반으로, 일제시기에는 농촌운동가와 사업가인 동시에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도 종사하며 용인과 수원 지역의 근대사를 지역민들과 함께 써 내려갔다.

이 집안에 남아 있는 일제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다양한 근대문서들은 그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 주고 있다. 다음에서는 오씨의 소장 문서를 일제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이 지역 수리조합의 설립과 변천, 오성선이 이끈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오씨의 문중 및 의례 관련 문서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문서로 본 해주 오씨가 : 농촌진흥과 근대적 농업에 위하여

수리조합의 설립과 변천 : ‘제언계堤堰契’에서 ‘토지개량계土地改良契’까지

성화제成和堤 · 만선제滿善堤의 축조 과정

관개사업계획서 灌漑事業計劃書

4-1-1 |貯水池 新設工事
대표 吳性善-경기도 |昭和
4년(1929) | 28,5×20,5



1929년 오성선吳性善이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에 제1저수지와 제2저수지를 조성하면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관개사업계획서이다.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1929년 5월 공사에 착수하여 6월 서천리에 2개 저수지의 공사를 완료하고, 이듬해 저수지의 이름을 붙였으니, 일명 ‘성화제成和堤’와 ‘만선제滿善堤’가 그것이다. 저수지 공사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기흥면사무소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약 1리 반 거리에 있는 답畝 9정보町步에 용수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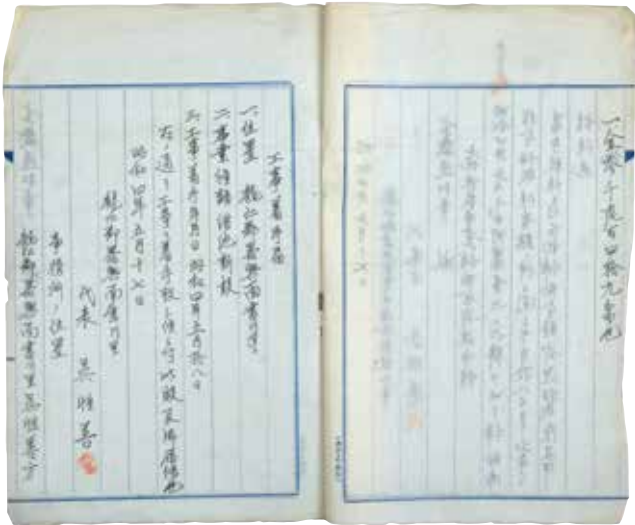
관개사업계획서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지세와 지형, 토질 및 지모地貌, 저수지 예정지 토질조사 결과, 저수지 예정지 유역, 한해旱害 및 수해水害 상황, 부근 농경지의 관개 및 배수 상황, 토지 가격, 현재 경작을 위한 노력의 과부족 상황, 지주와 소작인의 부富의 정도, 추수량, 소작관행, 도조, 농가 1호당 경작면적, 농가의 부업 등 근경지近耕地 농업 상황, 관개 기간 중 평균 일조량과 강우량 등 기상 상태, 관개방법, 단위 용수량, 저수방법, 저수지의 유역 면적 및 집수량集水量과 저수량, 배수량, 제언과 일류언溢流堰, 통관通管의 조성방법과 규모, 관개사업이 인접지역에 끼치는 영향, 사업비 조달방법, 공사 시행 후 예상되는 이익, 사업비 조달 내역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비관개 기간(연중 7~8월을 제외한 10개월) 강우량 조사표, 비관개 기간 증발량 조사표, 관개 기간(6~9월) 강우량 조사표, 몽리蒙利 지역 면적 조사표 및 저수지 신설 총사업비 내역 등을 수록하였다.

신설 저수지는 제1저수지와 제2저수지 두 곳으로 면적은 임야, 전답, 대지를 합하여 총 26정보이며, 제1저수지의 면적은 13정町 1보步, 저수량은 2,2105 정척町尺, 제2저수지의 면적은 12정町 9보步, 저수량은 2.6785정척町尺이다. 사업비 예산액 중 부역비를 제외한 현금은 총 4,600원, 그중 2,300원은 조선식산은행이나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연 1할 이내의 이율로 차용하고 지주부담금으로 15년간 균등 상환하며, 나머지 2,300원은 지방비 보조금으로 조달하겠다고 하였다.

토지개량사업보조금전도
신청土地改良事業補助金前渡申請

4-1-2 | 書川里溜池新設工事 代表者 吳性善-京幾道知事 | 昭和 4年(1929) 5월 17일 | 28.4×19.8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유지溜池 신설공사新設工事 대표자 오성선이 유지溜池 신설공사를 본월 18일에 착수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보조금 중 전도금 3,149원을 신청한 문서이다. 전도금은 이날 신청하여 4일 뒤인 21일에 수령하였다.



토지개량사업보조수령土地改良
事業補助受領의 件

4-1-3 | 書川里堤堰新設工事 代表者 吳性善-龍仁郡廳 | 昭和 4年(1929) 5월 22일 | 24.6×17

제언신설공사 대표 오성선이 農제606호에 따라 본월 21일 토지개량사업 보조금 현금 3,149원을 수령하였음을 용인군청에 보고한 문서이다.



한해구제토지개량사업감독 旱害求濟土地改良事業監督에 관한 건件

4-1-4 | 器興面長-吳性善 洪思成 | 昭和 4년(1929)
6월 5일 | 24.5×16.7

5월에 서천리 제언 신설공사에 대한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한 뒤 기흥면장이 오성선에게 전달한 사업 감독 및 보조금 운영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 감독 및 보조금의 관리 주체는 경기도이며, 공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언계를 조직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비 중 지주부담금에 대하여는 특히 장래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한 것은 공사비용의 일부만 도에서 지원하고 공사 완료 후 저수지의 실제 운영비용은 지주들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규정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사 준공 후 검사를 본도에서 행하니 사업비의 수지를 명확히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비할 것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종별로 정리하여 사업 완성 후 10년간 보존할 것
- 보조금을 수령할 자 또는 수령한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시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지할 것
- 공사를 개시 또는 종료할 때
- 공사 준공 후에는 토지개량사업지방비보조규정 제11조의 수속을 행할 것
- 사업을 폐지할 때
- 사무소의 설치 또는 위치를 변경할 때
- 계약서 또는 규약을 변경할 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교부를 정지 혹은 폐지하게 하고,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유감없도록 숙지할 것
- 토지개량사업지방비보조규정을 위반할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폐지할 때
-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 부정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토지개량사업지방비보조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고 검사를 거절 또는 허위의 보고를 행할 때
- 사업비 중 지주부담금에 대하여는 특히 장래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대정 2년 10월 경기도령 제7호 제언 및 보관리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계를 조직하여 본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보고할 것

청구서請求書

4-1-5 |鈴木友吉-吳性善|昭和 4년(1929) 6월 21일
| 24.4×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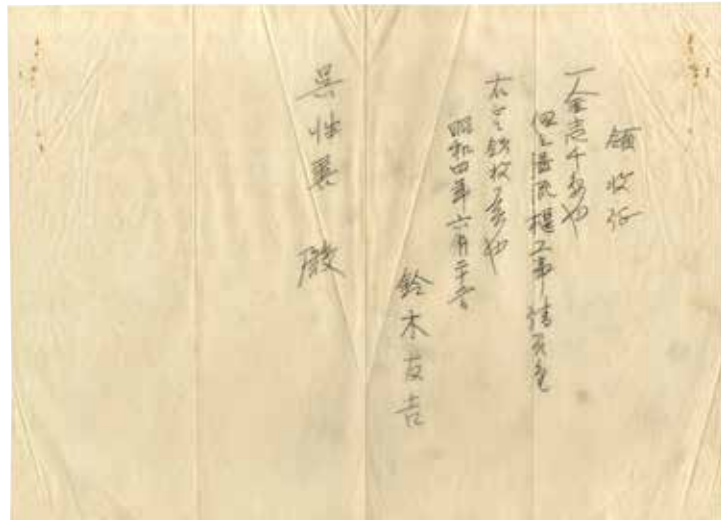
서천리 제언공사에서 일류언^{溢流堰} 공사를 담당했던 영목우길^{鈴木友吉}이 소화 4년 6월 21일 일류언^{溢流堰} 공사가 준공되었으므로 오성선에게 설계도면 1통을 첨부하여 공사비 1,000원을 청구한 청구서이다. 일류언공사비는 처음에 제1~2저수지를 합해 576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으나 중간에 석원^{石垣}에서 철근 혼용토로 자재를 변경하는 바람에 1,000원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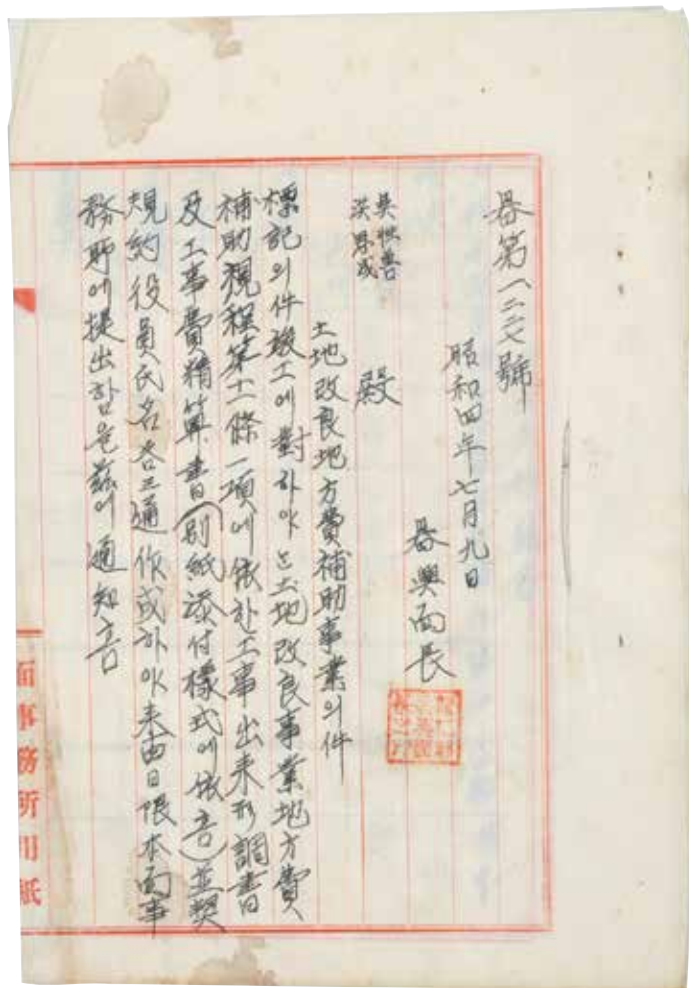


영수증領收証

4-1-6 |鈴木友吉-吳性善|昭和 4년(1929) 6월 22일
| 24.5×16.7

서천리 제언공사에서 일류언^{溢流堰} 공사를 담당했던 영목우길^{鈴木友吉}이 소화 4년 6월 22일 일류언공사비 1,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영수증이다.





器제1-227호 토지개량지방비 보조사업 土地改良地方費補助事業의 건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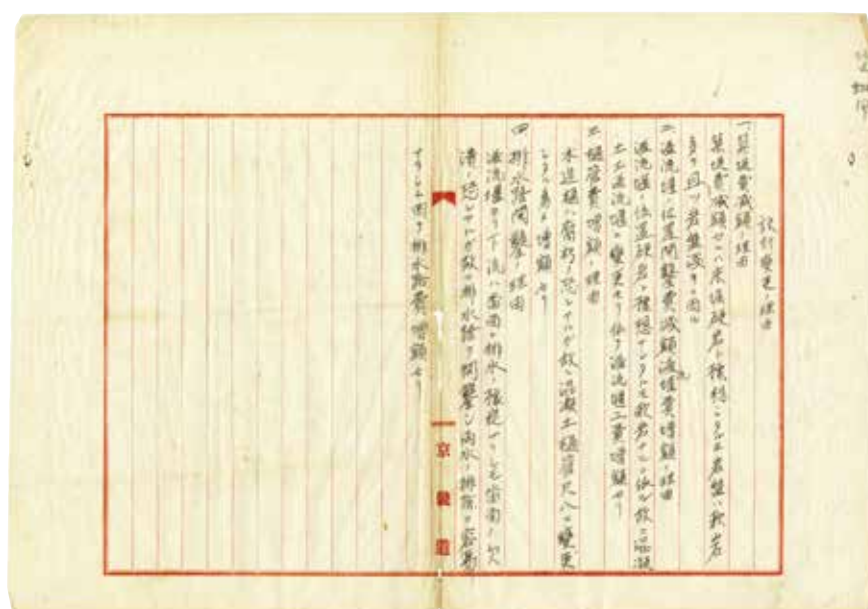
4-1-7 | 器興面長-吳性善 洪思成 | 昭和 4년(1929)
7월 9일 | 17×24.7

서천리의 제언공사 완료 후 오성선에게 관련 행정 서류와 제언계 조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문서이다. 토지개량지방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규정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공사출래형조서(工事出來形調書)와 별지에 첨부한 양식에 의한 공사비 정산서, 계약의 규약(規約), 역원(役員)들의 씨명 각 3통을 작성하여 오는 7월 14일까지 면사무소에 제출하라고 기흥면장이 통지하였다. 서천리 제언계에서 추진한 저수지 신설공사는 소화 4년(1929) 5월 21일 용인군청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수령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에 관련 행정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관의 보조금으로 조성한 제언은 공사 완료 후 제언계를 조직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정산서 외에 계조직 관련 문서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제언계의 구성이 원활하지 못하여 오성선은 여러 차례 관으로부터 독촉을 받았으며, 이후 5개월이 지난 12월에야 제언계를 조직할 수 있었다.

토지개량사업설계변경인가土地 改良事業設計變更認可 신청의 件

4-1-8 | 書川里溜池新設工事 代表者 吳性善-
京畿道知事 | 昭和 4년(1929) 8월 1일 | 27.8×19.9

5월 15일 발급한 農제606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제언 신설공사 건에 대하여 공사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한 문서이다. 서천리 제1~2유지溜池 신설공사비 예산서와 설계 변경 이유를 별지에 첨부하고 항목별 증감액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설계 변경에 따라 최초 예산액보다 공사비 총 288원 50전이 증액되었다.



농제1042호

4-1-10 | 경기도지사 渡邊忍-書川里堤堰新設工事 代表者
吳性善 | 昭和 4년(1929) 8월 17일 | 28.5×20.5

8월 1일에 오성선이 신청한 경기도 용인군 서천리 소재
제언 신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이를 인
가한 문서이다.

器械1-382호 토지개량사업설계변 경인가土地改良事業設計變更認可의 件

4-1-11 | 龍仁郡器興面長-書川里 吳性善 | 昭和 4년(1929)
8월 22일 | 27.4×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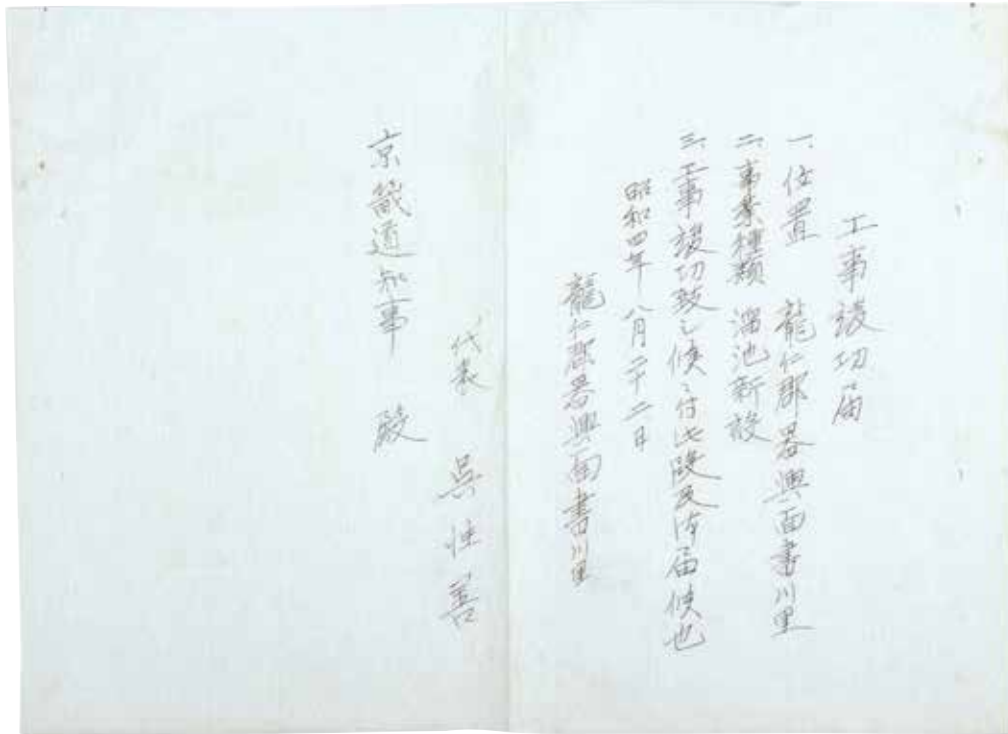
신청한 설계 변경 건은 인가하고, 설계 변경에 의한 공
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예산 경리상 보조금 교부의 가능
성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또한 7월 9일 器械1-227호로
통지한 제언의 출래형조서^{출來形調書}와 공사비 정산서,
유지관리에 대한 契契 등 각 3통씩을 빨리 작성하여 보
내라고 독촉하고 있다.



공사준공계 工事竣工届

4-1-12 | 書川里溜池新設工事 대표 吳性善-
京畿道知事 | 昭和 4년(1929) 8월 22일 | 24.4×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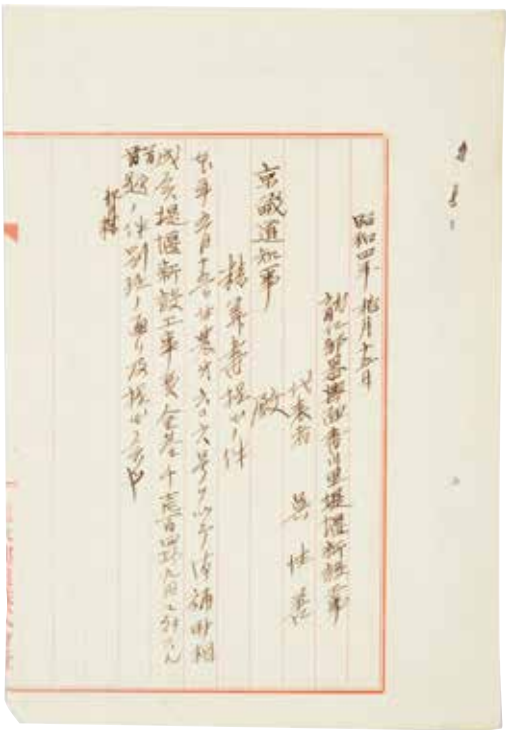
오성선이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의 유지溜池 신설공사新設工事が 완료되었음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준공계이다. 제언공사는 5월 16일에 착수하여 6월 21일 준공되었으나 준공계는 2개월 뒤인 8월 22일에야 보고하고 있다. 공사 완료 후 2개월 안에 제언계를 조직해서 군수에게 보고해야 했는데, 이때까지도 미처 계를 조직하지 못해 준공계를 늦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



정산서精算書 제출提出의 件件

4-1-13 | 書川里堤堰新設工事 대표자 吳性善-
京幾道知事 | 昭和 4년(1929) 10월 15일 | 25.5×17.4

경기도지사에게 본년 5월 15일 농제606호에 의해 보조받은 제언 신설공사에 대한 정산서 1건, 별지 1통을 제출하면서 보고한 문서이다.



정산서精算書

4-1-14 | 書川里堤堰新設工事 대표자 吳性善-
京幾道知事 | 昭和 4년(1929) 10월 15일 | 28.5×20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제언 신설공사비에 대한 정산서이다. 공사비는 총 6,616원 50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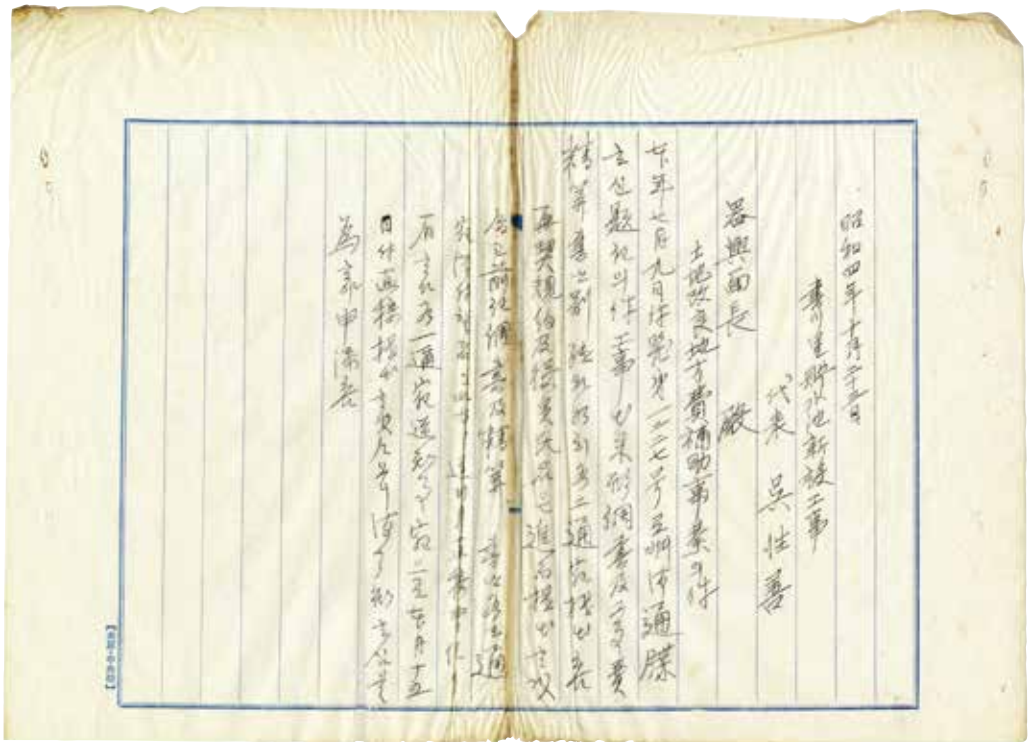
구분	단위	금액
제언	신설	6,616.50
공사	비	6,616.50
총		6,616.50

토지개량지방비보조사업 土地改良地方費補助事業의 件

4-1-15 | 貯水池 新設工事 대표 吳性善- 器興面長
 | 昭和 4년(1929) 10월 23일 28×19,9

서천리 저수지 신설공사 완료 후 관련 행정 서류를 기흥면에 제출하면서 보고한 공문서이다. 동년 7월 9일 통첩한 공사출래형조서 工事出來形調書와 공사비 정산서는 별지와 같이 각 2통씩 제출하며, 契約의 규약 規約, 역원 役員들의 씨명은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때까지도 제언계가 조직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3통씩 제출해야 하나 조서와 정산서 각 1통은 본월 15일 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였으므로 2통만 제출함을 밝히고 있다. 공사출래형조서 工事出來形調書에 기록된 공사비는 최초 예산액보다 288원 50전이 증액된 6,616원 50전이며, 세부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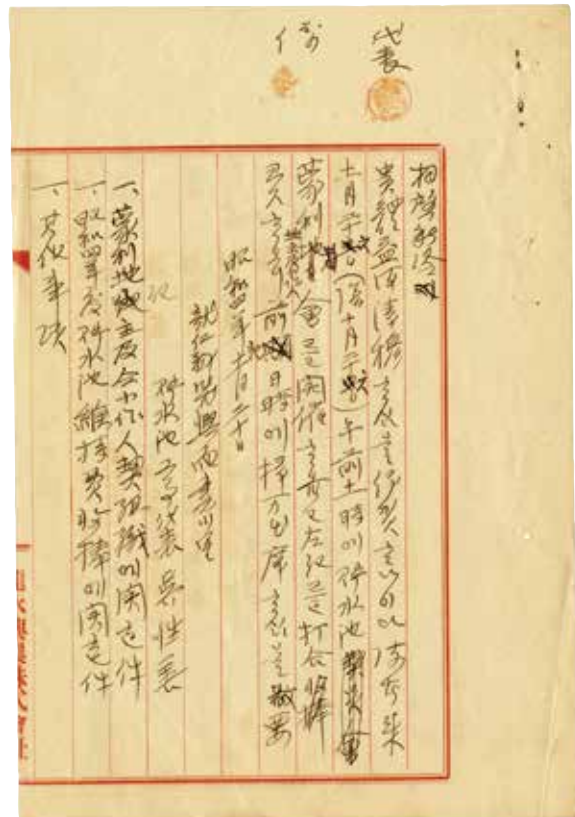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축제비	2,455원	보상비	32원
일류언 위치 개착비	10원	배수로 개착비	290원
일류언비	1,000원	공작물비	280원
통관비(8척)	720원	공사 감독비	51원 50전
저수지 용지 매수비	1,678원	합계	6,616원 50전



몽리지주蒙利地主 및 소작인小作人 회의에 대한 통지

4-1-16 |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저수지공사대표
吳性善-蒙利地主 및 小作人 | 昭和 4년(1929)
11월 20일 | 25.1×17.3

서천리 저수지 공사 대표 오성선이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계 조직 및 당해 저수지 유지비 수봉收擄 건 등에 대하여 저수지 몽리지주蒙利地主 및 소작인小作人 회의를 개최하니 출석하라고 보낸 통지문이다. 본래 8월까지 완료했어야 하는 제언계 조직이 구성되지 못하자 오성선은 저수지의 몽리 지주 및 소작인들에게 직접 통지해 회의를 소집하였다.



器제1-227호 한해구제토지개량사업감독 旱害求濟土地改良事業監督의 건件

4-1-17 | 龍仁郡器興面長-吳性善 | 昭和 4년(1929)
 12월 14일 | 24.4×16.8

한해^{旱害}구제 토지개량사업 감독 건에 관하여 7월 9일 발급한 器제1-227호에서 유지관리계조직에 대하여 보고하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까지 제출하지 않아 상부에서 독촉이 왔으니 본 문서가 도착하는 즉시 제출하라고 기흥면장이 오성선에게 통지한 공문서이다.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신설한 제언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계를 조직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경기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준공 후 6개월이 되어 가도록 보고가 들어오지 않자 독촉한 것이다. 오성선은 계를 구성하기 위해 11월 26일 몽리지주^{蒙利地主} 및 소작인^{小作人}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20여 일이 지난 이때까지도 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언계 조직이 지체된 것은 계원이 되면 사후 제언의 운영을 위해 지주부담금을 납부해야 했기에 대한 부담으로 계원의 모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시기 신문기사에 따르면, 수리조합이 활성화되기 전 수리시설 조성 이후 지주들은 지주부담금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껴 이를 피해 몽리담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시설로 인해 점차 생산량이 증대되고, 농가 소득의 향상이 검증되자 수리시설의 조성과 지주부담금에 대한 지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점차 사라졌다고 한다.



토지개량지방비보조土地改良地方費補助의 건件

4-1-18 | 書川里 貯水池 新設工事 대표 吳性善-
器興面長 | 昭和 4년(1929) 12월 16일 | 25.3×17.6

서천리書川里 저수지貯水池 신설공사新設工事의 토지개량지방비 보조와 관련 하여 동년 7월 9일 통첩한 서류는 10월 23일 제출하였으며, 계규조契規條 및 역원役員 명부 각 3통을 금일 제출한다고 기흥면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서이다. 오성선은 공사 완공 후 6개월 만에 비로소 제언계를 조직할 수 있었다. 계규契規 제5조 4항에 의하면, 계장契長은 군수가 지명指名하고 명부에는 기록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기입하였으나, 가부可否는 하명下命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제언계 규약, 소화 4년도 저수지 수지收支 예산서, 역원 명부, 몽리지할당인蒙利地割當額 명부, 저수지 소작인 명부와 각 소작인의 경작지 면적을 첨부하였다. 소작인은 총 26명이며, 적게는 1두락에서 많게는 11두락까지 경작하고 있다.



제언堤堰(보淤)계규약契規約

4-1-19 | 書川里 貯水池 新設工事 대표 吳性善-
器興面長 | 昭和 4년(1929) 12월 16일 | 24.6×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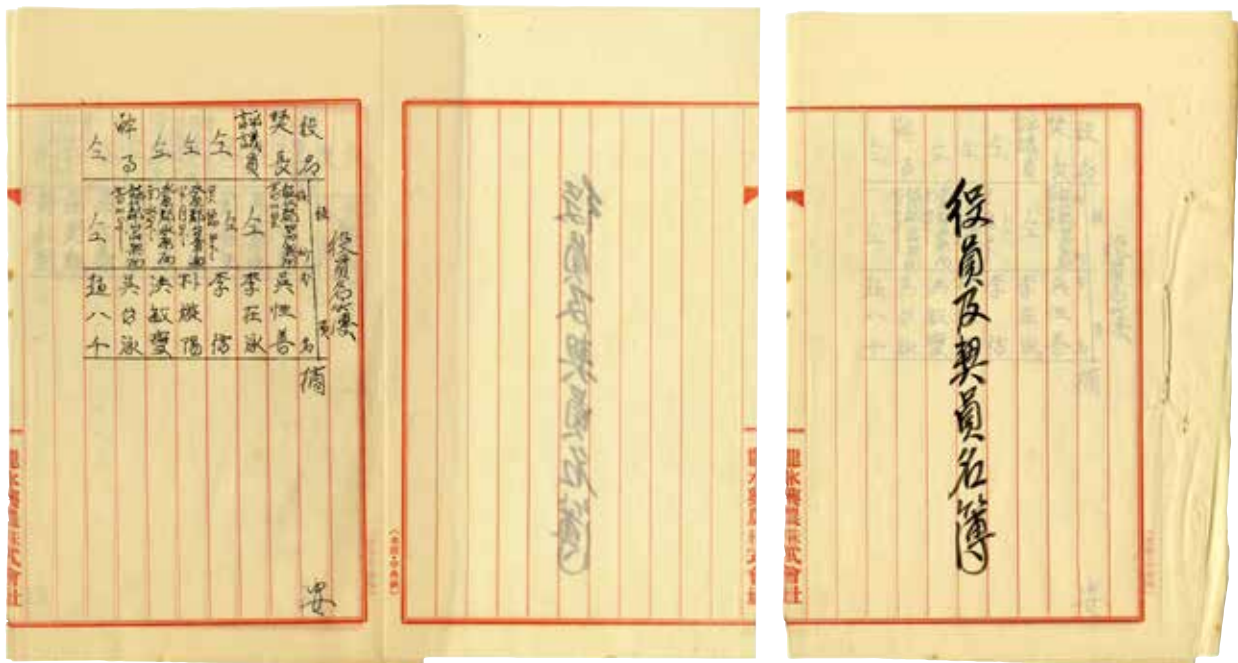
서천리書川里 저수지貯水池 신설공사新設工事의 토지개량지방비 보조와 관련 하여 기흥면장에게 제출한 서천리 제언계의 규약이다. 목적, 조직, 사무소, 업무, 역원, 계원, 가입, 탈퇴, 권리, 의무,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제언(또는 보)계는 경기도령의 제언보 관리규정에 따라 제언(보)의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관개를 통해 편리를 도모하고 농사개량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1회 이상 준설浚渫과 수리를 행하고, 관개수를 적당히 분배하며, 호우나 홍수 등에 의해 제언이 파손될 때 응급치치를 행하고, 수원水源을 함양하고 길을 닦는 것 등을 주 업무로 규정하였다. 이후 파손된 방죽의 수리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문서를 통해 제언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제언계의 실제적 역할을 살필 수 있다. 역원役員은 계장 1명과 평의원, 간사 약간 명을 두되, 계장은 군수가 지명하고 평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계장이 임명, 역원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역원 및 계원 명부 役員及契員名簿

4-1-20 | 書川里 貯水池 新設工事 대표 吳性善-
器興面長 | 昭和 4년(1929) 12월 16일 | 24.5×16.7

서천리書川里 저수지貯水池 신설공사新設工事의 토지개량지방비 보조와 관련 하여 기흥면장에게 제출한 서천리 제언계의 역원役員 및 계원契員 명부이다. 제언계는 계장 1인, 평의원 4인, 간사 2인, 계원 3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장契長은 오성선(서천리), 평의원評議員은 이재영李在泳(서천리), 이신李信(용인 기흥 영통리), 박선양朴旋陽(수원 태장면 반월리), 홍민섭洪敏燮(수원 수원면 남수리), 간사幹事는 오태영吳台泳(용인 서천리), 조팔천趙八千(서천리), 계원은 황재형黃在衡 외 35인으로 서천리 거주자가 가장 많고, 그 외 수원 망포리, 반월리, 영덕리, 남창리 등에 거주하고 있다. 계의 규약에 따르면 계장은 군수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명부에는 편의상 제언 신설 공사를 주도한 오성선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이후 서천리 제언계가 군수에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오성선이 계장으로 지명된 것은 다음 해인 3월 1일이였다.



서천리書川里(불당골佛堂谷) 파방
공사부담금破坊工事負擔金

4-1-21 | 破坊工事組合長 오성선-破坊工事조합원
| 연도 미상 | 28×39 9

용인군 서천리 파방공사조합장(破坊工事組合長) 오성선이 조합원들에게 불당곡(佛堂谷)의 파방공사(破坊工事)를 위한 할당금 미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문서이다. 파방공사(破坊工事)는 수해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죽을 수리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1929년에 조직된 서천리 제언계의 규약에 따르면 “관개수를 적당히 분배하고, 호우나 홍수 등에 의해 제언이 파손될 때 응급처치를 행하는 것”을 계의 주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서를 통해 실제 파손된 방죽을 제언계를 중심으로 수리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또한 관의 지원을 받아 제언을 조성한 뒤 차후 지주부담금에 의해서만 운영되던 제언계의 운영 실상을 살펴볼 수 있는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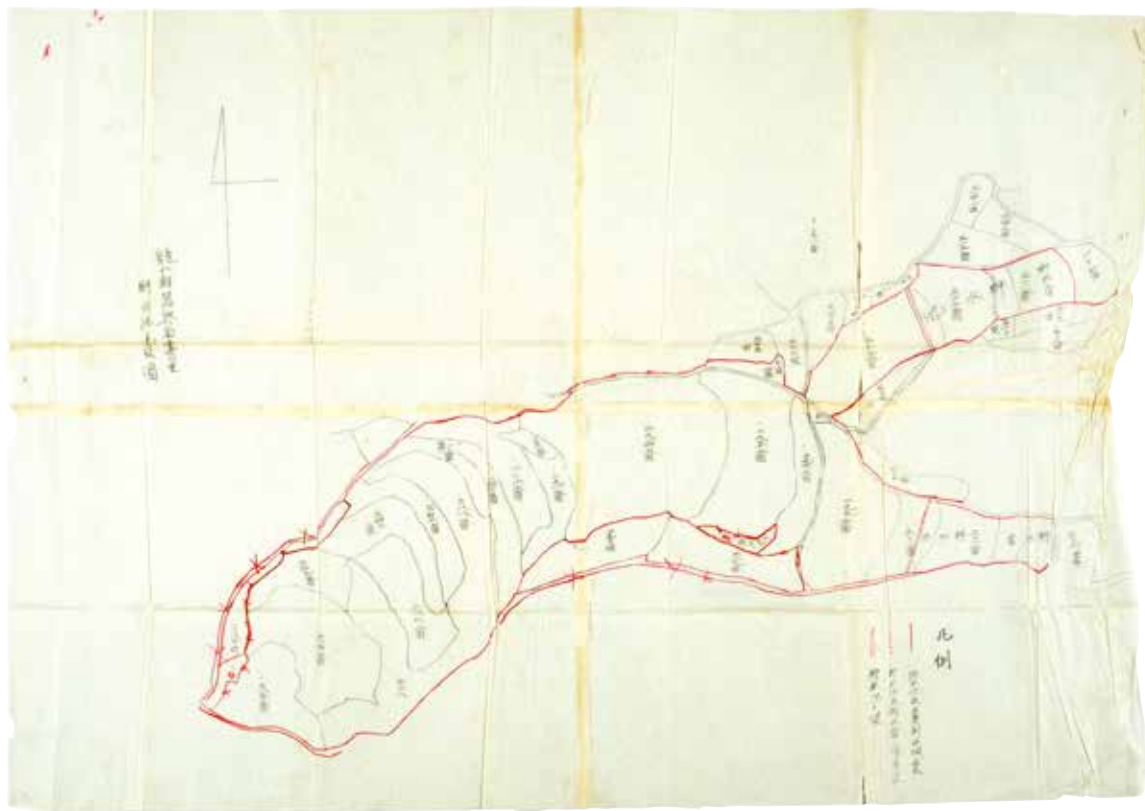
오성선은 서천리 파방공사를 이미 착수하였으나 할당금을 모두 거두지 못하여 제반 경비 운영이 곤란하니, 본 문서가 도착하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조합원의 성명과 경지 면적, 할당금액과 납부 및 미납 현황을 함께 수록하였다. 할당금은 경지 면적에 비례하여 배분되고 있다. 서천리 파방공사 할당금과 관련된 문서는 이 외에 1건이 더 있는데, 그중 미납자 명단에는 수원의 3대 지주로 불렸던 양성관의 이름도 있다. 양성관의 미납액은 4원 50전이다.



용인군 龍仁郡 기흥면 器興面
서천리 書川里 저수지 貯水池
견취도 見取圖

오성선이 기흥면장에게 제출한 견취도로,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에 신설한 저수지를 표시하였다. 공사 준공 이전에 작성된 지적도와 비교하면 신설한 제1저수지와 제2저수지 두 곳의 위치와 면적 및 물리 전답의 면적과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4-1-22 | 吳性善-器興面長 | 昭和 5年(1930)
| 54.8×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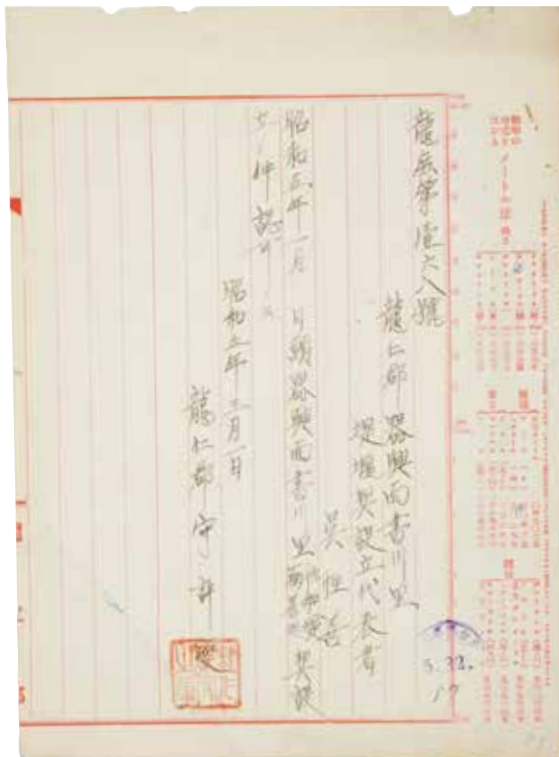


지적도地籍圖

4-1-23 | 龍仁郡 指定測量員 張泰煥
| 昭和 4년(1929) 6월 | 40.3×54.6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龍仁郡 器興面 書川里의 임야와 전답에 대한 지적도이다.
제언 신설공사 이전의 지적도로 공사 완료 후의 견취도와 비교해 보면 제
언의 위치와 몽리답 등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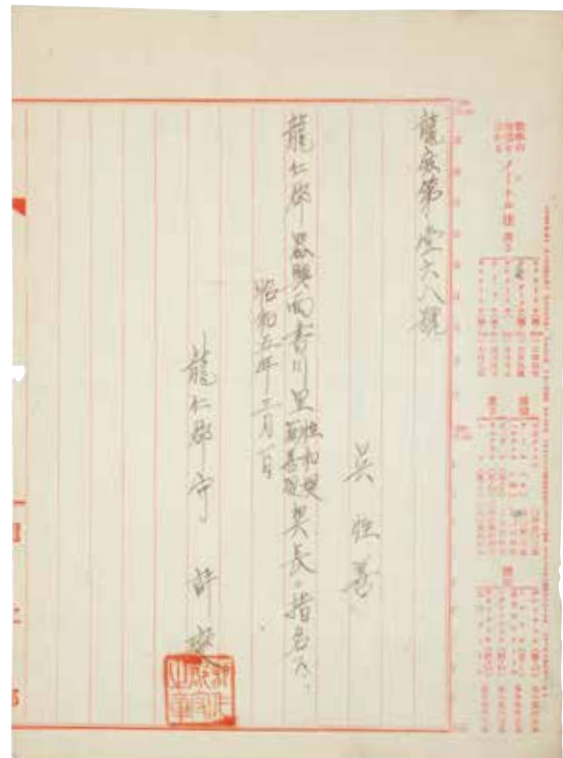




龍庶제168호

4-1-24 | 龍仁郡守 許燮·書川里 堤堰契設立代表者 吳性善
| 昭和 5년(1930) 3월 1일 | 27×19.6

1930년 1월 오성선이 신청한 성화제^{成和堤}와 만선제계^{滿善堤契}의 설립 건에 대해 용인군수가 인가한 문서이다. 오성선은 제언공사가 완료된 지 6개월 만인 1929년 12월에 제언계를 조직하여 관련 문서를 관청에 보고하고, 이듬해 1월 두 개 제언의 이름을 ‘성화제^{成和堤}’와 ‘만선제^{滿善堤}’라 붙인 뒤, 계의 명칭을 ‘성화제·만선제계^{成和堤·滿善堤契}’라 지어 군수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1930년 3월 용인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며, 공식적으로 계장에 임명되었다.



龍庶제168호

4-1-25 | 龍仁郡守 許燮·吳性善 | 昭和 5년(1930) 3월 1일
| 27×19.6

1930년 3월 1일 용인군수 허섭^{許燮}이 오성선을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성화제^{成和堤}와 만선제계^{滿善堤契}의 계장으로 지명한 문서이다.

통지서 通知書

4-1-26 | 東洋拓植株式會社 京城支店金融係-吳性善
| 昭和 8년(1933) 6월 7일 | 26.7×19.3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오성선에게 대부해 준 융통자금에 대한 불입 기일이 가까워졌음을 통지한 문서이다. 불입 기일은 6월 15일, 금액은 251원 51전이다. 1929년 성화제와 만선제를 축조할 때의 관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저수지 공사비의 50%를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서 대부한 뒤 차후 지주부담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통지서에서 말하는 융통 자금은 바로 성화제와 만선제의 공사비를 위한 대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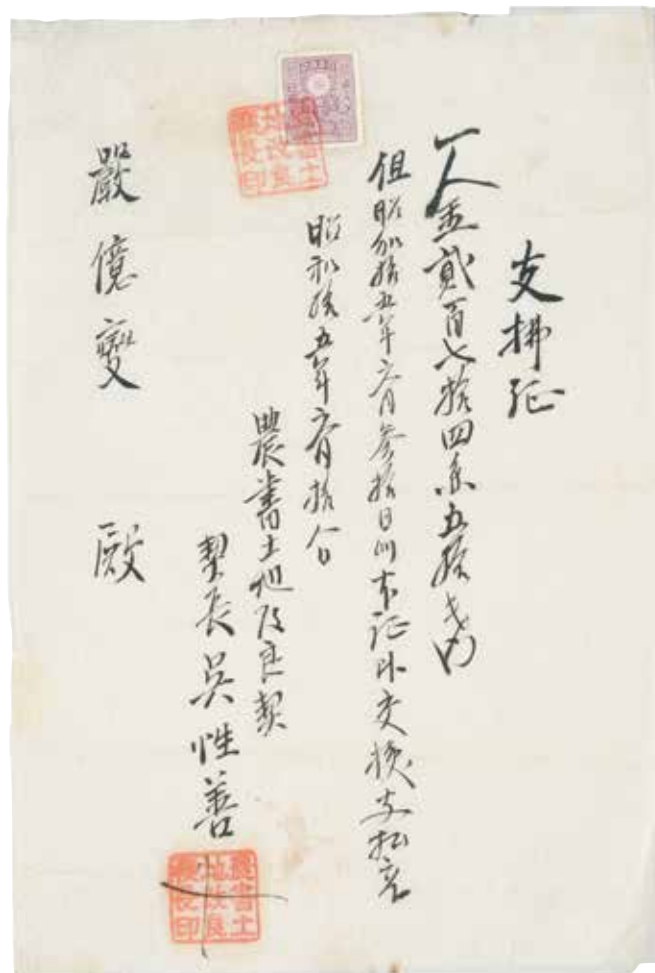


영수증 領收證

4-1-27 | 株式會社朝鮮殖産銀行-吳性善
| 昭和 8년(1933) 7월 24일 | 18.1×11.5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에서 오성선에게 198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영수증이다. 1929년 성화제와 만선제를 축조할 때의 관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저수지 공사비의 50%를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서 대부한 뒤 차후 지주부담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때 오성선이 상환한 198원은 성화제와 만선제 공사비를 위해 대부했던 금액으로 추정된다.





지불증 支拂証

4-1-28 | 農書土地改良契 契長 吳性善-嚴億燮
| 昭和 15年(1940) 6월 18일 | 24.5×33.6

농서토지개량계農書土地改良契 계장契長 오성선吳性善이 엄억섭嚴億燮에게 274원 50전을 지불한 지불증이다. 1929년 서천리에 제언을 축조하여 성화제와 만선제계의 계장을 맡았던 오성선은 1940년 농서리에서도 토지개량계의 계장을 맡아 용인 지역의 농사개량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었다.



저수지수세수입기貯水池水稅收入記

4-1-29 | □□저수지계 | 昭和 6~19년(1931~1944)
| 24.7×17

소화 6년(1931) 11월부터 소화 19년(1944) 2월 17일까지 저수지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지출 내역은 관리인의 보수, 수문 및 다리 수리비, 사리, 제방 공사, 인부 임금 등 주로 저수지 개수 공사와 관련된 것이며, 1944년 2월 17일 당시 계의 잔금은 50원 11전이였다. 성화제, 만선제 계로 추정되나 정확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세입증빙서류철歲入證憑書類綴

4-1-30 | 書川土地改良契-書川土地改良契
| 檀紀 4290년(1957) | 27.1×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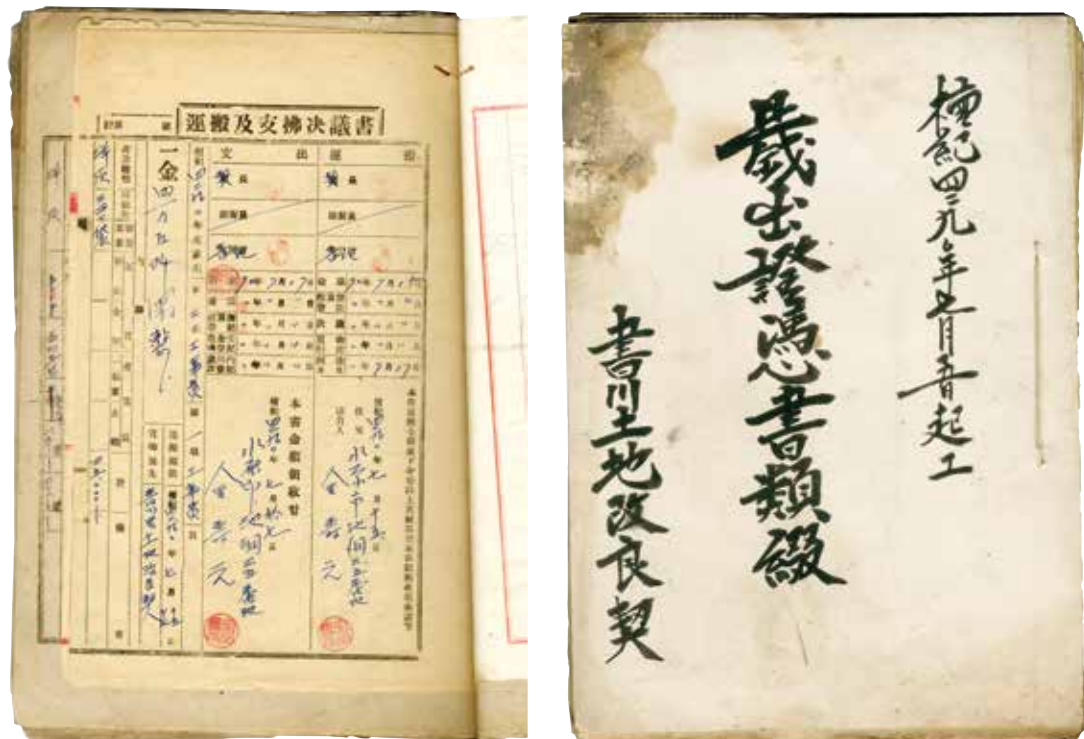
1957년 7월 5일 기공^{起工}한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토지개량계^{土地改良契}의 세입증빙서류철이다. 서천리 토지개량계는 1929년 오성선이 설립한 성화제·만선제계를 계승한 것으로, 1940년 무렵 정부 시책에 따라 제언계를 ‘토지개량계’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토지개량계 역시 정부의 보조금과 지주부담금으로 운영하며 농지 개량 및 관개 사업을 시행하다가, 1960년대 ‘토지개량조합’으로, 1970년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서류철에는 일시부담금 납부 내역과 경기도에서 지급한 공사보조비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토지개량계 공사비로 오환영^{吳桓泳}이 일시부담금 237만 700원을 납부하였으며, 농지개량사업 소규모 공사 보조비로 경기도지사가 보조금 249만 5,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24만 7,000원을 7월 31일에 지급하였다. 농지개량사업보조금사정조서^{農地改良事業補助金査定調書}에 따르면, 공사비는 총 499만 원이 산출되었는데 그 중 공사비 476만 원, 측량 설계비 및 공사 감독비가 23만 원이다. 그러나 이후 공사에 소요되는 양회를 과반수 이상 무상으로 지급하여 8월 12일 경기도지사가 보조금을 230만 700원으로 조정하였다. 세출증빙서류에 따르면, 이때 공사는 제방공사 및 수문 설치를 위한 공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개량계의 계장 오환영은 오성선의 아들이다. 1950년 오성선이 사망하자 아버지를 이어 토지개량계의 관개 사업을 주도하였다. 오씨가에는 현재 서천리 외에 용인군 기흥면 공세리의 토지개량계 관련 문서도 남아 있다.



세출증빙서류철 歲出證憑書類綴

4-1-31 | 書川土地改良契 | 檀紀 4290년(1957)
| 27.5×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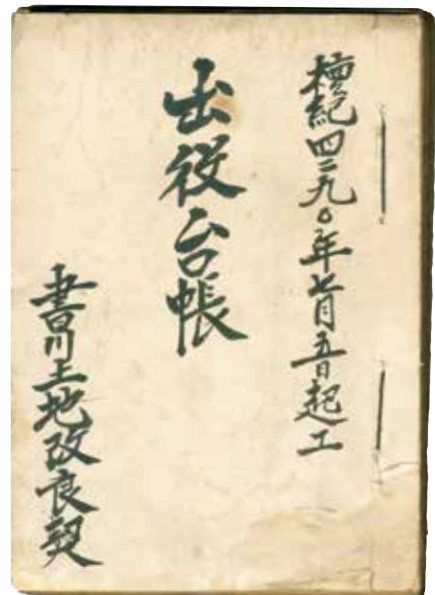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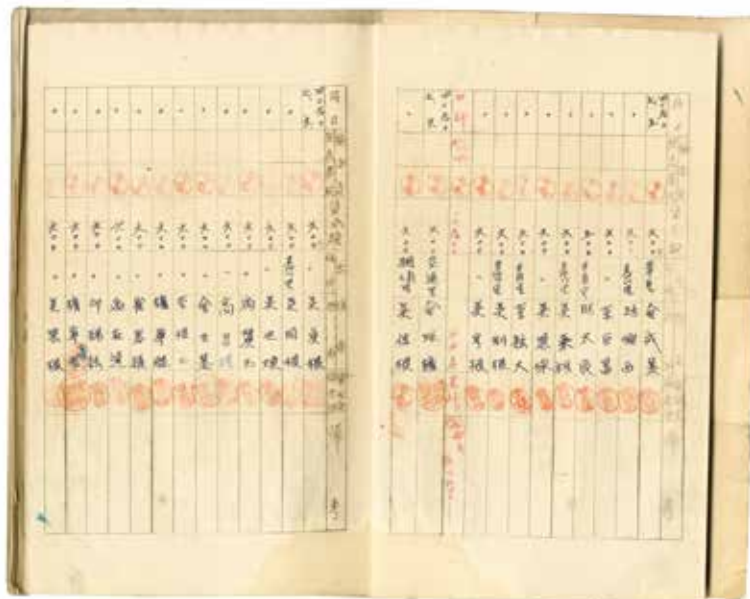
1957년 서천토지개량계의 세출증빙서류철이다. 제1관에는 관리비의 지출 내역, 제2관에는 공사비의 지출 내역을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 구입 및 지출 결의서 등과 함께 수록하였다. 특히 공사비 항목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제방 공사의 지출 내역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제1관 관리계, 제1항 보수 조항에 따라 195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2,000환씩을 토지개량계장의 보수로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1957년 12월 10일 계장 오환영에게 1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서기급료로 오신근吳信根에게는 1만 8,000원을 지급하였다. 오성선이 이끌었던 일제 시기 성화제·만선제계와 달리, 토지개량계에서는 계장에게 매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그 외 관리비 항목으로는 수원 광성문구점에 원지原紙와 선화지仙花紙 값 3,500원, 서천토지개량계의 직인 값으로 1,500원 등을 지출하였다. 공사비 항목에는 제방공사와 수문 설치 등에 소요된 자재비와 인부 출역비, 공사 감독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출역대장 出役台帳

4-1-32 | 書川土地改良契 | 檀紀 4290년(1957)
| 27×19.4

1957년 7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천토지개량계에서 시행한 제방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의 명단과 임금을 기록한 출역대장이다. 매일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30여 명의 인부가 참여하였다. 인부들의 거주지는 서천리가 가장 많고, 그 외 영통리, 반월리, 망포리, 신리 등 인근 지역에서 왔으며, 1일 임금으로는 500~600환을 지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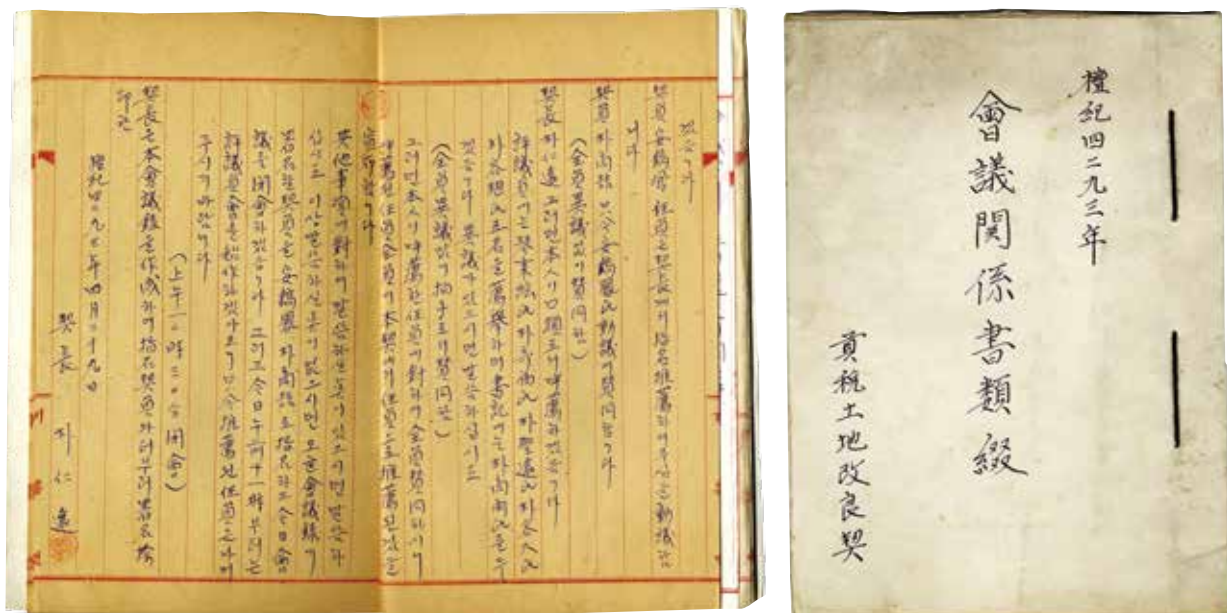


회의관계서류 會議關係書類綴

4-1-33 | 貢稅土地改良契 | 檀紀 4293년(1960)

3월 16일 | 25.5×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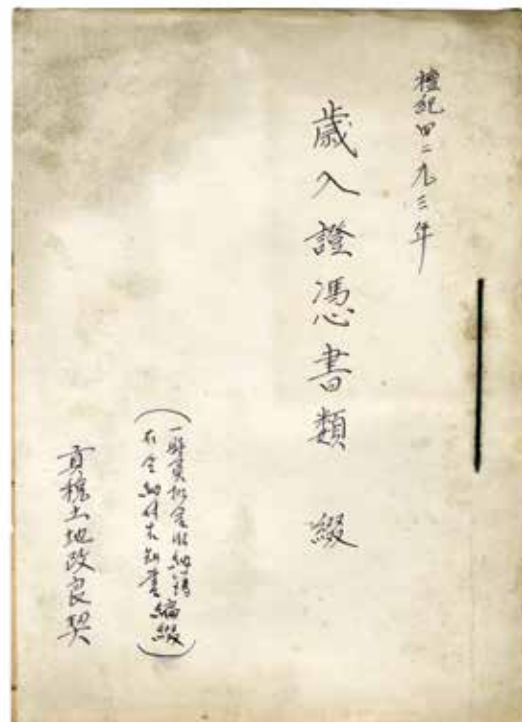
1960년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공세리 토지개량계의 총회 회의록으로, 3월 16일과 4월 29일의 회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3월 16일 회의에는 총 계원 23명 중 20명이 출석하였으며, 이날 총회의 주요 안건은 일제시기에 설치한 공세리의 매지곡(梅芝谷) 저수지가 해방 이후 파손과 매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저수지 개수공사에 대해 상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수지 개수공사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보조금 14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완공을 위해서는 공사비 60만 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1인당 6,060원씩 부담하여 부족액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4월 29일 회의에서 지주마다 물리답의 평수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하여 다시 각 지주의 물리 면적 비율로 차등 없이 부담하기로 조정하였다. 일제시기 제언계는 설립 당시에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차후 운영비는 전부 지주부담금에 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해방 이후 토지개량계는 이처럼 차후 개수 공사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4월 29일 회의의 안건은 임원 선정과 196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저수지 개수공사 시공방법 등이다. 저수지 개수공사비 총 예산액은 198만 272원으로 산출되었다. 당시 공세리 토지개량계의 계장은 박인원(朴仁遠)이다.



세입증빙서류철 歲入證憑書類綴

4-1-34 | 貢稅土地改良契 | 檀紀 4293년(1960)
5월 10일 | 26.8×19.3

1960년 공세토지개량계의 세입증빙서류철로 수입결의서, 지주부담금 납부통지서, 납부 내역 및 보조금 등을 수록하였다. 저수지 개수공사를 위한 지주부담금은 1960년 5월 10일 계장 박인원(朴仁遠) 외 22명의 계원이 총 62만 2,272원을 납부하였고, 경기도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최초 140만 원을 보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35만 8,000원을 지원하였다. 지주부담금은 각 지주의 몽리답 규모에 따라 평당 21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지주들의 토지 규모는 적게는 400여 평에서 많게는 4,000여 평까지 소유하고 있다.



미국공출과 보급금지불에 대한 건 米穀供出ニ対スル 補給金支拂ニ關スル件

4-1-35 | 新葛今融組合 理事-外書川里長
| 昭和 19년(1944) 3월 23일 | 26.8×39

신갈금융조합 이사가 외서천리外書川里 이장에게 미국공출에 대해 통지한 문서이다. 조장미^{早場米}와 지주자가보유미^{地主自家保有米}를 보급금^{補給金}으로 지불해야 하니 부락 거주자들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이다. 부락명, 공출월 일, 지주명, 생산자명, 교부금액을 첨부하였다. 지주 명단에는 오성선 외 6명, 생산자 명단에는 11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교부금액은 1원에서 많게는 8원이다.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용수농계龍水農契의 저곡貯穀사업과 곡식 대부업



출자미 및 이익배당미 영수증
出資米及利益配當米領收証

4-2-1 | 出資主 吳性善-龍水農契 | 昭和 19年(1944) | 22.8×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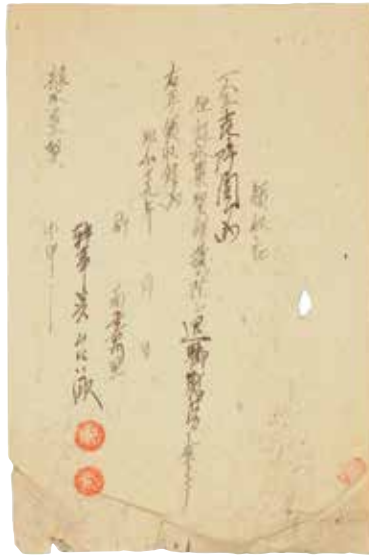
용수농계에서 계원들에게 출자미^{出資米}의 원금과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여 이를 확인한 영수증이다. 출자주^{出資主} 오성선의 출자미는 백미^{白米} 17석, 배당미는 6두 8승으로,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원금과 배당금을 합하여 총 797원 64전을 지급받았다.



이익배당미 영수증 利益配當米領收証

4-2-2 | 趙觀鎬-龍水農契 | 昭和 19年(1944) | 25.1×17.6

수원군 음덕면 신외리에 거주하는 조관호^{趙觀鎬}가 소화 17년도(1942) 제 31기 용수농계의 이익배당금으로 백미 1석 10두 1승을 받았음을 확인한 영수증이다.



영수증領收證

4-2-3 | 評議員 金本仁植-龍水農契
| 昭和 19년(1944) | 24,2×16,2

소화 19년(1944) 용수농계가 해산하면서 보라리南羅里에 거주하는 평의원 評議員 金本仁植에게 퇴직 위로금 1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영수증이다. 용수농계는 해산하면서 모든 임원들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는데, 평의원에게는 100원, 총무는 50원, 간사는 1,000원, 계장 오성선에게는 5,500원을 지급하였다.

영수증領收證

4-2-4 | 幹事 吳台泳-龍水農契 | 昭和 19년(1944)
| 24×16,2

소화 19년(1944) 용수농계가 해산하면서 서천리에 거주하는 간사幹事 오태영吳台泳에게 퇴직 위로금 1,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영수증이다.

영수증領收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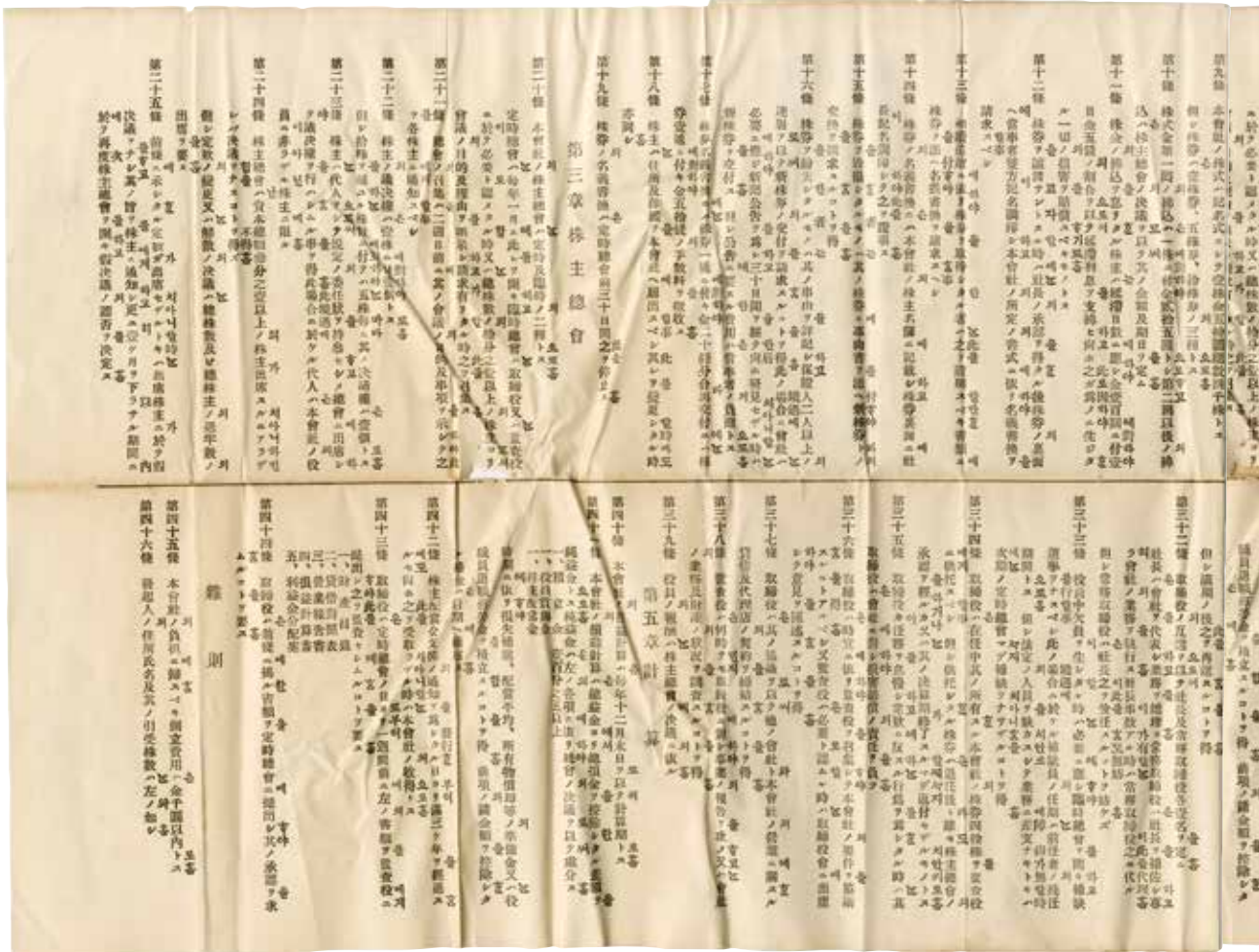
4-2-5 | 契長 吳性善-龍水農契 | 昭和 19년(1944)
| 24,2×16,1

소화 19년(1944) 용수농계가 해산하면서 서천리에 거주하는 계장契長 오성선吳性善에게 퇴직 위로금 5,5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영수증이다.

용수흥농주식회사정관 龍水興農株式會社定款

4-2-6 | 龍水興農株式會社 | 昭和 4년(1929)
| 27×49.8

1929년 5월 10일 창립한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정관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주식 및 주주, 제3장 주주총회, 제4장役員, 제5장 계산, 잡칙雜則 아래 총 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목적은 농업자금을 융통하여 농촌을 진흥하는 데 두고, 자본금은 20만 원,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만 30개년, 주식은 주당 50원씩 총 4,000주로 하여 최초에 1주당 25원을 불입하고 이후 불입은 총회의 의결로 정하기로 하였다. 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役員役員은 취체역取締役 5명, 감사역 2명을 두되 취체역은 40주 이상, 감사역은 20주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선거로 선출, 사장 및 상무취체역은 취체역이 임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년 순이익 중 0.5% 이상은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역원들의 상여금과 주주 배당금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龍水興農株式會社定款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社以龍水興農株式會社爲名。
 第二條 本會社以農業爲目的。
 第三條 本會社以資本金一萬圓爲限。
 第四條 本會社以龍水興農株式會社爲名。
 第五條 本會社以農業爲目的。
 第六條 本會社以資本金一萬圓爲限。
 第七條 本會社以龍水興農株式會社爲名。
 第八條 本會社以農業爲目的。

第二章 株式及株主

第九條 本會社之株式ハ普通株式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十條 株式ハ第一種株式、第二種株式、第三種株式ニ分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十一條 株式ハ、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十二條 株式ハ、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十三條 株式ハ、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十四條 株式ハ、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十五條 株式ハ、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十六條 株式ハ、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十七條 株式ハ、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十八條 株式ハ、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十九條 株式ハ、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二十條 株式ハ、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三章 株主總會

第二十一條 本會社ノ株主總會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二十二條 株主總會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二十三條 株主總會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二十四條 株主總會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二十五條 株主總會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二十六條 株主總會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二十七條 株主總會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二十八條 株主總會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二十九條 株主總會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三十條 株主總會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四章 役員

第三十一條 本會社ノ役員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三十二條 役員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三十三條 役員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三十四條 役員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三十五條 役員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三十六條 役員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三十七條 役員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三十八條 役員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三十九條 役員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四十條 役員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五章 附 則

第四十一條 本會社ノ附則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四十二條 附則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四十三條 附則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四十四條 附則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四十五條 附則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四十六條 附則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四十七條 附則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四十八條 附則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四十九條 附則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第五十條 附則ハ、本會社ノ株式ノ所有權者ニシテ、其ノ種類ハ左ノ如キ。

용수흥농주식회사 龍水興農株式會社 제9기 영업보고서 營業報告書

4-2-7 | 龍水興農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吳性善 외 取締役 4인-監査役 金周文 | 昭和 12년(1937) 1월 29일 | 23.8×16.2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323번지에 소재하는 용수흥농주식회사 龍水興農株式會社의 취체역사장 오성선 吳性善 외 취체역 4인(양성관 梁聖寬, 오덕영 吳得泳, 홍사훈 洪思勛, 이병욱 李丙旭)이 감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1936년도 제9기 영업보고서이다. 자본금, 주주총회, 처무의 요건, 영업개요, 계산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금 분배안, 주주 명부 등을 첨부하여 9기 영업실적을 보고하였다. 자본금 20만 원 4,000주(1주에 50원) 중 불입금과 불입미제고 각 10만 원이며, 1936년 1월 21일 제8기 정시주주총회에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및 손익계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제8기 이익금 분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총회에서는 5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역 이길태 李吉泰, 김주문 金周文을 선거를 통해 중임하기로 의결한 뒤 5월 20일 관할 등기소에 등록하고, 7월 4일에는 용인세무서에서 영업세 과세 표준 사정액 1만 5,899원, 제1종 취득세 과세 표준 사정액을 9,589원으로 산정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영업 개요는 금년에는 모택 牟麥도 흉작이고 여름 한해 旱災로 이앙도 늦어졌으며 가을 풍재 風災와 충재 虫災로 미작 米作이 감소한 가운데 곡가가 타 물가에 비해 저렴하여 농가의 수지가 맞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자가 많으므로 당사에서는 초기부터 일반대출을 경계하였으나 특별히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상반기 이자 수납실적도 예년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 금융도 경색되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가을에도 흉작으로 농가 경제가 부진하여 대부금 회수실적이 저조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큰 손색이 없고 상황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보고하였다.

9기 이익금은 9,425원 39전, 그중 주주 배당금 등으로 9,242원을 역원들에게 분배하였다. 주식 4,000주에 대한 주주 총 243인 중 최대 주주는 양성관(208주), 사장 오성선은 양위자금저축조합 養慰資金貯蓄組合 대표 명의로 204주, 개인 명의로 196주를 보유하고, 취체역 홍사훈(190주)과 오덕영(110주), 감사역 김주문(124주) 등 임원들도 모두 100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 주주의 보유 주식은 2주이다.

용수흥농주식회사 龍水興農株式會社 제14기 영업보고서 營業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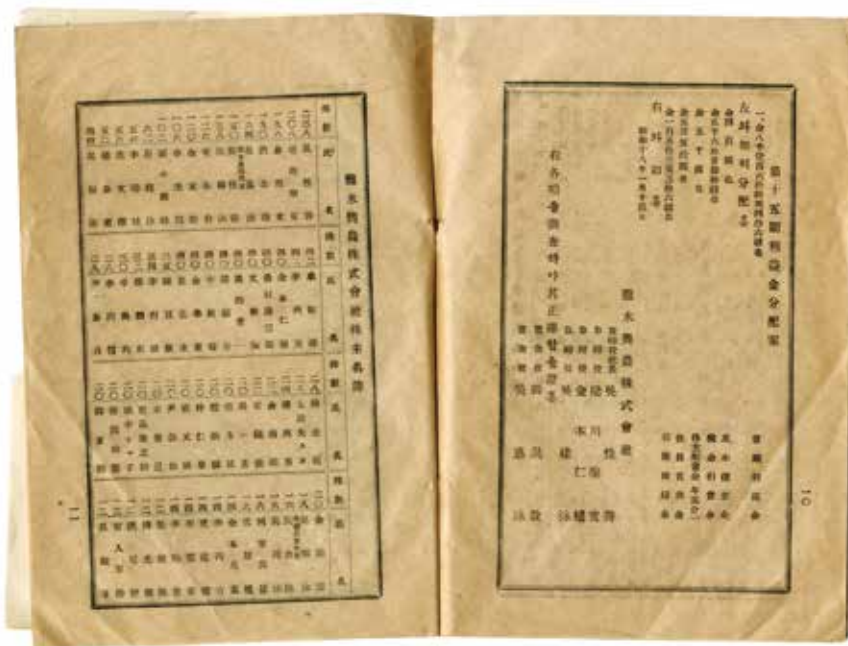
4-2-8 | 龍水興農株式會社 상무취체역 겸 사장 吳性善 외 취체역 3인·監查役 韓翼教 · 吳惠泳 | 昭和 17년(1942) 1월 11일 | 24.4×16.5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상무취체역 겸 사장 오성선 외 취체역 3인(梁川聖寬, 吳建泳, 金本仁植)이 감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1941년도 제 14기 영업보고서로 자본금, 주주총회, 영업경황, 계산서, 재산 목록,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금분배안, 주주 명단 등을 첨부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였다. 1941년 1월 25일 1940년도 제13기 정시주주총회에서는 제13기 영업 보고와 이익금 분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취체역 取締役 홍사훈 洪思勳, 오득영 吳得泳, 이병옥 李丙旭, 감사역 監查役 김주문 金周文의 퇴직에 대하여 위로금으로 600원을 증정하기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하였다.

14기 영업 경황에서는 농촌 진흥을 목적으로 중소 농가의 농사자금 대부 등에 회사의 영업방침이 있음을 밝히고, 금년에는 다행히 풍작으로 농촌의 경제난이 완화되었으나, 전년의 흉작으로 부채가 많아 농촌 경제가 활기를 띠지 못하여 일반대금 회수 성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세율 증가, 일반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비가 다소 증가하여 업적이 저조하지만, 내부자산을 충실히 하고 기초를 공고히 하여 사업을 진전시키겠다고 하였다.

14기 이익금은 총 7,381원 76전이며 그중 7,250원을 주주 배당금 등으로 역원들에게 분배하였다. 마지막에는 용수흥농주식회사 사장이자 최대 주주 오성선 이하 주주 229인의 명단과 보유 주식수를 기록하였다. 주주 중에는 김씨 중증 대표, 영덕리농계 대표, 수원양조주식회사, 영통리 대표, 선농 善農소작조합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용수흥농주식회사 龍水興農株式會社 제15기 영업보고서 營業報告書

4-2-9 | 龍水興農株式會社 취체역사장 吳性善 외 취체역 3인-監査役 韓翼敎 · 吳惠泳 | 昭和 18년(1943) 1월 13일 | 24.2×16.5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취체역사장 오성선 외 취체역 3인(梁川聖寬, 吳建泳, 金本仁植)이 감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용수흥농주식회사의 1942년도 제15기 영업보고서이다. 자본금, 주주총회, 처무의 요건, 영업개황, 계산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금분배안,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15기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1942년 1월 28일 제14기 정시주주총회에서는 감사역 한익교 韓翼敎, 오덕영 吳惠泳 씨의 임기가 5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 후보자에 대해 논의한 결과 두 사람이 유임하기로 하였다. 15기 영업 현황에 대해서는 당사의 영업방침인 농업자금 융통과 구채 舊債 상환에 주력하며 성심성의로 사업 진전을 기대하였으나, 금년에는 기후와 농작의 불안정으로 농촌 경제가 극히 원활하지 못하여 일반대금 회수 성적이 불량한 가운데 각종 공과세를 인상, 뜻하지 않았던 각종 기부금 지출 및 제반 경비의 증가로 인해 업적이 양호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15기 이익금은 총 8,164원 46전으로 그중 8,011원 10전을 주주 배당금 등으로 역원들에게 분배하였다. 주주는 14기에 비해 1인이 증가하여 총 230인, 최대주주 오성선의 보유 주식은 238주이며, 오성선은 개인 명의 외에 용수농계 대표 명의로 150주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양성관(208주), 그 외 김주문(196주), 홍사훈(190주), 오덕영(164주), 오득영(138주) 순으로 주로 취체역과 감사역 등 회사 임원들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貸付에 關關한 왕복서류 往復書類

4-2-10 | 龍水興農株式會社 | 昭和 7~8年(1932~1933) | 29,2×20,4

소화 7~8년(1932~1933)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대부貸付와 관련하여 수발한 문서와 전보 등에 관한 서류철이다. 한일은행에서는 대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오만선吳晩善이 용수흥농주식회사 사장 오성선에게 보낸 전보(소화 8년 12월 28일), 경성의 오필영吳弼泳이 사장 오성선에게 대부금 상환을 독촉(소화 8년 12월 28일)하고, 대부금 상환 및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5~6차례 독촉하였으나 회답이 없어 12월 20일까지 또 회답이 없을 시에는 전당물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내용(소화 8년 12월 12일), 경성의 박부양朴富陽이 대부금 상환을 독촉하는 문서(소화 8년 12월 12일), 서천리의 이승균이 10여일 전 귀사에서 감품鑑品하고 간 토지 매매건에 대하여 연락이 없어 결과를 묻는 엽서(소화 8년 11월 27일) 등이 수록되어 있다. 주 설립 목적을 빈농 구제와 농업자금 융통에 두었던 용수흥농주식회사는 회사 명의로 은행이나 금융조합에서 저리로 대부를 받아 농민들의 구채를 갚아 주거나 자금을 융통해 준 뒤 매년 조금씩 상환하도록 하였으나, 1920년대 말 대공황과 물가 폭등으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1930년대 초반에는 이처럼 채권자들로부터 대부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며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증서

根抵堂權設定契約證書

채무자 김흥석金興石이 오성선에게 용인군 기흥면 고매리의 전답과 임야, 대지 등을 채권극도액 600원에 설정하면서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다.

4-2-11 | 채무자 金興石-채권자 오성선
| 大正 15년(1926) 7월 11일 | 28,2×19,9



부동산감정보고서 不動産鑑定報告書

4-2-12 | 감정인 吳台泳-龍水興農株式會社長 | 昭和 15년(1940)
4월 19일 | 25.7×18.8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수원군 안룡면 반정리 199번지에 거주하는 최화순 崔化順에게 동군 동면 동리 43번지에 거주하는 이규린 李圭麟을 연대인으로 세워 부동산(수원군 태정면 소재 전답)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작성한 부동산감정보고서이다. 감정인 오태영 吳台泳이 감정한 결과 감정가격은 2,559원 2전, 대출 한도는 2,7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최화순 崔化順은 소화 15년 12월 12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2,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담보물건 내역 명세서와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다.



부동산감정보고서 不動産鑑定報告書

4-2-13 | 감정인 李應植-龍水興農株式會社長 | 昭和 15년(1940) 5월 14일 | 24.8×16.9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수원군 안룡면 반정리에 거주하는 이규봉 李圭鳳에게 부동산(수원군 안룡면과 태장면 소재 전답)을 담보로 구매 상환 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작성한 부동산감정보고서이다. 이규봉은 1,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감정 결과 감정가격은 1,166원 80전, 대출한도는 5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상환 기한은 소화 15년 12월 20일까지로 정하였다. 담보물건 내역 명세서와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다.



부동산감정보고서 不動産鑑定報告書

4-2-14 | 감정인 吳台泳-龍水興農株式會社社長
| 昭和 9년(1934) 10월 12일 | 24.8×16.8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에 거주하는 오만선에게 부동산(태장면 원천리, 영통리,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석우리, 중리, 오산리 소재 토지)을 담보로 상업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작성한 부동산감정보고서이다. 감정가격은 9,205원 16전, 대출한도는 6,44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소화 10년 12월 20일을 상환 기한으로 정하였다. 오만선은 수원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대규모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버스 운송 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용수흥농주식회사는 이처럼 농민들의 구채 상환을 위한 자금 외에 상업자금도 융통해 주었다.

土地位置	面積	鑑定價格	備考
龍水興農株式會社社長			
右鑑定人 吳台泳			

부동산감정보고서 不動産鑑定報告書

4-2-15 | 감정인 吳台泳-龍水興農株式會社社長
| 昭和 15년(1940) 3월 1일 | 24.8×16.8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수원군 정남면 패랑리에 거주하는 임용호(任溶鎬)에게 부동산(수원군 성호면 소재 밭)을 담보로 상업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작성한 부동산감정보고서이다. 감정가격은 1,162원 88전, 대출한도는 6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임용호는 소화 16년 12월 20일을 기한으로 6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담보물건 내역 명세서와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다.

土地位置	面積	鑑定價格	備考
龍水興農株式會社社長			
右鑑定人 吳台泳			

등기부등본 登記簿謄本

4-2-16 |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龍水興農株式會社
| 昭和 15년(1940) 6월 4일 | 27.3×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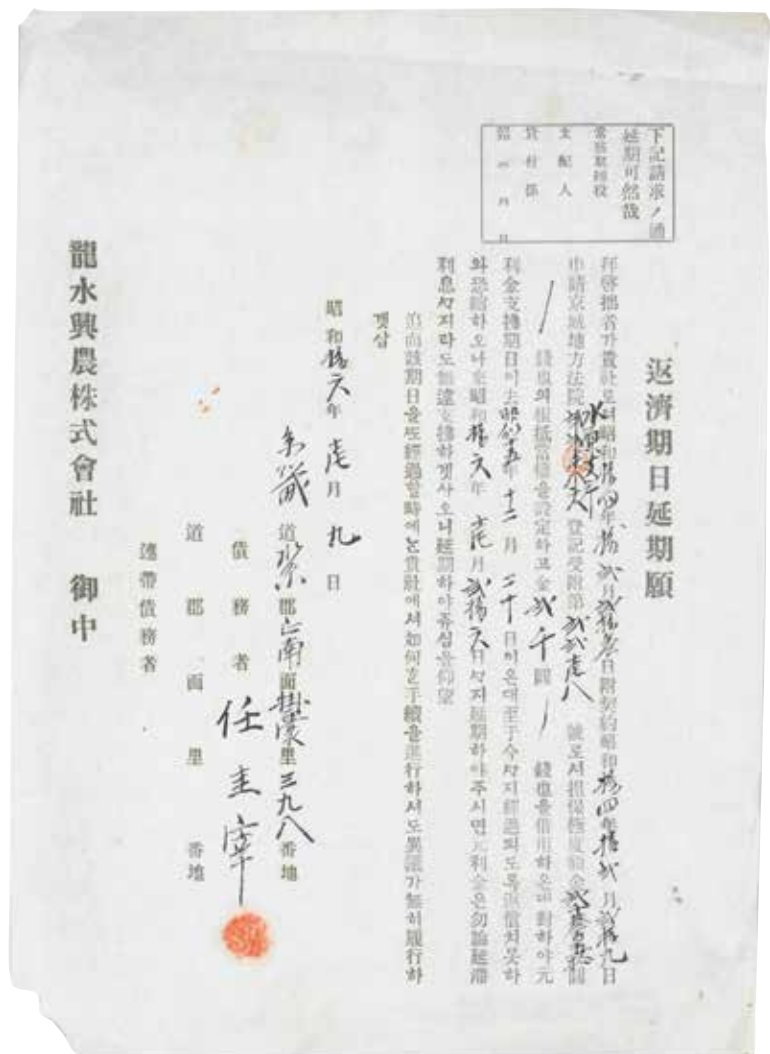
수원군 안릉면 반정리 412번지에 거주하는 이규봉이 소화 15년 5월 25일 용수흥농주식회사에 수원군 태장면 기산리 433번지 쉼 664평의 근저당권을 채권극도액 600원에 설정한 뒤 작성한 등기이다.



반제기일연기원 返濟期日延期願

4-2-17 | 채무자 任主宰-龍水興農株式會社
| 昭和 16년(1941) 1월 9일 | 27.6×19.7

채무자 임주재任主宰가 소화 14년 12월 23일 담보극도액 2,350원으로 용수
흥농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원을 차용한 데 대하여 원리금
지불 기일이 소화 15년 12월 20일이나 지금까지 상환하지 못하여 소화 16
년 1월 26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청원하는 신청서이다. 추후 해당 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귀사에서 어떤 수속을 진행해도 이의 없이 이행하겠
다고 하였다.



계약서 契約書

4-2-18 | 任主宰-龍水興農株式會社
| 昭和 16년(1941) 9월 10일 | 27.4×39.6

임주재가 용수흥농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금액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해당 토지의 소화 16년 소작료를 인도하기로 계약한 문서이다. 용수흥농주식회사는 인도한 소작료를 시가에 준하여 적당히 매각한 뒤 이로 인해 생긴 비용을 채무의 원리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계약하였다.



소작료인도증서 小作料引渡証書

4-2-19 | 任主宰-龍水興農株式會社 | 昭和 16년(1941)
9월 10일 | 27.4×39.4

임주재가 용수흥농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금액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여 해당 토지의 소화 16년 소작료를 인도하니 채무의 일부를 충당해 달라고 작성한 인도증서이다. 해당 토지는 수원군 정남면 패랑리의 전답 10개 곳으로, 해당 토지의 지번과 평수, 소작인의 명단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임주재는 1939년 12월 23일 토지를 담보로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2,000원을 차용하고 1940년 12월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1941년 1월 26일까지 상환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연기한 기일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잡힌 토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소작료를 인도하기로 계약하였다.



소작료납입승낙서 小作料納入承諾書

4-2-20 | 小作人 金種默-龍水興農株式會社 | 昭和 16년(1941)
9월 | 24.5×33.4

앞의 문서에 제시된 사유로 임주재의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 김종묵(金種默)이 용수홍농주식회사에 소작료를 납입하기로 한 승낙서이다.



소작료납입승낙서 小作料納入承諾書

4-2-21 | 小作人 任溶鎬-龍水興農株式會社 | 昭和 16년(1941)
9월 | 24.5×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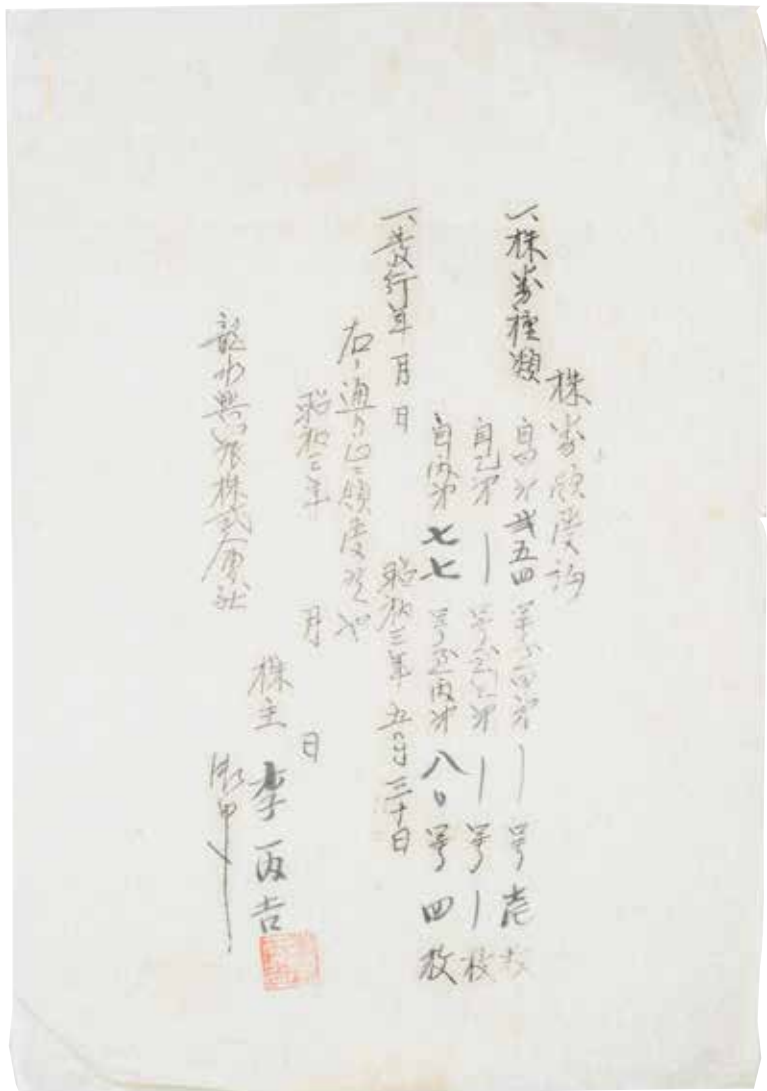
앞의 문서와 같은 사유로 임주재의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 임용호가 용수홍농주식회사에 소작료를 납입하기로 한 승낙서이다.



주권영수증株券領收證

이병길李丙吉이 병丙 제77호 등 용수홍농주식회사의 주식 4주를 양수하면서 작성한 영수증이다.

4-2-22 | 주주 李丙吉-龍水興農株式會社 | 昭和 3년
(1928) 5월 30일 | 24.5×17



| 연대 미상 | 26.6×19.2

용수홍농주식회사에서 보유한 부동산목록이다.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에 소재하는 전답과 대지의 지번과 지목, 지적을 기록하였다. 전_田은 총 2,300평, 답_畓은 총 7,750평, 대지 1,510평을 보유하고 있다.

[illegible]

주식양수도과 명의서체청구서 株式讓受渡二付名儀書替請求書

4-2-24 | 양수인 尹學榮-龍水興農株式會社
| 연대 미상 | 26.7×19.5

윤학영尹學榮이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주식 1주
를 양수하고 불입금 250원을 납입하면서 명
의 변경을 요구한 청구서이다.



주식양수도과 명의서체청구서 株式讓受渡二付名儀書替請求書

4-2-25 | 양도인 李丙吉-龍水興農株式會社
| 연대 미상 | 26.7×19.5

이병길李丙吉이 용수흥농회사의 주식 丙 제77
호 1주를 양도하면서 명의 변경을 요구한 청
구서이다.



주식양수도과 명의서체청구서 株式讓受渡二付名儀書替請求書

4-2-26 | 양수인 李行植-龍水興農株式會社
| 연대 미상 | 27,3×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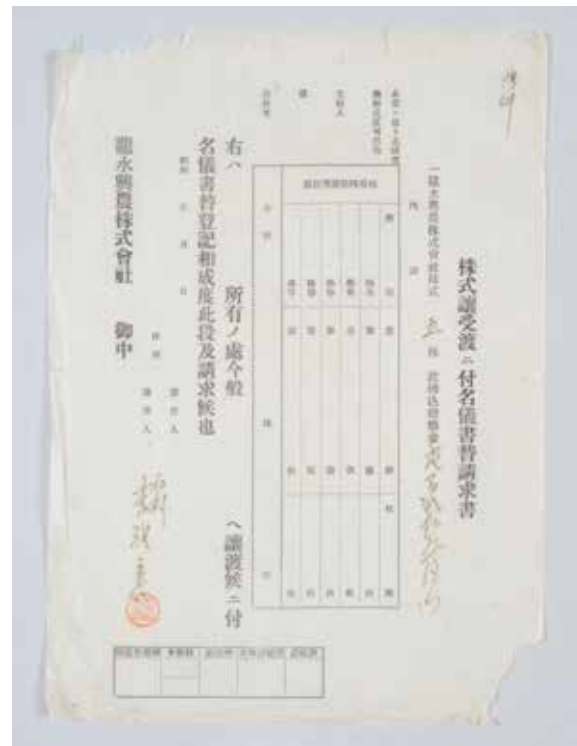
이행직 李行植이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주식 5주를 양수하고 불입금 125원을 납입하면서 명의 변경을 요구한 청구서이다.



주식양수도과 명의서체청구서 株式讓受渡二付名儀書替請求書

4-2-27 | 양수인 李禮善-龍水興農株式會社
| 연대 미상 | 27,6×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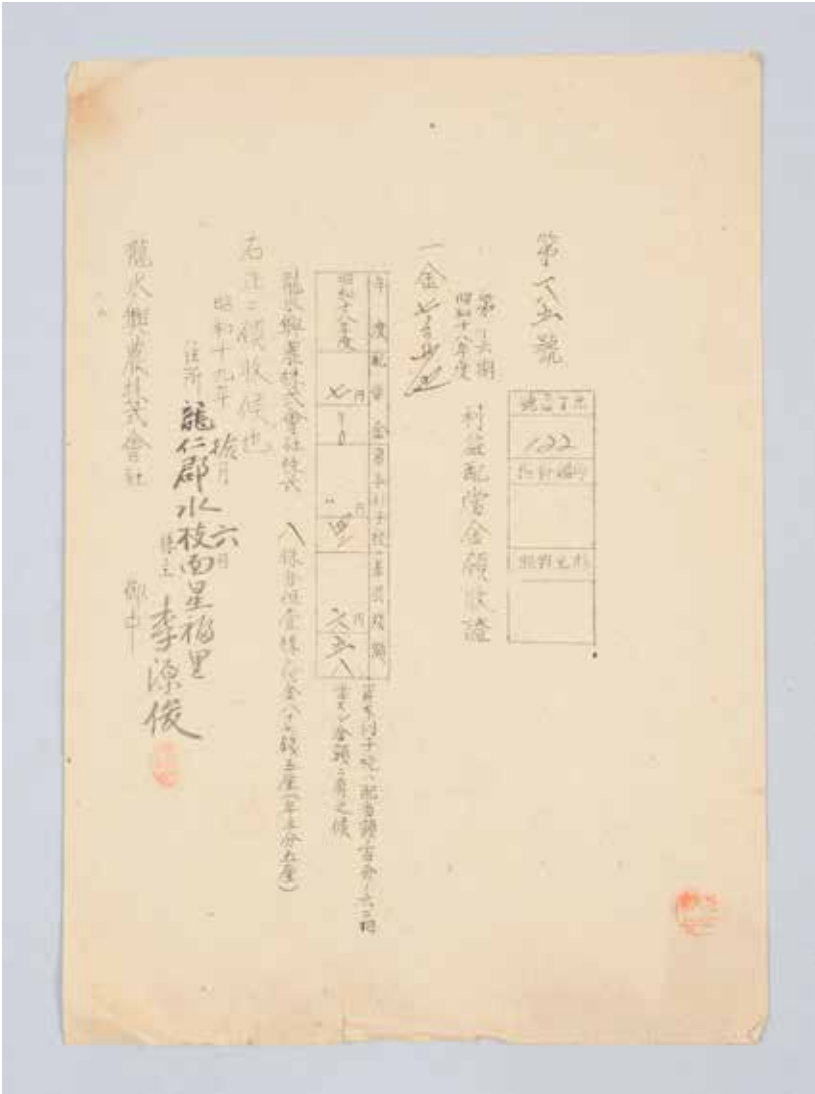
이예선 李禮善이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주식 5주를 양수하고 불입금 125원을 납입하면서 명의 변경을 요구한 청구서이다.



이익배당금영수증
利益配當金領收証

4-2-28 | 株主 李源俊-龍水興農株式會社
| 昭和 19年(1944) 10월 6일 | 25.3×17.9

주주株主 이원준李源俊이 작성한 제16기 소화 18년도(1943) 용수흥농주식 회사의 이익배당금 영수증이다. 보유 주식 8주에 대한 배당금은 7원, 자본 이자세는 42전, 잔액은 6원 58전, 배당률은 연 3.5%로, 1936년(연 7.5%), 1942년(연 5%)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배당금기입장 配當金記入帳

4-2-29 | 龍水興株式會社 | 1946년 | 28,2×19,3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한 1945년도 배당금 기입장으로 주주명, 보유 주식수, 배당률, 배당금액, 수기번호 등을 기록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는 수령일을 기록한 뒤 주주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해 배당률은 연 4%로 1942년도와 비교하면 1%가 감소하였다. 1942년도와 보유 주식수를 비교하면 최대 주주 오성선은 5주가 감소한 233주, 수원의 3대 지주로 불리던 양성관, 홍사훈, 차유순은 1942년도와 동일하게 각 208주, 190주, 42주를 보유하고 있다. 1946년 용수흥농주식회사가 해산함으로써, 이해의 배당금기입장은 마지막 배당 기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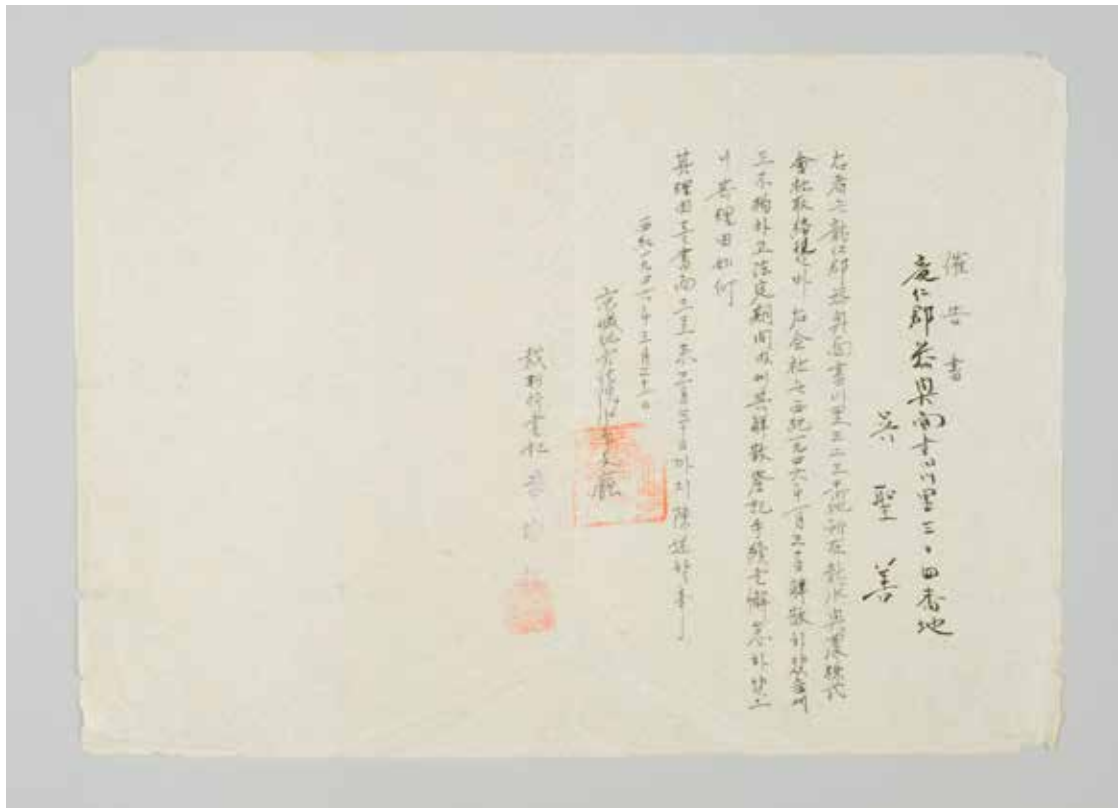
주주명	주식수	배당률	배당금액	수기번호	수령일
1. 오성선	233	4%	9.32	1234	1946.1.1
2. 양성관	208	4%	8.32	1235	1946.1.1
3. 홍사훈	190	4%	7.60	1236	1946.1.1
4. 차유순	42	4%	1.73	1237	1946.1.1
5. 수원	100	4%	4.00	1238	1946.1.1
6. 김철	50	4%	2.00	1239	1946.1.1
7. 이철	30	4%	1.20	1240	1946.1.1
8. 박철	20	4%	0.80	1241	1946.1.1
9. 정철	10	4%	0.40	1242	1946.1.1
10. 최철	5	4%	0.20	1243	1946.1.1



최고서 催告書

4-2-30 | 京城地方法院水原支廳-吳性善
| 1946년 3월 21일 | 25.8×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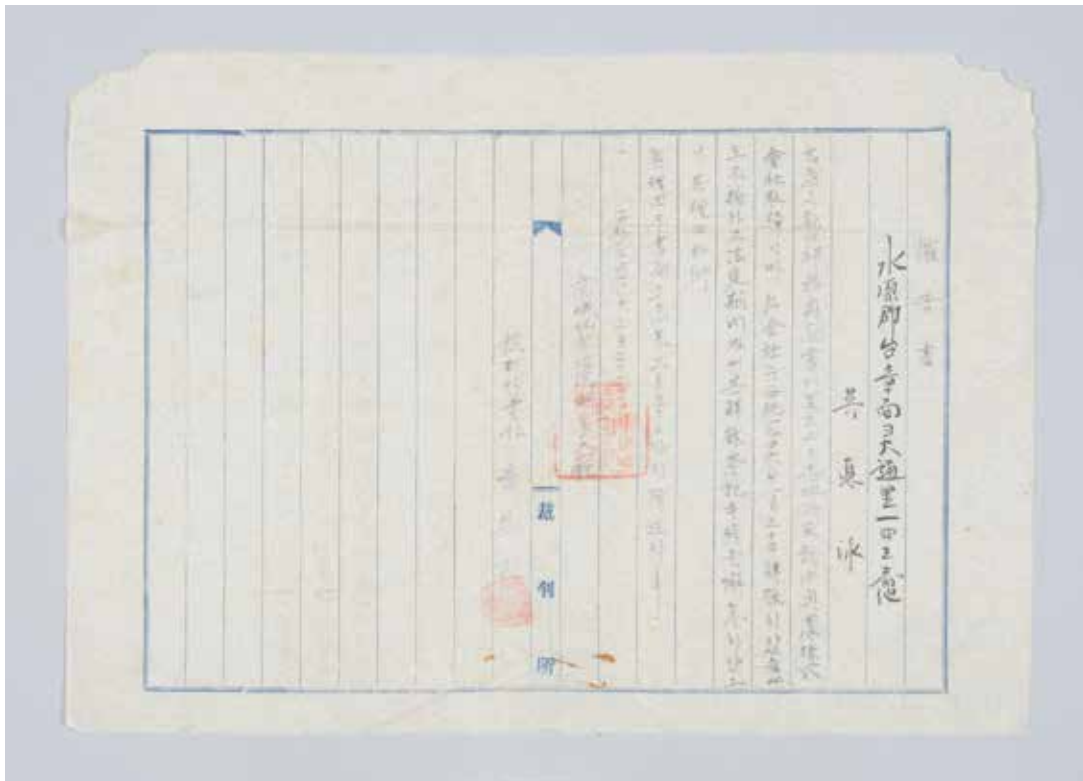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용수흥농주식회사가 1946년 1월 30일 해산하였음에도 법정 기간 내에 해산 등기 수속을 밟지 않아 오는 3월 30일까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사장 오성선에게 보낸 최고서이다. 1944년 용수농계의 해산에 이어 용수흥농주식회사도 1946년 1월 해산하였다. 이로써 일제시기 출범하여 지역민들의 생업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해 온 용수흥농주식회사는 30여 년의 역사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최고서 催告書

4-2-31 | 京城地方法院水原支廳-吳惠泳
| 1946년 3월 21일 | 25.8×36.3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용수홍농주식회사가 1946년 1월 30일 해산하였음에도 법정 기간 내에 해산 등기 수속을 밟지 않아 오는 3월 30일까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취체역 오덕영에게 보낸 최고서이다. 법원에서는 사장 오성선뿐만 아니라 용수홍농주식회사의 임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최고서를 발급하고 있다.



시말서始末書

4-2-33 | 書記 元容文-養慰資金貯蓄組合 理事
| 昭和 6년(1931) 10월 23일 | 24.5×33.4

양위자금저축조합養慰資金貯蓄組合에 근무하는 서기 원용문元容文이 소화 4년 7월 27일부터 소화 6년 23일까지 27개월간 현금 출납을 취급하면서 1,588원 91전이라는 큰 금액을 소비하였기에 처분만 바란다는 내용으로 양위자금저축조합 이사에게 제출한 시말서이다.



사직원辭職願

4-2-34 | 養慰資金貯蓄組合 理事 吳晩善-養慰資金貯蓄組合長 | 昭和 6년(1931) 11월 | 24.5×33.4

양위자금저축조합 이사 오만선吳晩善이 조합의 감독을 잘 수행하지 못하여 제출한 사직원이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인수인계 자리에 입회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볼 때 오만선이 제출한 사직원은 수리되지 않았던 것 같다.



영수증서領收證書 송부送付의 件件

4-2-35 | 京城府尹-養慰資金貯蓄組合 吳性善
| 昭和 8년(1933) 7월 29일 | 23×14.4

소화 8년(1933) 7월 29일 경성부윤京城府尹이 양위자금저축조합 오성선에
게 지방세 중 가옥세와 가옥세 부가세로 4원 95전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문서로 영수증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이때 납부한 지방세는 전년도 1기분
지방세로 납기일이 지나 독촉 수수료도 함께 지불하고 있다. 양위자금저축
조합은 용인에 있었으나 경성에 지방세를 납부한 이유는 조합에서 시행한
교육사업과 관련이 있다. 오성선은 양위자금저축조합 이름으로 학계學契를
만들어 그 자금으로 경성에 학생 기숙사를 설립하여 조합원의 자제 중 유
학하는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갈리개간기 新葛里開墾記

4-2-36 | 養慰資金貯蓄組合-養慰資金貯蓄組合
| 연대 미상 | 25.4×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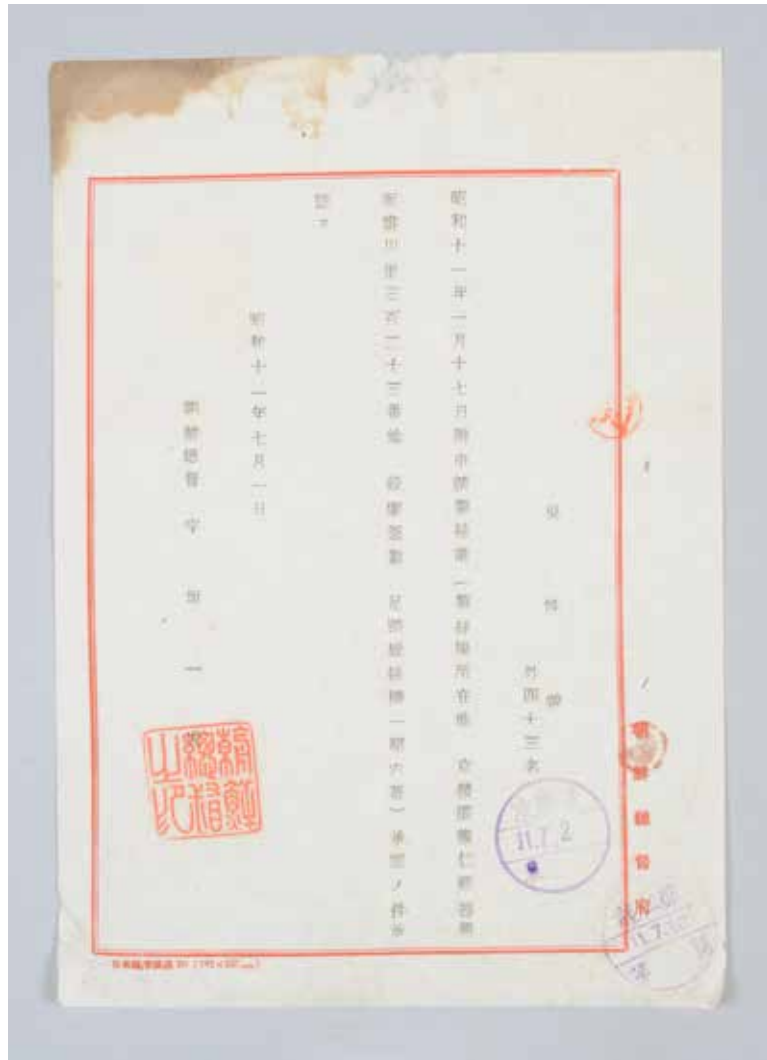
양위자금저축조합에서 시행한 신갈리 개간에 소요된 인부들의 임금, 지불한 사람의 성명, 금액을 기록하였다. 5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일간 총 125원 48전이 지불되었다.

구분	성명	금액	비고
인부	김영남	10원	5월 14일
인부	이철호	10원	5월 15일
인부	박정호	10원	5월 16일
인부	정철호	10원	5월 17일
인부	최철호	10원	5월 18일
인부	한철호	10원	5월 19일
인부	정철호	10원	5월 20일
인부	최철호	10원	5월 21일
인부	한철호	10원	5월 22일
인부	정철호	10원	5월 23일
인부	최철호	10원	5월 24일
인부	한철호	10원	5월 25일
인부	정철호	10원	5월 26일
인부	최철호	10원	5월 27일
인부	한철호	10원	5월 28일
인부	정철호	10원	5월 29일
인부	최철호	10원	5월 30일
인부	한철호	10원	5월 31일
인부	정철호	10원	6월 1일
인부	최철호	10원	6월 2일
인부	한철호	10원	6월 3일
인부	정철호	10원	6월 4일
인부	최철호	10원	6월 5일
인부	한철호	10원	6월 6일
인부	정철호	10원	6월 7일
인부	최철호	10원	6월 8일
인부	한철호	10원	6월 9일
인부	정철호	10원	6월 10일
인부	최철호	10원	6월 11일
인부	한철호	10원	6월 12일
인부	정철호	10원	6월 13일
인부	최철호	10원	6월 14일
인부	한철호	10원	6월 15일
인부	정철호	10원	6월 16일
인부	최철호	10원	6월 17일
인부	한철호	10원	6월 18일
인부	정철호	10원	6월 19일
인부	최철호	10원	6월 20일
인부	한철호	10원	6월 21일
인부	정철호	10원	6월 22일
인부	최철호	10원	6월 23일
인부	한철호	10원	6월 24일
인부	정철호	10원	6월 25일
인부	최철호	10원	6월 26일
인부	한철호	10원	6월 27일
인부	정철호	10원	6월 28일
인부	최철호	10원	6월 29일
인부	한철호	10원	6월 30일
인부	정철호	10원	6월 31일
인부	최철호	10원	7월 1일
인부	한철호	10원	7월 2일
인부	정철호	10원	7월 3일
인부	최철호	10원	7월 4일
인부	한철호	10원	7월 5일
인부	정철호	10원	7월 6일
인부	최철호	10원	7월 7일
인부	한철호	10원	7월 8일
인부	정철호	10원	7월 9일
인부	최철호	10원	7월 10일
인부	한철호	10원	7월 11일
인부	정철호	10원	7월 12일
인부	최철호	10원	7월 13일
인부	한철호	10원	7월 14일
인부	정철호	10원	7월 15일
인부	최철호	10원	7월 16일
인부	한철호	10원	7월 17일
인부	정철호	10원	7월 18일
인부	최철호	10원	7월 19일
인부	한철호	10원	7월 20일
인부	정철호	10원	7월 21일
인부	최철호	10원	7월 22일
인부	한철호	10원	7월 23일
인부	정철호	10원	7월 24일
인부	최철호	10원	7월 25일
인부	한철호	10원	7월 26일
인부	정철호	10원	7월 27일
인부	최철호	10원	7월 28일
인부	한철호	10원	7월 29일
인부	정철호	10원	7월 30일
인부	최철호	10원	7월 31일
인부	한철호	10원	8월 1일
인부	정철호	10원	8월 2일
인부	최철호	10원	8월 3일
인부	한철호	10원	8월 4일
인부	정철호	10원	8월 5일
인부	최철호	10원	8월 6일
인부	한철호	10원	8월 7일
인부	정철호	10원	8월 8일
인부	최철호	10원	8월 9일
인부	한철호	10원	8월 10일
인부	정철호	10원	8월 11일
인부	최철호	10원	8월 12일
인부	한철호	10원	8월 13일
인부	정철호	10원	8월 14일
인부	최철호	10원	8월 15일
인부	한철호	10원	8월 16일
인부	정철호	10원	8월 17일
인부	최철호	10원	8월 18일
인부	한철호	10원	8월 19일
인부	정철호	10원	8월 20일
인부	최철호	10원	8월 21일
인부	한철호	10원	8월 22일
인부	정철호	10원	8월 23일
인부	최철호	10원	8월 24일
인부	한철호	10원	8월 25일
인부	정철호	10원	8월 26일
인부	최철호	10원	8월 27일
인부	한철호	10원	8월 28일
인부	정철호	10원	8월 29일
인부	최철호	10원	8월 30일
인부	한철호	10원	8월 31일
인부	정철호	10원	9월 1일
인부	최철호	10원	9월 2일
인부	한철호	10원	9월 3일
인부	정철호	10원	9월 4일
인부	최철호	10원	9월 5일
인부	한철호	10원	9월 6일
인부	정철호	10원	9월 7일
인부	최철호	10원	9월 8일
인부	한철호	10원	9월 9일
인부	정철호	10원	9월 10일
인부	최철호	10원	9월 11일
인부	한철호	10원	9월 12일
인부	정철호	10원	9월 13일
인부	최철호	10원	9월 14일
인부	한철호	10원	9월 15일
인부	정철호	10원	9월 16일
인부	최철호	10원	9월 17일
인부	한철호	10원	9월 18일
인부	정철호	10원	9월 19일
인부	최철호	10원	9월 20일
인부	한철호	10원	9월 21일
인부	정철호	10원	9월 22일
인부	최철호	10원	9월 23일
인부	한철호	10원	9월 24일
인부	정철호	10원	9월 25일
인부	최철호	10원	9월 26일
인부	한철호	10원	9월 27일
인부	정철호	10원	9월 28일
인부	최철호	10원	9월 29일
인부	한철호	10원	9월 30일
인부	정철호	10원	9월 31일
인부	최철호	10원	10월 1일
인부	한철호	10원	10월 2일
인부	정철호	10원	10월 3일
인부	최철호	10원	10월 4일
인부	한철호	10원	10월 5일
인부	정철호	10원	10월 6일
인부	최철호	10원	10월 7일
인부	한철호	10원	10월 8일
인부	정철호	10원	10월 9일
인부	최철호	10원	10월 10일
인부	한철호	10원	10월 11일
인부	정철호	10원	10월 12일
인부	최철호	10원	10월 13일
인부	한철호	10원	10월 14일
인부	정철호	10원	10월 15일
인부	최철호	10원	10월 16일
인부	한철호	10원	10월 17일
인부	정철호	10원	10월 18일
인부	최철호	10원	10월 19일
인부	한철호	10원	10월 20일
인부	정철호	10원	10월 21일
인부	최철호	10원	10월 22일
인부	한철호	10원	10월 23일
인부	정철호	10원	10월 24일
인부	최철호	10원	10월 25일
인부	한철호	10원	10월 26일
인부	정철호	10원	10월 27일
인부	최철호	10원	10월 28일
인부	한철호	10원	10월 29일
인부	정철호	10원	10월 30일
인부	최철호	10원	10월 31일
인부	한철호	10원	11월 1일
인부	정철호	10원	11월 2일
인부	최철호	10원	11월 3일
인부	한철호	10원	11월 4일
인부	정철호	10원	11월 5일
인부	최철호	10원	11월 6일
인부	한철호	10원	11월 7일
인부	정철호	10원	11월 8일
인부	최철호	10원	11월 9일
인부	한철호	10원	11월 10일
인부	정철호	10원	11월 11일
인부	최철호	10원	11월 12일
인부	한철호	10원	11월 13일
인부	정철호	10원	11월 14일
인부	최철호	10원	11월 15일
인부	한철호	10원	11월 16일
인부	정철호	10원	11월 17일
인부	최철호	10원	11월 18일
인부	한철호	10원	11월 19일
인부	정철호	10원	11월 20일
인부	최철호	10원	11월 21일
인부	한철호	10원	11월 22일
인부	정철호	10원	11월 23일
인부	최철호	10원	11월 24일
인부	한철호	10원	11월 25일
인부	정철호	10원	11월 26일
인부	최철호	10원	11월 27일
인부	한철호	10원	11월 28일
인부	정철호	10원	11월 29일
인부	최철호	10원	11월 30일
인부	한철호	10원	11월 31일
인부	정철호	10원	12월 1일
인부	최철호	10원	12월 2일
인부	한철호	10원	12월 3일
인부	정철호	10원	12월 4일
인부	최철호	10원	12월 5일
인부	한철호	10원	12월 6일
인부	정철호	10원	12월 7일
인부	최철호	10원	12월 8일
인부	한철호	10원	12월 9일
인부	정철호	10원	12월 10일
인부	최철호	10원	12월 11일
인부	한철호	10원	12월 12일
인부	정철호	10원	12월 13일
인부	최철호	10원	12월 14일
인부	한철호	10원	12월 15일
인부	정철호	10원	12월 16일
인부	최철호	10원	12월 17일
인부	한철호	10원	12월 18일
인부	정철호	10원	12월 19일
인부	최철호	10원	12월 20일
인부	한철호	10원	12월 21일
인부	정철호	10원	12월 22일
인부	최철호	10원	12월 23일
인부	한철호	10원	12월 24일
인부	정철호	10원	12월 25일
인부	최철호	10원	12월 26일
인부	한철호	10원	12월 27일
인부	정철호	10원	12월 28일
인부	최철호	10원	12월 29일
인부	한철호	10원	12월 30일
인부	정철호	10원	12월 31일

승인서 承認書

4-2-37 | 朝鮮總督 宇垣一成-吳性善 외 43명
| 昭和 11년(1936) 7월 1일 | 25.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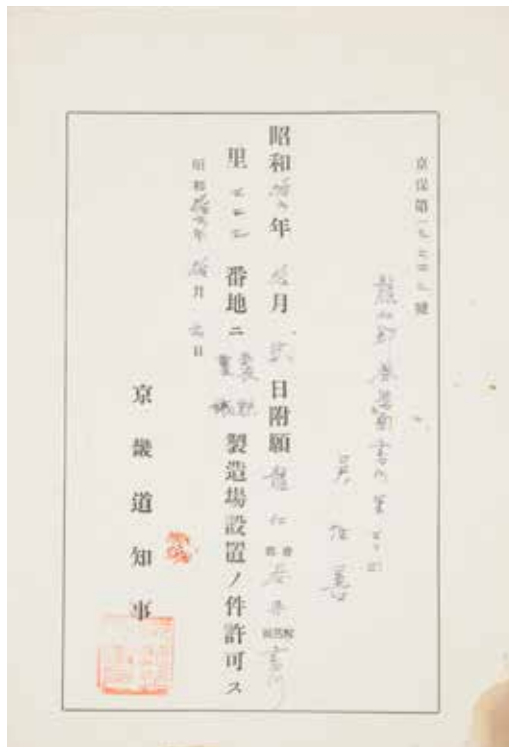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 宇垣一成이 1936년 1월 17일에 오성선이 신청한
제사업 製絲業을 승인한 문서이다.



京保 제19647호

4-2-38 | 京畿道知事-吳性善 | 昭和 16년(1941)
10월 6일 | 25.8×17.7

경기도지사가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304번지에 거주하는 오성선에게 소화 16년 10월 2일 오성선이 신청한 제사製絲 제조장製造場의 설치를 허가하면서 10월 6일에 발급한 공문서이다. 제조장은 용인군 서천리 323번지에 설치되었다.



京保 제19647호

4-2-39 | 京畿道知事-吳性善 | 昭和 17년(1942)
4월 20일 | 25.8×17.7

경기도지사가 오성선에게 소화 16년 10월 6일 설치를 허가한 제조장에 대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한 공문서이다.



제조장사용계 製造場使用届

용수기업조합에서 제조장 사용 관련 규칙을 개정하게 되어 경기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한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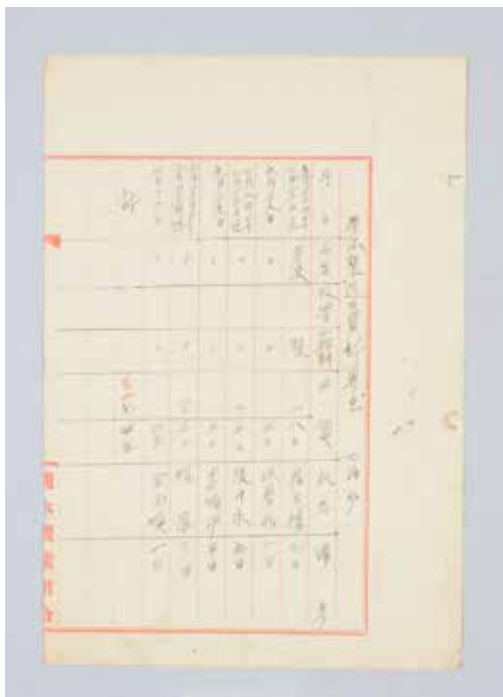
4-2-40 | 龍水機業組合 代表者 吳性善-京畿道知事
| 昭和 16년(1941) 9월 10일 | 24.7×16.8



제조공임계산서製造工賃計算書

4-2-41 | 龍水機業組合 | 1940년대 | 25,1×17,3

용수기업조합에서 저사^{苧絲} 제조에 참여한 직공 6명의 공임 내역을 기록한 계산서이다. 작업일과 작업 기한, 제조품명, 공임, 작업자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제조품은 저사^{苧絲}, 작업일은 반일이나 1일에서 많게는 31일, 공임은 작업 일수에 따라 1일 작업자는 25전에서 30전, 31일 작업자는 20원 30전이며, 6명의 공임으로 총 27원 45전이 지출되었다



영수증領收証

4-2-42 | 連川郡朔寧織物組合長-龍水織物工場長
| 昭和 19年(1944) 9월 6일 | 24,2×16,7

연천군삭녕직물조합장^{連川郡朔寧織物組合長}이 용수직물공장장^{龍水織物工場長}에게 3,45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영수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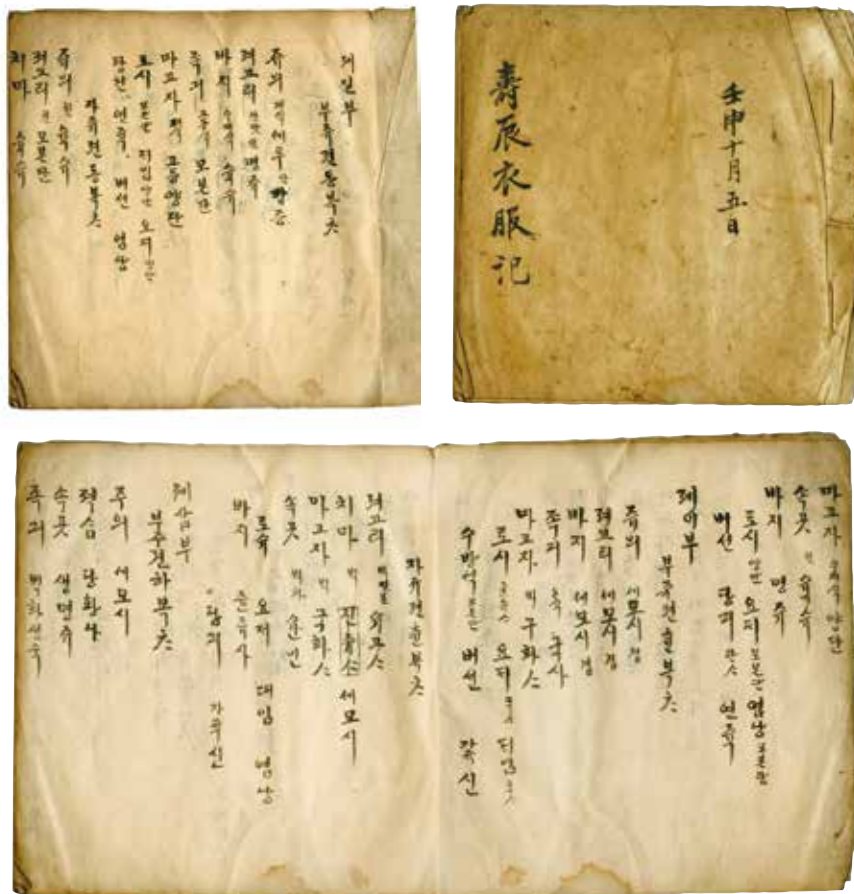
문중 및 의례 관련 문서

매매계약서 賣買契約書

4-3-1 | 賣主 吳善宗·買主 吳性善 | 昭和 2년(1927)
8월 | 27.2×55

오성선이 생가生家 증조고曾祖考 오태의吳泰義의 청명산산소위토清明山山所位
土를 마련하기 위해 오선종吳善宗에게 수원군 대장면 영통리 173번 답 1730
평 9두락 내 東上端 2두락지를 200원에 매입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이다. 상
기 답은 영통 大宅의 봉사답이었는데 그중 2두락을 宗錢으로 매입하였다.
단 관청의 문부상文簿上 등기는 변경하지 않고 오선종 명의로 그대로 두기
로 하였다. 매주賣主 측에서는 오직선吳直善, 오형선吳亨善이, 매주買主 측에
서는 오득영吳得泳, 오길영吳吉泳이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수진의복기壽辰衣服記

4-3-2 | 徐相琦(오성선의 子婦) | 壬申年(1932)
10월 5일 | 21×21.5

오성선의 회갑일인 1932년 10월 5일 오성선의 며느리 서씨(徐相琦)가 시아버지의 수연 잔치를 위해 마련한 의복에 대한 기록이다. 총 3부로 구성되어 1부에는 동복, 2부에는 춘복, 3부에는 하복의 목록을 시아버지(부주전)와 시어머니(자주전)로 구분하여 의복의 명칭, 색깔, 무늬, 옷감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예로 시아버지의 동복 목록을 살펴보면 주의, 저고리, 바지, 족기, 마고자, 토시, 대임, 요대, 탕건, 연죽, 버선, 염낭이며, 주의의 색깔은 재색에 겹감은 세루, 안감은 갑증, 저고리는 흰색에 옷감은 명주, 바지는 수재색에 옷감은 숙슈, 족기는 고등색에 옷감은 모본단, 마고자는 재색에 옷감은 고등양단, 토시는 모본단, 대임과 요대의 옷감은 양단으로 하였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외 누이댁 부모님, 큰댁, 둘째댁, 셋째댁, 새댁, 마부평 형님댁, 경성 서주사댁, 대전 김평위원댁, 노곡 이참봉댁 등 친족 어른들에게도 의복을 선물하였는데, 의복기 말미에 목록을 함께 수록하였다.



수연시부조기 壽宴時扶助記

4-3-3 | 吳性善 | 壬申年(1932) 10월 5일 | 21.3×20.5

1932년 10월 5일 오성선의 수연 잔치 때 작성한 부조기이다. 부조 내역은 소머리[牛頭], 돼지머리, 양지머리[陽支頭], 갈비[心肉] 등 고기, 정종, 탁주, 약주 등의 술, 사과[平果], 배, 메밀가루[白麪代], 국수[倭麪], 참기름[眞油], 농어, 민어, 인절미[引絶餅] 등 떡, 과일, 생선 등의 음식과 국화, 은잔[銀杯], 은수저, 금시계, 금안경, 전신거울[體鏡], 현금 및 그림[神仙圖]과 병풍[太極圖] 10첩 등이다. 그중 경기도청 유지자有志者 17명이 은잔[銀杯], 수리조합에서 4명이 정종 2병,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금시계와 금안경, 선농소작조합善農小作組合에서 전신거울[體鏡], 용수농계에서 현금 100원, 양위조합에서 현금 50원을 부조하였다. 오성선의 사회활동과 교유관계를 살필 수 있다.

경주이씨세계 慶州李氏世系

4-3-4 | 경주 이씨(오성선의 配) | 壬申年(1932)
10월 5일 | 14.8×9.6

오성선의 부인 경주 이씨가 한글로 작성한 경주 이씨 세계 및 선조들의 생신일과 기일에 대한 기록이다. 세계도에는 시조 및 32대조 거명(居明) 이하 경주 이씨의 부(父) 현석(顯錫)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의 휘를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고, 관직명과 배위의 본관을 한글로 기록하였으며, 경주 이씨 부모와 선비(先妣) 두 분의 생신일, 4대조비의 기일 및 큰댁의 8대조고비와 백부, 백모의 기일까지 한글로 기록하였다. 시댁 어른들의 제사를 모시는 여성을 위해 한글로 작성한 생신록과 기일록은 흔히 볼 수 있으나 친정 집안의 세계를 기록한 한글 문서는 흔치 않다. 오씨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에도 친가 선대의 세계와 생신 및 기일을 언문으로 꼼꼼히 기록하여 간직함으로써 경주 이씨 출신으로서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화은시집華隱詩集

4-3-5 | 吳得泳 | 1957년 이후 | 24×16.6

오성선의 백형 오철선吳喆善의 장자인 오득영吳得泳(1880~1957)의 시문집이다. 오득영의 자는 순필舜必, 화은華隱은 그의 호이다. 1899년부터 1900년까지 내장원 소속으로 수원군 영화역둔迎華驛屯과 서원둔書院屯의 사음舍音을 지냈으며, 1900년대 초에는 대한제국 육군에 근무하며 육군부위陸軍副尉, 진위보병鎭衛步兵 제4대대부第四大隊附 등을 지냈다. 일제시기에는 오성선과 함께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이사를 지내고, 그 외 주식회사 수원전기과 수원인쇄의 대주주로 이사를 역임하였다. 문집에는 수원 영통에 있는 영은대靈隱臺에 대해 읊은 시[靈隱臺], 안양을 지날 때 지은 시[過安養], 시흥의 구읍치를 지나며 지은 시[過始興舊邑有感], 청계산에 올라 지은 시[登淸溪山], 노량진, 용산역, 서빙고, 청량리, 동두천, 연천을 읊은 시, 지인들과 주고받은 차운시 및 별세 하루 전에 친우 한봉교韓鳳敎에게 남긴 시 등을 수록하고 있다.



승경도陞卿圖

4-3-6 | 일제시기 | 99.6×57.7

조선시대 관직명을 종이에 도표로 그려 놓고 옷이나 윤목輪木을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칸을 이동하여 고위 관직에 먼저 오르는 사람이 이기는 승경도陞卿圖 놀이의 말판이다. 문과는 영의정을 거쳐 봉조하에, 무과는 도원수를 거쳐 퇴직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승경도는 종경도從卿圖, 승정도陞政圖, 종정도從政圖라고도 부르며, 주로 양반집에서 자녀들에게 관직 체계를 가르치고 벼슬길에 대한 포부를 길러 주기 위해 이 놀이를 장려하였다고 한다.



여女的 혼鬼 강명화康明花

4-3-7 | 세창서관 | 일제시기 | 20.4×14.3

오성선이 소장하던 소설책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물셋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평양 기생 강명화의 실화를 다룬 소설이다. 강명화가 자살한 지 6개월 만에 그녀의 남편 역시 자살하였다. 이 사건은 소설로 만들어져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1967년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표지에 ‘서천리 오의관댁 강명화전’ 및 ‘계유연’(1933)이라 기록되어 있어 중추원의 관을 지낸 오성선 소장본이며 1933년에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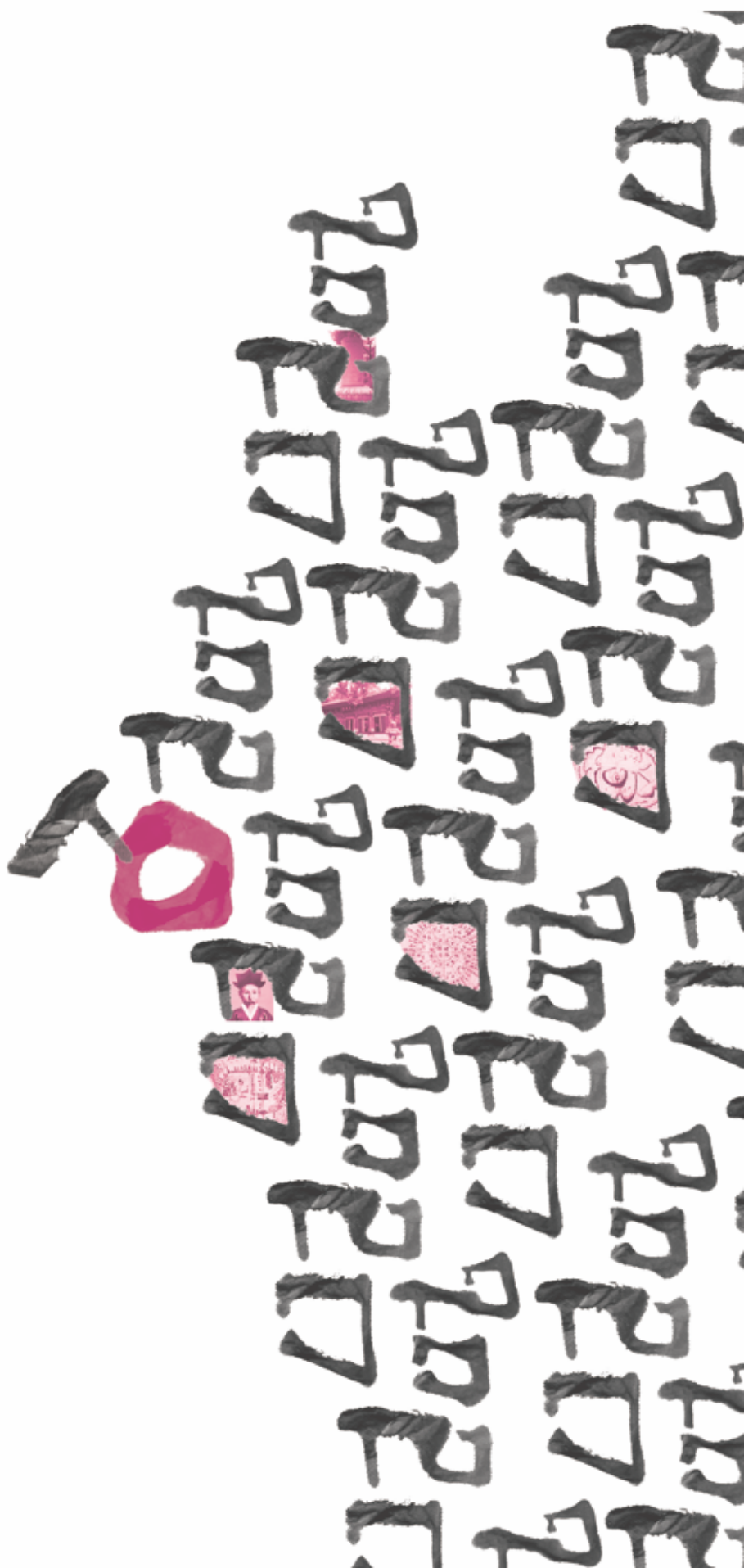




세 월 과 함 께 한 수 원 의 옛 문 서

부 록

가문별 소장자료 목록



수성 최씨가 소장자료 목록

번호	문서명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1-1-1	準戶口	康熙 23年	1684년 (숙종 10)	振威縣令	崔昌運	1684년(강희 23) 진위현振威縣 탄현면炭峴面 오좌동吾佐洞 제5통 제5호에 사는 통훈대부 前 行수안군수行遂安郡守 최창운崔昌運(1624~1692, 6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
1-1-2	準戶口	庚午年	1693년 (숙종 19) 추정	振威縣令	崔鎮遠	진위현 오좌동 제4통 제5호의 고故 군수 최창운崔昌運의 대자代子 □보□普가 진원鎮遠(28세)으로 개명改名하여 진위현에서 발급받은 준호구
1-1-3	準戶口	雍正 10年	1732년 (영조 8)	振威縣監	崔殷大	진위현 탄현면 제2 오좌동리 제10통 제2호에 사는 유학幼學 최은대崔殷大(44세)에게 진위현에서 발급한 준호구
1-1-4	準戶口	乾隆 10年	1745년 (영조 21)	振威縣令	崔殷大	진위현 오좌동리에 사는 유학幼學 최은대崔殷大에게 발급한 준호구
1-1-5	準戶口	道光 2年	1822년 (순조 22)	振威縣令	崔哲	진위현 오좌동리에 사는 유학幼學 최석崔哲에게 발급한 준호구
1-2-1	告身	順治 17年	1660년 (현종 1)	國王	崔亨運	1660년(순치 17) 4월 초5일 최형운崔亨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경상우도병마우후行慶尙右道兵馬虞侯로 임명하는 고신
1-2-2	告身	康熙 元年	1662년 (현종 3)	國王	崔亨運	1662년(강희 원년) 12월 30일 최형운崔亨運을 통훈대부通訓大夫 보성군수寶城郡守로 임명하는 고신
1-2-3	告身	順治 17年	1660년 (현종 1)	國王	崔昌運	1660년(순치 17) 9월 16일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옹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는 고신
1-2-4	告身	康熙 3年	1664년 (현종 5)	國王	崔昌運	1664년(강희 3) 10월 초3일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임명하는 고신
1-2-5	告身	康熙 7年	1668년 (현종 9)	國王	崔昌運	1668년(강희 7) 6월 24일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노강진수군첨절제사行老江鎮水軍僉節制使로 임명하는 고신
1-2-6	告身	康熙 11年	1672년 (현종 13)	國王	崔昌運	1672년(강희 11) 9월 26일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임명하는 고신

번호	문서명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1-2-7	告身	康熙 11年	1672년 (현종 13)	國王	崔昌運	1672년(강희 11) 10월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웅양위부사용行龍驤衛副司勇으로 임명하는 고신
1-2-8	告身	康熙 11年	1672년 (현종 13)	國王	崔昌運	1672년(강희 11) 11월 초9일 최창운崔昌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훈련원첨정行訓練院僉正으로 임명하는 고신
1-2-9	告身	康熙 11年	1672년 (현종 13)	國王	崔昌運	1672년(강희 11) 12월 최창운崔昌運을 황주진관黃州鎭管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로 임명하는 고신
1-2-10	告身	康熙 11年	1672년 (현종 13)	國王	崔昌運	1672년(강희 11) 12월 22일 최창운崔昌運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수안군수行遂安郡守로 임명하는 고신
1-2-11	傳令	계축 정월 29일	1673년 (현종 14) 추정	兼巡察使	崔昌運	계축년 정월 29일에 겸순찰사兼巡察使가 최창운崔昌運(추정)을 영장營將으로 그대로 차정差定하여 직임을 살피도록 국왕에게 장계狀啓를 올렸으므로, 군사 업무 제반 사항을 다해 살피고 군율을 어기지 말라는 뜻으로 발급한 문서
1-2-12	告身	康熙 19年	1680년 (숙종 6)	吏曹	崔鎭遠	1680년(강희 19) 9월 초2일에 이조吏曹에서 봉직랑奉直郎 최진원崔鎭遠을 통덕랑通德郎에 임명하는 고신
1-2-13	告身	康熙 42年	1703년 (숙종 29)	國王	崔鎭漢	1703년(강희 42) 3월 28일 최진한崔鎭漢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웅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고신
1-2-14	告身	康熙 46年	1707년 (숙종 33)	國王	崔鎭漢	1707년(강희 46) 7월에 최진한崔鎭漢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웅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고신
1-2-15	追贈教旨	康熙 47年	1708년 (숙종 34)	國王	崔士恂	1708년(강희 47) 2월 30일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충좌위부사용行忠佐衛副司勇 최사순崔士恂을 증손崔鎭漢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어 법전에 의거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추증追贈하는 교지
1-2-16	追贈教旨	康熙 47年	1708년 (숙종 34)	國王	端人朴氏 (崔士恂妻)	1708년(강희 47) 2월 30일 단인端人 박씨朴氏를 숙인淑人으로 추증하는 교지
1-2-17	追贈教旨	康熙 47年	1708년 (숙종 34)	國王	崔寓發	1708년(강희 47) 2월 30일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충좌위부사용行忠佐衛副司勇 최준발崔寓發을 손자 최진한이崔鎭漢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어 법전에 의거 통정대부通正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추증하는 고신
1-2-18	追贈教旨	康熙 47年	1708년 (숙종 34)	國王	淑人李氏 (崔寓發妻)	1708년(강희 47) 2월 30일 숙인淑人 이씨李氏를 손자 최진한崔鎭漢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하는 고신
1-2-19	差帖	康熙 24年	1759년 (영조 35)	忠勳府	崔天材	1759년(강희 24) 2월 충훈부忠勳府에서 최천재崔天材를 중의위忠義衛로 임명하는 차점差帖

번호	문서명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1-2-20	紅牌	道光 7年	1827년 (순조 27)	國王	崔元榮	1827년(道光 7) 4월에 별호사別號士 최원영崔元榮이 무과 병과 제33인으로 급제하여 발급받은 홍패紅牌
1-2-21	傳令	道光 7年 (丁亥年)	1827년 (순조 27)	國王	崔元榮	1827년(道光 7) 5월 출신出身 최원영崔元榮을 총리영별군관總理營別軍官으로 차정差定하는 전령傳令
1-2-22	勅命	光武 6年	1902년 (고종 39)	皇帝	崔基益	1902년(광무 6) 7월 1일에 최기익崔基益을 기사耆社에 들어간 것을 경축하는 뜻으로,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서陞叙하는 칙명
1-2-23	勅命	光武 8年	1904년 (고종 41)	皇帝	崔基益	1904년(광무 8) 2월 20일 정3품인 최기익崔基益을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서陞叙하는 칙명
1-2-24	勅命	光武 8年	1904년 (고종 41)	皇帝	淑夫人 尹氏 (崔基益妻)	1904년(광무 8) 2월 20일 숙부인淑夫人 윤씨尹氏를 남편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정부인貞夫人으로 임명하는 칙명
1-2-25	勅命	光武 8年	1904년 (고종 41)	皇帝	崔道健	1904년(광무 8) 2월 20일 학생學生 최도건崔道健을 증손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6품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추증追贈하는 칙명
1-2-26	勅命	光武 8年	1904년 (고종 41)	皇帝	孺人 李氏 (崔道健妻)	1904년(광무 8) 2월 20일 유인孺人 이씨李氏를 증손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숙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하는 칙명
1-2-27	勅命	光武 8年	1904년 (고종 41)	皇帝	崔梓	1904년(광무 8) 2월 20일 학생學生 최재崔梓를 손자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추증追贈하는 칙명
1-2-28	勅命	光武 8年	1904년 (고종 41)	皇帝	孺人 李氏 (崔梓妻)	1904년(광무 8) 2월 20일 유인孺人 이씨李氏를 손자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숙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하는 칙명
1-2-29	勅命	光武 8年	1904년 (고종 41)	皇帝	崔元榮	1904년(광무 8) 2월 20일 학생學生 최원영崔元榮을 아들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종3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추증追贈하는 칙명
1-2-30	勅命	光武 8年	1904년 (고종 41)	皇帝	孺人 權氏 (崔元榮妻)	1904년(광무 8) 2월 20일 유인孺人 권씨權氏를 아들인 최기익崔基益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하는 칙명
1-3-1	等狀	壬戌	1802년 (순조 22)	崔始大 외	振威縣令	최시대를 비롯한 수성 최씨 문중의 여러 사람이 함께 올린 등장等狀으로, 이정복李正福이 최유崔宥의 후록後錄에 투장偷葬하였으므로 현장을 상제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

번호	문서명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1-3-2	單子	丁酉年 10 月 21日	1897년 (광무 1)	崔基益	振威郡守	일탄면一炭面 오좌동梧佐洞 유학幼學 최기익崔基益이 진위현감에게 올린 단자로, 이윤회李允會 처處의 포우脯牛 추심사推尋事로 이윤회를 성화같이 붙잡 아 태궤로 다스리고 옥에 가두어 소값 3,000여 냥 을 납부하도록 할 것을 청원하는 글 점련문기粘連文記로 같은 해 11월에 같은 문서가 있 음
1-3-3	明文	道光 9年 己丑 11月 9日	1829년 (순조 29)	幼學 金基洛	崔元榮	유학幼學 김기락金基洛이 최원영崔元榮에게 매매했 던 토지를 1829년(순조 29)에 환퇴還退하면서 작 성한 명문
1-3-4	明文	道光 25年 11月 29日	1845년 (헌종 11)	畵主 王生 員宅 奴 大奉年	崔氏 宗中	1845년(헌종 11)에 최씨崔氏 종중宗中에서 진위현振 威縣 일탄면一炭面 우동牛洞의 부자傳字 제25번답[分 畵] 7부負 2배미[夜味] 3두락斗落의 토지를 왕생원덕 王生員宅으로부터 25냥에 매득買得한 명문
1-3-5	明文	同治 2年 3 月 13日	1863년 (철종 14)	畵主 崔喪 人宅 四升	金敬心	1863년(철종 14)에 상중喪中에 있는 최씨댁崔氏宅 에서 토지를 10냥에 김경심金敬心에게 매매하는 문서
1-3-6	明文	同治 9年 閏10月 13日	1870년 (고종 7)	田主 金小丁	崔仁化	1870년(고종 7)에 김씨댁에서 최씨댁에 진위현振 威縣 일탄면一炭面 에 있는 적積자 20전田 15부負 1속 束과 21전田 1부 7속 束을 15냥에 매매한 문서
1-3-7	明文	光緒 9年 正月 22日	1883년 (고종 20) 1월	畵主 崔莫鍵	趙雲夏	1883년(고종 20)에 최명건崔莫鍵이 진위현振威縣 일탄면一炭面에 있는 복福자 29답畵 8부負 8속束 2 배미[夜味] 정조正租 6두락斗落을 95냥에 조운하趙雲 夏에게 매매한 문서
1-3-8	明文	光緒 15年 正月 日	1889년 (고종 26) 1월	畵主 金參奉 宅 奴 壯成	崔生員宅 奴 仍金	1889년(고종 26)에 김참봉댁金參奉宅에서 최생원 댁崔生員宅에 토지를 650냥에 매매한 문서
1-3-9	明文	光緒 17年 11月 日	1891년 (고종 28) 11월	畵主 趙生 員宅 奴 順每	奴 水甲	1891년(고종 28) 진위현振威縣 일탄면一炭面 오좌동 梧佐洞 복福자 29답畵 2배미 정조正租 5두락 8부 8 속과 연緣자 18답畵 3부負 6속 1배미 정조 3두락을 전문錢文 1,000냥에 방매하는 문서
1-3-10	明文	大韓 光武 4年 10月 29日	1900년 (광무 4) 10 월 29일	畵主 金箕喆	崔氏 宗中	1900년(광서 6) 10월 29일에 김기철金箕喆이 최씨 崔氏 종중宗中에게 진위현振威縣 일탄면一炭面 우곡 전평牛谷前坪에 있는 곡谷자 20답畵 4부負 4속束 정 조正租 3두락斗落을 1,500냥에 매매한 문서
1-3-11	明文	大韓 光武 4年 至月 23日	1900년 (광무 4) 11월 23일	畵主 崔承斗	崔氏 宗中 (宗孫 崔願汝)	1900년(광서 6) 11월 23일에 최승두崔承斗가 진위 현振威縣 일탄면一炭面 건지산동乾芝山洞에 있는 벽 壁자 47답畵 3부負 3속束과 48답 4부 4속 정조正租 4두락을 1,650냥에 수성 최씨 종중宗中에 매매한 문서

밀양 손씨가 소장자료 목록

번호	유형분류	문서명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2-1	敎令類	告身	光緒 16年 10月	1890년(高宗 27)	國王	孫源鎭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에 임명함.
2-2	敎令類	告身	光緒 16年 10月	1890년(高宗 2)	國王	孺人 林氏 (孫源鎭 妻)	정부인貞夫人으로 봉封함. 남편인 손원진孫源鎭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종 2품)의 실직을 받아 법전의 규정에 의해 임명함.
2-3	敎令類	告身	光緒 16年 10月	1890년(高宗 27)	國王	孫貴載(孫源鎭의 考)	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로 추증追贈함. 아들인 손원진이 동지중추부사(종2품)의 실직을 받아 법전의 규정에 의해 추증함.
2-4	敎令類	告身	光緒 16年 10月	1890년(高宗 27)	國王	孫海昌(孫源鎭의 祖考)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으로 추증함. 손자인 손원진이 동지중추부사(종 2품)의 실직을 받아 법전의 규정에 의해 추증함.
2-5	敎令類	告身	光緒 16年 10月	1890년(高宗 27)	國王	孺人 李氏 (孫源鎭의 祖妣)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함. 손자인 손원진이 동지중추부사(종2품)의 실직을 받아 법전의 규정에 의해 추증함.
2-6	敎令類	告身	光緒 16年 10月	1890년(高宗 27)	國王	孫相龍(孫源鎭의 曾祖考)	통정대부사복시정通政大夫司僕寺正으로 추증함. 증손자인 손원진이 동지중추부사(종2품)의 실직을 받아 법전의 규정에 의해 추증함.
2-7	敎令類	告身	光緒 16年 10月	1890년(高宗 27)	國王	孫源鎭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겸오위장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兼五衛將으로 임명함.
2-8	敎令類	勅命	光武 6年 9月 25日	1902년(高宗 39)	國王	孫源鎭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함.
2-9	敎令類	紅牌	光緒 17年 4月	1891년(高宗 28)	國王	孫濟仁	무과 병과 제309인으로 급제함.

번호	유형분류	문서명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2-10	敎令類	紅牌	光緒 17年 7月	1891년(高宗 28)	國王	孫亮根	무과 병과 제312인으로 급제함.
2-11	牒關通 報類	傳令	戊寅 2月	1818년(純祖 18)	摠理 營大將	孫致榮	총리영별효사摠理營別驍士로 임명함.
2-12	敎令類	告身	嘉慶 24年 6月	1819년(純祖 19)	國王	孫致榮	선략장군행옹양위부사과宣略將軍行龍驤 衛副司果로 임명함.
2-13	敎令類	紅牌	道光 3年 4月 19日	1823년(純祖 23)	國王	孫致榮	무과 병과 제318인으로 급제함.
2-14	牒關通 報類	傳令	辛卯 8月	1831년(純祖 31)	摠理 營大將	孫致英	총리영좌사중초관摠理營左司中哨官으로 임명함.
2-15	敎令類	告身(5 品以下 告身)	道光 17년 12월	1837년(憲宗 3)	兵曹	孫致英	효력부위화령전수문장效力副尉華寧殿守 門將으로 임명함.
2-16	敎令類	告身	道光 21年 8月	1841년(憲宗 7)	國王	孫致榮	선략장군무신겸선전관宣略將軍武臣兼宣 傳官으로 임명함.
2-17	敎令類	告身	光緒 2年 6月	1876년(高宗 13)	國王	淑人 金氏 (孫致榮 妻)	숙부인淑夫人으로 봉함.
2-18	敎令類	紅牌	光緒15年 12月	1889년(高宗 26)	國王	孫宅鎭	무과 병과 제869인으로 급제함.
2-19	敎令類	告身	光緒 19年 10月	1893년(高宗 30)	國王	孫宅鎭	통정대부돈녕부도정通政大夫敦寧府都正 에 임명함.
2-20	敎令類	告身	光緒 19年 10月	1893년(高宗 30)	國王	孺人 徐氏 (孫宅鎭 妻)	숙부인淑夫人으로 봉함.
2-21	敎令類	紅牌	光緒 6年 8月	1880년(高宗 17)	國王	孫濟萬	무과 병과 제238인으로 급제함.
2-22	牒關通 報類	傳令	庚辰 9月	1880년(高宗 17)	摠理 營大將	孫濟萬	총리영별군관摠理營別軍官으로 임명함.
2-23	牒關通 報類	傳令	辛巳 3月	1881년(高宗 18)	摠理 營大將	孫濟萬	총리영우사중초관摠理營右司中哨官으로 임명함.
2-24	牒關通 報類	傳令	辛巳 8月	1881년(高宗 18)	摠理 營大將	孫濟萬	총리영우사좌초관摠理營右司左哨官으로 임명함.
2-25	敎令類	告身(5 品以下 告身)	光緒 15年 1月	1889년(高宗 26)	兵曹	孫濟萬	효력부위옹양위화령전效力副尉龍驤衛華 寧殿守門將으로 임명함.
2-26	敎令類	告身	光緒 19年 10月	1893년(高宗 30)	國王	孫濟萬	통훈대부행사헌부감찰通訓大夫行司憲府 監察로 임명함.

연안 차씨가 소장자료 목록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3-1	延安車氏世系	28.5×2.7	20세기 전반	20세기 전반			신라시대 차연달車連達과 중시조中始祖인 차효전車孝全을 시작으로 38세인 차요갑車堯甲까지 기록한 연안 차씨 족보이다.
3-2	家乘	2.2×1.3	조선 후기	조선후기			연안延安 차씨車氏의 세계世系를 적어 놓은 차씨가승車氏家乘이다. 각 집안의 부부의 생신과 기일을 기록하였다
3-3	準戶口	102×52	咸豐 5年	1855년 (철종 6)	水原行 留守	車海龍	함풍咸豐 5년 을묘年(1855)에 수원부水原府에서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 차해룡車海龍(52, 갑자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3-4	準戶口	74.5×62	同治 3年	1864년 (고종 1)	水原行 留守	車維天	동치同治 3년 갑자年(1864)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차유천車維天(56, 기사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3-5	準戶口	79.2×71.4	同治 6年	1867년 (고종 4)	水原行 留守	車維天	동치同治 6년 정묘年(1867)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유학幼學 차유천車維天(59, 기사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3-6	準戶口	88.8× 54.5	同治 9年	1870년 (고종 7)	水原行 留守	車胤根	동치同治 9년 경오年(1870)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유학幼學 차윤근車胤根(39, 임진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3-7	準戶口	71.5×43.1	同治 12年	1873년 (고종 10)	水原行 留守	車胤根	동치同治 12년 계유年(1873)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유학幼學 차윤근車胤根(42, 임진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3-8	準戶口	73.2× 44.3	光緒 5年	1879년 (고종 16)	水原行 留守	車胤根	광서光緒 5년 기묘年(1879)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유학幼學 차윤근車胤根(48, 임진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3-9	準戶口	118×57	光緒 20年	1894년 (고종 31)	水原行 留守	車丙珪	광서光緒 20년 갑오年(1894)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유학幼學 차병규車丙珪(34, 신유생)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3-10	告身	52.5×73.4	道光 20年 6月	1840년 6월 (헌종 6)	國王	車海龍	1840년 6월에 차해룡車海龍(1809~1897)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옹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3-11	告身	53.8×73.9	咸豐 10年 5月	1860년 5월 (철종 11)	國王	車維天	1860년 5월에 차유천車維天(1809~1897)을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3-12	牒呈	66.3×55	甲寅 12月	1854년 12월 17일(철종 5)	尊位 金連植 等	兼上使	갑인년(1854) 12월에 남부南部 구천동龜川洞의 존위尊位 김연식金連植 등이 상영上營에다가 차해룡車海龍의 효도에 대해 포상을 해 달라고 올린 첩정牒呈이다.
3-13	牒呈	62×54.2	甲寅 12月	1854년 12월 18일(철종 5)	尊位 金連植 等	守令	갑인년(1854) 12월에 남부南部 구천동龜川洞의 존위尊位 김연식金連植 등이 수원부사水原府事府에게 차해룡車海龍의 효도에 대해 포상을 해 달라고 올린 첩정牒呈이다.
3-14	白活	발괄 63.8×35.4 도형 58.5×32.4	癸亥 3月	1863년 3월 24일 (철종 14)	車海龍	守令	계해년(1863) 3월에 서리書吏 차해룡車海龍이 수령한테 벌목처의 경계를 정해 달라고 올린 소송장인 발괄白活과 이를 처리한 적간도형摘奸圖形이다.
3-15	山圖	49.3×62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수원 갈담면葛潭面 곡촌谷村의 산세를 그린 산도山圖이다.
3-16	山圖	35.4×42.5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수원 흑암黑巖에 있는 연안 차씨 산소를 풍수적으로 해석한 산의 도형圖形이다.
3-17	各處山直姓名	23.3×17.5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명당리明堂里, 산정리山井里, 필산筆山, 사창坪社倉坪, 수원水原 문시면文市面 검암동檢巖洞에 있는 산소를 지키는 산지기 명단이다.
3-18	葬事擇日記	35.7×4	8月 初3日	1818년 8월 3일(순조 18)	地官	車茂鳳	무인년(1818)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차득대車得大(1732~1782)의 둘째 부인인 경주慶州 김씨金氏(1737~1818)를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3-19	葬事擇日記	피봉 31.8×6.5 내지 31.6×44	戊申年 12月 15日	1848년 12월 15일 (헌종 14)	地官 局房	車元鶴	무신년(1848)에 차무봉車茂鳳(1768~1848)을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3-20	葬事擇日記	피봉 34.2×7 내지 3×48.5	戊申年 12月 初2日	1848년 12월 15일 (헌종 14)	地官 閱輔景	車義龍	무신년(1848)에 차무봉車茂鳳(1768~1848)을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이는 앞에 동일한 장사택일기가 존재한다.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3-21	葬事 擇日記	피봉 34.5 ×7.1 내지 34.5 ×56	壬子年 12月 15日	1852년 12월 15일(철종 3)	地官 閔輔景	車海龍	임 자 년(1852)에 차 무 봉 車茂鳳(1768~1848)의 부인 김해金海 김씨金氏(1825~1848)를 장사지내면서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3-22	葬事 擇日記	봉투 33.5 ×6.5 내지 大 33.2× 44.7 내지 小 22.8× 33.5	咸豐 10年 庚申 閏3月 27日	1860년 윤3 월 27일 (철종 11)	地官	車胤根	경신년(1860) 윤3월 27일에 차윤근車胤根(1832~1883)의 부인인 순흥順興 안씨安氏(1842~1860)를 장사를 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3-23	葬事 擇日記	피봉 28.8 ×5.9 내지 大 27.5×4 내지小 25.2×8.8	庚申年 7月 29日	1860년경 (철종 11)	地官 洪 生		1860년의 경신년으로 추정하는 대상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장사택일기이다.
3-24	葬事 擇日記	피봉 31.1 ×6.3 내지 31× 43.7	壬戌年 閏8月 初10日	1862년 윤8 월 17일 (철종 13)	地官 閔輔景	車榮八	임 술 년(1862)에 차 윤 식 車胤植(1825~1860)과 부인인 수성隋城 최씨崔氏(1825~1848)를 합장合葬하면서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3-25	葬事 擇日記	피봉 31.5 ×6.5 내지 3.9× 43.8	癸亥年 2月 18日	1863년 2월 18일 (철종 14)	地官 閔輔景	車岩回	갑 자 년(1864)에 차 해 룡 車海龍(1809~1897)의 부인 나주羅州 임씨林氏(1805~1862)를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3-26	葬事 擇日記	피봉 31.1 ×6.4 내지 31× 43.9	甲子年 4月 24日	1864년 4월 24일(고종 1)	地官	車海龍	갑자년(1864)에 차해룡車海龍의 부인 나주 임씨를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3-27	問山記	23.7×57	甲子年 4月 24日	1864년 4월 24일(고종 1)	地官	車海龍	갑자년(1864)에 차해룡車海龍의 부인 나주 임씨의 장지에 대해 풀이한 문산기問山記이다.
3-28	葬事 擇日記	49.5× 51.8	10月 11日	1892년 10월 11일 (고종 29)	地官	車命龍	임 진 년(1892)에 차 명 룡 車命龍(1805~1897)의 부인 순흥順興 안씨安氏(1803~1892)를 장사지내기 위해 작성한 장사택일기이다.
3-29	裁穴 法圖	36.3× 41.4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도선국사道詵國師(827~898)가 지은 풍수風水의 혈 자리 정하는 방법을 적은 도형이다.
3-30	告由文	24×9.4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신주神主를 묻으면서 사용한 고유문告由文의 서식을 베껴놓은 것이다.
3-31	喪禮 祝文式	21.7×17.8	1917년	1917년			상례喪禮 때 사용하는 축문祝文의 서식을 필사한 서책이다.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3-32	時憲書	29.7×15	大清 同治 6年丁卯	1867년 (고종 4)	觀象監		관상감觀象監에서 간행한 1867년도의 목판본 책력冊曆이다. 책명은 '대청동치육년세차정묘시헌서大清同治六年歲次丁卯時憲書'이다.
3-33	生辰忌日錄	16.5×31.5	연대미상	연대미상			차득대車得大(1732~1782)에서 차한용(1897~?)까지 생신과 기일, 장지葬地를 기록한 기록지이다.
3-34	精選晩唐詩	27×18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이원李遠, 옹도雍陶 등 20인의 만당晩唐 시대 시인의 시를 초록해 필사한 것이다. 총 50장으로, 표지서명이 '정선만당시精選晩唐詩'이고 '인사'는 편차로 천지인 순서에 따라 세 번째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3-35	拓本帖	32×23	崇禎紀 元後 5丁丑 7月	1877년 (고종 14)	李夔		천수령千受齡(1702~1766)의 사적을 기록한 묘비명墓碑銘이다.
3-36	戶籍謄本	27×19.2	昭和 16年 9月 22日	1941년 9월 22일	水原邑長 梅原靜雄	車仲麟	1941년 9월 22일에 수원읍에서 차본중린車本仲麟에게 발급해 준 호적등본이다.
3-37	戶籍謄本	27.1×18.7	昭和 18年 4月 2日	1943년 4월 2일	水原邑長 梅原靜雄	車仲麟	1943년 4월 2일에 수원읍에서 차본중린車本仲麟에게 발급해 준 호적등본이다.
3-38	戶籍謄本	25.3×17.6	檀紀 4282年 7月 4日	1949년 7월 4일	水原邑長 李珍榮	車載昊	1949년 7월 4일에 수원읍에서 차재호車載昊에게 발급해 준 호적등본이다.
3-39	戶籍謄本	26.4×39.5	檀紀 4286年 2月 2日	1953년 2월 2일	水原市長 金漢福	車載昊	1953년 2월 2일에 수원시에서 차재호車載昊에게 발급해 준 호적등본이다.
3-40	표창장	32.4×44.5	1962년 5월 5일	1962년 5월 5일	수원시장 이백일	차화영	196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수원시장이 차화영에게 우량아로 선발되었기에 준 표창장이다.
3-41	보육증서	25.8×35.8	1965년 2월 27일	1965년 2월 27일	유치원장 이정구	차화영	1965년 2월 27일에 유치원장 이정구가 차화영에게 유치원의 보육과정을 마쳤으므로 주는 증서이다.
3-42	卒業證書	26.7×38	昭和 14年 3月 25日	1939년 3월 25일	水原新豊公立尋常小學校長	車載昊	1939년 3월 25일에 차재호車載昊가 수원신풍공립심상소학교水原新豊公立尋常小學校에서 6년 동안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면서 받은 졸업장이다.
3-43	卒業證書	26.3×37.2	昭和 19年 3月 27日	1944년 3월 27일	水原新豊公立國民學校長	車載益	1944년 3월 27일에 차재익車載益이 수원신풍공립국민학교水原新豊公立國民學校에서 6년 동안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면서 받은 졸업장이다.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3-44	四柱 單子	피봉25.5 × 6.7 내지24.2 × 41.5	1920년 무렵	1920년 무렵	車漢柱	崔福順	차한주車漢柱(1894~1942)가 혼인할 때 신부댁인 수성隋城 최씨崔氏 최복순崔福 順(1899~?)에게 보낸 사주단자이다.
3-45	請牒狀	15.5 × 21.4	檀紀 4292年 1月	1959년 1월 25일	車載益		1959년 1월 25일 차재익車載益과 정봉 순鄭鳳順이 결혼을 하면서 하객을 초대 하는 청첩장이다.
3-46	請牒狀	상자15.7 × 11.2 × 2.5 청첩장 15.2 × 1.5	檀紀 4292年 11月	1959년 11월	車載益		1959년 11월에 모친 최복순崔福順 (1899~?)의 회갑일이므로 하객을 초대 한다는 초대장이다.
3-47	절사의 축문서 식	18.8 × 13	1970년대	1970년대			1969년 가정의례법을 시행한 후에 만 든 절사의 축문서식을 한글로 등사한 것이다.
3-48	賻儀錄	33 × 37.8	1979年 10月 10日	1979년 10월 10일			상사喪事에 부의금賻儀金을 전달한 인 명과 액수를 적은 봉은 부의록賻儀錄이 다.
3-49	通知書	25.7 × 36.2	昭和 10年 12月 22日	1935년 12월 22일	京城保 險管理 所	車載昊	1935년 12월 22일에 경성보험관리소 京城保險管理所에서 차재호車載昊에게 그 동안 체결한 보험금을 돌려주니 찾아 가라는 통지서이다.
3-50	特別當 座預金 通帳	16.3 × 11.7	1936~ 1940년	1936~ 1940년	漢城銀 行水原 支店長 南丙熙	華北	1936년부터 1940년까지 화북華北이라 는 예금자가 입금한 것에 대한 예금통 장이다.
3-51	保險 證書	19.4 × 29.5	昭和 12年 4月 5日	1937년 4월 5일	朝鮮總 督府遞 信局長	車漢柱	1937년 4월 5일에 차한주車漢柱가 조 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의 종 신보험을 계약하고 받은 보험증서保險 證書이다.

해주 오씨가 소장자료 목록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4-1-1	龍仁郡 器興面 書川里 灌溉事業 計劃書	28.5×20.5	昭和 4년	1929년	書川里 貯水 池 新設工事 代表 吳性善	경기도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기흥면사무소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약 1리 반 거리에 있는 답촌 9정보(町步)에 용수를 보급하기 위한 관개사업계획서
4-1-2	土地改良事業補助金前渡申請	28.4×19.8	昭和 4년 5월 17일	1929년 5월 17일	龍仁郡 器興面 書川里 溜池新設工事代表者 吳性善	京畿道 知事	오성선(吳性善)이 유지(溜池) 신설공사를 5월 18일에 착수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전도금을 신청한 신청서
4-1-3	土地改良事業補助受領件	24.6×17	昭和 4년 5월 22일	1929년 5월 22일	龍仁郡 器興面 書川里 堤堰新設工事代表者 吳性善	龍仁 郡廳	농(農)제606호에 따라 본월 21일 토지개량사업 보조금 현금 3,149원을 수령하였음을 용인군청에 보고함.
4-1-4	器제442호 早害 求濟土地改良事業監督에 関한件	24.5×16.7	昭和 4년 6월 5일	1929년 6월 5일	器興面長	吳性善 洪思成	기흥면장이 오성선에게 보낸 토지개량사업의 감독 및 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4-1-5	請求書	24.4×16.7	昭和 4년 6월 21일	1929년 6월 21일	鈴木友吉	吳性善	서천리 제언 공사에서 일류언(溢流堰) 공사를 담당했던 영목우길(鈴木友吉)이 공사비를 청구한 청구서
4-1-6	領收証	24.5×16.7	昭和 4년 6월 22일	1929년 6월 22일	鈴木友吉	吳性善	영목우길(鈴木友吉)이 소(畵) 4년 6월 22일 일류언공사비 1,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영수증
4-1-7	器제1-227호 土地 改良地方費補助事業의件	17×24.7	昭和 4년 7월 9일	1929년 7월 9일	器興面長	吳性善 洪思成	토지개량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기흥면장의 통지
4-1-8	土地改良事業設計變更認可 신청의件	27.8×19.9	昭和 4년 8월 1일	1929년 8월 1일	龍仁郡 器興面 書川里 溜池新設工事代表者 吳性善	京畿道 知事	제언신설공사의 설계 변경에 대하여 오성선이 경기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4-1-9	龍仁郡 器興面 書川里 溜池工事 設計變更書	26.8×19.4	昭和 4년 8월 1일	1929년	龍仁郡 器興面 書川里 溜池新 設工事 代表者 吳性善	京畿道 知事	오성선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설계 변경 이유와 신 설공사비에산서
4-1-10	農제1042호	28.5×20.5	昭和 4년 8월 17일	1929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 渡邊忍	書川里 堤堰新 設工事 代表者 吳性善	8월 1일에 신청한 경기도 용 인군 서천리 소재 제언 신설 공사 설계 변경을 인가함.
4-1-11	器제1-382호 土 地改良事業設計 變更認可의件	27.4×19.5	昭和 4년 8월 22일	1929년 8월 22일	龍仁郡 器興 面長	書川里 吳性善	오성선이 신청한 설계 변경 건은 인가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는 예산 경리상 보조금 교부 의 가능성이 없음을 통지
4-1-12	工事竣工届	24.4×16.7	昭和 4년 8월 22일	1929년 8월 22일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溜池 新設工事 代表 吳性善	京畿道 知事	오성선이 용인군 기흥면 서 천리의 유지溜池 시설공사新 設工事が 완료되었음을 경기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준공 계
4-1-13	精算書 提出의 件	25.5×17.4	昭和 4년 10월 15일	1929년 10월 15일	龍仁郡 器興 面 書川里 堤 堰新設工事 代表者 吳性 善	京畿道 知事	본년 5월 15일 農農제606호 에 의해 보조받은 제언신설 공사에 대한 정산서 1건, 별 지 1통을 제출함.
4-1-14	精算書	28.5×20	昭和 4년 10월 15일	1929년 10월 15일	龍仁郡 器興 面 書川里 堤 堰新設工事 代表者 吳性 善	京畿道 知事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제언 신설공사비에 대한 정산서
4-1-15	土地改良地方費 補助事業의件	28×19.9	昭和 4년 10월 23일	1929년 10월 23일	書川里 貯水 池 新設工事 代表 吳性善	器興 面長	오성선이 서천리 제언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출래 형조서工事出來形調書와 공사 비 정산서를 제출함.
4-1-16	蒙利地主 및 小 作人 회의에 대 한 통지	25.1×17.3	昭和 4년 11월 20일	1929년 11월 20일	용인군 기흥 면 서천리 저 수지공사 대 표 吳性善	蒙利地 主 및 小作人	저수지공사 대표 오성선이 제언계 조직 및 저수지 유지 비 수봉 건 등에 대하여 저수 지 몽리지구蒙利地主 및 소작 인小作人 회의를 개최하니 출 석하라고 통지
4-1-17	器제1-227호 旱害 求濟土地改良事 業監督에 關한件	24.4×16.8	昭和 4년 12월 14일	1929년 12월 14일	龍仁郡 器興面長	吳性善	제언계 조직에 대하여 보고 하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제 출하지 않아 상부에서 독촉 이 왔으니, 본 문서가 도착하 는 즉시 제출할 것을 통지함.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4-1-18	土地改良地方費補助の件	25.3×17.6	昭和 4년 12월 16일	1929년 12월 16일	書川里 貯水池 新設工事 대표 吳性善	器興 面長	오성선이 제언계堤堰契의 규조規條 및 역원役員 명부 각 3통을 금일 제출함.
4-1-19	堤堰(沢)契規約	24.6×17.3	昭和 4년 12월 16일	1929년 12월 16일	書川里 貯水池 新設工事 대표 吳性善	器興 面長	서천리 제언계堤堰契의 목적, 조직, 사무소, 업무, 역원役員, 계원, 가입, 탈퇴, 권리, 의무, 회의 등을 규정한 규약
4-1-20	役員及契員名簿	24.5×16.7	昭和 4년 12월 16일	1929년 12월 16일	書川里 貯水池 新設工事 대표 吳性善	器興 面長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제언계堤堰契의 역원役員 및 계원契員 명부
4-1-21	書川里(佛堂谷)破坊工事負擔金	28×39.9			破坊工事組合長	破坊工事 조합원	용인군 서천리 파방공사조합장破坊工事組合長 오성선이 조합원들에게 불당곡佛堂谷의 파방공사를 위한 할당금미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문서
4-1-22	龍仁郡 器興面 書川里 貯水池 見取圖	54.8×79.2	昭和 5년	1930년	吳性善	器興 面長	용인군龍仁郡 기흥면器興面 서천리의 저수지 견취도, 신설한 저수지 두 곳의 위치와 면적 및 물리전담의 면적과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음.
4-1-23	지적도	40.3×54.6	昭和 4년 6월	1929년 6월	龍仁郡 指定測量員 張泰煥		용인군龍仁郡 기흥면器興面 서천리書川里의 임야와 전답에 대한 지적도로, 저수지 신설공사 이전의 지적도
4-1-24	龍庶 제168호(제언계설립인가)	27×19.6	昭和 5년 3월	1930년 3월	龍仁郡守 許燮	龍仁郡 器興面 書川里 堤堰契 設立代表者 吳性善	소화 5년 1월 오성선이 신청한 성화제成和堤와 만선제滿善堤의 설립設立 건을 인가함.
4-1-25	龍庶 제168호	27×19.6	昭和 5년 3월 1일	1930년 3월 1일	龍仁郡守 許燮	吳性善	용인군수 허섭許燮이 오성선을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성화제成和堤와 만선제滿善堤의 계장契長으로 지명함.
4-1-26	通知書	26.7×19.3	昭和 8년 6월 7일	1933년 6월 7일	東洋拓植株式會社 京城支店 金融係	吳性善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오성선에게 대부해 준 융통 자금에 대한 불입 기일이 가까워왔음을 통지
4-1-27	領收證	18.1×11.5	昭和 8년 7월 24일	1933년 7월 24일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吳性善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에서 오성선에게 198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영수증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4-1-28	支拂証	24.5×33.6	昭和 15년 6월 18일	1940년 6월 18일	農書土地改良 契 契長 吳性 善	嚴億燮	농서토지개량계農書土地改良 契 계장契長 오성선이 엄억섭 嚴億燮에게 274원 50전을 지 불한 지불증
4-1-29	貯水池水稅收入 記	24.7×17	昭和 6~ 19년	1931~ 1944년	저수지계	저수지 계	소화 6년(1931) 11월부터 소 화 19년(1944) 2월 17일까지 저수지계의 수입과 지출 내 역을 기록
4-1-30	歲入證憑書類綴	27.1×19.5	檀紀 4290년	1957년	書川土地改 良契	書川土 地改良 契	1957년 7월 5일 가공한 서천 리 토지개량계의 세입증빙 서류철
4-1-31	歲出證憑書類綴	27.5×19.5	檀紀 4290년	1957년	書川土地改 良契	書川土 地改良 契	1957년 서천토지개량계의 세출증빙서류철
4-1-32	出役台帳	27×19.4	檀紀 4290년	1957년	書川土地改 良契	書川土 地改良 契	1957년 7월 5일부터 12월 1일 까지 서천토지개량계의 공 역에 참여한 인부들의 명단 과 임금을 기록한 출역대장
4-1-33	會議關係書類綴	25.5×18.3	檀紀 4293년 3월 16일	1960년 3월 16일	貢稅土地改 良契	貢稅土 地改良 契	1960년 3월16일 오후 8시 30분 공세리 175번지에서 개최된 경기도 용인군 기흥 면 공세리 토지개량계의 총 회회의록
4-1-34	歲出證憑書類綴	26.7×19.1	檀紀 4293년 5월 15일	1960년 5월 15일	貢稅土地改 良契	貢稅土 地改良 契	1960년 공세토지개량계의 세출증빙서류철
4-1-35	米穀供出二対ス ル補給金支拂二 關スル件	26.8×39	昭和 19년 3월 23일	1944년 3월 23일	新葛今融組 合 理事	外書川 里長	신갈금융조합 이사가 외서 천리 이장에게 미국공출에 대해 통지
4-2-1	出資米及利息配 當米領收証	22.8×17.1	昭和 19년	1944년	出資主 吳性善	龍水 農契	출자주出資主 오성선이 출자 미(백미 17석)와 배당미(백 미 6두 8승)로 797원 64전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영수 증
4-2-2	利益配當米領收証	25.1×17.6	昭和 19년	1944년	趙觀鎬	龍水 農契	조관호趙觀鎬가 소화 17년도 (1942) 제31기 용수농계의 이익 배당금으로 백미 1석 10두 1승을 받았음을 확인한 영수증
4-2-3	領收証	24.2×16.2	昭和 19년	1944년	評議員 金本仁植	龍水 農契	소화 19년(1944) 용수농계가 해산하면서 보라리浦羅里에 거주하는 평의원評議員 김본 인식金本仁植에게 퇴직 위로 금 1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수 령하였음을 확인한 영수증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4-2-4	領收証	24×16.2	昭和 19년	1944년	幹事 吳台泳	龍水農契	소화 19년(1944) 용수농계가 해산하면서 서천리에 거주하는 간사幹事 오태영吳台泳에게 퇴직 위로금 1,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영수증
4-2-5	領收証	24.2×16.1	昭和 19년	1944년	契長 吳性善	龍水農契	소화 19년(1944) 용수농계가 해산하면서 서천리에 거주하는 계장契長 오성선吳性善에게 퇴직 위로금 5,5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영수증
4-2-6	龍水興農株式會社定款	27×49.8	昭和 4년	1929년	龍水興農株式會社	龍水興農株式會社	1929년 5월 10일 창립한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정관
4-2-7	제9기營業報告書	23.8×16.2	昭和 12년 1월 29일	1937년 1월 29일	龍水興農株式會社 취체역 사장 吳性善 외 취체역 4인	監查役 金周文	용수흥농주식회사의 1936년도 제9기 영업보고서
4-2-8	제14기營業報告書	24.4×16.5	昭和 17년 1월 11일	1942년 1월 11일	龍水興農株式會社 상무 취체역 겸 사장 吳性善 외 취체역 3인	監查役 韓翼敎, 吳惠泳	용수흥농주식회사의 1941년도 제14기 영업보고서
4-2-9	제15기營業報告書	24.2×16.5	昭和 18년 1월 13일	1943년 1월 13일	龍水興農株式會社 취체역 사장 吳性善 외 취체역 3인	監查役 韓翼敎, 吳惠泳	용수흥농주식회사의 1942년도 제15기 영업보고서
4-2-10	貸付에 關한 往復書類	29.2×20.4	昭和 7~8년	1932~ 1933년	龍水興農株式會社	龍水興農株式會社	소화 7년과 8년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수발한 대부에 관한 서류철
4-2-11	根抵堂權設定契約證書	28.2×19.9	大正 15년 7월 11일	1926년 7월 11일	채무자 金興石	채권자 오성선	채무자 김흥석金興石이 오성선에게 용인 고매리의 전답과 임야, 대지 등을 채권극도액 600원에 설정하면서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4-2-12	不動産鑑定報告書	25.7×18.8	昭和 15년 4월 19일	1940년 4월 19일	감정인 吳台泳	龍水興農株式會社長	최화순崔化順이 부동산을 담보로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부동산감정보고서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4-2-13	不動産鑑定報告書	24.8×16.9	昭和 15년 5월 14일	1940년 5월 14일	감정인 李應植	龍水興 農株式 會社長	이규봉李圭鳳이 부동산을 담 보로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부 동산감정보고서
4-2-14	不動産鑑定報告書	24.8×16.8	昭和 9년 10월 12일	1934년 10월 12일	감정인 吳台泳	龍水興 農株式 會社長	오만선吳晩善이 부동산을 담 보로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부 동산감정보고서
4-2-15	不動産鑑定報告書	24.8×16.8	昭和 15년 3월 1일	1940년 3월 1일	감정인 吳台泳	龍水興 農株式 會社長	임용호任溶鎬가 부동산을 담 보로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부 동산감정보고서
4-2-16	登記簿謄本	27.3×19.4	昭和 15년 6월 4일	1940년 6월 4일	경성지방법 원 수원지청	龍水興 農株式 會社	이규봉이 용수흥농주식회사 에서 전답을 담보로 대출하 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작성한 등기
4-2-17	返濟期日延期願	27.6×19.7	昭和 16년 1월 9일	1941년 1월 9일	채무자 任主宰	龍水興 農株式 會社	채무자 임주재任主宰가 용수 흥농주식회사에 대부금 반 제기일연장을 신청한 신청 서
4-2-18	契約書	27.4×39.6	昭和 16년 9월 10일	1941년 9월 10일	任主宰	龍水興 農株式 會社	임주재가 갚지 못한 차용금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 지의 소작료를 인도하기로 한 계약서
4-2-19	小作料引渡證書	27.4×39.4	昭和 16년 9월 10일	1941년 9월 10일	任主宰	龍水興 農株式 會社	임주재가 용수흥농주식회사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 용한 금액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여 해당 토지의 소작 16 년 소작료를 인도하기로 함.
4-2-20	小作料納入 承諾書	24.5×33.4	昭和 16년 9월	1941년 9월	小作人 金種默	龍水興 農株式 會社	임주재의 소유토지를 경작 하는 소작인 김종묵이 용수 흥농주식회사에 소작료납입 을 승낙한 승낙서
4-2-21	小作料納入 承諾書	24.5×33.4	昭和 16년 9월	1941년 9월	小作人 任溶鎬	龍水興 農株式 會社	임주재의 소유 토지를 경작 하는 소작인 임용호가 용수 흥농주식회사에 소작료 납 입을 승낙한 승낙서
4-2-22	株券領收證	24.5×17	昭和 3년 5월 30일	1928년 5월 30일	주주 李丙吉	龍水興 農株式 會社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주식 4 주를 양수하면서 작성한 영 수증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4-2-23	不動産目錄	26.6×19.2	연대 미상	연대 미상	사법서사서기	龍水興農株式會社	용수흥농주식회사에서 보유한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에 소재하는 전답과 대지의 지번과 지목, 지적을 기록한 부동산목록
4-2-24	株式讓受渡二付名儀書替請求書	26.7×19.5	연대 미상	연대 미상	양수인 尹學榮	龍水興農株式會社	윤학영 尹學榮이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주식 1주를 양수하고 불입금 250원을 납입하면서 명의 변경을 요구한 청구서
4-2-25	株式讓受渡二付名儀書替請求書	26.7×19.5	연대 미상	연대 미상	양도인 李丙吉	龍水興農株式會社	이병길 李丙吉이 용수흥농회사의 주식 병丙 제77호 1주를 양도하면서 명의 변경을 요구한 신청서
4-2-26	株式讓受渡二付名儀書替請求書	27.3×19.8	연대 미상	연대 미상	양수인 李行植	龍水興農株式會社	이행직 李行植이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주식 5주를 양수하고 불입금 125원을 납입하면서 명의 변경을 요구한 청구서
4-2-27	株式讓受渡二付名儀書替請求書	27.6×19.8	연대 미상	연대 미상	양수인 李禮善	龍水興農株式會社	이예선 李禮善이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주식 5주를 양수하고 불입금 125원을 납입하면서 명의 변경을 요구한 청구서
4-2-28	利益配當金領收証	25.3×17.9	昭和 19년 10월 6일	1944년 10월 6일	株主 李源俊	龍水興農株式會社	주주 株主 이원준 李源俊이 작성한 1943년 제 16기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 영수증
4-2-29	1945년도 配當金記入帳	28.2×19.3	1946년	1946년	龍水興農株式會社	龍水興農株式會社	1946년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한 1945년도 배당금 기입장
4-2-30	催告書	25.8×36.3	1946년 3월 21일	1946년 3월 21일	京城地方法院 水原支廳	吳性善	1월 30일에 해산한 용수흥농주식회사의 해산 등기 수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 제출을 요구
4-2-31	催告書	25.6×35.2	1946년 3월 21일	1946년 3월 21일	京城地方法院 水原支廳	吳惠泳	1월 30일에 해산한 용수흥농주식회사의 해산 등기 수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 제출을 요구
4-2-32	諸帳簿諸書類引繼引受目錄	24.5×33.5	昭和 7년 1월 10일	1932년 1월 10일	引繼者 元容文	引受者 李應植	양위자금저축조합 養慰資金貯蓄組合의 인수인계 목록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4-2-33	始末書	24.5×33.4	昭和 6년 10월 23일	1931년	書記 元容文	養慰資 金貯蓄 組合 理事	양위조합의 서기 원용문이 27개월간 현금 1,588원 9전을 을 착복하여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시말서
4-2-34	辭職願	24.5×33.4	昭和 6년 11월	1931년 11월	養慰資金貯 蓄組合 理事 吳晩善	養慰資 金貯蓄 組合長	양위자금저축조합 이사 오 만선吳晩善이 조합의 감독을 잘 수행하지 못하여 제출한 사직원
4-2-35	영수증서領收證 송부送付의 건件	23×14.4	昭和 8년 7월 29일	1933년	京城府尹	養慰資 金貯蓄 組合 吳性善	경성부윤京城府尹이 양위자 금저축조합 오성선에게 지 방세 중 가옥세와 가옥세 부 가세로 4원 95전을 수령하 였음을 확인한 영수증
4-2-36	新葛里開墾記	25.4×17.3	연대 미상	연대 미상	養慰資金貯 蓄組合	養慰資 金貯蓄 組合	양위자금저축조합에서 시행 한 신갈리 개간에 소요된 인 부들의 임금 등 지출 내역을 기록
4-2-37	承認書	25.6×18	昭和 11년 7월 1일	1936년 7월 1일	朝鮮總督 宇 垣一成	吳性善 외 43 명	조선총독 우원일성宇垣一成 이 1936년 1월 17일에 오성 선이 신청한 제사업製絲業을 승인한 문서
4-2-38	京保 제19647호	25.8×17.7	昭和 16년 10월 6일	1941년 10월 6일	京畿道知事	吳性善	경기도지사가 오성선이 신 청한 제사업製絲 제조장製造場 의 설치를 허가
4-2-39	京保 제19647호	25.8×17.7	昭和 17년 4월 20일	1942년 4월 20일	京畿道知事	吳性善	경기도지사가 오성선에게 소화 16년 10월 6일 설치를 허가한 제조장에 대하여 오 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 용하도록 허가
4-2-40	製造場使用届	24.7×16.8	昭和 16년 9월 10일	1941년 9월 10일	龍水機業組 合 代表者 吳 性善	京畿道 知事	용수기업조합에서 제조장 사용 관련 규칙을 개정하게 되어 경기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함.
4-2-41	製造工賃計算証	25.1×17.3	연대 미상	연대 미상	龍水機業組 合	龍水機 業組合	용수기업조합에서 저사업製絲 제조에 참여한 직공 6명의 공임내역을 기록한 계산서
4-2-42	領收証	24.2×16.7	昭和 19년 9월 6일	1944년 9월 6일	連川郡朔寧 織物組合長	龍水織 物工場 長	연천군삭녕직물조합장連 川郡朔寧織物組合長이 용수직 물공장장龍水織物工場長에게 3,45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 인

번호	문서명	크기	작성시기	서기년(왕력)	발급자	수취자	내용
4-3-1	賣買契約書	피봉 29.3 × 8.5 27.2 × 55	昭和 2년 8월	1927년 8월	賣主 吳善宗	吳性善	오성선吳性善이 생가生家 증고조曾祖考 오태의吳泰義의 위토位土를 마련하기 위해 오선종吳善宗에게 대장면台章面 영통리靈通里 173번 답 1,730평 9두락 내 동상단東上端 2두락지를 200원에 매입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4-3-2	壽辰衣服記	21 × 21.5	壬申 10월 5일	1932년 10월 5일	徐相琦(오성선의子婦)		오성선의 회갑일인 1932년 10월 5일 오성선의 며느리 서씨가 시아버지의 수연 잔치를 위해 마련한 의복에 대한 기록
4-3-3	壽宴時扶助記	21.3 × 20.5	壬申 10월 5일	1932년 10월 5일	吳性善		1932년 10월 5일 오성선의 수연 잔치 때 작성한 부조기
4-3-4	慶州李氏世系	14.8 × 9.6	일제시기	일제시기	경주 이씨 (오성선의配)		오성선의 부인 경주 이씨가 한글로 작성한 경주 이씨 세계 및 선조들의 생신일과 기일에 대한 기록
4-3-5	華隱詩集	24 × 16.6	1957년 이후	1957년 이후	吳得泳		오철선吳喆善의 장자인 오득영吳得泳의 시문집
4-3-6	陞卿圖	99.6 × 57.7	연대 미상	연대 미상			조선시대 관직명을 종이에 도표로 그려 놓고 윗이나 윤목輪木을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칸을 이동하여 고위 관직에 먼저 오르는 사람이 이기는 승경도陞卿圖 놀이의 말판
4-3-7	女の鬼 康明花	20.4 × 14.3	일제시기	일제시기	세창서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물셋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평양 기생 강명화의 실화를 다룬 소설로 오성선 소장본

집필위원(가나다 순)

김자운 공주대학교 강사
류현희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박경수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석사
윤성훈 태동고전연구소 연구원
이우석 건국대학교 강사
조정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박사과정
허홍범 과천시 추사박물관 학예사

수원시사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

디자인·인쇄

홍익문화사

서울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eeg.com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78-9

ISBN 978-89-87738-60-4(전 20권)